

ISSN :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4 / 2015. Winter



북극연구단
Korea Arctic Research Group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4. 2015 Winter

2015년 12월 31일 초판 발행

2018년 10월 31일 제 2판 발행

역은이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364

FAX 070-4850-8428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연자1길14 배재대학교 21세기관 448호

펴낸곳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NRF-2014 B0153)하에 시작,
2016년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NRF-2016 B0131)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한종만(Yenisey River, 2015)

목 차

✓ 북극연구단 소개

논 설

- 중국의 대북극 정책과 시사점 (한종만)
- 특별기고문: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И ЕГО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Б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СЕВЕРА ЕВРАЗИИ (И.К. Гаврилов)
-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계용택)
- 러시아 북방항로 통과와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미·러의 충돌 (배규성)
- 북극해의 자원개발현황과 북극항로 (예병환)
- 북극의 땅, 추코트카와 축지인 (김정훈)
-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사하 공화국, 추코트카의 사라져가는 소수 민족어 (서승현)
- 러시아 서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의 문양들 (계용택)
- 러시아 북극권 관광과 한국의 협력방안 (이재혁)
- 북극의 관문 - 러시아 무르만스크(Мурманск) (박종관)
- 북극항로:러시아 정복역사, 경제적 의미 (백영준)
-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원문번역 2부 (백영준)

부 록

- 북극권 관련 뉴스(계용택)
- 국내 북극권 연구자료 스크랩(권세빈)

북극연구단 소개

중국의 대북극 정책과 시사점*

한종만

I. 머리말

북극은 20세기 초까지 소수의 탐험가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전부터 북극 지역에 원주민은 거주하고 있었으며, 바이킹 족 그리고 러시아인과 앵글로 색슨 족 등이 어업활동과 모피 등의 수렵과 광산개발을 강화하면서 북극권 지역을 식민화하기도 했다. 냉전시대 북극은 폐쇄된 공간으로 미국 주도의 NATO와 소련의 참여한 군사적 대치 공간으로만 작용했다.

1987년 10월 1일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북극에서 냉전 상황을 종식시키고 북극을 평화지대로 조성하자는 ‘무르만스크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북유럽에서 핵탄두가 없는 지대의 설립, 북극해에서 해군활동의 제한, 해상교통의 이용과 자원개발과 과학탐사, 환경보호, 북극주민의 문제 해결 등의 초국경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¹⁾ 그후 북극권 8개국은 1991년 6월 핀란드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북극환경보호전략(AEPS: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의 채택, 1996년에 북극권 지역의 정부간 포럼으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출범하는 계기가 조성됐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간의 생활공간이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 북극권은 지정학적 가치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지경학적 가치로서 육해공 통합물류시스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국제사회의 초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북극양의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 풍부한 연료 및 원료자원, 수자원과 수산자원, 관광자원의 이용과 채굴이 용이한 상태로 변모하면서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국가(EU와 한·중·일 등)들의 북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팍스 아티카(Pax Arctica)²⁾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북극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면서 자원/물류 전쟁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극의 이용과 개발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협력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북극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북극권 연안국들은 자국의 안보는 물론 경제적 이득을 위해 영해 확장 등을 통해 주권적 관할권과 통행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극권 국가들의 군 활동과 기지 건설 등이 가시화되면서 북극에서 새로운 냉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 외에도 남극과는 달리 북극의 거버넌스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

* 이 논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무르만스크 선언 원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Gorbachev 1987, pp. 23-31).

2) 세계의 모든 패권 국가들은 바다의 지배를 통해 부상했다. 로마제국은 지중해를 통해 팍스 로마나(Pax Romana), 대영제국은 대서양을 통해 팍스 브리타니카(Pax Britanica), 미국은 태평양을 통해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 시대를 구축했다. 향후 북극해를 지배하는 국가 혹은 국가군의 팍스 아티카(Pax Arctica) 시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서 북극권 국가간 영토문제와 대륙붕 확정 문제, 북극항로의 자유로운 개방과 북극에 대해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비 북극권 국가들의 주장 등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북극 공간의 이용과 개발과정에서의 높은 경제적 편익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러 형태의 고비용 부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북극의 변화는 불확실성, 비예측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며, 글로벌 차원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문제뿐만 아니라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생물종 다양성의 위협성, 취약한 자연조건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태환경, 환경오염, 영구동토층 파괴와 토양침식 등이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13년 5월 스웨덴 키루나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의 정례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와 이탈리아가 영구 옵서버로서 지위가 확정되면서 북극이사회는 지역기구 차원을 넘어 글로벌 국제기구로 변모했다.

북극의 부상과 더불어 국제적으로 중국의 부상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북극 개입이 심화되면서 북극 문제는 글로벌 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북극 진출 현황과 과제를 조망하고, 또한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생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현재의 북극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접근법과 종합적 지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북극 개발과 이용에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불확실성을 밝히고 이해의 간극을 좁혀 북극 문제와 관련한 혁신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궁극적으로는 미래 한국사회 성장동력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과 활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 북극정책의 배경을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생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대북극 행위주체들을 정리한 후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공식 및 비공식적 입장을 정리하고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북극 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II. 중국의 북극정책의 배경

북극해의 해빙과 더불어 중국의 대북극 관심도도 고조되고 있다. 1979년 인공위성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북극해 여름철 빙하는 2012년까지 40%나 감소했으며, 빙하 두께도 동 기간 70% 정도로 얇아지고 있다. 2012년 8월 26일에 ‘국가설빙(雪氷)자료센터(NSIDC: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와 NASA는 인공위성 모니터링 이후 북극양에서 최소 빙하면적 신기록이 수립됐다고 공동 발표했다(NASA, 2012).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20~30년 내에 북극해는 여름철에 빙하가 없는 바다로 변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극은 모든 형태의 연료자원과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과 영구동토지대의 수자원은 물론 풍부한 한류성 수산자원과 생태관광 등 자원의 보고지역이며, 육해공의 물류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처녀지이다.³⁾

인간에게 우호적으로 변모하는 북극의 환경변화로 인해 북극의 자원개발과 물류잠재력의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중국은 대북극권 진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극 이해관

3) 남극대륙도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처녀지이지만 1959년 12월 1일에 체결된 남극조약으로 영유권이 유보되어 있으며, 연구목적이 아닌 모든 경제활동은 금지되고 있다. 북극지역의 자원/물류잠재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한중만 2014b, pp. 1~32).

계의 핵심은 북극 거버넌스의 주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자원개발과 항로 이용, 북극 연구 용량의 확대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중국 이미지 쇄신과 국제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중국의 북극 정책의 배경을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생태적/과학 연구 관점에서 분석한다. 3개의 관점은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1. 지정학적 관점

냉전 종식 이후 세계질서에는 두 가지 괄목할 만한 국제정세의 변화(북극과 중국의 부상)가 인지되고 있다. 북극의 지정학적 위치가 고도의 군사적 대립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국제 협력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문제는 국제무대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으며, 중국은 정치·경제적인 국제적 지위 상승으로 미국에 이어 제2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중국의 대외무역은 전적으로 해운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 해운 수송로의 대부분은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 특히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호르무즈해협의 위험성, 부분적으로 아덴만과 소말리아 해협에서의 빈번한 해적 활동 그리고 좁은 말라카 해협(1.5마일) 문제 등으로 중국은 지정학적 안보 차원에서 새로운 해운로인 북극항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라카 딜레마’의 해결책⁴⁾으로 부각된 중국 북극항로에 대한 편익과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분석한다.

중국은 UN해양법의 비준국가로서 UN해양법에 근거하여 북극해(EEZ 이외 해역)는 국제해역으로 자원채굴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북극 거버넌스 관련 결정과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중국학자들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극 이해관계를 UN해양법이 전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UN해양법은 북극연안국들에 EEZ 200마일(370km)을 지나 대륙붕 외연 확장을 요구할 경우, 영토 확장 가능성(350마일)을 부여할 수 있다. 북극연안국 5개 국가 중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가 대륙붕 확장 신청서를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캐나다도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UN해양법을 아직까지 상원에서 비준하지 않아 대륙붕 확장 가능성은 비준 안이 통과한 후 10년 이내에 가능하다.

모든 북극 연안국의 대륙붕 확장 신청서가 승인될 경우 북극해의 공해 면적은 2/3나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륙붕 연장 신청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북극 연안국이 북극해의 88%까지 영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Wodiske 2014, p. 314). 이는 북극해에서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자원개발 편익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극권 탄화수소자원의 80% 이상이 대륙붕 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비북극권 국가로서 북극해에서 EEZ를 초월하는 해양은 ‘인류공동의 유산’이며, 공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대부분의 비북극권 국가(EU 등)처럼 북극항로(북동항로와 북서항로)의 자유로운 항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4) 말라카 딜레마(중국 전체 해상운송의 85% 점유)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신실크로드 정책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 중 남방 해상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말레이 반도를 관통하는 운하건설과 중국 남부지역에서 미얀마 벵골 만과 파키스탄 카라치 항까지 철도연결을 꾀하고 있다(Moe 2015, p. 14).

<그림 1> 중국의 전통적 물류시스템 전도



Source: U.S. Department of Defense

출처: Moe(2015), p. 13.

중국해양대 귀페이칭(Guo Peiqing, 郭培清) 교수는 극지로부터의 원격성이 중국에 무관심이라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북극과 관련하여 중국의 중립주의 정책 포기를 제안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 지역의 주요 세력에서 글로벌 세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극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중국의 이해관계”라고 밝혔다(Jakobson and Pen 2012, p. 15).

중국 등 비북극권 국가의 북극해 영유권 주장에 대비해 북극연안국 5개국은 2008년에 그린란드 일루리샷 선언을 통해 대륙붕 확장문제는 UN해양법에 따른 폐쇄적 거버넌스를 지향했으며, 2011년 그린란드 누크 회의에서 북극이사회의 영구 읍서버 회원자격에 대해 기존의 거버넌스 준수 의무화 규정, 2013년 스웨덴 키루나 회의에서 영구 읍서버의 지위를 4년마다 갱신하는 원칙과 부속기구의 읍서버 매뉴얼을 채택했다(문진영, 김윤옥, 서현교 2014,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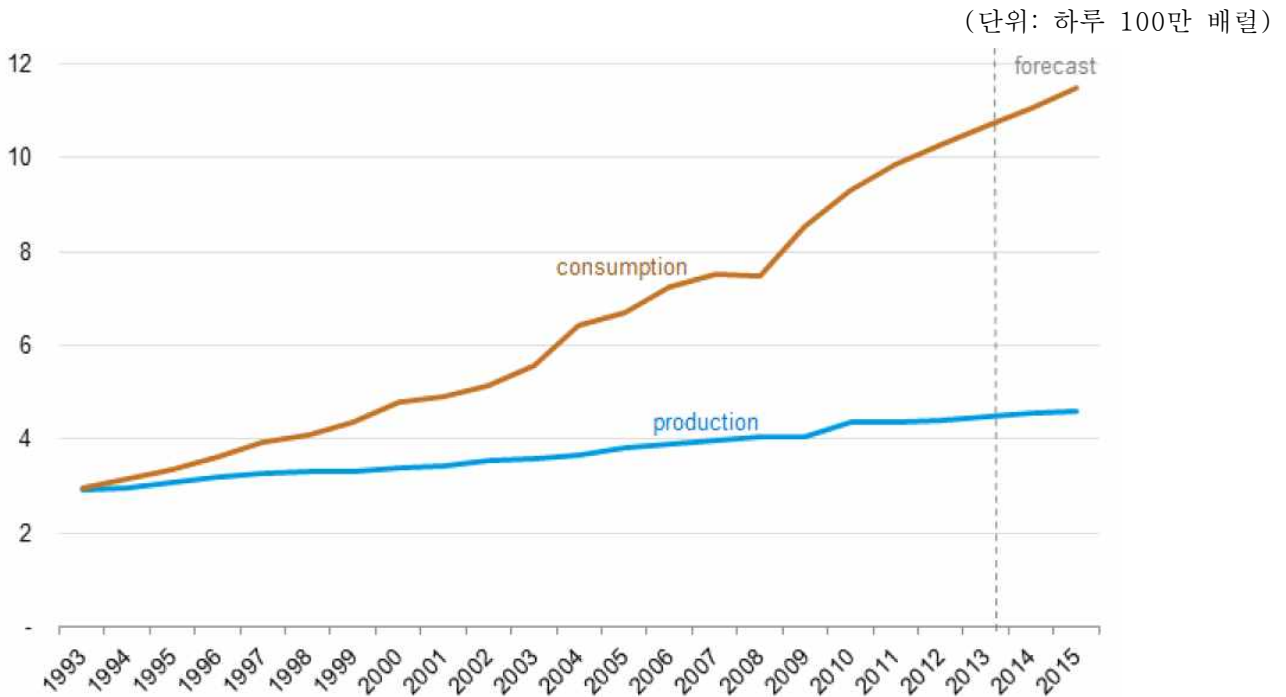
북극해와 남·남동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이어도, 필리핀, 베트남과의 난사제도 문제,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 등에서 영유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어 중국의 일방적인 북극해 영유권 주장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당분간 중국 정부는 부상하는 중국 지위에 대한 국제적 공포를 완화하기 위해 신중한 북극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견된다.

5) 북극 영토문제와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한중만 2011, pp. 200~206).

2. 지경학적 관점

1978년 덩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2014년 IMF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GDP 규모 10조 3,804억 달러로 미국 (17조 4,189억 달러)에 이어 2위이기는 하지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17조 6,173억 달러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다. 2015년 중국 GDP 규모는 11조 2,120억 달러(PPP 기준: 18조 9,7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⁶⁾

<그림 2> 1993-2015년 중국의 석유 생산과 소비 추이



출처: U. S. EIA(2014), 재인용: Moe(2015), p. 11.

세계화 덕택으로 중국의 무역규모도 급신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무역규모는 3조 8,7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13년 4조 1,600억 달러(2위 미국 3조 8,480억 달러), 2014년 12월 기준으로 4조 3,06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제1의 무역대국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도 세계 1위로 거의 4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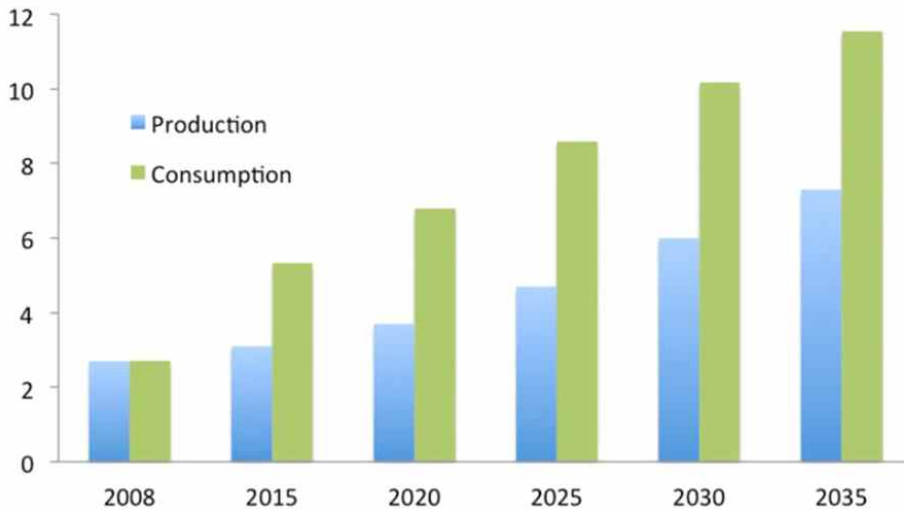
중국은 1994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으로 세계 제일의 석유 소비율을 기록하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다. 천연가스는 2008년까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기는 했지만, 2015년부터 수입규모는 석유수입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

2013년 중국의 회토류 생산규모는 10만 톤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90.9%이다. 중국은 회토류를 제외한 모든 연료자원은 물론 광물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6) 2015년 미국 GDP 규모는 18조 1,250억 달러로 추정했다(IMF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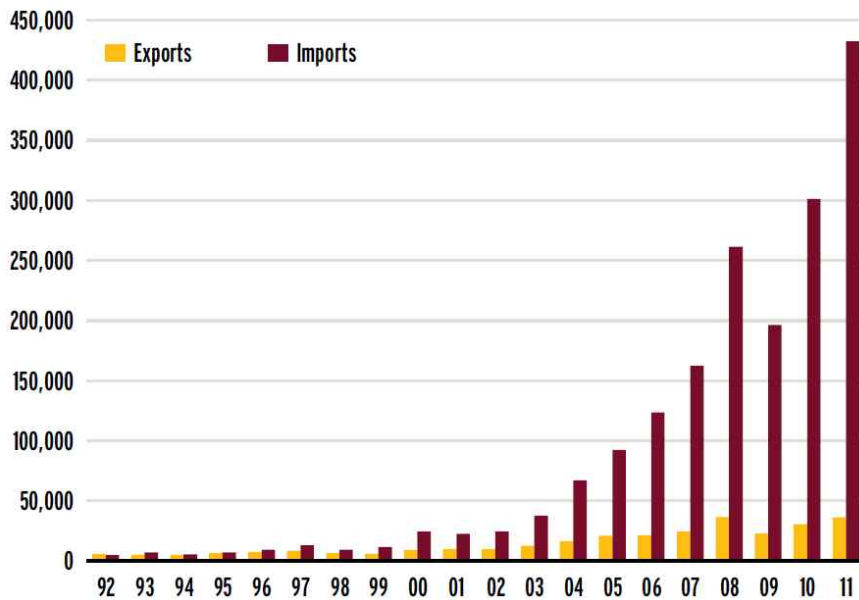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의 광물자원 수입규모는 4,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3> 2008~2035년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과 소비 추이
(단위: 1조m³)



출처: U. S.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11), 재인용: Moe(2015), p. 12.

<그림 4> 1992~2011년 중국의 광물 수출입 추이
(단위: 100만 달러)



출처: Willis(2013), p. 29.

세계의 연료·원료자원을 갈망하는 중국은 자원 보고지역인 북극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극은 연료자원 이외에도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 있다. 2008년 미국지질조사(USGS: United State Geological Survey) 보고에 따르면 북극권 내에 석유 900억 배럴,

천연가스 1,670조 입방피트 그리고 440억 배럴의 액화가스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경우 30%, 액화가스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 자원의 84%는 북극 대륙봉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USGS 2008).

에너지·자원 안보차원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수입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은 북극권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의 자원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란드의 광산투자를 계기로 희토류의 독점적 지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극 관심의 배경은 자원개발 이외에도 북극항로의 이용이 근처에 깔려 있다. 중국 관료와 학자들은 향후 10년 내에 북극이 많은 해운관련 사업과 수산업 그리고 관광부문 등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남극에서 크릴새우를 어획하고 있어 향후 수산자원이 풍부한 북극어업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극해의 어업은 글로벌 어획고의 약 5%를 점유하고 있으며, 해수면이 기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족의 새로운 서식지로 부상하고 있다. 북극권 주민의 대부분은 어업과 수산가공에 종사하고 있다. 바렌츠 해와 베링 해 한류성 수산자원의 보고지역으로, 러시아 수산물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바렌츠 해(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연간 어획량 규모는 400만 톤으로 그 가치는 500억 달러를 상회한다. 주요 어종은 대구, 대구류, 넙치, 별빙어, 대게, 청어 등이다.⁷⁾ 그린란드의 수산물은 총 수출의 90%이며, 아이슬란드 33%, 노르웨이 6%,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1%를 점유하고 있다. 2011년에 노르웨이는 대구 18억 달러, 연어 48억 달러를 수출했다(Emmerson 2012, p. 27).

<표 1> 2014년 12월 세계 10대 항만 컨테이너 처리 실적

(단위: 천TEU, %)

순위	항만		2013년	2013년 12월	2013년 1~12월	2014년 12월	2014년 1~12월	전년대비	
	2014	2013						동월	누계
합 계			200,606	16,808	200,606	17,855	211,307	6.2	5.3
1	1	상하이(中)	33,617	2,665	33,617	2,918	35,285	9.5	5.0
2	2	싱가포르	32,579	2,759	32,579	2,909	33,869	5.4	4.0
3	3	선전(中)	23,278	1,974	23,278	2,156	24,035	9.2	3.3
4	4	홍콩	22,352	2,061	22,352	1,816	22,283	-11.9	-0.3
5	6	닝보-저우산(中)	17,327	1,339	17,327	1,453	19,430	8.5	12.1
6	5	부산	17,686	1,544	17,686	1,557	18,652	0.8	5.5
7	7	칭다오(中)	15,520	1,151	15,520	1,461	16,700	26.9	7.6
8	8	광저우(中)	15,309	1,400	15,309	1,564	16,410	11.7	7.2
9	9	톈진(中)	13,000	1,032	13,000	1,078	14,050	4.5	8.1
10	10	카우슝	9,938	883	9,938	943	10,593	6.8	6.6
중국 총계(홍콩 포함)			140,403	11,622	140,403	12,446	148,193	7.1	5.6

출처: 해양수산부. 재인용: 배주현(2015).

7) "Development of the Arctic and the Future of Fisheries," (2013. 3. 22) *Radio of Russia*.

<표 2> 수에즈운하 대비 대중국 북동항로 거리 및 절감거리

(단위: 해저마일)

구분		중국								한국	일본
		다롄	톈진	칭다오	상하이	닝보	샤먼	선전/ 광저우	홍콩	부산	도쿄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8892	9076	8845	8821	8861	9227	9616*	9491	8380	8043
		3325	3317	3223	2986	2961	2024	1505	1535	3706	4464
폴란드	그다니아	8476	8660	8429	8405	8445	8811	9200	9075	7964	7627
		3325	3317	3223	2986	2961	2024	1505	1535	3706	4464
스웨덴	예테보리	8108	8292	8061	8037	8077	8443	8832	8707	7596	7259
		3325	3317	3223	2986	2961	2024	1505	1535	3706	4464
노르웨이	오슬로	8192	8321	8089	8066	8105	8471	8860	8736	7624	7287
		3356	3348	3254	3016	2992	2055	1536	1566	3737	4495
덴마크	오르후스	8192	8377	8146	8122	8161	8528	8916	8792	7681	7344
		3325	3317	3223	2986	2961	2024	1505	1535	3706	4464
핀란드	헬싱키	8741	8925	8694	8670	8710	9076	9465	9340	8229	7892
		3325	3317	3223	2986	2961	2024	1505	1535	3706	4464
에스토니아	탈린	8721	8906	8675	8651	8690	9056	9445	9321	8209	7872
		3325	3317	3223	2986	2961	2024	1505	1535	3716	4464
라트비아	리가	8674	8858	8627	8603	8643	9009	9398	9273	8162	7825
		3325	3317	3223	2986	2961	2024	1505	1535	3716	4464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8519	8703	8472	8449	8448	8854	9243	9119	8007	7670
		3325	3317	3223	2986	2961	2024	1505	1535	3716	4464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8169	8353	8122	8098	8138	8504	8893	8768	7657	7320
		3397	3389	3295	3057	3033	2096	1577	1271	3787	4536
독일	브레멘	8237	8422	8191	8167	8206	8573	8961	8837	7726	7388
		2992	2984	2890	2652	2628	1690	1172	1202	3373	4131
네덜란드	로테르담	8294	8478	8247	8223	8263	8629	9018	8893	7782	7445
		2701	2693	2599	2361	2337	1400	881	911	3082	3840
벨기에	안트워프	8367	8551	8320	8296	8336	8702	9091	8966	7855	7518
		2629	2621	2527	2289	2265	1328	809	839	3010	3768
영국	펠릭스토우	8297	8482	8251	8227	8266	8633	9021	8897	7786	7448
		2621	2614	2519	2282	2257	1320	801	832	3002	3702
아일랜드	더블린	8351	8535	8304	8281	8320	8686	9075	8951	7839	7502
		2487	2479	2385	2147	2123	1185	667	697	2868	3626
프랑스	르와브르	8454	8639	8408	8384	8424	8790	9179	9054	7943	7606
		2343	2336	2241	2004	1980	1042	524	554	2725	3483
포르투갈	리스본	9254	9438	9207	9184	9223	9589	9978	9854	8742	8405
		682	675	580	343	319	-619	-1138	-1107	1063	1822
스페인	발렌시아	9917	10102	9871	9847	9986	10252	10641	10517	9406	9068
		-520	-527	-622	-859	-884	-1821	-2340	-2309	-139	620
이탈리아	지오이아타오르	10553	10737	10506	10482	10522	10888	11277	11153	10041	9704
		-1864	-1871	-1966	-2203	-2227	-3165	-3683	-3653	-1482	-724

주: * 광저우 9,573마일; 기타 북극항로 길이는 선전 기준임; 1해저마일=1.852.216m.

출처: 이성우, 송주미, 오연선(2011), pp. 74~75; pp. 150~151.

<표 3> 주요 항로

(단위: km)

항로	파나마 경유	북서항로	북동항로	수에즈운하, 말라카해협
로테르담 - 상하이	25,588	16,100	<u>15,793</u>	19,550
보르도 - 상하이	24,980	<u>16,100</u>	16,750	19,030
마르세유 - 상하이	26,038	19,160	19,718	<u>16,460</u>
지오이아 타우로 (이탈리아)-홍콩	25,934	20,230	20,950	<u>14,093</u>
바르셀로나 - 홍콩	25,044	18,950	20,090	<u>14,693</u>
뉴욕 - 상하이	20,880	<u>17,030</u>	19,893	22,930
뉴욕 - 홍콩	21,260	<u>18,140</u>	20,982	21,570
뉴욕 - 싱가포르	23,580	20310	23.121	<u>18,770</u>

출처: Spohr, Höring, Cerioli, and Lersch(2013), p. 34.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해운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글로벌 물류산업의 시장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해운강국으로 2014년 기준으로 컨테이너 세계 10대 항만 10개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홍콩 포함)의 물동량이 70% 이상을 점유한 1억 4,819만TEU를 기록하고 있다(표 1 참조). 전 세계 공업생산의 80%는 북위 30도 위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중요한 공업지역은 북극에서 6,00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극해를 통한 국제 물자 수송은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는 북동항로, 북서항로, 북극점 경유 항로, 북극 랜드 브리지 항로로 구분된다(Mikkola and Käpylä 2013, p. 5).⁸⁾ 유럽의 지중해항구(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부터 상하이 간 해운수송은 북동항로, 북서항로, 파나마 경유보다 전통적인 수에즈운하 항로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럽 북해와 발트해 항구, 예를 들면 로테르담부터 상하이까지 거리 면에서 북동항로(1만 5,793km)가 제일 유리한 편으로 수에즈운하 경유노선(1만 9,550km)보다 30%나 짧은 편이다. 거리 면에서 상하이-뉴욕과 홍콩-뉴욕 해운수송로는 캐나다 북극해 경유 북서항로가 가장 유리한 편이다(표 2 및 표 3 참조).

중국의 대북유럽 국가와의 교역에서 북동항로의 이용 수혜지역은 거리 면에서 홍콩 이북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만주지역이 북한의 나진항, 청진항 혹은 러시아 연해변강주의 항구, 예를 들면 자루비노와 블라디보스토크 항로의 출구전략과 연계된다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보다 북극항로의 거리를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은 창지투 개발과 대광역두만강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나진항과 자루비노 항을 중국의 북극해 관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인프라 정비는 물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⁹⁾

8) 북동항로는 Northeast Passage로 명명되고 있으며, Northern Sea Route는 Northeast Passage의 일부구간으로 카라 해 켈랴니아부터 데쥬네프 곳까지의 구간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계와 언론계는 구분하지 않고 Northeast Passage와 Northern Sea Route는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9) 2014년 5월 중국 지린성 지방정부는 러시아 최대 항만운영기업인 슈마그룹과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8년까지 자루비노 항을 연간물동량 6,000만 톤 규모의 다목적 항만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의정서를 체결했다. 신민재(2014).

동해로의 출구전략은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서 북동부지역 개발과 향후 북극항로에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사할린 섬과 홋카이도 사이에 소재하는 쓰루가(소야) 해협과 캄차트카 반도를 통해 베링 해로 연계되는 북극항로 이용을 위해 사할린의 주 요항구(코르사코프, 홈스크 등)와 캄차트카의 페트로파블로스크-캄차츠키 항의 북극항로 허브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항공, 철도, 도로, 하천교통과 연계되는 ‘복합물류(complexed logistics)’ 체계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칸디나비아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항구로 이어지는 철도, 도로 건설을 확장/신축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도 TSR과 BAM 철도 연계를 위해 북극항구로 이어지는 철도건설과 하천교통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TSR과 BAM 철도의 확장으로 틴다(Tynda)(BAM철도의 수도)부터 야쿠츠크까지 805km의 새로운 노선이 2013년에 완공됐다. TSR과 BAM 철도의 지선인 아무르-야쿠츠크 노선의 완공은 레나 강의 하천교통을 통한 북극양의 랍테프 해 텍시(Tiksi) 항과의 연계, 즉 북동항로(유럽과 아태지역)의 복합운송물류 시스템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2014년에 수정된 ‘2025 극동/바이칼 연방목적 프로그램’에 의하면 육해공의 교통 인프라 건설을 위해 연방 항공청에서 37개 공항(주로 동지역의 북부지역, 예를 들면 사하프, 캄차트카, 추코트카, 마가단 등) 개보수 작업에 357억 루블, 연방 해운청은 17여 개의 항만 개보수 작업에 260억 루블, 연방도로청은 227.6km의 주요 도로 건설과 340.2km의 간선도로 건설에 266억 루블을 2015~2016년에 투입할 계획이다(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14). 육해공의 교통 인프라 개보수 작업은 복합물류체계를 통한 북극권과 북동항로 개발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

‘러시아 철도전략 2030’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야쿠츠크부터 마가단까지의 전략적 노선을 완공할 예정이다. 아무르-야쿠츠크 노선과 야쿠츠크-마가단 노선은 향후 우엘렌까지 이어지면서 베링해협 철도건설의 가능성을 높여주게 될 것이다. 북극권의 1,297km 길이의 살레하르트-이가르카의 철도노선 일부 노선은 과거 죄수, 특히 유배 정치범에 의해 건설됐다. 가동 중인 노비 우렌고이(Novy Urengoy)와 스타리 나딤(Stary Nadym)은 오비 강의 철로를 포함한 대대적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노선의 서부구간 라비트난기(Labytnangi)를 연결하여 보르쿠타(Vorkuta)까지 연장한다는 계획 하에 있다. 2010년 러시아 니켈 및 석유사의 지원으로 이가르카부터 노릴스크까지 200km에 이르는 철도건설도 계획되고 있다. 2010년 3월 19일에 살레하르트-나딤 노선의 착공식을 거행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노선은 오비 강과 나딤 강의 수많은 철교와 자동차 교량 건설을 병행할 계획이다(한종만 2013, pp. 182~223).

중국정부는 페름부터 아르한겔스크로 이어지는 러시아 북극권 철도건설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고 있다. 중국 인프라 투자 특화 국영기업은 코미공화국과 벨코무르(Belkomur) 발전을 위한 철도건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노선이 개통된다면 북부 시베리아와 우랄 지역부터 아르한겔스크 항까지 선적화물의 최단거리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노선의 총길이는 1,252km로 712km의 새로운 철도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총 건설비용은 6,000억 루블(150억 유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의 80% 이상이 민간 베이스로 이루어질 계획이다(Staalesen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복합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TSR과 BAM 철도를 통해 내

륙하천, 예를 들면 북극해로 유입되는 레나, 예니세이와 오비 강을 이용한 북극항구와의 연계 전략과 정책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철도와 내륙하천을 활용하게 된다면 중국은 북극해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최단거리로 북극항로 이용은 물론 우랄, 시베리아와 극동 북부지역의 자원개발에 지대한 편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그림 5 참조)¹⁰⁾.

<그림 5> 러시아 우랄, 시베리아, 극동의 내륙하천과 북극항구 지도



출처: Tschudi(2012), p. 14.

북태평양의 북극항로 허브 항 구축과 함께 중국은 북대서양의 북극 허브 항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항은 수심이 70m 이상으로 깊으며, 중국발 목적지 항은 아니지만 북극항로의 모든 노선과 교차점이 되는 항구로서 환적의 지경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원자바우 총리는 노르딕 국가들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중국은 아이슬란드를 장기 전략 차원에서 ‘노르딕 싱가포르’ 화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중국대사관(건설비용: 2억 5,000만 달러)에 500명의 직원(미국 70명, 프랑스 20명 상주)을 파견할 계획이다(Kuersten 2015). 이는 아이슬란드를 서북극의 물류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30년간의 나진항 부두 임대, 기반 인프라 건설은 동쪽에서 북극항로의 허브 항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연관이 있다.

중국의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배경은 기존 국제 해운로보다 거리단축을 통한 시간절약 이외에도

10) 북극권 철도 연결(페름-아르한겔스크 노선과 살레하르트-이가르카 노선 등)과 BAM 철도와 내륙하천의 연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바람(한중만 2013, pp. 198~203).

연료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과 같은 일석삼조의 이점에 기인한다. 북극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병목현상의 해소뿐만 아니라, 초대형 선박 투입의 한계 감소, 북극 해적 활동의 부재, 향후 빠른 속도의 해빙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중국 쇄빙선 설룡(雪龍)호가 2012년 여름에 북동항로를 통해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항에 도착했으며, 북극점 경유 항로를 이용하여 베링 해를 거쳐 중국으로 귀환했다. 2013년에는 실험 상업운항을 전개했다. 중국 최대의 선적회사 COSCO 주관으로 2013년 8월 하순, 최초로 다렌 항에서 1만 9,641톤의 컨테이너(철강재 등) 화물을 선적한 용성호(永盛, Yong Sheng; ice 1A급)가 베링 해를 거쳐 9월 10일에 로테르담 항까지 항행하기도 했다. 중국 극지연구소(PRIC)의 후이젠 양 소장은 북극항로를 통한 중국화물의 무역규모가 2020년까지 5~15%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주환 2013, p. 16).

2015년 3월 12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개최된 ‘북극비즈니스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말테 홈퍼트 극지안보 북극연구소장은 “5년 후 중국은 북극항로를 통해 9,000억 달러(약 1,010조 원) 규모의 무역을 할 것이고, 2030년에는 세계 무역의 1/4이 북극항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신(新)실크로드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곽수근 2015).

러시아 북동항로정보처 자료에 의하면 북극항로를 통과한 운항척수는 2009년 2척, 2010년 4척, 2011년 34척, 2012년 46척, 2013년 71척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4년에 31척으로 감소했다(Northern Sea Route Information Office 2014).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실시된 38개 중국선적회사(31개사 응답)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극항로의 이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중국 선적회사 중 4개사(COSCO, China Shipping Development, China LNG CLSICO, Tong Li)만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 나머지 회사들은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asserre 2015).

북극항로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서는 북극의 극단적 날씨, 유빙, 빙산, 눈보라와 돌풍 등 열악한 자연조건 이외에도 3~4개월간 제한된 운항기간, 얇은 바닷길로 홀수와 최대 선폭제한 등(북극점 경유 항로 제외)으로 인한 대형 컨테이너 운송 상용화의 어려움,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러시아의 관리정책과 요금제도(쇄빙선과 아이스 파일럿 이용의 높은 요금 책정), 쇄빙선을 비롯한 북극항행에 필요한 장비 부족과 북극항로 항행에 필요한 물적 및 인력부족 등이 언급되고 있다(한중만 2012, pp. 216~217).

이 외에도 중국이 극복해야 될 현재와 미래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항로를 통한 벌크선 이외에도 컨테이너선의 물동량 증가 예측도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와 지역/산업/계층 간의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해외의존형을 목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달성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도와 ASEAN 국가들의 제조업이 현저하게 발전하면서 향후 북극항로 경유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3. 지생태적/과학연구 관점

북극의 기후변화와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과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야기하면서 중국의 농업과 식량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북극 관심영역은 과학연구에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중국은 이산화탄소 세계 1위 배출국이며 장기적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의 기후변화는 중국 연안 도시지역에 직접적인 홍수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다. 2012년 중국 쇄빙선의 5차 탐사에 참가한 해외과학자는 사상치를 기록한 2007년 9월 북극 유빙이 2008년 초 중국 남부지역에 발생한 극단적 한파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극단적인 기후 재앙과 자연재해, 특히 가뭄으로 인해 2011년에 4억 3,000만 명이 피해를 받았으며, 3,096억 위안화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다.¹¹⁾ 기후변화는 중국 식량안보의 심각한 위험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극 기후변화와 중국의 농업, 극단적 기후변화와 홍수에 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더욱더 갈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후변화 이슈는 물론 북극권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조성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북극정책에서 영유권과 자원채굴 같은 민감한 이슈보다는 기후변화와 과학연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Jakobson and Pen 2012, p. 16).

극지지역과 유사하게 얼음과 눈이 쌓여 있는 기타 지역(cryospheres) 역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제3극지(Third Pole)’로 알려진 히말라야 만년설 지역의 미래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히말라야 지역은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 파키스탄, 부탄, 네팔과 인접국들로 구성되어 있다. 히말라야 빙하와 눈의 용해는 히말라야 수자원에 의존하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수천만여 명의 생존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극에서 얼음이 녹는 것처럼 히말라야 눈과 빙하의 용해는 심각하게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아이슬란드 대통령 그림손은 2013년 4월 5일 뉴델리에서 개최된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북극과 히말라야 그리고 남극(AHA: Arctic, Himalayas and Antarctica)은 지구의 독립적이고 분리된 지역이 아니며, AHA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미래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밝혔다(Grimsson 2013).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와 눈이 빠른 속도로 용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의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과학지식은 극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팩트를 지니고 있다. 언뜻 보아도 북극과 히말라야, 티베트 고원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대양이며, 히말라야 지역은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북극은 위도가 높은 지역인 반면에 히말라야 지역은 세계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북극의 거주인구는 400만 명 이하로 적은 편이지만 히말라야 수계지역 거주인구는 7억 5,000만 명에 해당하고 그중 2억 5,000만 명이 해당 지역의 수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같은 초국경적 공해로부터의 피해 등 많은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3의 극’인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 연구는 극지연구의 과학적 발전에 이득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역으로

11) 2007년까지 기후정책은 중국에서 우선순위는 아니었지만 중국정부는 ‘국가기후변화프로그램’을 국가정책 이슈로 제정하면서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기후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Stensdal 2012, pp. 1~25).

극지연구도 동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Korpa 2013, p. 110).

2014년 11월 코펜하겐에서 발표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대기와 해양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빙하와 만년설은 감소하고 있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구는 1983~2012년의 30년 기간이 지난 1,400년 동안보다 더 따뜻한 기간이었으며, 80만 년 이래 대기에서 온실가스의 집적이 가장 많았다고 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에 기인한다. 21세기 중반에 여름철 북극양은 빙하가 없으며, 영구동토층의 감소와 만년설의 해빙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2100년 이후에 장기적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구온난화로 4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2도 유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70%의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연간 수조 달러의 지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산 에너지시스템으로의 변화와 에너지 절약 조치 등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¹²⁾

국제기후정책에서 중국은 모순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국가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천만여 명이 빈곤상태에 허덕이는 개발도상국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약한 에너지 효율과 과도한 석탄 사용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리더로서 중국은 신흥세력뿐만 아니라 기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협상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공약은 UN기후협상에서 미국의 진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201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피크 기점으로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로 하고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기준에서 26~28%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¹³⁾ 향후 국제기후정책에서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기타 국가들이 온실가스 방출을 80%선까지 감축시킨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정상시 비즈니스’처럼 변화없이 이루어질 경우 2050년경 글로벌 온도는 2.7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Korpa 2013, pp. 112~113).

현재 선진국 주민보다 중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적으며,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은 실제로 서방으로 수출하는 제조품에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Weber, Petrs, Guan, and Hubacek 2013, pp. 3572~3577). 국제기후협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적절한 규모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또한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 중국은 진행 중인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을 통해 2015년까지 1인당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각각 16%와 17%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국정부는 친환경 경제발전의 균형을 위한 중국경제의 구조 개편을 시작했다. 2012년 중국의 기후변화법률 문서가 공표됐다. 중국정부는 차기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동안 국내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 시장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량 감축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배출량, 배출권 규모, 적용 산업·기업에 대한 정보

12) “IPCC gibt Synthesereport heraus,” (2014. 11. 2) *Wetter Online*.

13) 「중국-미국 정상, 온실가스 감축 전격 합의」 (2014. 11. 13) 『연합뉴스』.

공개, 지역별 극심한 배출권 가격차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문진영 2015, p. 89).

열악한 중국의 에너지 비효율과 높은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중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이 감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중국학자, 싱크 탱크와 연구기관들은 2030년부터 2040년까지 중국의 온실가스 방출량이 최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Watts 2009).

중국은 북극 활동을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98년부터 중국 과학자들은 북극의 생물학과 환경연구뿐만 아니라 북극 빙하학, 기후학, 해양과학, 대기 물리학 등에 관련된 학술논문들을 다량으로 양산해내고 있다(Alexeeva and Lasserre 2012, p. 81). 1990년대부터 중국의 극지연구행정당국을 중심으로 자료,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북극에 과학자들을 파견했다. 중국의 쇄빙선 설룡(雪龍)호는 2014년까지 여섯 차례(1997년, 2003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북극항로 탐사를 실행했으며, 2016년까지 제2쇄빙선을 건설할 예정이다.

중국은 4개의 남극 연구기지¹⁴⁾ 외에도 노르웨이 �발바르 제도에 연구기지를 운영하며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 노르웨이령 �발바르 니-알레순드(Ny-Ålesund) 연구기지 황하(Yellow River)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과학자(여름철에 32명의 과학자 활동, 겨울철에 2명 상주)를 파견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 탐사 시마다 해외과학자를 초청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북극 쇄빙선의 5차 탐사에서 프랑스, 아이슬란드, 대만, 미국의 과학자들이 중국의 초청에 의해 쇄빙선 설룡호에 동승했다. 최근 중국은 극지탐사(북극과 남극)에 연간 1,500만 달러, 남극과 북극기지 운용 등에 극지 관련 예산 6,0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국가해양국은 제2, 제3의 쇄빙선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활동을 목표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건조되는 제2쇄빙선은 지연되어 2016년에 완공하여 진수할 예정이며, 총예산으로는 3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행기 제작과 상하이 내 새로운 극지 대학 설립도 병행하고 있다. 200명에서 1,000여 명으로 중국 극지 전문인력 증원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Brady 2012, p. 12).

과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정부는 북극관련 국제적 과학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1996년 중국은 북극과학위원회(IAS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uncil)¹⁵⁾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2005년에 중국극지연구소(PRIC)의 도움으로 중국 국가해양국(SOA)은 ASSW(Arctic Science Summer Week)¹⁶⁾ 산하 기관인 ‘태평양북극그룹(PAG: Pacific Arctic Group)¹⁷⁾을 주도하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과학자들의 통신을 용이하기 위한 IASC의 후원 프

14) 남극조약에 의거하여 중국은 타국의 승인 없이도 남극에서 연구기지 설립이 허용되고 있으며, 남극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중국의 남극연구는 유사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중국의 북극 활동의 시험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데 큰 이바지를 하게 될 것이다(Alexeeva and Lasserre 2012, p. 82).

15) 북극해 및 주변지역 연구에서 각 국가 및 기관들의 공동연구 목적으로 1990년 설립된 비정부기구(2002년 4월에 가입, 현재 가입국: 21개국).

16) 1999년 설립, 북극과학 최고회의, 북극 과학연구 관련 주요 국제기구들이 상호간 정보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개최하는 연례 학술행사.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북극 연구 국가가 활동하고 있음.

17) 북극과학위원회 산하 그룹으로 북극 과학연구에 중시하는 태평양 지역의 연구기관 및 개인연합체로 공동 연구, 협력 및 연구 계획에 대한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제공.

로그그램을 행하고 있다. PAG는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6개 태평양 국가의 13개 과학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매년 ASSW 회의에서 북극 과학발전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 있다.

아시아극지과학포럼(Asian Forum for Polar Sciences)은 한국, 중국, 일본의 극지연구기관 중심으로 2004년 9월 출범했다. 현재 아시아극지과학포럼의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5개국이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옵서버 국으로 활동하고 있다.¹⁸⁾ 2005년부터 중국은 니알스과학운영자회의(NySMAC: Ny-Ålesund Science Managers Committee)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국의 극지연구는 북극의 기후변화와 중국에 대한 기후효과를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북극연구는 중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인문적 지식 심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중국해양대학교 법정치학부 귀페이칭(Guo Peiqing) 교수는 중국의 북극연구를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법학, 외교학 등의 인문사회 이슈 연구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최근에 중국정부는 북극관련 사회과학 분야, 예를 들면 북극관련 국제법과 지정학 분야의 연구기금 조성은 물론 북극관련 이슈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다. 2014년에 북극지역에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과 북극지식의 인지도 고양을 위해 ‘중국-노르딕북극연구센터’가 상하이에 설립됐다.

중국은 아이슬란드에 300만 위안(5억 4,000만 원)을 들여 오로라 연구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NATO는 이 프로젝트가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성대 2015).

캐나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북서지역(NWT) 누버트 지역 캠프리지 만 투크트토야크(Tuktoyak) 북극연구소(CHARS: Canadian High Arctic Research Station) 건설에 착수하고 있다. 중국 극지연구소 사무총장 양후이건(Yang Huigen)은 이 기지에 중국 연구기지 건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¹⁹⁾

“캐나다 켈거리대학 북극안보전문가 롭 휴버트는 독재국가가 북극 지방에 단독으로 과학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만 북극 지역개발에 협력해왔다. 미국은 이곳에 레이더 기지, 기상 관측소, 스파이 기지 등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는 캐나다가 중국과 합작으로 북극권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북극연구소 건설에 착수하는 등 북극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협력 파트너가 필요한 실정이다”(조성대, 2015).

18) 김예동 극지연구소장이 2014년 10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극지과학포럼(Asian Forum for Polar Sciences) 연례회의에서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19) “China seeks to establish Northern Canadian research outpost,” 2015. 3. 24) *CBC News*.

<표 4> 중국의 대 북극 정책과 진출에 관한 지정/지경/생태환경 SWOT 분석

S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1위 인구대국(풍부한 노동력) -세계 2위 경제대국(PPP 기준으로 세계 1위) -세계 1위 무역대국. 제조업(세계의 공장) -세계 1위 석유/광물자원 수입국 -세계 1위 외환보유국/풍부한 자본동원력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 지위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항만/물류시설 보유국 -국가자본주의 속성상 낮은 거래비용 -국제기구(유엔 상임이사국, SCO, APEC, BRICS, ASEM 등)에서 높은 영향력 -유라시아 국가로서 지리적 위치 -북극과 유사한 제3극지로서 히말라야 산맥 일부와 티베트 고원지대, 하이룽장 성 북극 촌마을 -남극기지(4개), 북극기지 보유 -쇄빙선 설릉호 보유, 제2쇄빙선 건조 -극지탐사 경험과 극지연구 전문인력 보유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가입 -노르딕 5개국과 러시아와의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북극권 국가 -높은 무역의존도 -양극화(개인/기업/산업/지역별) 문제 심화 -수자원의 남북격차와 부족문제 -세계 제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 -재생 가능한 에너지믹스 부족 -높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 -에너지/자원의존 경제 -지속가능한 친환경/기후 정책 부족 -경제주체의 자율성 문제와 부패 문제 -경제주체의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인구 고령화 추세 증가 -공식적인 북극정책 혹은 전략 부재 -창조적 기술과 soft power의 부족 -catch-up 단계(기술, 혁신, 발명, 과학) -경제주체와 미디어의 언론자유의 부분적 통제와 민주화 부족 -북극 대륙봉 개발기술 경험 부족 -중국의 국가브랜드와 국제 이미지 부족
O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극 거버넌스의 재편 가능성 증대 -북동-북서항로의 이용 가능성 증대 -철도, 내륙하천과 북극해의 연계 로지스틱 -북극권 인프라 시설(항구 등) 참여 증가 -북극 관광/생태 관광의 증가 -북극 수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조선/물류업체(선박/해양플랜트)의 활성화 -북극권 광물 자원 채취 가능성 -그린란드의 희토류 채굴 가능성 -북극권 연료(석유/천연가스) 채취 가능성 -시베리아/극동 북극권 진출 기회 확대 -학문/과학적 북극 공동연구 가능성 증대 -글로벌 이슈(기후협약 등) 해결 모색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에 참가하지 않아 중국의 대러시아 진출협력 가치화 -국내외 중국 브랜드와 이미지 제고 -글로벌 플레이 역할 가능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와 ASEAN의 부상으로 중국 경쟁력 약화 -중국의 북극항로 경유 물동량 감소 가능성 -글로벌 생태계 파괴,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자연재해(폭풍, 산불, 가뭄, 황사 등) 확산 -해수면 상승, 식생 변화 등 -메탄가스(화석연료보다 20배 이상 CO₂ 발생) 문제 -중국 내부통합(홍콩,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 리스크 -남동중국해 분쟁 위협; 중국 위협 논의 확산 -신 'great game'과 신냉전 가능성; 군비 증액의 부담 -글로벌 안정화의 불균형과 평화 리스크 -거버넌스 도전(북극권국가간, 북극권국가와 비북극권 국 간, 비북극권 국가간) -북극권 개발/항행 과정에서 사고 가능성 -reluctant stakeholder

III. 중국의 대 북극 행위자

중국의 대북극 행위자는 크게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상업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 중국의 대북극 활동 행위자

구분	기관	
정부기관	국가해양국(SOA), 중국극지연구국(CAA), 중국해감(CMS), 인민해방군(PLA), 중국공산당(CPC), 국토자원부(MOLR), 재정부(MOF),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과학기술부(MOST), 국가자연과학재단(NBSF), 환경보호부(MOEP), 외교부(MOFF) 등	
연구기관	국책	중국극지연구소(PRIC), 상하이국제연구소(SIIS), 중국해양연구소(CIMA), 중국과학아카데미(CAS) 등
	대학	다롄(Dalian)해사대학, 중국해양대학교(OUC), 푸단(Fudan)대학교, 통지(Tongji)대학교, 상하이정치학법과대학 등
상업기관	중국국영석유사(CNP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중국석유화학사(SINOPEC), 페트로중국사(Petro China Company), 중국국영선적회사(COSCO), 중국선적개발(China Shipping Development), 중국LNG 선적회사, 퉁리(Tong Li)선적회사, 훈춘물류유한회사(Hunchun Chuangli Haiyun Logistics), 중국국영블루스타회사(China National Bluestar Corporation), 중쿤투자그룹(Zhongkun Investment Group) 등	

1. 정부기관

북극문제를 배타적으로 취급하는 중국정부 내 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극 및 남극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해양국(SOA: State Oceanic Administration)’은 정부기관으로 과학연구부터 전략 이슈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극지 이슈를 책임지고 있다.²⁰⁾ SOA의 조직은 국장, 부국장 4명, 직원 100여명이며 3개 분국, 즉 북해분국(청도), 동해분국(상해), 남해분국(광주) 그리고 5개의 연구소<제1해양연구소(청도), 제2해양연구소(항주), 제3해양연구소(샤먼), 극지연구소(상하이), 해양전략연구소(북경)>과 7개 센터<국가환경모니터링센터(대련), 국가해양예보센터(북경), 국가해양정보센터(천진), 국가해양기술센터(천진), 국가해양위성센터(북경), 국가표준계량센터(천진), 항주수처리센터(항주)>를 보유하고 있다(일부 기관은 ‘북극대학기관(UArctic: University of the Arctic)’에 가입하고 있다(표 6 참조).

SOA 산하의 ‘극지연구국(CAA: Chinese Arctic and Antarctic Administration)’²¹⁾이 극지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의 극지탐사를 행정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CAA의 전신은 1981년에 설립된

20) 국가해양국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soa.gov.cn/english/>(검색일: 2015. 5. 27).

21) 중국어로는 국가해양극지고찰관공실(國家海洋國極地考察辦公室)이다. <http://www.chinare.gov.cn/en/>(검색일: 2015. 5. 28).

국가남극탐사위원회사무소(Office of National Antarctic Expedition Committee)이다. CAA는 약 4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CAA는 SOA에 의해 위임받은 극지문제의 행정과 극지 탐사를 주관하고 있다.

SOA는 행정적으로 국토자원부(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SOA는 2단계 행정부서로서 1단계인 장관부서의 하위기관이다. SOA는 남중국해부터 발해만까지 이르는 중국해안의 해양활동 감독기능을 갖고 있다. SOA는 해양관련 법률과 규정의 입안뿐만 아니라 국제해양조약에서 중국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SOA의 정치적 지위는 해양법집행기관인 ‘중국해감(CMS: China Maritime Surveillance)’ 부서를 인수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신장됐다. CMS는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순찰 기능을 담당하는 함대를 보유하고 있다. CMS는 일련의 국제해양사건에 관여하고 있다. 또한 SOA는 극지문제에 관한 주요한 정부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극지연구자문위원회(CACPR: Chinese Advisory Committee for Polar Research)’를 주관하고 있다. CACPR은 장관부서 혹은 국가위원회(State Council)와 인민해방군(PLA: People’s Liberation Army) 참모부서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다. 북극연구는 PLA 산하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국의 기타 북극 활동에 대한 PLA의 역할은 알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Jakobson and Peng 2012, p. 3).

중국의 극지활동은 몇 개의 장관부서와 국가위원회의 행정당국, 중국공산당(CPC: Communist Party of China)의 최고정부당국의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2011년 새로운 쇄빙선 건설계획이 국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새로운 쇄빙선 건설계획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의 자문을 받아 극지 시설과 선박 건조를 위한 기금을 비준하는 장관급 부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의 서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국가자연과학재단(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 국가위원회가 극지 과학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비준 심의하고 있다.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는 중국과 북극권 국가간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영역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M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는 중국의 국제적 북극 협력과 관련된 이슈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MFA의 법/조약 담당부서는 북극 관련 공식입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극이사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 대표를 조율하고 북극문제의 쌍무 및 다자간 개입의 당사자 역할을 담당한다. MFA 내에서 보조(Assistant) 장관은 북극 이슈를 공식적으로 진술하는 최고위 지위를 갖고 있다<중국은 6명의 외교부 부(vice)부장과 부부장 휘하에 4명의 부장 조리(차관보)가 있음>. 과거 외교부 부장 조리 류전민(Liu Zhenmin, 劉振民)은 2010년에 노르웨이의 고북극(High North) 지대를 방문했으며, 그의 전임자 후정웨(Hu Zhengyue, 胡正躍)는 2009년에 방문했다. 그들은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정부가 북극에서 중국의 권리를 인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진술했다. 중국은 북극이사회의 임시(ad hoc) 옵서버로 2009년과 2011년에 북극이사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하위 등급의 외교관을 파견했다(Jakobson and Peng 2012, p. 3).

2. 중국의 북극 연구기관

가. 중국의 북극 국책연구기관

중국 국책연구기관과 대학기관의 임무는 정책결정자에게 극지문제의 이해를 위한 조언과 정책 추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극지연구소(PRIC: Polar Research Institution of China)는 CAA의 산하기관으로 상하이에 소재하며, 극지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으로 종사자수는 218명이다. PRIC는 중국의 극지탐사, 북극과 남극에 소재하는 중국의 연구기지, 쇄빙선 설류호를 관할하고 있다. 2015년까지 중국은 31번의 남극 탐사를 수행했다. 중국은 1983년에 남극조약에 가입했으며, 1984년에 처음으로 남극과학탐사단을 조직했다. 중국은 1985년에 남극 서쪽의 킹 조지(King George) 섬에 소재하는 첫 번째 기지인 만리장성(Great Wall, 長城), 1989년에 남극 동쪽에 위치한 라스만 언덕(Larsemann Hills)에 소재하는 두 번째 기지인 중산(Zhongshan, 中山), 2009년에 Dome A(남극 동부 빙상의 정상)에 위치한 세 번째 기지인 쿤룬(Kunlun, 昆崙) 기지를 설립했다. 2014년 네 번째로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랜드(Princess Elizabeth Land)에 타이산(Taishan, 泰山) 기지를 건설하고, 다섯 번째 남극기지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2005년까지 중국의 남극연구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었다. 중국정부는 2005년에 남극연구 예산을 2배로 증액했다(Brady 2012, p. 14). 중국의 첫 번째 북극연구기지는 황허(黃河) 기지로 2004년에 노르웨이 스팔바르 스피츠베르겐 섬에 소재한 니-알레순(Ny-Ålesund)에 설립됐다.

북극의 지정학적 중요성의 인식이 반영되면서 PRIC는 북극지정학을 출간한 중국의 북극 최고전문가 중 한 사람인 장시아(Zhang Xia)를 2009년 7월에 개설한 ‘북극전략연구부서’ 장으로 임명했다. 이 부서는 사회과학 부문의 북극연구를 수행하는 중국의 연구기관과 학자들을 지원하는 기금과 조정 및 일반적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60년에 설립되어 현재 30여 명의 선임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는 상하이국제연구소(SIIS: Shanghai Institutes of International Studies)는 중국에서 국제문제 영역을 담당하는 최고로 저명한 연구기관이다. SIIS 산하에 있는 ‘해양 및 극지연구센터(Center for Maritime and Polar Region Studies)’, ‘글로벌 거버넌스연구센터(Center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연구센터(Center for Russia and Central Asia Studies)’의 연구원들이 현재 북극의 글로벌 거버넌스, 북극 내 중국-노르딕 국가간 협력, 러시아 북극전략 등에 관한 국가지원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SIIS의 2명의 부소장 중 한 명인 양취안(Yang Jian)이 중국 내에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점증하는 북극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북극연구를 주도하고 있다(Jakobson and Lee 2013, p. 7~8).

1987년에 설립된 ‘중국해양연구소(CIMA: China Institute for Marine Affairs)’는 SOA 산하기관이며, 북극관련 정책에 있어 정책과 입법 그리고 경제와 이해관계에 관한 연구를 행하는 핵심기관이다. CIMA는 중국의 극지정책의 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어젠다를 개발하고 있지만,

극지업무를 위한 특별 부서를 개설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Jakobson and Pen 2012, p. 5).

‘중국과학원(CAS: Chinese Academy of Sciences)’은 정부구조상 장관부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자연과학, 기술과학, 하이테크 혁신을 위한 중추적인 학술 및 연구기관이다. CAS 산하의 기타 연구소, 예를 들면 대기역학 연구소와 지리과학 및 천연자원 연구소와 해양학연구소는 북극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²²⁾

나. 중국의 북극 연구 대학기관

중국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대학 내 북극연구센터들은 개별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기관의 연구자들은 북극 이슈의 연구물을 출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조언을 담당하고 있다.

북극 지정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는 다론헤사대학(Dalian Maritime University, 大連海事大學)의 리젠푸(Li Zhenfu, 李振福)이다. 그는 중국의 북극항로와 물류부문에 관한 학술연구를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 2010년에 대학 내 ‘선적개발아카데미(Shipping Development Academy)’ 산하에 ‘북극선적업무연구센터(Arctic Shipping Affairs Research Center)’가 설립됐다.

중국해양대학교(OUC: Ocean University of China)는 해양학과 수산학 분야에서 중국 내 가장 중요한 대학기관이다. 2010년에 OUC 법학/정치학부는 ‘북극 법학/정치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소장 리우 후이롱(Liu Huirong)은 북극 법률분야 전문가이며, 중국의 극지 권리를 지지하는 귀페이칭(Guo Peiqing, 郭培清)은 센터의 핵심인물 중 한 사람이다. 추가적으로 SIIS와 PRIC 연구자들과 상하이여러 대학기관의 정치학 교수들도 북극 지정학에 관한 정부지원금을 통해 북극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상하이에 소재한 푸단대학(Fudan University, 復旦大學)의 첸유강(Chen Yugang)과 그의 팀은 북극의 국제협력과 중국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통지대학(Tongji University, 同济大学)의 판민(Pan Min)과 왕 추안형(Wang Chuanxing)은 북극의 변화와 중국의 안보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상하이대학 내 법학정치학부 연구자들은 기후변화 전망과 북극에서 중국-캐나다 협력을 연구하고 있다(Jakobson and Pen 2012, p. 6).

2013년 7월에 중국해양대학교를 포함한 기타 연구기관이 ‘북극대학기관(UArctic: University of the Arctic)’에 제휴 회원으로 가입했다(Sun 2014, p. 48).

북극이사회의 비정부그룹 영구 옵서버 11개 중 하나인 UArctic은 북극에 관한, 그리고 북극 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들의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비수익성 국제적 민간단체이다. 북극에 관한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교와 산학연의 기타 조직간의 협동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비북극권 국가 중 중국의 UArctic 회원수가 10개로 가장 많은 반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과 일본(홋카이도 대학교)은 각각 1개 연구기관이 가입하고 있다.²³⁾

22) 중국과학원의 홈페이지 주소 <http://english.cas.cn/>(검색일: 2015. 5. 30) 참조.

23) 북극대학기관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arctic.org/>(검색일: 2015. 5. 30).

<표 6> 북극대학기관(UArctic) 중국 연구기관의 회원명부

연구기관명(웹 주소)	소재지	설립연도	비고
중국기상학아카데미 (Chinese Academy of Meteorological Sciences) http://www.cams.cma.gov.cn	베이징	1978년	전체 직원수 300명, 연구직 220명, 학생수 220명
중국환경학연구아카데미(Chinese Research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s) http://www.craes.cn/cn/english	베이징	1978년	전체 직원수 858명, 연구직 826명, 학생수 100명
다롄(大連) 해양대학교 (Dalian Maritime University) http://www.dlmu.edu.cn	다롄	1909년	전체 직원수 2,208명, 연구직 1,225명, 학생수 2만 명
환경부 산하 환경개발센터 (Environmental Development Centre) http://www.china-epc.cn/	베이징	1996년	전체 직원수 600명, 연구직 300명, 학생수 50명
국가해양국 산하 제1해양연구소(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칭다오	1958년	전체 직원수 494명, 연구직 427명, 학생수 30명
국가해양환경예측센터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Forecasting Center) http://www.china-epc.cn/	베이징	1965년	전체 직원수 358명, 연구직 245명, 학생수 20명
중국해양대학교 (Ocean University of China) http://www.ouc.edu.cn	칭다오	1924년	전체 직원수 3,036명, 연구직 1,536명, 학생수 27,627명
중국극지연구소 (Polar Research Institute of China) http://www.pric.gov.cn	상하이	1989년	전체 직원수 218명, 연구직 52명, 학생수 35명
국가해양국 산하 제2해양연구소 (Second Institute of Oceanography) http://www.sio.org.cn	항저우	1966년	전체 직원수 421명, 연구직 250명, 학생수 125명
국가해양국 산하 제3해양연구소 (Third Institute of Oceanography) http://www.tio.org.cn	푸젠성 샤먼	1959년	전체 직원수 1명, 연구직 1명, 학생수 59명

3. 상업적 단체(국영/민간기업)

북극항로와 자원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기업의 북극 진출, 특히 에너지/광물자원과 선적/물류산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의 석유메이저 중국국영석유사(CNPC),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의 대북극 진출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CNPC는 러시아 소브콤플로트(Sovkomflot)사와 북동항로를 통한 에너지 운송협정, 야말 LNG 프로젝트의 20% 지분 인수(CNPC의 자회사 Petro China 담당), 러시아 가스프롬사와 장기 가스구입 계약, 러시아 국영석유사(Rosneft)와 북극해 대륙붕 등 5개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CNOOC는 캐나다 자회사 넥센 사(Nexen Inc.) 인수 이외에도 노르웨이와 공동으로 아이슬란드 대륙붕 석유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다. CNOOC는 북극지역에서 석유개발 사업에 뛰어든 최초의 중국기업이다. 또한 중국의 석유화학사 SINOPEC<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사는 캐나다 오일샌드사와 석유 회사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다.²⁴⁾

24) CNPC와 Sinopec 간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NPC와 Sinopec의 합병은 중국 석유가스 생산의 77%, 석유판매의 90%를 점유하여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기준 시가총액으로

2011년 중국국영블루스타사(China National Bluestar Corporation)는 노르웨이 북극권 핀마르크에 소재한 세계 주도의 합금생산업체 엘켄(Elkem)사의 인수를 통해 규암광산을 획득하게 됐다. 사천성(Sichuan, 四川省) 지방정부 소유회사인 신예광산투자사(Xinye Mining Investment Company)는 영국 런던 마이닝(Lonon Mining)사로부터 20억 달러 상당의 남부 그린란드 이수아(Isua) 철광산을 매입했다(Stensdal 2015).

중국해양선적회사<COSCO: China Ocean Shipping (Group) Company>, 중국선적개발(China Shipping Development, 中海发展), 중국LNG 선적회사<CLSICO: China LNG Shipping(International) Co. Ltd.>, 퉁리(Tong Li, 同里)선적회사 등이 북극 진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북극항로의 시험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의 북극해 관문 역할을 기대하는 중국 지린성 훈춘에 소재한 훈춘창리해운물류유한공사(Hunchun Chuangli Haiyun Logistics Ltd.)가 북한 나진항을 장기 임차하면서 북극항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물류회사는 민간기업이지만 나진항의 조차는 6개의 중국 장관부서와 지린성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Lasserre 2015).

북극권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북극권 크루즈 관광객수는 연간 약 100만여 명에 달하며,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극권 관광객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U.S. Coast Guard 2013, p. 17). 여름철에 북극점까지 여행하는 러시아 쇄빙선 관광상품이 운행되고 있다. 2011년 무르만스크 항에 11대의 국제 크루즈선이 방문(5,000명)했는데 여객터미널(길이 250m, 폭 19.6m)이 구축되면 노르웨이 키르케네스 항과 무르만스크 항까지 정기 페리서비스뿐만 아니라 UK, 미국, 독일, 핀란드, 덴마크 크루즈선이 연간 70~100대 방문하며, 연간 5만여 명의 관광객(72시간 무비자) 유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Gorbunov 2012, pp. 14~15). 여름철의 노르웨이 북극권 피오르드 해안 크루즈 관광선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핀란드 북극권 관광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극권 지역, 특히 노르딕 북극권 국가의 중국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중국기업은 북극권의 관광 인프라 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4년에 중국 베이징에 소재한 중쿤투자그룹(Zhongkun Investment Group) 황누보(Huang Nubo) 회장이 아이슬란드 북동부 지역에 300km² 규모의 골프장을 갖춘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중국은 자국 부유층 관광객을 유치해 윈시자연 정취 체험에 관련된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아이슬란드 측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국내법을 들어 거절했다. 이 회사는 또한 노르웨이 사업가인 헤닝 호른씨 등이 매물로 내놓은 북극해 스발바르군도 내 217km² 대지구입을 계획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²⁵⁾ 또한 중쿤투자그룹은 2014년 9월 시가 400만 달러 상당의 노르웨이 트롬쇠 북부지역 해안부지 구입을 위한 예비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노르웨이 국가방송은 전했다(Higgins 2014). 이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회사의 회장은 핀란드와 그린란드에도 생태관광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 있다고 진술했다(Jakobson and Pen 2012, p. 6).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려할 때 중국의 북극 행위자의 대부분은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학기관과 민간기업의 활동도 국가기관의

CNPC 3,100억 달러, Sinopec 1,100억 달러로 총 4,220억 달러로 3,940억 달러인 ExxonMobil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대연, 김정인 2015, p. 5).

25) 「노르웨이 정부, 중국의 북극 섬 매입 시도에 제동」 (2014. 5. 23) 『연합뉴스』.

직간접적 개입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IV. 중국의 대 북극 정책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기본방향은 전반적인 대외정책 목표하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첫째, 중국의 정치적 안정, 둘째, 주권적 안보, 영토통합과 국가통일, 셋째, 중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이다. 북극문제도 중국의 대외정책의 세 번째 목표인 중국의 중대한 국익, 경제발전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또한 북극은 중국 선적 해운로의 거리단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식량 및 자원안보를 강화해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근원적 대외정책의 목표는 자국이 강대국으로서 존중받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평등을 전제로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이태환 2012, p. 12).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은 종종 부정적 현상, 즉 ‘중국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적 이미지 향상과 글로벌 공포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2년 11월 중국의 5세대 지도부가 권력을 장악했으며, 2013년 3월에는 시진핑이 중국의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지명됐다. 미디어, 학자,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임명 직전의 시진핑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구호 ‘중국몽(Chinese dream, 中國夢)’은 시진핑 시대의 주요 슬로건으로 인지되어가고 있다. 개인적 성공에 기초를 두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과 대조적으로 중국몽은 국가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진핑은 “우리는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겠지만 우리의 핵심적 이해관계와 합법적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²⁶⁾ 시진핑의 언급은 2004년 이후 당-국가를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지는 평화적 발전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진핑은 ‘합법적 권리’와 ‘핵심적 이해관계’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부연하면서 과거 지도자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은 기타 국가의 이해관계 침해를 원하지 않으며,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시진핑은 중국의 지역격차 해소와 지속적 경제발전, 무역로의 다변화를 위해 2014년 신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일대일로’ 정책 실현을 위한 현실적 계획을 발표했다.²⁷⁾ 이 정책은 북극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향후 북방 해상실크로드와 러시아를 통해 이미 언급한 북극권 복합물류 시스템 구축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물론 북극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핵심적 이해관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북극이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중국의 핵심적 이해관계에 연계되며, 특히 경제발전은 북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중국의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북극의 물적 및 인적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6) *Xinhua* (2013 1. 29).

27) 2014년 10월 24일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수립하여 자본금 1,000억 달러 중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 2014년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기금 400억 달러 출연을 발표하고 연이어 최소 50억 위안 자본금 규모의 해상실크로드은행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자본금은 주로 인프라 건설과 물류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물류리포트』, Vol.14, No.8 (2014. 12. 31), p. 3.

1. 공식적 북극 정책

중국은 북극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지 않았으며, 중국정부 관료들의 공식적 진술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에 대한 공식적 정책은 낮은 단계로 추정된다. 중국의 공식적인 북극전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과 비공식적 이해관계의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Joensen 2013, p. 29).

중국의 북극 관련정책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최고 정책결정자 사이에서 내부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네티즌이 만든 블로그와 미디어를 통한 비공식적 논평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공식정책에 대한 노골적 비판은 부족한 편이다. 중국사회는 지난 10년 전보다 더욱 개방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점증하는 수많은 공식 및 비공식 행위자들이 정책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정책결정 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Jakobson and Knox 2010, p. 1). 중국의 북극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정책제안이 중국의 공식 북극정책과 연계되는 객관적 확실성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국 체제가 국가주의란 점을 고려하면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중국 관료와 학자들은 �발바르 조약을 중국의 북극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국제법적 기초로 간주하고 있다. 1925년에 이 조약을 체결한 중국의 관료와 학자들은 이 조약을 중국의 북극 진출을 위한 또 다른 정당성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 조약은 �발바르 제도에 대해 노르웨이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42개국의 조약서명국들도 �발바르 제도에서 노르웨이와 동등하게 어업, 사냥, 광산, 무역, 국제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이 �발바르 니알순 지역에 북극기지를 설립했다.²⁸⁾

현재까지 북극에서 인식한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정부, 특히 외교부가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극의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해로운 효과, 예를 들면 중국의 환경과 기후변화 형태와 식량 생산에 관한 심도 깊은 지식의 이해 획득, 둘째, 중국의 북극이사회 참여를 통한 북극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와 의사결정에 점차적인 영향력 확보, 셋째, 북극 환경 변화에 기인된 도전 등의 하이라이트는 지역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는 점, 넷째, 북극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북극 해역을 UN해양법에 의거하여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극 국가들의 의사 결정 시 비 북극권국가들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다섯째, 북극이사회의 노르딕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남중국해와 남동중국해에서 주권적 권리 인정과 영유권 및 선취권을 존중한다는 중국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은 북극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비북극권 국가라는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계별로 북극권 국가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극 거버넌스의 적극적 참여와 자원채굴과 관련된 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비북극권 국가로서 중국은 북극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외교 협력과 과학연구, 투자의 긍정적 임팩트를 활용하고 있다.

28) 이 조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이용희 2013, pp. 107~136).

단기적 측면에서 중국은 자국 선박의 북극해운로 진입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해 유빙은 자원채굴보다 먼저 정기선박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양시설물과 조난시설, 환경 스탠더드와 쇄빙선 요금이 결정될 때 중국은 비북극권 국가의 권리를 강조하는 도그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대외정책을 판단해 볼 때 실무적 고려가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주요 드라이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면 자원채굴은 더욱 타당성이 높아지며, 현재보다 비용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러시아와 캐나다의 북극권 개발 프로젝트에 대규모의 공동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북극정책은 노르딕 북극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심화,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그리고 북미 북극권 국가들과는 여러 부문에서 견제와 경쟁관계도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통해 협력을 위한 실리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2. 비공식적 북극 정책

국내외 연구자들이 중국의 대북극 관계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두 개의 용어인 ‘근접북극(Near Arctic)’과 ‘북극 지분자(Arctic stakeholder)’는 중국 사전에 게재됐다. 이들 용어가 인정받을 때까지 중국 관료들과 북극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이 용어들을 사용하였다(Jakobson 2010, p. 13). 중국은 티베트와 천산산맥의 자연 상황이 북극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북극과 남극에 이어 ‘제3극지’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중국 헤이룽장성 막하(漠河, Mohe)현 막하진 북극(北極, Beiji)촌을 홍보하고 있다.²⁹⁾ 천문학적 북극 정의에 의거하면 중국의 북극촌도 북극에서 1,500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근접북극’ 국가라고 명명하면서 북극 진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Feng 2015).

글로벌 문제에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려는 노력과 연계하여 중국학자들은 중국이 북극 이슈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중국 관료와 싱크탱크 북극전문가들, 예를 들면 중국국제연구소 유럽분과 위원장이 “북극 국가들은 사적 혹은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원하는 반면에 북극은 달(moon)처럼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하거나 중국극지연구소 소장이 “북극자원은 특정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계에 수요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Jakobson and Pen 2012, p. 20)고 주장한 바 있다.

2010년 3월에 인민해방군(PL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해군소장 인궈(尹阜, Yin Zhou)는 “북극은 세계 모든 국민에게 속해 있으며, 어떠한 나라도 주권을 가질 수 없다. 중국은 세계인구의 1/5을 가진 국가로서 북극 탐사에 대한 불가결한 역할을 계획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Dawney 2013). 중국 연구자들의 강력한 수사학적 발언에 대해 해외 관찰자, 특히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의 주권이 없는 중국이 북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준비작업의 징후라고 해석하고 있다.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 신청에 대한 가부결정이 두 번째로 연기된 2011년부터 중국의 북극연구자들은 공개적으로 더욱 완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관료들도 북극에서 중국

29) 가장 아름다운 중국의 사계절 명소 100개 중 하나로 지정된 북극촌은 중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하지 전후 하루 20시간 정도 태양을 보고 운이 좋으면 신비한 오로라 현상도 볼 수 있다. 『중국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 북극촌』 (2015. 2. 4) 『CCTV.com 한국어방송』 <http://kr.cntv.cn/2015/02/04/ART11423032228478906.shtml> (검색일: 2015. 6. 15).

의 이해관계와 북극정책의 민감성, 특히 자원부문과 영유권 영역 문제와 의구심을 확실하게 인지했다.

많은 연구에서 중국정부는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 있는 북극의 지분자’ 역할을 원하고 있다. 중국의 북극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중국 관료와 학자들은 중국의 북극 활동은 자원 약탈과 전략적 통제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정교한 환경조사와 투자가 주목적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중국 국제연구원의 연구원은 중국의 북극 활동은 유럽과의 무역과 투자를 늘리려는 정상적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유럽에서 중국의 정교한 상업활동을 북극 지역의 전략적 통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과대망상증이라고 말하고 있다(Zongze 2012).

‘북극에서 중국과 노르딕 국가의 협력 전망’을 주제로 2012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SIPRI 워크숍(SIPRI Workshop 2012)³⁰⁾에서 북극 자원의 논의를 자제하라는 중국 외교부 법률/조약 부서의 요청이 있었다. 이 요청을 중국 외교부는 워크숍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외교부 직원들은 중국이 북극에서 자원부문의 북극연구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북극에 대한 중국의 지나치게 주도적인 관심 표현은 북극권 국가들에 불쾌감 상승이라는 위험성을 동반하면서 북극에서 중국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북극권 국가들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북극자원의 실무에서 외부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구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극지역에서 자원채굴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국제협력, 특히 글로벌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2011년부터 증대되는 중국의 북극 개입 논쟁을 피하기 위해 많은 중국의 연구자들은 기후변화를 우선순위로 하는 중국의 북극 어젠다를 수립해야 한다고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연구경향이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외부의 초조함을 완화하고 민감한 북극자원과 영유권 이슈 문제를 우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은 북극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적 바이어(strategic buyer)’ 역할과 북극항로 물동량의 주요 원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협력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3. 중국의 대 북극 정책의 평가

1978년 말부터 중국은 일련의 정치,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현저할 정도의 국제적 지위 상승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물적 기준에서 고려해 본다면 이미 강대국에 부응한다. 중국은 지정학적 위치, 영토의 규모, 세계 1위 인구대국,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3위 군사대국 등으로 인해 이미 강대국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을 충족하고 있다.

현실주의 논의는 부상하는 중국이 ‘현상유지(status quo)’ 세력 혹은 ‘제국주의 세력’인지 아

30) 이 워크숍은 2012년 5월에 ‘현대세계연구중국센터(China Centre for Contemporary World Studies)’와 중국공산당 국제부 산하 싱크 탱크 공동주체로 개최됐다.

닌지에 대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온건한 접근론자들은 세계 문제에서 증가하는 ‘중국 요인’ 혹은 ‘중국 효과’를 인정하는 반면에, 일부학자들은 다음 세기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세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비관적 입장을 표명하는 논평자들은 ‘중국 위협’ 혹은 ‘다가오는 중국 전쟁’을 경고했다. 북극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이해관계는 회의적 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1~14년에 아이슬란드와 스발바르에서 중국 사업가의 대규모 토지 구입계획에 대해 유럽과 미국 여론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에 대해서도 서방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중국의 대북극권 협력 강화에 대해 북극권 국가들은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과 달리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몽(Chinese dream)’은 중국 국가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방사회도 수긍하는 기준과 제도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Korpa 2013, p. 108).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극전략을 책정하지 않고 있지만 분석 결과 북극의 지전략적 변천을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단일국가(Unitary-State-As-Rational-Actor)’라는 관점에서 북극지역에 관한 분명한 지전략적 어젠다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북극해운로와 자원 이용을 가능하게 북극의 새로운 지정·지경학적 역할에 적응하고 있다(Abel 2012, p. 36).

중국은 북극지역에서 지전략학을 통해 변화되는 북극의 지정·지경학적 인과관계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인간 활동에 우호적으로 변화되는 북극의 가치, 예를 들면 새로운 북극해운로의 이용과 해저면 자원의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북지향상의 관점에서 북극 지역에서 새로운 해운로와 상품 및 자원수송로의 다변화와 경제적 이득을 올릴 수 있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행하고 있다.

중국은 북극 영토 요구권이 없어, 북극자원의 직접적 획득은 불가능하며, 단지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자원채굴이 가능하다. 북극의 기회는 비우호적인 자연지리적 조건과 그와 연계된 기술적 요구 외에도 북극정책과 국제사회에서 북극 채굴과 관련하여 비북극권 국가의 배제의 위험성 등으로 제약받고 있다.

중국은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로서 북극활동이 제한적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기술적 관점에서 현재 중국의 기술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과 물적·인적 자원동원력, 연구활동 용량은 북극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과 북극권 국가들과의 교역 강화가 중국의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지위 획득은 물론 향후 대북극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유럽 노르딕 5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와 미국의 북극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관계로 중국의 기대만큼 진전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중국의 북극 연구활동 용량 강화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독일이 주장하는 근거처럼 북극 연구활동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북극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쇄빙선을 통한 국내외 전문가의 북극 관련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북극이사회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르딕 북극권 국가들과의 연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극 정책의 전망은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북극해운로

이용과 자원채굴은 장기적으로 실제적인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북극 개입은 기후요인뿐만 아니라 기타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이 과연 북극이라는 변경지역에서 높은 재원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이러한 의지에 대한 북극권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조치는 중국의 대북극 정책에 대한 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중국은 북극 진출을 원하는 기타 국가들처럼 북극 보호라는 국제 시민사회의 전략적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한다. 아직까지 중국은 이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극이사회에서 중국의 영구 옵서버 지위는 특권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수반하고 있다. 희망적으로 북극이사회는 중국에 더욱더 북극 연구의 기여를 격려해줄 수 있으며, 민감한 북극의 자연보호에 더욱더 주의를 환기시키며, 북극 원주민 권리의 더 많은 존중과 더 많은 글로벌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다. 북극의 천연자원과 북극해운로 가치가 있다고 확증이 될 경우 중국정부는 더욱더 북극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V. 시사점

최근 중국의 대북극 연구에 대한 적극적 행보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북극권 국가로서 한국은 북극을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도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이슈에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3년 한국도 북극이사회에 영구 옵서버로 가입하면서 북극 환경과 생태연구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북극이사회 아시아 영구 옵서버 5개국 중 제일 먼저 2013년 12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북극정책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³¹⁾ 이 기본계획안의 추진전략별 대책 네 가지는 국제협력 강화, 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 북극비즈니스 발굴·추진, 제도 기반 확충이다. 이들 대책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태지역과 유럽 북극권 국가는 물론 북극이사회 등 여러 북극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북극을 미래 성장동력 공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은 연료 및 원료 자원 수입국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자원공급 확보와 자원수입원의 다변화를 우선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3국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이며 경제성 있는 무역운송로의 유지와 새로운 북극 운송로뿐만 아니라 복합 로지스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극이사회에 상임 옵서버가 된 한·중·일은 북극항로의 허브 경쟁, 북극권 자원/물류 진출에서 경쟁적 관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중·일은 북극자원의 사용자라는 '전략적 바이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자원/물류 부문에서 EU의 전신인 철강석탄 혹은 원자력 협력체처럼 한·중·일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부문별 협력체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의 한 예로 2014년 7월에 중국항만개발사(China Shipping Development Co.)와 일본의 미쯔이해운사(Mitsui O.S.K. Lines Ltd.)는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세계 최초로 러시아 북극 야말반도의

31) 한국의 관계부처는 6개부(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이다. 요약본은 웹사이트 참조. <http://www.arctic.or.kr/files/pdf/m4/korea.pdf> (2015. 5. 25).

천연가스를 북극항로를 통해 운반하는 정기 운항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금액은 총 9억 3,200만 달러로 쇄빙기능을 갖춘 LNG선을 대우해양조선에서 건조하여 2018년부터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중·일은 정치 부문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문에서 어느 정도 해빙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Iwata and Ma 2014).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대북극권 국가들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실리를 찾을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북극 전략이나 정책을 재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방의 경제제재 조처 이후 중국의 러시아 북극권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중·러 관계의 발전은 여러 면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2013년까지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국 확대 과정에서 러시아는 중국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의 중앙아시아, 극동시베리아 진출 가속화 등의 문제가 자국의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서방의 제재와 자본 동원의 한계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보다 서방과의 대북극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북극 대륙붕 개발에 필요한 서방의 기술과 노하우, 자본력의 필요성은 물론 기존의 에너지 수출시장 유지를 통해 중국과의 에너지 가격 협상력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Klimenko 2014, pp. 18~19). 상대적으로 한국은 러시아가 우려하는 중국의 대북극권 진출을 완화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대러시아 협력과 투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로 가입한 한·중·일은 기존의 ‘아시아극지과학포럼’을 재편하거나 바렌츠유럽이사회처럼 가치 ‘동북아북극이사회’ 혹은 ‘동아시아북극이사회’(새로 가입한 인도와 싱가포르 포함) 혹은 ‘아태북극이사회’(Young 2012, p. 316;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2014, p. 153; 제성훈, 민지영 2013, p. 117)를 주도적으로 창설하여 대북극권 협력을 주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상설기구를 부산(혹은 인천, 울산, 광양 등)에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기구를 바탕으로 에너지/물류 부문의 통합을 통해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블록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유럽의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가 바르샤바<OSJD(국제철도기구)의 본부 소재지>에서 북극이사회 협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도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³²⁾

중국의 신 실크로드 경제권과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동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국의 나진항 조차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방과 북한경제의 연착륙, 오희츠크 해를 비롯한 베링 해와 축치 해 자원개발과 항로 이용을 위한 한·중 혹은 남·북·중 등 3각 혹은 러시아/미국/일본 등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 설립 혹은 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013년 10월 8일에 북동항로를 경유하여 라이베리아 국적 <HHL Hong Kong>(Arct 4급)선이 러시아 우스티-루가부터 북한 나진항까지 일반화물 1,742톤을 운반하면서 나진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Northern Sea Route Information Office 2014). 그 외에도 2014~2015년에 나진항에서 시베리아산 석탄과 벌크화물 등이 한국의 포항항과 평택항, 상하이항으로 운반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서 남방 해상실크로드뿐만 아니라 북방 실크로드 연결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

32) 이 아이디어는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김정하 참사관이 북극연구단(배재대)에 보낸 메일에 포함된 내용임.

다. 북방 실크로드로서 북극해와 철도, 하천, 도로, 공항이 연계되는 복합물류체계를 이용하여 한국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지역인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북부지역과 연계(내륙 하천)하는 물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중·일은 북극의 자원과 물류부문 그리고 조선과 해양 플랜트 건설에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북극 틈새시장 모색에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북극항로의 거점항구 구축을 위해 강원도, 경상북도, 부산, 경남, 전남 등의 주요 항구간 지자체의 과열된 경쟁을 미리 예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한국의 북극기본계획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6개 부서와 기상청 간의 중복업무와 갈등도 배제할 수 없어 북극관련 문제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조성하거나 혹은 지정할 필요성 역시 대두된다.

또한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항과 오희츠크 해의 주요 항구(사할린 코르자코프와 홀름스크)와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츠키 항에 관련된 중국의 주요 북극 허브항 구축전략에 따라 한국도 이 지역의 물류기지(에너지, 수산, 관광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015년 9월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한국에서 제안한 북동항로 크루즈선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노르딕 국가 내 북극권 토지매입이나 캐나다와 미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유보나 거절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과학조사 및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 한·중 간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제2쇄빙선 건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제2쇄빙선의 규모와 기능,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과 북극권 국가와의 여러 연구협력, 예를 들면 2014년에 개소된 중국-노르딕북극센터를 벤치마킹하여 한국도 북극권 국가와 유사한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2017년에 완공될 캐나다 북극기지촌에 한국기지 구축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비북극권 국가로서 한국과 중국은 EU 등의 다른 비북극권 국가들과 함께 북극항로(북동 및 북서항로)의 자유로운 항행과 북극 심해저면의 자원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입장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대북극 연구는 북극 국가와 EU, 중국에 비해 양과 질 면에서 아직 미천한 상황이다. 미래공간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동적 자세보다는 능동적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극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북극 전문가는 자연과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국의 북극정책 비교를 위해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와 신진연구자 육성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극권 개발은 생태계 변화, 항행이용과 심해시추, 빙하 관리, 안전사고 등으로 야기되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비예측성에 직면하고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북극권 개발과정은 천문학적 고비용과 기후변화, 심해저면 탐사와 시추(우주탐사처럼 고비용 소요), 생태계 등의 리스크 관리하에서 안전한 기술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북극권은 과학분야의 공동연구, NGO 협력, 글로벌 이슈(기후협약 등)의 해결 모색 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북극 공간은 자연, 인문, 사회 등 전 학문 연구의 보고지역이며, 과학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인류의 실험실이기도 하다. 북극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미래공간이다. 다보스포럼 '북극 글로벌 어젠다 이사회'는 최근 북극 항로와 자원개발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가

지고 있지만, 이 계획은 단기 내에 달성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사회는 북극의 민감한 생태계 보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심화된 연구/과학기술의 발전과 대대적인 국내외 투자를 전제하고 있어 북극권국가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국가의 관민산학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³³⁾

최근 셰일가스 등 비전통적 석유/가스 개발과 국제유가 하락, 세계경제의 정체와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그리고 2017년 봄까지 북극이사회의 의장국인 미국의 북극정책이 개발보다는 환경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극 개발은 단기적으로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동항로 경유 선박도 2014년에 대폭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북극 개발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북극이사회의 비정부기구의 영구 옵서버 단체 중 하나인 중국의 ‘북극대학기관’이 가입을 많이 한 것처럼 한국 연구기관, 예를 들면 극지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과 대학기관의 가입을 통해 북극관련 연구 축적은 물론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와 기업의 대북극권 진출 과정에서 북극주민들은 환경 파괴적이며 자원 수탈적 경제협력 개연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극권 연구 분야에서도 원주민을 포함한 인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북극권 협력, 특히 투자협력의 지속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이미지 확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바탕으로 현지인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추코트카 금광에 투자한 캐나다 기업이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금광개발권을 획득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2013, p. 394).

북극권 국가들과 중국은 북극과 북방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과 한국에서 자주 언급되는 북방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88 올림픽 이후 한국의 북방정책은 대사회주의권과의 협력과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북방 혹은 신북방 등의 용어개념을 통해 북한, 동북아, 유라시아 공간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구상도 대륙세력과의 협력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체 북극공간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팩스 아티카(Pax Arctica) 시대의 대비와 한국의 성장공간과 비전을 위해 유라시아를 포함해서 북극의 전초기지로 나아갈 해양공간인 한국의 동해, 오호츠크 해, 알류산 열도를 포함한 베링 해와 알래스카, 캐나다 북극권까지 포함하는 ‘유람시아(Euramsia)’ 어젠다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한중만 2015, p. 72). 이를 통해 한국은 대륙세력뿐만 아니라 해양세력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이 우려하는 대중국 경사도 기울기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3) 2014년 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극의 현실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신화’로 묘사했다: ① 북극에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나 혹은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유권이 없는 프런티어로 간주한다는 점, ② 북극의 천연자원 개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 ③ 북극해의 유빙으로 인해 계절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항행이 가능하다는 관점, ④ 북극이 지정학적 논쟁으로 긴장과 갈등의 차세대 화약고라고 간주한다는 점, ⑤ 북극의 기후변화가 글로벌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중요성이라고 간주한다는 점(Global Agenda Councils 2014, pp. 1~18).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곽수근. 2015. 「중국도 일본도... 북극 러시」. 『조선일보』. (3월 21일)
- 관계부처 합동. 2013. 『북극정책기본계획(안)』. 해양수산부. (12월)
-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2014.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전략심층지역연구 14-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노르웨이 정부, 중국의 북극 섬 매입 시도에 제동」. 2014. 『연합뉴스』 (5월 23일)
-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2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사업단. (11월).
- 문진영. 2015. 「주요국의 온실가스감축 추지내용과 국내 대응방안」. 『에너지포커스』, 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 문진영, 김윤옥, 서현교. 2014. 『북극이사회의 정책동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주현. 2015. “2014년 전국 항만물동량 역대 최고치 달성.” 『데일리오션』. (1월 29일)
<http://www.dailyocean.co.kr/m/view.php?idx=394>(검색일: 2015. 6. 9)
- 신민재. 2014. 「북극항로 선점하자 ... 러시아와 협력 강화」. 『연합뉴스』. (10월 14일)
- 이대연, 김정인. 2015.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에너지산업 현화전망」.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21호. 에너지경제연구원. (6월 5일)
- 이성우, 송주미, 오연선. 2011.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해운항만 여건 변화 및 물동량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용희. 2013. 「북극 스발바르조약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7월)
- 이주환. 2013. 「북극항로 시범 상업운항, 中에 '완패」. 『부산일보』. (9월 27일)
- 이태환. 2012.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12월호. 세종연구소.
- 정규재, 최영선. 2014. 「중국의 북극개발 진출 전략과 전망」.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5호. 에너지경제연구원. (4월 25일)
- 제성훈, 민지영. 2013. 『러시아의 북극개발 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전략심층지역연구 13-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월)
- 조성대. 2015. 「중국, 북극지역에 과학기지 추가 건설 계획」. 『연합뉴스』. (3월 20일)
- 「중국-미국 정상, 온실가스 감축 전격 합의」. 2014. 『연합뉴스』. (11월 13일)
- 「중국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 북극촌」. 2015. 『CCTV.com 한국어방송』. (2월 4일)
<http://kr.cntv.cn/2015/02/04/ARTI1423032228478906.shtml>(검색일: 2015. 6. 15).
- 한종만. 2011.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27권 제2호.
- . 2012. 「러시아의 북극해 관련 계획분석 및 추진상황」. 『북극해 시대에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연구 - 전문자료집』. 해양수산개발원. (12월 31일)
- . 2013. 「철도의 르네상스와 러시아의 TSR의 확산: 베링해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TKR(한반도중단철도)건설: 북한을 열고 세계를 뚫다』.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편. 명지출판사.
- . 2014a. 「러시아의 북극전략과 거버넌스」.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편. 명지출판사.
- . 2014b.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의 자원/물류 전쟁: 현황과 이슈」.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8권 1호.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 2015. 「북극공간의 개념 정의: 자연구분과 인문구분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22권 1호.

한국비교경제학회.

[영문자료]

- Abel, Dennis. 2012. "Chinas Geostrategie in der Arktis – Politik und Wirtschaft Chinas." *China Analysis*, No. 98, Nov.
- Alexeeva, Olga and Frédéric Lasserre. 2012. "China and the Arctic." *Arctic Yearbook 2012*. Akureyri, Iceland: Northern Research Forum.
- Blunden, Margret. 2012. "Geopolitics and the Northern Sea Route." *International Affairs*, Vol.88, No. 1.
- Brady, Anne-Marie. 2012. "Polar Stakes: China's Polar Activities as a Benchmark for Intentions." *China Brief*, Vol. 12, No. 14.
- Brigham, Lawson. 2014. "The Changing Arctic: New Realities and Players at the Top of the World." *Asia Policy*, No. 18,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eattle, Washington. (July)
- "China seeks to establish Northern Canadian research outpost." 2015. *CBC News*, (March 24)
- "Development of the Arctic and the Future of Fisheries." 2013. *Radio of Russia*. (March 22)
- Dawnay, Kit. 2013. "China's Ambitions in the Arctic." *Current Intelligence*, (March 19).
- Emmerson, Charles. 2012. *Arctic Opening: Opportunity and Risk in the High North*. Lloyd's: Chatham House.
- Feng, Bree. 2015. "China Looks North: Carving Out a Role in the Arctic." *Canada-Asia Agenda*. (April 30)
- Global Agenda Councils. 2014. *Demystifying the Arctic, Authored by the Members of th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Agenda Council on the Arctic*. Davos-Kloster, Switzerland 22-25 January, 2014.
- Gorbachev, Michael S. 1987. *The Speech in Murmansk at the Ceremonial Meeting on the Occasion of the Presentation of the Order of Lenin and the Gold Star Medal to the City of Murmansk*. Moscow: Novosti Press Agency.
- Gorbunov, Victor B. 2012. *Murmansk Region: Potential of Development and Collaboration*. (Murmansk).
- Grimsson, Ólafur Ragner. 2013. "The AHA Moment: India and Our Ice-Covered World." (April 5) http://www.anantaaspencentre.in/pdf/p_s/aha.pdf (검색일: 2015. 6. 12).
- Higgins, Andrew. 2014. "A Rare Arctic Land Sale Stokes Worry in Norway." *The New York Times*. (Sep. 27)
- Hong, Nong. 2012. "The melting Arctic and its impact on China's maritime transport."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Vol. 35.
- IMF. 2015. *World Economic Outlook*. IMF (April)
- "IPCC gibt Synthesereport heraus." 2014. *Wetter Online*. (Nov. 2)
- Iwata, Maria and Wayne Ma. 2014. "Shipping Firms to Add Arctic LNG Route."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9)
- Jakobson, Linda. 2010.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 2. March

- Jakobson, Linda and Jingchao Peng. 2012. "China's Arctic Aspirations." *SIPRI Policy Paper*, No. 34. November.
- Jakobson, Linda and D. Knox. 2010. "New Foreign Policy Actor in China." *SIPRI Policy Paper*, No. 26. September.
- Jakobson, Linda and Seong-Hyon Lee. 2013. *The North East Asian States' Interests in the Arctic and Possible Cooperation with the Kingdom of Denmark*.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rmed Conflict Management Programme, April.
- Joensen, Jóhanna Vágadal. 2013. *A New Chinese Arctic Policy? An Analysis of China's Policies towards the Arctic in the Post-Cold War Period*. Denmark: Aarhus University.
- Klimenko, Ekaterina. 2014. "Russia's Evolving Arctic Strategy: Drivers, Challenge and New Opportunities." *SIPRI Policy Paper*, No. 42, Sep.
- Korpa, Sanna. 2013. "China's Arctic Interests." edited by Lassi Heininen, *Arctic Yearbook 2013*. Akureyri, Iceland: Northern Research Forum.
- Kuersten, Andreas. 2015. "Western Sanctions Help Facilitate China's Arctic Ambitions." *Diplomat*. (Jan. 17) <http://russia-insider.com/ru/2015/01/17/2493>(검색일: 2015. 3. 5).
- Lasserre, Frédéric. 2010. "China and the Arctic: Threat or Cooperation Potential for Canada?" *China Papers*, No. 11, CIC (Canadian International Council) Cent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June 3)
- Lasserre, Frédéric. 2015. "China's Interest in Arctic Shipping." *China Policy Institute Blog*. (March 12) <https://blogs.nottingham.ac.uk/chinapolicyinstitute/2015/03/12/chinas-interest-for-the-arctic-and-arctic-shipping/>(검색일: 2015. 5. 25)
- Mikkola, Harri and Juha Käpylä. 2013. "Arctic Economic Potential: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nd Risk-aware understanding of Arctic dynamics." *FIIA Briefing Paper*. No. 127, April.
- Moe, Arild. 2015. "China in the Arctic: Is it all about energy?" *Bellona Arctic Seminar*, Tromsø. (Jan. 21)
- NASA. 2012. "Arctic Sea Ice Shrinks To New Low In Satellite." <http://www.nasa.gov/topics/earth/features/arctic-seaice-2012.html>(검색일: 2014. 12. 10).
- Northern Sea Route Information Office. 2014. "Transit statistics 2014." http://www.arctic-lio.com/docs/nsr/transits/Transits_2011.pdf(검색일: 2015. 3. 31).
- SIPRI Workshop, 2012. "Sino-Nordic Perspectives on Arctic Development." Beijing. (May 10)
- Spohr, Alexander P., Jessica da Silva Höring, Luiza G. Cerioli, Bruna Lersch. 2013. "The Militarization of the Arctic: Political, Economic and Climate Challenges." *Ufergsmun/Ufrgs Model United National Journal*, Vol. 1.
- Staalesen, Atle. 2012. "China jumps aboard a Russian Arctic-bound train," *Barents Observer*, November 27.
- Stensdal, Iselin. 2015. "China and the Arctic: Where's the Great Power Competition?" *China Policy Institute Blog*. (March 13) <https://blogs.nottingham.ac.uk/chinapolicyinstitute/2015/03/13/china-and-the-arctic-wheres-the-great-power-competition/>(검색일: 2015. 5. 25)
- Stensdal, Iselin. 2012. "China's Climate Change Policy 1988-2011: From Zero to Hero." *FNI (Fridtjof Nansen Institute) Report*, No. 9.
- Sun, Kai. 2014. "Beyond the Dragon and the Panda: Understanding China's Engagement in the Arctic." *Asia Policy*, No.18,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Seattle, Washington. (July)

- Tschudi, Felix. 2012. *Economic Opportunities (and uncertainties) in the Arctic. Conference of Parliamentarians of the Arctic Region*. Akureyri: Tschudi Shipping Company. (August 6)
- U.S. Coast Guard. 2013. *Arctic strategy*, Washington D.C. (May 10)
- USGS(United State Geological Survey). 2008. “90 Billion Barrels of Oil and 1,670 Trillion Cubic Feet of Natural Gas Assesment in the Arctic.” *USGS Newsroom*, (July 23).
- Watts, Jonathan. 2009. “China’s Carbon Emissio Will Peak Between 2030 and 2040, Says Minister.” *The Guardian*. (Dec. 6)
- Weber, C. L., Petrs, G. P., Guan, D. and Hubacek. K. 2013. “The Contribution of Chinese Exports to Climate Change.” *Energy Policy*, Vol. 36, No. 9.
- Wegge, Njord. 2014. “China in the Arctic Interests, Actions and Challenges.” *Nordlit*, Vol. 32.
- Willis. 2013. *Mining Market Review Spring 2013*. Willis.
- Wodiske, Brianna. 2014. “Preventing the Melting of the Arctic Council: China as Permanent Observer and What It Means for the Council and the Environment.”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 30, (Jan. 11).
- Young, Oran R. 2012. “Listening to the Voice of Non-Arctic Ocean Governance.” Oran R. Young, Jong Deog Kim, and Yoon Hyung Kim, eds. *The Arctic in World Affairs: A North Pacific Dialogue on Arctic Marine Issues 2012 North Pacific Arctic Conference Proceedings*. A Joint Publication oft Korea Maritime Institute and the East-West Center.
- Zongze, Ruan. 2012. “China Defends Arctic Research Mission.” *China Daily*. (Feb. 1)

[러시아자료]

-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014. “Заседание итоговой коллегии «Об итог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2013 году и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2014 года» г. Владивосток, 23 июня 2014 г.” (г. Владивосток, 23 июня 2014 г.) <http://minvostokrazvitia.ru/upload/kollegiya-DV>.(검색일: 2014. 9. 18).

**특별기고문: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И ЕГО РОЛЬ
В СОХРАНЕНИИ Б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СЕВЕРА ЕВРАЗИИ (ОБЩА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И.К. Гаврилов¹⁾

Би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базисных составляющих, определяющих характер и направление эволю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биосфере. Потенциал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гарантирует возможность адаптации живых организмов к изменяющимся условиям внешней среды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ддержания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и природ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Без сохранения б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невозможно устойчивое развитие биосферы, от чег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зависит решение глобальной проблемы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а. Изучению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в России традиционно уделялось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После ратификации в 1995 г.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Конвенции о биологическом разнообразии [1] проблема сохранения б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приобрела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татус компонен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тегии [2].

Проблема биоразнообразия глобальна.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или време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при ее решении весьма условны. При этом, однако, в пределах крупнейших био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бластей Земли объективно существуют своеобразные центры, одновременно формирующие и поддерживающие биоразнообразие и жизнеспособность природ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на всем пространстве каждой из таких областей в целом. В Арктике одним из таких планетарно значимых регионов, аккумулирующих и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биоразнообразие, является плато Путорана.

* 이 글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시에 위치하고 있는 크라스노민속박물관의 가브릴로프(И.К. Гаврилов) 박사의 특별기고문으로 글의 서체와 양식은 원본 그대로 사용했음.

1)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ево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г. Красноярск, Россия ik.gavrilov2000@yandex.ru



Рис. Типичные формы рельефа в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плато Путорана (фото: <http://test.putorana.land>).

Плато Путорана – регион с уникальным сочетанием природных комплексов. Это самый крупный монолитный горный массив Российского Заполярья, почти целиком расположенный севернее полярного круга. Гигантские размеры плато, огромная его протяженность с севера на юг и с запада на восток, а также прекрасно выраженная вертикальная поясность обусловили уникальное сочетание животных сообществ характерных для тундры, лесотундры, тайги и типично альпийских ландшафтов. Горный характер фауны Путорана придает ей несколько большее разнообразие и специфику по сравнению с фаунами окружающих равнин и низкогорий. Фауна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имеет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ую структуру. В условиях горного ландшафта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целостные, обособленные и своеобразные фаун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лесного (горно-северотаёжного), подгольцового (горно-лесотундрового) и гольцового (горно-тундрового) поясов. Они не имеют абсолютных аналогов в других горных системах Севера Еврази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 лишены своеобразия, и поэтому

являют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ценными объектами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охраны [3].



Рис. Гольцова зона в южной части плато Путорана (фото: Игорь Гаврилов)

Высокое би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Путорана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не только сочетанием ярко выраженных зональных животных и растительных сообществ, но и широки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м интразональных группировок. На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перекрываются ареалы многих видов и подвидо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х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Европе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на весьма существенное расстояние происходит взаимопроникновение южных и северных элемент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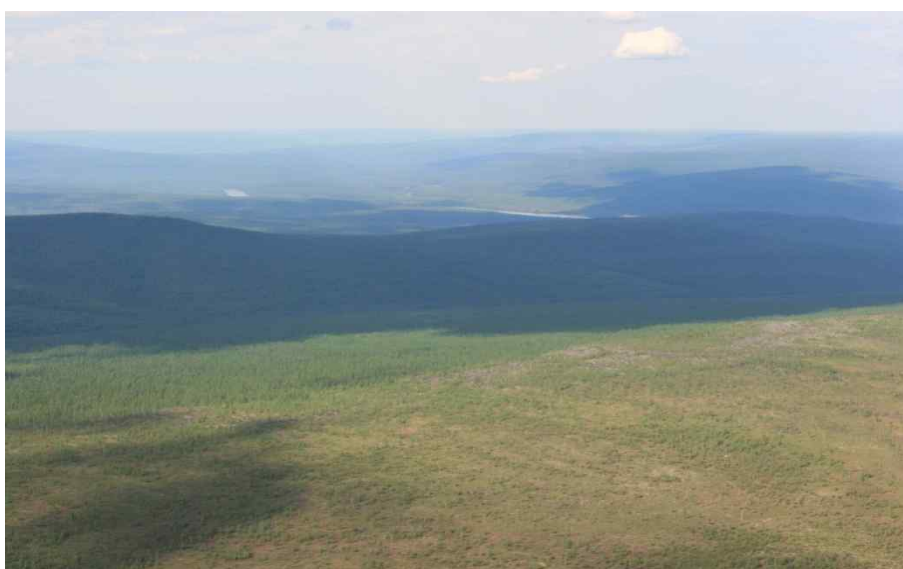


Рис. Граница лесотундры и редколесья на горных массивах в правобережье р. Виви

(фото: Игорь Гаврилов).

Еще одна уникальная зоо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особенность Путоран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оно лежит в пределах Енисейской зоо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границы [4], являющей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масштабных меридиональных био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рубежей Евразии. Этим обусловлено повышенное видов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и переходный характер путоранской фауны. Последнее выраж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 ее состав одновременно входят виды и подвиды, являющиеся типич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зличных фаун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господствующих западнее или восточнее Енисейской зоо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границы и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хся далее от нее.

Необычайно широк спектр как сухопутных, так и водных местообитаний. В частности богатство и специфика ихтиофауны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за счет устойчивой связи уникальной местной гидросети с бассейнами рек Енисея, Пясины, Хатанги. В составе ихтиофауны плато Путорана – 4 эндемичных таймырских вида: боганидская паляя (*Salvelinus boganidae* Berg, 1926), есейская паляя (*Salvelinus tolmachoffi* Berg, 1926), голец Дрягина (*Salvelinus drjagini* Logashev, 1940), таймырский голец (*Salvelinus taimyricus* Mikhin, 1949). Ряд видов (арктический голец (*Salvelinus alpinus* Linnaeus, 1758), сиг-пыжьян (*Coregonus pidshian* Gmelin, 1789), муксун (*Coregonus muksun* Pallas, 1814), валец (*Prosopium cylindraceum* Pennant, 1784), сибирский хариус (*Thymallus arcticus* Pallas, 1776)) образуют в регионе морфологические и морфо-экологические формы, положение которых в структурах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идов до сих пор не выяснено [3, 5].

Многообразие ландшафтов плато предопределило повышенное богатство местной орнитофауны. Список птиц насчитывает 184 вида, что заметно больше, чем в любых других северотаежных районах Средней Сибир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3 видов птиц, внесенных в Красные книги МСОП,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6-7]: белоклювая гагара (*Gavia adamsii*), краснозобая казарка (*Branta ruficollis*), пискулька (*Anser erythropus*), горный гусь

(*Eulabeia indica*), малый лебедь (*Cygnus bewickii*), клоктун (*Anas formosa*), скопа (*Pandion haliaetus*), беркут (*Aquila chrysaetos*), орлан-белохвост (*Haliaeetus albicilla*), кречет (*Falco rusticolus*), сапсан (*Falco peregrinus*), черный журавль (*Grus monacha*), кроншнеп-малютка (*Numenius minutus*). 9 из них достоверно гнездится, а 3 — являются эндемиками Азиатской части России [3].



Рис. Система верховых горно-тундровых озер в южной части плато Путорана (фото: Игорь Гаврилов).

Плато Путорана – центр эндемизма и современного видо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 где в силу господства горно-котлови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местности многие виды (подвиды) имеют островной характер пребывания. Путоранские популяции некоторых видов (подвидов) позвоночных животных изолированы и лежат далеко за пределами основного ареала. В частности,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населяет уникальный эндемичный подвид снежного барана (*Ovis nivicola borealis*), занесённый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России [6].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уторана ежегодно происходит одно из самых грандиозных среди известных явлений в жизни крупны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сезонные миграции крупнейшей в мире таймырской популяции диких

северных оленей. Мигрирующие стада привлекают множество хищников – бурых медведей (*Ursus arctos yenseensis*), волков (*Canis lupus*), росомах (*Gulo gulo sibiricus*). Бурые медведи образуют скопления, не уступающие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иболее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в Евразии скоплениям камчатских медведей у нерестовых рек.



Рис. Снежный баран путоранский подвид (*Ovis nivicola borealis*) – эндемик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занесённый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России (фото: Андрей Подкорытов, Россия, <http://www.marshruty.ru/travel/putorana2013>).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в силу своей труднодоступности, являлось самым северным естественным резерватом соболей (*Martes zibellina*) в период глубокой, почти двухвековой, депрессии состояния этого вида.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факторов, определяющих как степень охраны природ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Путорана в целом, так и охрану позвоночных животных в частности, является налич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ла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заповедника «Путоранский», занимающего площадь 1 887 251 га [8]. Организация в 1988 г. Путоранского заповедника позволила взять под охрану многие виды рыб, птиц, млекопитающих, и дала мощный импульс исследованию местной

фауны. Результатом фаунистическ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огромной площади самого заповедника и некоторых сопредельных районов плато Путорана стало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ение сведений по биологии и экологии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позвоночных животных, но и выявление общерегиональных закономерностей, позволяющих грамотно разрабатывать и эффектив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необходимые природоохра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Рис.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Пutorанского заповедника на севере Приенисейской Сибири (фото: <http://test.putorana.land>).



Рис. Кречет (*Falco rusticolus*) – редкий вид, занесенный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России (фото: Владимир Мешков, Россия, <http://meshkoff.35photo.ru>)

Путоранский заповедник – это единственная особо охраняемая природная территория на огром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Палеарктического региона, где типичная северотаёжная фауна необыкновенно разнообразна, обогащена характерными горными видами, своеобразно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западные и восточные элементы, и имеет в своем составе немало редких и исчезающих видов, включенных в Красные книги МСОП и России. Охрана и изучение ряда видов на плато Путорана, таких например, как путоранский подвид снежного барана (*Ovis nivicola borealis*), пискулька (*Anser erythropus*), орлан-белохвост (*Haliaeetus albicilla*), кречет (*Falco rusticolus*), имеет ранг крупн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роблемы [3].

Приказом Министра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3.08.2012 г. №237 ФГБ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заповедник «Большой Арктический», ФГБ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биосферный заповедник «Таймырский», ФГБ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заповедник «Путоранский» — реорганизованы в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учреждение «Объединенная дирекция заповедников Таймыра» (ФГБУ «Заповедники Таймыра») [8].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ФГБУ «Заповедники Таймыра» является охрана уникальных природных комплексов заповедников «Путоранский», «Большой Арктический», «Таймырский», заказников «Пуринский», «Североземельский». В целях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выявления и пресечения нарушений режима особой охраны, контроля за экологическим состоянием природных комплексов сотрудники отдела проводят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е патрулирование заповедн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ФГБУ «Заповедники Таймы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изучение природ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долговременное слежение за динамикой природных процессов с целью оценки, прогноза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разработки научных основ охраны природы, сохранения б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биосферы,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и р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з перечня всех особо охраняемых природных территорий ФГБУ «Заповедники Таймыр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дной из самым доступных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остается территория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Исключительные по своей красоте ландшафты, своеобразный рельеф, богатый животный и растительный мир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делают этот район интересным и перспективным для развития различных форм туризма (экстремальный и приключенческий туризм, вертолетные экскурсии, бёрдвечинг, корпора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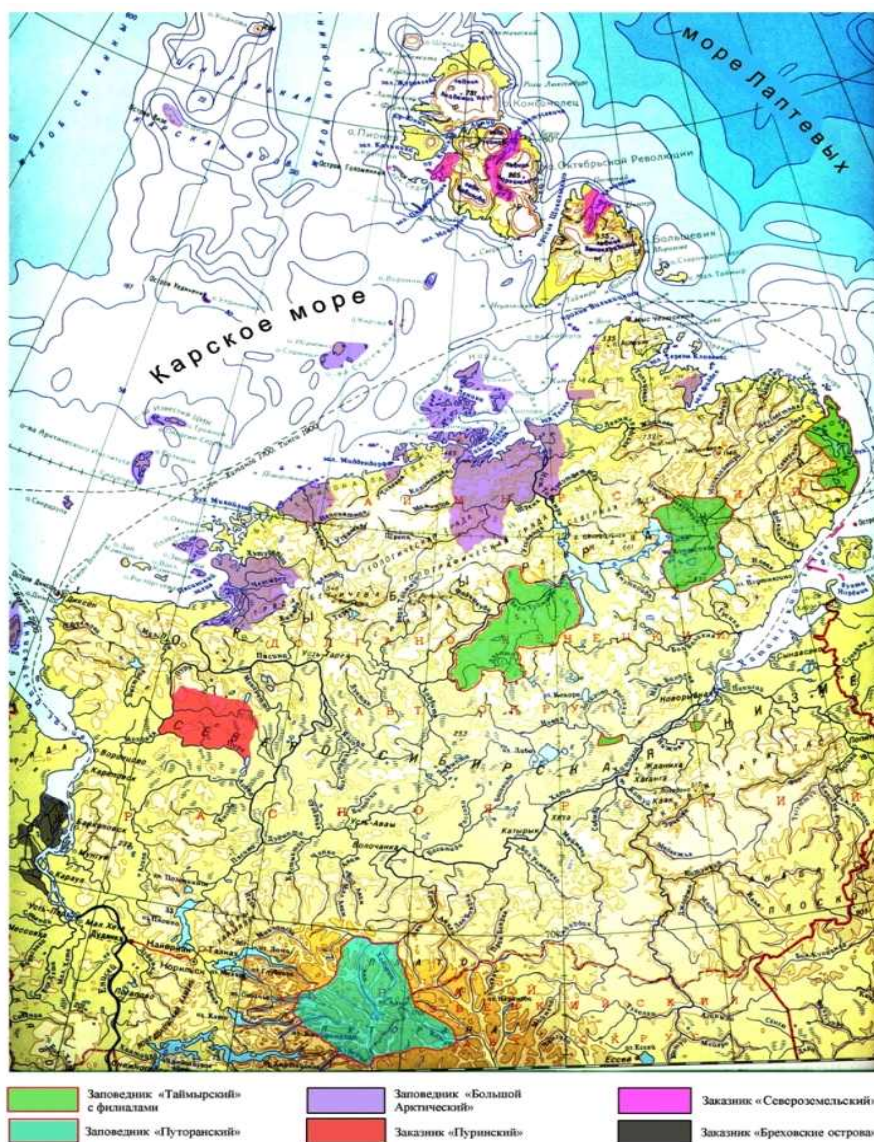


Рис. Карта заповедников Таймыра [8].



Рис. Общий вид знака–стелы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цент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становленный на озере Виви (южная часть плато Путорана) (фото: Игорь Гаврилов).

Специфика плато Путорана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посещение этих уникальных мест носит экспедиционный характер. Территория заповедника удалена от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граница заповедника проходит в 180 км от г. Норильска – ближайшего крупно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и от Норильска до территории заповедника не существует.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возможна заброска на снегоходах, при этом сложность состоит в поиске места подъема на плато, по которому возможно прохождение снегохода. В летнее время возможна заброска группы реч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Доставка ту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на плато посредством вертолет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лимитируется сложными метеоусловиями района (не зависимо от сезона) и ограничен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мест для посадки вертолета.

В 2010 г. плато Путорана включено ЮНЕСКО в список объектов, составляющих всемирное наследие. Внесение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означает не только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изнание уникальности и важности объекта, повышение статуса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но и объективно содействует улучшению того, как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его сохранность.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1. Конвенция о биологическом разнообразии / Конференция ООН по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и развитию, Рио-де-Жанейро, 3–14 июня 1992 г.
2. Протокол Коллегии Госкомэкологии от 23.11.98 г. № 13.
3. Фауна позвоночных животных плато Путорана / Под общ. ред. А.А. Романова. – Москва, 2004. – 475 с.
4. Рогачёва Э.В. Птицы Средней Сибири / Э.В. Рогачева. – М.: Наука, 1988. – 309 с.
5. Аннотированный каталог круглоротых и рыб 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вод России / Под ред. Ю.С. Решетникова. - М.: Наука, 1998. 218 с.
6. Красная книга РФ, 2001. Красная книг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животные). – М.: АСТ Астрель, 2001. – 862 с.
7. Красная книга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Т. 1. Редкие находящиеся под угрозой исчезновения виды животных / гл. ред. А. П. Савченко. – Красноярск, 2012. – 248 с.
8. www.zapovedsever.ru – сайт ФГБУ «Заповедники Таймыра».

북극에 관한 러시아 언론분석 및 한국의 대응전략*

계용택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IV.	연구방법
V.	분석결과
VI.	논의 및 제언

I. 문제제기

북극의 경우 남극과 달리 연안국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부분 속해 있어 비북극권 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안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북극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극연구에 있어서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북극항로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북극항로개발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북극항 연안의 석유, 천연가스, 원목 등 자원개발과 수송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북미 서해안을 연결하는 최단 해운 항로로 활용될 전망으로 한국에 필요한 자원수입 및 수출입화물 운송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북극항로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한 실천 항목 가운데 하나이며, 항로 자체는 정치, 경제, 외교적 의미를 넘어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인 시베리아가 거대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게 될 통로이다¹⁾

또한 북극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 및 가스를 보유한 러시아와의 자원개발사업 참여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로모노소프 해령 인근에는 무려 1,000억 톤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²⁾되고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밖에 한반도의 기후와 관련되어 러시아령 북극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북극은 지구의 기상, 기후, 해류의 순환 등 지구의 환경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 본 연구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NRF-2014 B0153),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9권 2호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5년)에 게재되었던 글임을 밝힘.

1) 김선래,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국시베리아연구』 제 19권 1호(2015) p. 37.

2) U.S. Geological Survey, 2008.

있는데 북극의 차가운 대기가 한반도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북극권에서의 오존 감소, 기온상승에 따른 해빙감소 및 기류변화 역시 한국의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북극연구 분야에는 쇄빙선 건조 등의 과학기술 분야, 수산자원 확보 분야, 지도와 해도 제작 등 북극권의 공간 정보 구축분야, 극지운항 선박의 안전항행 기술 및 극지용 해양플랜트 기술 개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러시아와의 협력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는 비북극권 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북극 연구기관 간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극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북극연구 컨소시엄은 해수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북극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북극 관련 30여개의 산·학·연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이 북극 연구 및 개발에 있어 러시아와의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북극에 대해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 국가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그 나라의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

다량의 언론매체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산작업을 이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키워드 텍스트 분석일 경우 빈도수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마이닝 기법등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난 1년 3개월간의 러시아에서 발간된 북극관련 기사 1백만 건에서 ‘북극’이라는 키워드로 기사제목을 검색하여 추출한 기사 가운데 텍스트 빈도수 분석 및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언론에 나타난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러시아가 북극관련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하는지를 고찰한다. 그밖에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하여 실질적일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언론기사와 빅데이터

빅데이터 는 말 그대로 수많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양이 많다고 해서 빅데이터가 되는 건 아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빅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정형 데이터란 부분이다. 비정형이란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화되지 않은 모든 원천 데이터를 의미한다. 빅데이터 분석은 바로 이런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의미를 뽑아내는 것을 말하며 이를 활용해서 통찰력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빅데이터의 성질을 규정하는 가장 큰 부분인 비정형데이터는 텍스트, 음성, 사진, 동영상 등

3) 정철호, “국내 솔루션 기반 빅데이터 구축전략 및 사례”, 『정보 속으로』 Vol.76 SEP-OCT(2012) pp. 31-37.

을 일컫는다. 이들 가운데 텍스트 데이터는 빅데이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는 텍스트마이닝 또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주로 행해져온 텍스트마이닝의 데이터소스는 신문기사, 검색어, 트위터 등이 있다. 신문데이터를 이용한 언론보도 분석은 언론정보학 분야에서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었다. 언론 보도 분석은 언론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간을 정해,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기사를 모든 주어진 기준에 의해 기사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기사내용 분석은 이전까지는 기계적인 텍스트마이닝 보다는 주로 일대일로 읽고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이 주로 행해져 왔다. 최근 들어 데이터마이닝 툴이 발달함에 따라 대용량의 신문기사 및 여론자료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감미아·송민(2012)⁴⁾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요 신문사의 논조 비교를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현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한 논조의 차이가 존재했는지 검토를 시도하였다.

2. 언론기사의 제목

기사 제목이란 기사 내용을 요약 대표하되, 독립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춘 독특한 표현 양식으로 전체 기사의 요약 및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쓴 완전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제목의 기능으로 기사의 광고 및 색인 기능, 기사의 가치 판단 기능, 내용의 압축·전달 기능 및 지면의 미적 균형 기능 등이 있다⁵⁾.

통상적으로 기사의 본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예, 내용의 압축·전달 기능 혹은 본문 요약 기능)을 제목의 본질적 기능으로 본다. 하지만 아무리 사실 위주의 객관적인 기사라 하더라도 아이템 선별에서부터 어떤 사안이 기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기사 본문과 제목을 작성할 것인가 하는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든 주관적인 선택과 배제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 한 기사는 있을 수 없고 기사 제목에도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연구자들은 제목을 분류할 때 설득방식의 종류나 기사제목과 본문과의 관계 등 주로 내용상의 기능에 따라 유형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자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사 제목이 본문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는 ‘본문직역형’, 본문의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반영한 ‘본문해석형’, 본문에 등장하는 취재원의 증언이나 편집자의 해석을 인용부호를 이용해 전달하는 ‘본문인용형’이 있다⁶⁾.

기사의 제목은 언론사 내부에서 벌어진 게이트 키핑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제목은 독자에게 현재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의제설정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이밍의 기능도 한다.

프레이밍이론은 모든 기사에는, 상황이나 메시지의 의미나 한계를 정하는 프레임이 내재되어

4) 감미아·송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18(3), (서울: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2), pp. 53-77.

5) Baskette, F. K., Sissors, J. Z., and Brooks, B.S., *The Art of Editing* (New York: Macmillan, 1986).

6) 유흥식, “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53(5), (서울: 한국언론학회, 2009), pp. 177-199.

있고 그 프레임은 수용자의 인지과정(인지, 해석, 평가,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사 제목이 기사 본문을 해석하는 데 스키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사 제목이 본문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틀(프레임)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사내용 중 일부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기사제목이 기사 내용을 요약 대표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하다는 전제로 검색대상으로 정하였다.

3. 언론 기사의 프레이밍

프레이밍은 언론보도에서 어떤 이슈나 사건의 특정한 면을 선택, 강조하는 것을 의미 한다. 기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미디어는 특정한 관점을 선택하고 이 관점들이 기사 텍스트 안에서 현저성을 띄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사 프레이밍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언론 보도가 프레이밍을 통해 구성된 사회적 현실과 의미가, 수용자들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즉, 프레이밍은 수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이 어떠한 이슈나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⁷⁾.

뉴스 프레임은 뉴스를 생산하는 당사자인 미디어가 뉴스를 제시하는 일관된 관점이자 틀이기 때문에 '뉴스 가치'와 같은 기존의 뉴스 보도 관행이나, 미디어 조직의 내부적 특성 및 상업적 이해 등이 뉴스 프레임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슈에 관계없이 일정한 몇 가지 프레임이 뉴스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간적 흥미, 갈등, 도덕, 경제, 안보 프레임 등은 다양한 기사의 주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프레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대중매체가 북극 관련 뉴스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는지를 고찰한다.

III. 연구문제

1) 연구문제-1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는 러시아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가? (특정주제 관련 기사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특정주제에 국민들이 가지는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다.)

2) 연구문제-2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 빈도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단어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언론의 기사에 나오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파악하여 특정 주제의 기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7) Scheufele, D. A. ,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2&3), 2000), pp. 297-316.

Tankard, J. W. ,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S. D. Reese, O. H. Gandy, Jr.,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3), pp. 95-106.

3) 연구문제-3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는 어떠한 뉴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 (기사의 나오는 단어나 내용의 성격을 파악하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화합을 이루는지 갈등을 조장하는지를 알 수 있다.)

4) 연구문제-4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는 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가? 또한 기사에 나오는 주요인물은 누구이며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기사의 주요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 및 분석하고, 기사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행위를 고찰한다.)

5) 연구문제-5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에 나타나는 러시아의 주요 관심점이 무엇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러시아와 학술연구, 과학기술, 정책 협조 등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IV.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1년3개월에 걸쳐 수집한, 29개의 러시아 언론매체에서 인터넷으로 공개된 약 1백만 건의 뉴스 중에서 “북극”을 키워드로 기사제목이 검색된 뉴스 1102건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러시아 언론매체에서 러시아의 4개 통신사가 주된 뉴스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언론매체들도 방송, 신문을 비롯하여 영향력 있는 뉴스 매체이며 러시아에서 대표적인 언론매체의 성격을 지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러시아의 일반 언론매체들도 대부분의 뉴스소스를 통신사에 의지하기 때문에 러시아 전체규모의 분석일 경우 뉴스선택에서 개별 언론매체의 특성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는다.

분석대상이 된 기사의 언론매체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 통신사(4개사) : 인터팩스(www.interfax.ru), 이타르타스(www.itar-tass.com), 렌타뉴스(www.lenta.ru), 리아노보스치(www.ria.ru)

*러시아 인터넷 뉴스(6개사) : 24시간 뉴스(www.24rus.ru), 전러시아 뉴스(www.allrussia.ru), 오늘의 뉴스(www.dni.ru), 프라임 뉴스(www.1prime.ru), 러시아 뉴스(www.newsru.com), 아침 뉴스(www.utro.ru)

“러시아 방송사(2개사) : 엔테베(www.ntv.ru), 에하모스크비(<http://echo.msk.ru>),

러시아 신문사(6개사) : 러시스카야 가제타(www.rg.ru),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www.kp.ru), 모스크보브스키 콤소몰레츠(www.mk.ru), 니자비시마야 가제타(www.ng.ru),

코메르상트(www.kommersant.ru), 베다모스치(www.vedomosti.ru)

“지역 언론사(5개사) : 사할린 뉴스(www.sakhalin.info), 시베리아 뉴스(www.sia.ru),

우랄 뉴스 (www.uralinform.ru), 블라디보스톡 뉴스 (www.vlc.ru), 줄라토이 로그(극동뉴스) www.zrpress.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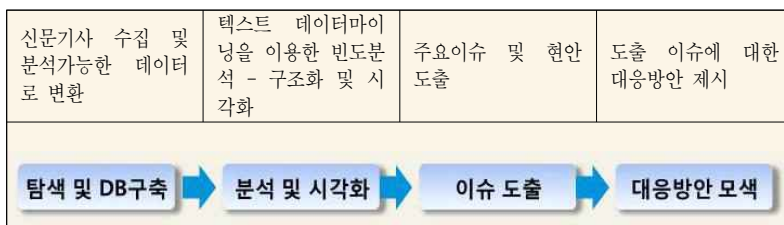
*전문지등 기타언론사(6개사) :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팅그룹 뉴스 (www.rbcdaily.ru), 러시아 정치뉴스(www.polit.ru), 러시아 금융뉴스(www.finmarket.ru), 전야 뉴스(www.nakanune.ru), 석유가스 뉴스(www.neftegaz.ru), 브즈글라드-상업뉴스(www.vz.ru).

2. 분석 프로세스

본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의 언론기사의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방안 제시라는 방법론으로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분석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하였다.

기사의 전체 단어의 빈도수를 파악하여 빈도수를 중심으로 한 단순빈도수 기법으로 기사 전체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사를 군사(안보), 지역개발, 영토(외교), 자원, 학술(연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 카테고리별 기사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1> 연구 분석 프로세스



V. 분석 결과

1. 러시아 북극관련 기사에서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 및 기사 프레임 분석

전체기사중 “북극”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건수는 1102건이다. 이는 전체 기사 1백만 건 중 0.11퍼센트를 차지하는 아주 적은비율로, 러시아 국민들의 북극에 대한 관심사가 아주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기사(1102건)의 제목에 포함된 단어의 수는(전치사등 모든 분리된 단어들 포함) 9998개이다.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 빈도수는 “러시아” 키워드가 40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군사(적인)”가 117건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로스네프치-78건, 설치(건설)-75건의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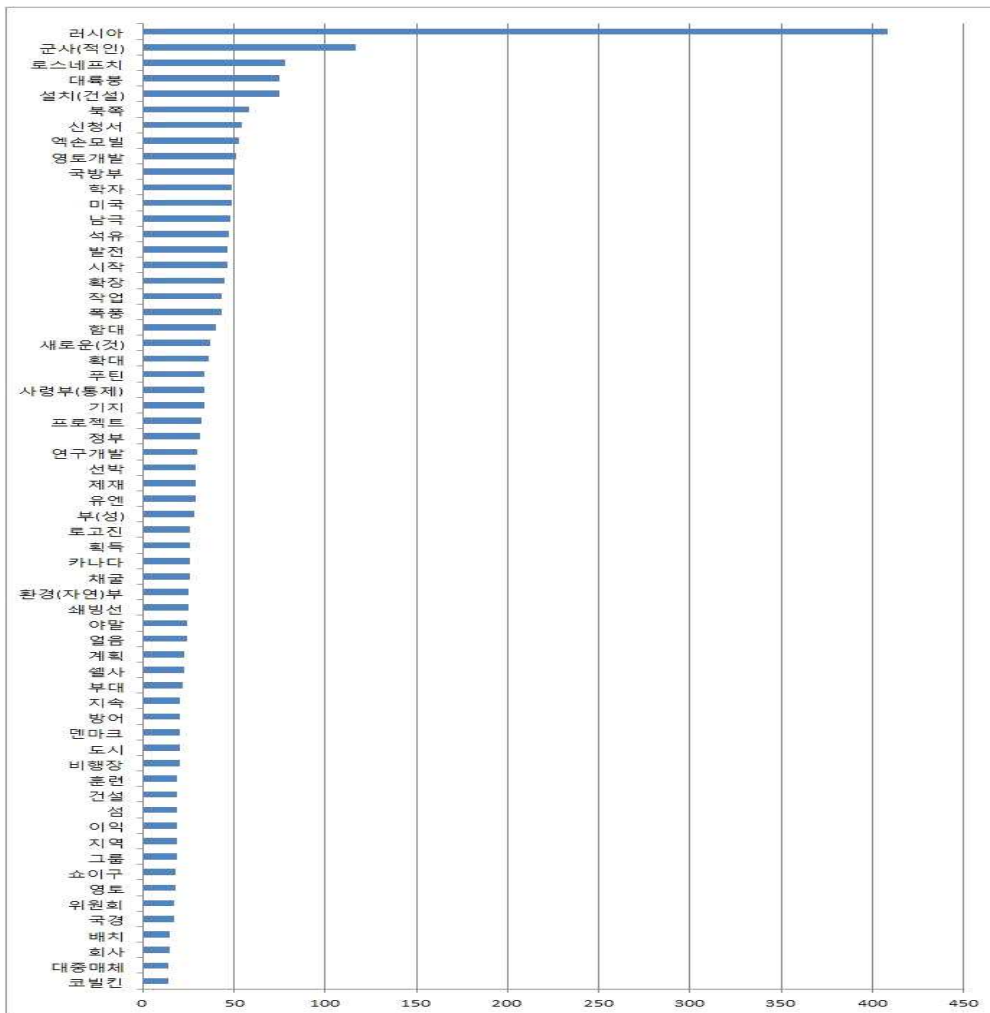
러시아의 언론매체가 북극관련 기사를 다룰 때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의 기사 프레임은 기사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성격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우선 군사안보 관련 단어들로는 군사(117), 국방부(50), 함대(40), 기지(34), 사령부(34), 부대(22), 비행장(20), 훈련(19)등 모두 336건

이 사용되었다. 이는 검색된 키워드 전체 단어 2470개중에서 13.6퍼센트를 차지한다.

그에 반해 자원 관련 키워드로 로스네프치(78), 엑슨모빌(53), 석유(47), 시추(43), 채굴(26), 웰사(23)등 모두 270건이 사용되었다. 이는 검색된 키워드 전체 단어에서 10.9퍼센트를 차지한다. 영토(외교) 키워드로는 대륙붕(75), 신청서(54), 유엔(29), 제재(29), 캐나다(26), 덴마크(20), 영토(18), 국경(7)등 모두 258건이 사용되었다.

상기의 데이터들을 종합할 때 러시아의 언론매체들은 ‘북극’을 군사적인 요소가 있는 안보공간 및 자원 매장지, 그리고 영토 확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키워드별 빈도수 그래프



<표 2> 키워드별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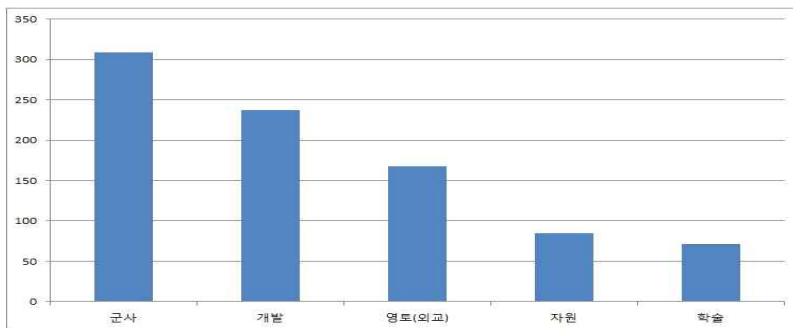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빈도수
러시아	408	확장	45	채굴	26	그룹	19
군사(적인)	117	시추	43	캐나다	26	지역	19
로스네프치	78	작업	43	획득	26	이익	19
설치(건설)	75	함대	40	로고진	26	섬	19
대륙붕	75	새로운(것)	37	쇄빙선	25	건설	19

북쪽	58	확대	36	환경(자연)부	25	훈련	19
신청서	54	기지	34	얼음	24	영토	18
엑손모빌	53	사령부(통제)	34	야말	24	쇼이구	18
영토개발	51	푸틴	34	웰사	23	국경	7
국방부	50	프로젝트	32	계획	23	위원회	17
미국	49	정부	31	부대	22	회사	15
학자	49	연구개발	30	비행장	20	배치	15
남극	48	유엔	29	도시	20	대중매체	14
석유	47	제재	29	덴마크	20	코발킨	14
시작	46	선박	29	보호	20		
발전	46	부(성)	28	지속	20	전체	2470

2. 러시아 북극관련 뉴스의 내용별 분석

북극관련 기사의 내용별로 분류는 공통적으로 연관성 있는 단어의 빈도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여기에는 군사, 지역개발, 외교(영토), 자원, 학술(연구)등이 있다. 군사 관련 기사는 309건으로 가장 많고 북극지역 개발관련 뉴스는 237건으로 2위를 차지한다, 그 밖에 북극의 영토 및 외교에 관한 내용은 168건, 북극자원 및 자원개발 관련 뉴스는 85건, 북극에 대한 학술 및 연구 관련 기사는 71건에 달한다.

<그림 2> 러시아 북극관련 기사의 내용별 분류된 기사 건수



1)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 중 군사관련 기사 분석

러시아는 북극을 전략적 군사요지로 설정하고 북극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성(Полярная звезда)’을 비롯한 북극지역에 6개의 군사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군사도시가 세워진 ‘브랑겔 섬(Остров Врангеля)’ 및 ‘쉬미드타 콧(갑)(Мыс Шмидта)’ 등에서도 러시아 군인들이 주둔이 시작되었다.

그밖에 러시아는 2017년 까지 새로운 북극사령부 설치와 함께 북극 주둔 군대에 2개의 독립 기동여단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르만스크 부터 추코트 까지 북극지역에 걸쳐 군대배치를 계획할 것이다.

북극의 물자수송과 군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노바야 지물랴(Новая Земля)’, ‘지물랴 알렉산드리(Земля Александры)’ 등 북극지역에 13곳의 비행장 건설과 10개의 레이더 기지 설치를 계

획하고 ‘갑주(Панцирь)’라고 불리는 대공방어 시스템과 무인비행기 부대를 창설하였다.

북극에서의 러시아 공군은 공군기의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무력과시를 종종 하고 있다.

한 예로 전략미사일 탑재 TU-95MC 폭격기가 수대의 미그-31전투기와 함께 북극상공 비행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그밖에 정기적인 전투기 조종사 구조훈련을 비롯한 항공훈련 및 비행장 건설과 공군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은 북극지역 노보시비르 섬에 항구적인 북방함대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전략사령부를 세워 작전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북극에서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최초의 기지가 브랑겔 섬에 건설 된다. 이러한 북극에서의 러시아 해군 작전활동에는 쇄빙선이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다.

2)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 중 북극지역 개발관련 기사 분석

북극지역 개발은 러시아 정부가 군사적 확장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이다. 북극지역 개발에 대하여 언론에 거론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 둘째는 과학기술 발전 및 장비의 개발, 셋째는 지리적 탐사 활동, 넷째는 관광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주제로 나눌 수 있다.

* 북극개발에 대한 러시아 연방정부 차원의 움직임

북극발전 위원회를 이끄는 러시아 부수상 드미트리 로고진은 북극개발을 위해 5년 동안 약 2220억 루블을 투입할 것으로 보도됐다. 러시아는 이처럼 연방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대 프로젝트의 실현으로 북극지역 개발을 원하고 있다.

또한 북극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부 내에 북극지역 발전부를 조직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법률적 지원을 위해 북극에 관한 단일법 제정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 정부의 북극개발의 결과로 ‘벨리이 섬(остров Белый)’에 ‘러시아 센터(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가 들어서고 인터넷이 개통되었으며 아르한겔스크 등 북극의 6개 지역에 구조센터 설립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해상 북극기지 ‘북부 플러스-2015(Северный полюс-2015)’가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북극의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러시아원자력(Росатом)’을 통하여 2017년 까지 북극에 전력공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로스스바지(Россвязь)’를 통해서 북극에서의 통신에 필요한 위성시스템 설치등도 시도하고 있다. 북극의 날씨를 관찰하기 위해 기후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해상교통과 석유개발 등을 위한 해저지도 등의 제작을 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환경자원부는 북극에서의 생태관광 발전을 위해 ‘내셔널지오그래픽’ 과 ‘구글’등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며, 북극지역 개발과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 보존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밖에 러시아 정부는 북극에 대한 연구를 재개하기 위해 2억5백만 루블을 배당하였으며 페테르부르크에서 북극에서의 교통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 북극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연구 및 장비의 개발

러시아는 북극지역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북극통

행에 필수적인 ‘슈퍼원자력 쇄빙선’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북극지역에서 수송을 담당할 헬기 “Ми-8АМТШ”도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북극 및 시베리아의 저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특수복이 실제사용 테스트에서도 검증되었다. 그밖에 북극에서 사용가능한 유인 및 무인 수중 구조장비를 비롯하여 북극 탐사와 전투를 위한 무한궤도 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말로-네네츠키 자치구는 베를린 식료품 전시회에서 북극지역용 패스트푸드 및 북방오렌지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 지리적 탐사 활동 및 관광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야말로에 있어서 대규모 북극개발 프로그램인 북극 프로젝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극 프로젝트가 이행되면서 야말은 북극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수 있으며 북극에 관한 학문 및 연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타이미르는 북극개발에 있어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크라스노야르스크의 하천항구들은 북극개발 프로세스에서의 주요 거점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야쿠치아는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야쿠치아 정부는 북극개발에 20억 루블을 배정하였다. 그밖에 코미공화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북극지역 발전자금으로 1500억 루블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3)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 중 영토(외교)관련 기사 분석

북극지대의 영토에 대한 다툼은 주로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그린란드 간에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대륙붕 확장으로 120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 확장을 꾀하고 있으며 유엔에 영토 확장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영토 확장에 대한 의지표현으로 러시아는 북극에 대한 탐사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며 북극 대륙붕에 대한 연구조사도 완료한 상태다.

캐나다는 북극영토 확장을 위하여 북극에서 원정탐사 및 북극 대륙붕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마찰에 대비해 북극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유엔에 북극에 대한 영토소유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덴마크는 북극에서의 영토주권을 기존보다 2배 확대를 원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시작된 유럽 및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북극 대륙붕 개발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에너지부는 외부로부터의 제재는, 북극에서의 러시아 프로젝트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표현하였고 러시아 외무성은 북극이사회 회원국 간의 협력을 지지한다고 보도 되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미국은 러시아가 북극의 석유 및 가스채굴에 필요한 장비공급을 제한할 계획이고 유럽연합은 북극 러시아 영토 내 편암(세일)매장지에서의 석유채굴 관련 연구 활동을 중단하였다.

유럽 및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는 인도에게 북극 및 시베리아에서의 석유 및 가스의 공동개발을 제안하였으며, 푸틴은 인도를 공식방문 중에 인도에 대한 10년간의 석유공

급 계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또한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석유 및 가스채굴에서 핀란드의 우호적인 태도를 받아내기도 하였다.

4)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 중 자원관련 기사 분석

러시아는 북극지역에서의 석유-가스 자원 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야말은 북극 지역 석유가스 채굴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환경자원부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극에서의 지질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규모 석유매장지를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30년까지 러시아는 북극의 채굴 가능한 석유 및 가스의 55%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북극지역에서의 석유자원 개발활동에 반하여 유럽연합은 북극지역에서의 셰일석유 및 심해석유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러시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엑손모빌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북극 대륙봉에서의 시추작업을 중단하고 로스네프치의 북극프로젝트로부터 이탈하기도 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매장지 탐사는 로스네프치, 엑손모빌, 가스프롬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만약 북극에서 석유가 발견되면 로스네프치와 엑손모빌은 2030년 까지 북극에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로스네프치와 노르웨이 NADL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북극에서의 굴착작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루코일은 북극 대륙봉에서의 석유개발에 대한 권리획득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스프롬네프치는 북극에서 2개의 구역에 대한 개발허가권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5)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 중 학술(연구)관련 기사 분석

러시아의 북극지역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북극탐사 프로젝트“Кара-зима -2015”는 세계에서 최근 20년 동안의 가장 큰 규모의 북극탐사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학술조사단 참가자들은 북극 석유부존 지역인 대륙봉 등을 연구하며, 이 프로젝트에 러시아의 극동국립대학교와 중국의 상하이대학교 등이 동참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밖에 북극연구 학자들은 야말분화구 관련 수수께끼를 풀고 북극에서의 2개의 고대 대륙의 존재를 입증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북극과 관련한 포럼을 개최하여 북극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페테르부르크에서‘북극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국제포럼과 더불어 야말주와 러시아 연방정부는 국제 북극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도 학자들에 의해 북극개발의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야말에서는 북극 컨퍼런스, 타이미르에서는 젊은 북극’이라는 타이틀로 학생포럼이 열렸다. 그 밖에 아르한겔스크에서 열린 국제회의서 야말지역 학자들은 북극지역의 경제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북극관련 연구내용을 보면 야말에서의 경우 북극의 사슴사육, 북극지역의 새들의 울음소리를 비롯하여 북극지역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등을 연구한다.

러시아 정부는 북극지역 연구에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인프라를 세우고 있다. 여기에는 북극 생태학 센터, 북극지진발생 탐지센터, 북극 우주전파 수신센터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북극용 인공위성 제작 등이 동시에 준비 되고 있다. 한편 시베리아 학자들은 구글맵의 러시아판을 기반으로 한 북극의 가상모델 제작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6) 러시아의 북극관련 기사 중 푸틴 및 세르게이 쇼이구 관련 기사 분석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북극지역을 자원의 보고 및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언론에서 푸틴은 전 인류가 앞으로 북극에 있는 러시아의 자원을 요청할 것으로 판단하고 북극 대륙붕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푸틴은 북극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 로스네프치와 엑슨모빌의 시추를 허용하는 등 석유전문가들에게 북극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그밖에 북극지역 개발을 위해 나리얀 마르 - 우신스크 간의 도로건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은 러시아군에게 북극의 방어를 명령하면서 북극지역에 대한 영토권 확장과 안보강화를 위해 북극사령부 건설을 추진하는 등 러시아가 북극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중이다.

이밖에 푸틴은 북극의 군사기지 때문에 생길 북극곰 등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연구할 것을 약속하는 등 북극의 생태환경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극지역에 레이더 탐지기지 설치 및 러시아군 북극전면 배치와 더불어 연말까지 북극 러시아 주둔군에 해군 전투기부대 및 대공미사일 부대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쇼이구는 북극에서의 러시아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용인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한편 푸틴은 서방세계에 대해, 러시아는 국제법 범위 안에서 북극에서의 활동을 유지 할 것이며 북극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서방세계에 대한 평화적 제스처도 보여주고 있다.

VI. 논의 및 제언

한국은 비북극권 국가이다. 북극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여도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없이는 그 결실을 맺기가 힘들다. 특히 많은 부분의 북극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극연구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요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관심 있는 분야에 도움을 준다면 북극지역 연구와 개발에 있어 상호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기사에 반영된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주요 관심사로는 본 연구의 결과 북극지역의 안보 및 군사력 강화가 우선순위로 대두되었다. 다음으로는 북극지역의 인프라 건설 등의 지역개발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밖에 북극 대륙붕 영유권 확보가 러시아의 외교 현안으로 부상되었으며 한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북극의 석유가스등의 자원개발은 4번째 순위에 머물렀다. 마

지막으로 러시아의 북극에 대한 학술 연구 활동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북극에 대한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북극 군사안보, 북극 지역개발, 북극 영토문제, 북극 자원개발, 북극 학술 연구 등 5개의 분야로 나누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1) 군사 안보분야 - 러시아는 북극지역을 군사안보 지역으로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정권적 차원에서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비롯하여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북극에서의 안보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북극 군사안보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은 러시아의 북극지역에서의 한리 군사부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해상기지, 군주둔지, 군비행장, 군항만기지등의 건설분야가 있으며 군사장비로 극지용 헬리콥터, 무인비행기 등의 공동개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북극 지역개발 분야 - 러시아 정부는 자원의 생산과 수송, 주민거주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추진으로 북극 내륙지역 개발을 꾀하고 있다. 북극 내륙 지역개발에 한국은 구조센터 및 원자력발전소, 통신시설 등의 건설과 지도 작성, 원자력 쇄빙선 건조를 비롯하여 극지용 특수복 및 수중 구조장비, 탐사용 무한궤도 로봇 등의 제작에 자본 및 기술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극지용 패스트푸드 가공 등 식료품 분야에도 기술협력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3) 북극 대륙붕 영유권 분야 - 북극 대륙붕 영유권을 둘러싸고 북극연안국인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그린란드 등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비북극권 국가로 북극권 국가들 간의 영유권 갈등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더라도 유엔을 비롯하여 북극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4) 북극 자원개발 분야 - 북극의 석유 및 가스등의 자원개발 관련하여 한국은 북극 대륙붕 조사에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북극 및 시베리아에서 공동 석유 및 가스개발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셰일석유 및 심해석유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공동개발에도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기대된다.

5) 북극 학술연구 분야 - 러시아와의 공동 학술 및 연구 사업은 한국과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협력 사업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민간 및 정부섹터 모두 러시아가 야심차게 내세우는 북극탐사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가가 필요하다.

또한 북극지질분야, 북극지역 생물분야, 북극지역 생태학 분야에서는 중국의 상하이대학교가 참가하는 것처럼 한국의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러시아와 공동연구를 한다면 기초과학 발전에 크나큰 진전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북극지진 센터 및 북극 우주센터 건설, 북극관측용 인공위성 제작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및 자본 협력이 이루어지면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감미아·송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신문사에 따른 내용 및 논조 차이점 분석”, 『지능정보연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2), 18(3).
- 김선래,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국시베리아연구』, (한국-시베리아센터, 2015), 제 19권 1호.
- 유홍식, “기사제목과 예시가 수용자의 뉴스가치 평가와 이슈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2009), 53(5).
- 정철호, “국내 솔루션 기반 빅 데이터 구축전략 및 사례”, 『정보 속으로』, Vol.76, SEP-OCT, 2012.
- Baskette, F. K., Sissors, J. Z., and Brooks, B.S. , 『*The Art of Editing*』, New York: Macmillan, 1986.
- Scheufele, D. A. ,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2&3), 2000.
- Tankard, J. W. “The empirical approach to the study of media framing”, In S. D. Reese, O. H. Gandy, Jr., A. E. Grant (Eds.),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3.
- U.S. Geological Survey, 2008.
- 24시간 뉴스(www.24rus.ru)
- 니자비시마야 가제타(www.ng.ru),
- 러시스카야 가제타(www.rg.ru)
- 러시아 금융뉴스(www.finmarket.ru)
- 러시아 뉴스(www.newsru.com)
- 러시아 비즈니스 컨설팅그룹 뉴스(www.rbcdaily.ru)
- 러시아 정치뉴스(www.polit.ru)
- 렌타뉴스(www.lenta.ru)
- 리아노보스치(www.ria.ru)
- 모스크보브스키 콤포몰레츠(www.mk.ru)
- 베다모스치(www.vedomosti.ru)
- 브즈글라드-상업뉴스(www.vz.ru).
- 블라디보스톡 뉴스(www.vlc.ru)
- 사할린 뉴스(www.sakhalin.info)
- 석유가스 뉴스(www.neftegaz.ru)
- 시베리아 뉴스(www.sia.ru)
- 아침 뉴스(www.utro.ru)
- 에하모스크비(<http://echo.msk.ru>)
- 엔테베(www.ntv.ru)
- 오늘의 뉴스(www.dni.ru)
- 우랄 뉴스(www.uralinform.ru)
- 인테르팍스(www.interfax.ru)
- 이타르타스(www.itar-tass.com)
- 전러시아 뉴스(www.allrussia.ru)

전야 뉴스(www.nakanune.ru)
졸라토이 로그(극동뉴스) (www.zrpress.ru)
코메르상트(www.kommersant.ru)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www.kp.ru)
프라임 뉴스(www.lprime.ru)

<Abstract>

The Analysis of Russian Media on the Arctic and Korean Strategy against It

Ke, Yong-Tek

In order to overcome the status limitation of a non-Arctic nation, S. Korea needs a cooperation with the arctic neighboring nations more than anything else.

In particular, the cooperation with Russia which occupies a large part of the Arctic can be essential in the Arctic study. S. Korea recently has begun to pay attention to the Arctic sea route.

The Arctic route plays a crucial role as a marine transportation route for importing necessary resources and import or export of cargos. Also, Korea has an interest in joint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with Russia which holds huge amount of oil and gas in the Arctic. Moreover, the study of Arctic in various fields in relation to climate of the Korean peninsula is another area to cooperate with.

In addition the cooperation with Russia has been demanded in various fields such as marine pla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Arctic space information. To achieve the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ich fields of the Arctic Russia is interested in. It may be generally possible to comprehend what kinds of topics they are interested in if we analyze media articles.

The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media articles uses the research methods of big data processing. I also use the data mining techniques in the frequency analysis of keywords. This study conducts keyword search and contents analysis from the articles published in Russia.

Major concerns of Russia for the Arctic are security, military forces and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infrastructure constructions. The conflict of the Arctic continental shelf, the resource development such as oil & gas, and th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have attracted the attention of Russian media.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Korean policy toward Russia in the Arctic can be divided into the five areas such as military security of the Arctic, development of the Arctic region, Arctic territorial issues, Arctic resource development, Arctic academic research.

1) The area of military security

- a) marine base construction, military camp construction, military airfield construction, military harbor base construction.
- b) joint development of helicopters for polar regions and unmanned aircrafts.

2) The area of Arctic region development -

- a) nuclear power plants construction, communic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 b) nuclear icebreaker building, making special suits for polar and aquatic rescue equipments and caterpillar robots for exploration.

- 3) The territorial conflict in the Arctic continental shelf - Korea needs to raise its diplomatic influence on Russia by showing an active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Arctic.

- 4) The development of Arctic resources -
 - a) participating in the Arctic continental shelf survey and Arctic oil & gas development.
 - b) joint development of various equipments needed for oil development.

- 5) The Arctic scientific research areas -
 - a) Both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in Korea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ussian Arctic exploration projects.
 - b) Participating in joint research with Russia on Arctic geology, Arctic biology, Arctic ecology.
 - c) The technology and capital cooperation in high-tech fields such as an Arctic earthquake center, an Arctic space center, an observation satellite for the Arctic.

<Key Words>

Arctic, Siberia, Russia, Media Analysis, Marine Transportation, Arctic Route, Non-Arctic Nation, Arctic Continental Shelf, Russian Media. Oil & Gas

러시아 북방항로 통과에 대한 국제해양법적 쟁점과 미래의 충돌

배규성

I. 북극해와 국제해양법

북극해는 해양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해양법 레짐에 의해 형식적으로 관할된다. 그러나 북극 연안 강대국들이 제기하는 관할권 주장은 전통적인 레짐의 적용으로부터 실질적인 일탈을 의미한다. 얼음의 존재와 가혹한 기후조건을 포함하는 북극해의 특징 때문에, 국제해협의 이용과 공선의 통과에 대한 레짐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전례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정도로 얼음으로 뒤덮인 해역에 대한 규칙에 의해 침식당한다. 해양강국으로서 미국은 국제레짐으로부터 이탈하여 북극 해협과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에서의 러시아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형식적으로 국제해협의 이용과 공선의 통과권리를 주장한다. 게다가 이러한 일탈에 대한 다른 국가적 항의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극과 관련하여 소련에 의해 발효된 국제협정과 통과된 명령 및 규칙 그리고 선언은 유보 없이 러시아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다.¹⁾ 동시에, 과거의 관행에 몇 가지 변화를 도입한 새로운 법이 입법되었고, 러시아에 의해 채택되었다. 러시아는 서구가 북극의 러시아 관할권 주장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²⁾ 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의 북극 해협들은 '자유 항해' 또는 1960년대 빌키츠키 해협 사건에서처럼 '중단 없는 무해통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외교적 선언을 했고, 1992년과 1994년 업데이트 했다.³⁾ 미국은 때때로 자국의 잠수함들을 러시아의 몇몇 북극 해협들을 통과시킨다. 동시에, 워싱턴은 러시아의 레짐을 위반하여 어떤 공선도 해면 항해를 시키지 않았다. 빌키츠키 해협 사건에서, 러시아의 북극 해협들에는 진입하지 않았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서구국가들, 특히 영국이나 노르웨이, 프랑스, EU가 러시아의 북극 레짐에 항의한 적은 거의 없다.⁴⁾ 이들 국가들에 의한 러시아의 북극해에서의 잠항통과는 거의 알려진

1) A. Kolodkin, 'Interview - Northern Sea Route Expert Meeting', 13 October 1992, 트롬소(Tromsø)는 Commonwealth Agreement(8 December 1991)의 인준에 대한 1991년 12월 12일 러시아연방 최고소비에트의 포고령(Decree of the Supreme Soviet of the Russian Federation)에 의거하여, 소련의 최고소비에트에 의해 입법된 모든 법령은 러시아 내에서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그것이 러시아의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소비에트의 모든 북극 입법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헌법(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1993) 제 125조 2항(Articles 125(2)과 106조를 언급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Sciences) 법학연구소(Institute of State and Law) 국제법 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Law) 소장인 G. Danilenko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The New Russ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8, (1994), 456-7.

2) A. Kolodkin, and M. Volosov, 'The legal regime of the Soviet Arctic', 166.

3) J.A. Roach and R. Smith, *Excessive Maritime claims*, pp. 200-207; *Limits in the Seas*, No. 112, pp. 6, 16, 68, 71.

4) A. Kolodkin, 'Interview', 25 February 1994; R. Churchill, 'Telephonic Interview', 16 June 1994, Oslo, regarding the U.K. and the E.U.; D. Mjååland, 'Telophonic Interview,' May 1994, Oslo, regarding Norway; and Officials of the French Defence and Foreign Ministries, 'Unanswered Questions', INSRP

바가 없다.⁵⁾ 따라서, 자신의 레짐에 대한 서구의 동의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맞지만, 미국은 명확하게 항의했고, 동의는 가정되지 않는다.

II. 북극해의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

북방항로의 통과는 바람, 조류 및 얼음의 심각한 물리적 상태에 의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법적 쟁점들에 의해 제한된다. 다양한 국제적 협약 하에서, 영해 및 해협을 포함하여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의 지위 등과 같은 문제들이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북극해와 관련된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자신의 법령과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바렌츠해에서 베링해까지 선박들이 통과해야만 하는 해역의 법적 지위에 관해 어떤 일반적인 의견일치(협정)도 없다.

1.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Ice-Covered Areas)⁶⁾

레짐과 마찬가지로, 그 정확한 해석적 범위가 논란이 되는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은 주로 북반구의 얼음이 있는 해양 극지에 제한되어 있다.⁷⁾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을 관리하는 1982년 UNCLOS 제234조는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이라 이름 붙여진 섹션에만 나타나고, 그 스스로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이라 이름 붙여진 이유는 명백하게 특별한 규칙을 가진 특별한 레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북극 관할권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북극 관할권도 이런 법적 기반위에 세워져 있다.⁸⁾

LOSC 제 234조,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Ice-Covered Areas)

연안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는 특히 심각한 기후적 조건과 연중 그런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가 항해를 방해하고 예외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그리고 해양환경의 오염이 생태계의 균형에 핵심적 해를 가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교란할 수 있는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에서 선박들이 야기하는 해양오염의 예방, 축소 및 통제를 위해 비차별적인 법률과 규정을 채택하고 강행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 법률과 규정은 당연히 항해와 입수가 가능한 최고의 과학적 기초에 근거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과 관련되어 있다. 일방적인 이런 권리는 선박의 하역

Meeting, Paris, November 1993.

5) W.M. Reisman, 'The Regime of Straits and National Security', 52-3, 69; V. Aleksin, Rear Admiral, Russian Navy, 'We Are Ready When You are',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March 1993), 72; C. Carlson, Lt. USNR, 'How Many SSN's Do We Need?', *ibid.*, 49-50; J. Brooke, 'Do We Really Need a Third Seawolf' Chapter 4, 9; and W. Østreng, 'Stumbling Block', 3, 15-7. 참조.

6) LOSC Part XII, Section 8.

7) M Nordquist, S. Rosenne, A. Ynakov, and N.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A Commentary*, Center for Oceans Law and Policy, University of Virginia,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91), Vol. IV, p. 393.

8) *Ibid.*, A. Kolodkin and M. Volosov, 'The legal regime of the Soviet Arctic', 160-3 and D. Pharand, *Canada's Arctic Water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236-7.

(discharge) 및 안전⁹⁾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엄격한 선박의 디자인, 건축, 장비, 인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은 대개 ‘권한이 있는 국제조직이나 외교적 회의를 통해 활동하는’¹⁰⁾ 연안국에 의해 채택되어야만 한다.

제234조와 관련된 쟁점들은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의 LOSC 비준 문제, 관습국제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하의 그것의 지위 문제¹¹⁾, 그것의 의도된 범위 문제, 이 조항과 LOSC의 국제해협 레짐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한다. ‘어디서(when)’, ‘항해와 관련된(due regard to navigation)’,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내(within the limit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건설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환경적 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upon sound scientific evidence)’, ‘비차별적(non discriminatory)’ 등과 같은 이 조항의 용어들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다. 제234조는 얼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에만 적용될까? ‘항해와 관련된(due regard to navigation)’이란 제234조의 한계가 영해 내에서 행사된 그것들인가 아니면 영해와 해협 및 국제해협을 포함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내(within the limits)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인가? 게다가 제234조가 서로 다른 국적의 외국 선박들 사이에서만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선박과 연안국 선박들 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연안국의 법률이 기초하는 ‘최고의 입수가능한 과학적 증거(best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의문점들 때문에, 제234조는 아주 모호하고 논쟁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¹²⁾ 그러나, 러시아의 북극 해역과 관련하여, 미 국무부나 러시아 외무성 모두 이 공식에 만족한다고 주장한다.¹³⁾

2. 국제해협(International Straits)

‘해협(straits)’이란 용어의 명확한 법적 개념정의는 충분하지 않다.¹⁴⁾ 통상적인 의미의 해협

9) 환경관련 안전 기준(Environmentally related safety standards)은 이런 규칙들이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들의 오염 원 배출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추가되었다. 노선확정(Routing)은 LOSC Part XII Article 211의 핵심적 조치이다. 안전조치는 LOSC part III Articles 93, 41 and 42 하에서 환경조치와 병행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IMO 및 ILO 협약(conventions)의 환경조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0) Article 211(5).

11) 현재 LOSC는 러시아(1997년 3월 12일), 노르웨이(1996년 6월 21일), 캐나다(2003년 11월 6일)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는 승인하지 않았다. 비록 북극해 연안국은 아니지만, 스웨덴, 핀란드도 노르웨이와 같은 시기에 승인했다. 아이슬란드는 1985년 6월 24일 승인했다. 미국은 청문회를 개최했고, 일반적으로 미국 상원은 LOSC 및 이행협정(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의 승인에 긍정적이다. 28 July 1994, *ILM*, Vol. 33, (1994), p. 1309, in force 28 July 1996. <<http://www.state.gov/g/oes/rls/rm/2003/25572.htm>> 참조.

12) C. Lamson, 'Arctic Shipping, Marin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arine Policy*, Vol. 11, (1978), 3-4.

13) J.A. Roach, Captain, JAGC, U.S. Navy (Rtd.), Office of the Legal Advisor, U.S. Department of State (L/OES) and R. Smith, Dr., Office of Ocean Affairs, U.S. State Department, 'Interview', 27 June, 1994. P. Dzyubenko, Legal Office of the Russian Foreign Ministry, 'Speech - The legal regime of Arctic: New tendencies', Russian-American Seminar, 23-6 August 1994.

14) R. Churchill and A. Lowe, *The Law of the Sea*, (3rd 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 102 note, "Strait" is not a term of art, and it is not defined in any of the conventions produced by 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the Law of the Sea... It is the legal status of the waters constituting the strait and their use by international shipping, rather than any definition of 'strait' as

이란 ‘두 대양을 연결하는 상대적으로 좁은 통항로’이다.¹⁵⁾ 해협을 통과할 선박의 권리는 그 해협이 국제해협으로 이용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만약 국제해협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면, 통과권은 그 해협의 해역이 공해인가 영해인가 아니면 내수인가에 달려있다. 만약 상대국의 영해가 해협 내에서 중첩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공해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항해의 자유가 해협에도 적용된다. 만약 영해와 중첩된다면,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만 누린다. 내수라면, 해협의 통과는 연안국의 허가에 달려있다.

국제해협으로 이용되는 해협에 대해 무해통항권은 코르푸해협사건(Corfu Channel Case)에 따라 정지될 수 없다.¹⁶⁾ 1949년 ICJ는 법적으로 국제해협으로 간주되는 해협에 대해 두 가지 기준, 즉 지리적 기준과 기능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¹⁷⁾ 지리적 기준이란 인접하는 육지간의 자연적 통로에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영해의 중첩이 있는 모든 경우에 존재한다. 기능적 기준의 일반적 규칙은 국제적 해상교통의 핵심적이지는 않지만 유용한 루트로서 역사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실질적인 이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용의 충분성(sufficiency)은 비록 해협의 위치나 기타 환경적 조건들이 더 적은 수의 통과횟수와 선박수를 수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통과횟수(transits)와 통과선박수(flags)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용(use)’이라는 기능적 기준에 이분법이 존재한다. ‘국제해협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의 기초를 미래의 해협의 잠재적 이용에 두는 주장들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용의 충분성은 북극과 같은 동떨어지고 특별한 지역에 대해 훨씬 더 적은 수의 통과와 선박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연안국들은 비록 해협이 국제해협으로 인식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선박의 통과가 유해하다고 결정하고, 통과를 일시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오히려 불명확한 레짐이 1958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정(1958 TSC)의 제16조(4항)에 상당히 담겨있다.¹⁸⁾

LOSC 제3부는 국제해협 레짐을 명확히 하고자 한 시도였지만, 결과는 복잡적이다. LOSC 제3부 하에서,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이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다른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 사이의 국제적 항해에 이용되는 다양한 조건에 노출된 해협을 통과함을 말한다.¹⁹⁾ 제38조에는 통과통항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2. 통과통항이란 공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간의 해협을 오직 계속적으로 신속히 통과할 목적으로 이 부에 따라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행사함을 말한다. 다만,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과 요건은 해협연안국의 입국조건에 따라

such, that determines the rights of coastal and flag States’.

15) *Merriam-Webster's Sev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G. & C. Merriam Company, 1972), p. 866.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 102 note ‘... a narrow natural passage of arm of water connecting two larger bodies of water’.

16)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Reports, (1949), p. 1.

17) Ibid. pp. 28-9. 일반적으로 D. Pharand, *Canada's Arctic Waters*, pp. 216-23. 참조.

18) 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29 April 1958, UNTS, Vol. 516, (1964), (1958 TSC), p. 206.

19) Article 38(2).

서 그 국가에 들어가거나 그 국가로부터 나오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협통항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잠수함과 항공기를 포함하여 공선이든 상선이든 모든 선박은 이 권리를 누린다.²⁰⁾ 항공기는 영해 상공의 무해통항권을 누리지 못하고, 잠수함은 비록 통상적으로 해협을 잠항 통과하지만, 국기를 게양하고 영해의 수면(surface) 항해를 해야 한다.²¹⁾ 통과통항의 조건은 이 권리의 혜택을 누리는 선박들은 통과를 지연하거나 연안국에 대하여 힘의 위협을 해서는 안 되며,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긴급피난(distress)의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중단 없는(continuous) 신속한(expeditious) 통과에 필요한 것 이외의 활동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²²⁾ 또한 선박들은 오염방지, 안전, 승선규칙 및 여정(routing)을 규정한 IMO 협약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적 규정들을 준수해야만 한다.²³⁾ 이런 한계를 넘어서 선박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활동들은 통과통항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²⁴⁾

그러나 연안국이 극한상황의 자위(self defence)를 제외하고 안보적 이유로 간섭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²⁵⁾ 통과통항 선박의 위반에 대한 연안국의 집행권은 비록 이런 행위들이 연안국의 항구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협정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²⁶⁾ 관습국제법과 관련하여 LOSC 제3부 레짐의 입장은 더 광범위한 권리가 러시아의 북극해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양강국들은 통과통항에 찬성한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LOSC 제3부에 따른 통과통항이 관습국제법이 되었다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²⁸⁾

3. 공선의 해역 통과(Passage of State Vessels in the Maritime Zones)

LOSC와 1958년 TSC의 규정들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20) Article 38(1).

21) Respectively Article 20 and Article 39(1)(c).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 110.

22) Article 39(1)(a)-(c).

23) Article 39(1)(d) and (2)(a) and (b).

24) Article 38(3).

25)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 107. Ibid. 또한 ICJ에 의해 대항조치를 취할 얼마간 확장적인 권리가 인정되었다. *Case of Nicaragua v. USA*, ICJ Reports, (1986) pp. 102-4 and 110-11.

26) Article 233.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99. 108-9.

27)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p. 110-3, M. Leifer, *Malacca Singapore, and Indonesia-International Straits of the World*, (Alphen aan den Rijn, Sijthoff & Noordhoff, 1978), pp. 164-168, 170 and H. Caminos, 'The legal Regime of Straits i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ecueil Eds Cours - Collected Courses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Vol. 205, (1987), 209.

28) I. Brownli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5th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 280 and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 113 are contra though noting some evidence of a trend exists; D.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xford, Clarendon Press 1982), Vol. I, p. 331 and S. Nandan and D. Anderson,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 commentary on Part II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60, (1989), 170. 통과통항(transit passage)은 관습국제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이 되었다고 믿어지고 있다..

외국 영해를 통과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수립했다.²⁹⁾ 항해는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선전활동, 감시활동, 어로활동,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군사기기의 탑재, 밀수, 고의적이고도 중대한 오염행위, 조사, 측량 활동, 연안국의 통신, 설비·시설물에 대한 교란, 기타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을 포함할 수 없다.³⁰⁾ 그러나 국가적 관행에 따르면, 외국 전함의 영해통과에 대한 사전 통보나 허가는 LOSC와 1958년 TSC 레짐으로부터 얼마간 이탈될 수 있다. 많은 국가들, 아마 대다수 국가들은 전함의 통과³¹⁾에 대해 사전허가의 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이것에 관해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³²⁾

LOSC 제58조와 87조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58조는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고, 제87조는 타국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고려한 항해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해에서는 전통적으로 항해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³³⁾ 제236조는 자신의 LOSC 섹션에서 '주권 면제'라는 제목으로 나타나고,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보존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군함, 해군보조함 및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협약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비록 제234조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지만, 전함 또는 기타 공선의 전통적인 무해통항과 항해의 자유 행사와 관련된 제23조의 적용범위는 제236조를 통해 얼마간 명확해졌다. 그러나 무해통항에서 외국 전함 또는 기타 공선의 통과에 대한 통보나 사전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미국의 전함이 소련의 전함과 대치했던 흑해사건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전례가 제공되었다. 그 후 소련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선언에는 무해통항을 규정한 국제법 규칙의 통일적 해석(Uniform Interpret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Innocent Passage)이 첨부되어 있다.³⁴⁾ 그 후 소련은 자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을 통제하는 법률을 일반적으로 수용된 국제적 기준에 좀 더 부합되게 개정했다.³⁵⁾ 미 국무부는 별도의 서한에서 그런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미국은 흑해에서 전함의

29) LOSC Articles 17, 18 and 19(1), and 1958 TSG Articles 14(1), (2) and (4).

30) LOSC Article 19(2)(a-1).

31) See I. Brownlie, *Principles*, p. 194, and S. Jin, "The question of innocent passage of warships, After UNCLOS III", *Marine Policy*, Vol. 13, (1989), 66.

32)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p. 88-92. 미국과 소련은 이 쟁점에 대해 그들의 입장이 명백하게 엇바뀌었다. 또한 I. Brownlie, *Principles*, pp. 194-5. 참조.

33)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p. 204-5.

34)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 United States: Joint Statement with Attached Uniform Interpretation of Rules of International Law Governing Innocent passage, 23 September 1989, (U.S.S.R-U.S. Joint Statement), *ILM*, Vol. 28, (1989), p. 1444.

35) E. Franckx, *Maritime Claims in the Arctic - Canadian and Russian Perspectives*, (London, Martinus

무해통항을 시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³⁶⁾ 같은 것이 러시아의 북극해에도 보장된 것은 아니다.

4. 러시아의 북극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Legal Issues Relative to Russian Arctic Waters)

이런 해양 레짐의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논쟁적인 법과 병행하여, 러시아의 북극해와 관련된 관할권 쟁점들에 대한 다섯 가지의 확산적인 견해가 있다.³⁷⁾ 이것들은 다양한 시기에 러시아와 북극해에서 러시아 레짐에 대한 핵심 반대자인 미국에 의해 취해진 입장을 잘 보여준다.

한 가지 견해는 북방항로가 노바야 제믈라 해협 또는 미스 젤라니야와 베링해협 간 러시아 북극권의 선박수송을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이 루트는 러시아 선박 또는 특별허가를 받아 러시아 정부기관에 용선된 선박들만 이용했다. 러시아 관할권의 광범위한 범위는 접근의 어려움과 연약한 북극권 생태환경에 의해 설명된다. 이런 관심사는 세계 다른 지역의 해양을 통괄하는 국제적 법적 레짐의 그것과는 달리 특정 국가의 특권(privileges and prerogatives)을 확보하기 위해 언급되어 진다.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 루트의 활동 형태를 통제할 필요가 제기된다.

두 번째 견해는 북극권 국가들이 국제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북극개발의 복잡한 역사를 반영하는 국가적 규범의 기초 하에서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권력을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에게, 북방항로는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와 관할권 하에 있는 국가적 수송로이다. 비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지 않지만, 법적 기초는 관습국제법과 역사적 권원의 결합으로 보인다. 다른 이해관계국들은 북극에서 러시아와 소련의 관행을 묵인해 왔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런 견해는 2차대전 이후의 시기동안 더 강화되었고, 따라서 북방항로의 개방을 심각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서방에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수에즈 운하와의 경쟁에서 북방항로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기초하여 관할권과 관련된 차이점을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견해 또한 북방항로를 국가적인 수송루트로 보지만, 이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공해를 결코 이용한 적이 없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공해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에 대한 쟁점을 회피한다. 따라서 이 루트가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와 내수를 배타적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역사적 또는 기타 물질적 환경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에 대해, 러시아는 제234조 하의 해양오염의 예방, 축소 및 통제를 위해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의 선박수송에 대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Nijhoff Publishers, 1993), pp. 164-6.

36) Ibid. pp. 187-8.

37) See A. Kolodkin and M. Volosov, 'The legal regime of the Soviet Arctic', 163-8 and A. Arikainen, A. Jørgensen-Dahl, and W. Østrem, 'Political/Military and Legal Factors' 25-6, 239-43.

가진다. 이것은 하역 및 항해 관행을 포함하여 선박 디자인, 건축, 인력 및 장치기준 등에 대한 지정/감독을 포함한다.

네 번째 견해는 위에서 정의된 북방향로(Northern Sea Route)와 북동향로(Northeast Passage)를 구별한다. 이 두 향로 모두 중첩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법률규정과 관할권에 의해 관리된다고 한다.³⁸⁾ 북동향로는 모두 연안국인 러시아의 도움 없이 항해하는 바렌츠해, 카라해, 랍체프해, 동시베리아해, 축치해 및 베링해를 거쳐 대서양과 태평양이 연결되는 해양연결선(sea-link)으로 정의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북동향로가 관습국제법, 국제협약, 국제법과 양립하는 연안국 입법에 의해 관리되는 반면, 북방향로는 러시아의 레짐에 의해서만 관리된다. 연안국과 국제적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북동향로의 이용은 북극의 조건하에 선박의 물리적 특성, 적절한 보험, 보상기준 등에 의존한다. 이 견해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서구의 법학자들은 미래 러시아가 영해를 통과하는 '무해통항'의 좀 더 느슨한 관행을 기꺼이 허락할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견해는 북동향로에 초점을 맞추고 전통적인 해양법만 추종함으로써 네 번째 견해를 확장한다.³⁹⁾ 이 견해에 따르면, 자유 항해의 권리는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여 공해를 통과하는 항해를 따라 가능하고, 무해통항은 영해통과시 가능하며, 통과통항의 레짐은 어떤 국제해협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마지막 견해는 북방향로와 관련하여 언급된 견해와 충돌한다. 몇몇 국가들은 이 루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중첩되는 관할권과 규칙도 인정함이 없이 정의된 대로의 북동향로에만 의존할 수 있다.

III.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러시아의 입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및 세 번째 견해의 혼합이다.⁴⁰⁾ 이 셋 모두 '창조적 모호함(creative ambiguity)'⁴¹⁾으로 표현된 것을 잘 보여주면서 현행 러시아 입법에 나타나 있다. 다섯 번째 견해는 세계의 해양에서 러시아 해군에 의해 추종되고 있다.⁴²⁾

제234조는 소련과 러시아에 의해 북방향로의 항해 규칙⁴³⁾(1990년 규칙 Rules)을 포함하여

38) W. Butler, 'Joint ventures and the Soviet Arctic', *Marine Policy*, Vol. 14, (1990), 174.

39) R.D. Brubaker, 'International Law and Russian Arctic Waters', *International Challenges*, Vol. 12, (1992), 97-9 and E Makinen, 'The Future of the Northern Sea Route', in H. Simonsen, (ed.), *Proceedings from The Northern Sea Route Expert Meeting*, Tromsø, (13-14 October, 1992), (Finnish and Norwegian Foreign Ministries and FNI), p. 39.

40) See A. Kolodkin and M. Volosov, 'The legal regime of the Soviet Arctic', 163-8.

41) E. Franckx, *Maritime Arctic Claims*, p. 193.

42)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 110.

43) 'Regulations for Navigation on the Seaways of the Northern Sea Route;', in accordance with the U.S.S.R. Council of Ministers Decision No. 565 of 1 June 1990 and approved by the U.S.S.R. Minister of Merchant Marine, 14 September 1990. 러시아어 본문은 *Izveshcheniya Moreplavatelyam* (Notices to Mariners), No. 29, 18 June 1991에 출판되었다; 영어 번역본은 *Guide to Navigating Through the Northern*

모든 선박에 적용가능한 입법을 지지하는 국내 북극 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레짐과 비록 역사와 특권도 규제적 접근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공선의 국가면제를 제공하는 제 236조간의 충돌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 러시아 북극권 해협의 국제적 이용에 대하여,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어떤 외국선박의 이용도 없었다고 주장한다.⁴⁴⁾ 공선의 통과 권리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몇몇 외국 군함의 항해가 러시아의 북극 레짐을 위반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관행은 실질적으로 북극해역오염방지법(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⁴⁵⁾과 기타 지원 법률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관행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것 같다. 북극해역오염방지법은 캐나다의 관할권을 가장 가까운 캐나다의 기선(그린란드 주변은 제외)으로부터 100해리나 확장했고, 모든 선박을 통제한다. 또한 제234조는 캐나다에 의해 캐나다 북극 입법의 기초로 암시되었지만, 이 조항과 제236조간의 모순⁴⁶⁾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다.

미국의 입장은 모순적이다. 비록 자신의 북극 연안국 입법에서는 세 번째 견해와 유사한 레짐을 행사하고 있지만, 미국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견해를 주장하는 듯하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캐나다의 북극 관행을 국제법 위반이라 항의했다.⁴⁷⁾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직선기선, 해협, 영해, 역사적 해역(historical waters)을 통제하는 규정들에 반대했다.⁴⁸⁾ 미국은 또한 직선기선, 해협, 영해, 얼음으로 뒤덮인 지역을 통제하는 캐나다의 규칙들에도 반대했다.⁴⁹⁾ 미국은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유 항해를 포함하여 외국 영해의 무해통항권을 주장한다.⁵⁰⁾ 워싱턴은 실질적인 이용이 아닌 잠재적 이용은 러시아와 캐나다의 북극권 해협을 국제해협의 기준 내에 충족시킨다고 주장한다.⁵¹⁾ 비록 미국이 국제해협의 잠항통과(submerged transit)에 관심을 가진 듯 보이지만⁵²⁾, 자신의 주장과 제234조 간의 상호관계⁵³⁾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다.

Sea Route, pp. 81-4에 출판되었다.

44) A. Kolodkin and M. Volosov, 'The Legal regime of the Soviet Arctic', 163.

45)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Revised Statutes of Canada, (RSC), 1985, Chapter A-12, as amended.

46) The U.S. and Canada have entered the Agreement on Arctic Co-operation, 11 January 1988, Canada United States, (Canadian-U.S. Agreement), ILM, Vol. 28, (1989), p. 142. 이것은 상호 연구를 코디하고, 그들의 북극연안 쇄빙선 항해(icebreaker navigation)를 촉진할 수 있었지만, 양국은 그들의 권리를 유보했다(reserve). J.A. Roach and R. Smith, *International Law Studies - Excessive Maritime Claims*, (Newport, U.S. Naval War College, 1994), Vol. 66, pp. 212-3. 참조.

47) J.A. Roach and R. Smith, *Excessive Maritime Claims*, pp. 45, 48, 200-7 and 207-15.

48) Ibid. pp. 48, 200-7.

49) Ibid. pp. 45, 207-15.

50) 일반적으로 W. Schachte Jr., 'International Straits and Navigational Freedoms', *Remarks Prepared for Presentation to the 26th Law of the Sea Institute Annual Conference*, Genoa, (June 22-6, 1992) 참조. 현재 은퇴한 제독(Rear Admiral) W. Schachte는 미 국방부 해군 법무분과 해양정책 분쟁부 대표(the Judge Advocate General's Corps, U.S. Navy, Department of Defence Representative for Ocean Policy Affairs)로 근무했다. Ibid. 3, 그의 이런 특정 언급들은 미국의 견해를 대변했다. 그의 말에는(W. Schachte, 'Interview', Malmø, 8 August, 1991) 그의 개인적인 견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질적인 공식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또한 UNCLOS III의 최종 법안심의(the final sessions of UNCLOS III)에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고, 따라서 그의 언급은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1) W. Schachte, 'International Straits and Navigational Freedom', 14 and J.A. Roach and R. Smith, *Excessive Maritime Claims*, p. 182.

52) W. Schachte, 'International Straits and Navigational Freedoms', 18-9.

제236조에 따른 주권면제는 워싱턴에 의해 캐나다 레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러시아 레짐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주장되었다.⁵⁴⁾ 동시에, 미국은 심해저 광업 레짐을 예외로, LOSC가 현존하는 해양의 법과 관행을 확인해주고 있고, 미국은 이들 권리와 이해관계를 제12부⁵⁵⁾를 포함하여 LOSC와 부합됨을 인정할 것이라 암시했다.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의 엑슨 발데즈(Exxon Valdez) 호 사건 직후, 미국은 많은 측면에서 러시아 및 또한 알래스카 해역을 통제하는 캐나다의 입법과 유사한 원유오염법(Oil Pollution Act, 1990)⁵⁶⁾을 채택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미국의 주장이 얼음으로 뒤덮인 해양 지역의 통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⁵⁷⁾

공선의 통과 권리에 관해, 미국은 자신이 행한, 특히 1960년대 중반 러시아의 북극해역에서 행한 몇몇 군함의 해면 항해 사실을 밝혔다. 미국의 잠수함들이 러시아의 북극해역을 항해했다. 그러나 해역 통과에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잠항 통과는 일반적인 국제법과 주권면제에 대한 예외인 제236조에서도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북극 해협과 영해의 법적 상황은 명확하지 않다. 비록, 잠항통과가 LOSC 및 국제해협에 대한 1958 TSC레짐 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런 통과가 통지와/또는 사전허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는 완전하게 명백하지 않다. 또한 영해의 해면을 항해하는 잠수함이 국기를 게양해야만 한다는 전통적인 규칙⁵⁸⁾이 특히 러시아가 요구하는 쇄빙선이 항로를 인도하는 북극의 얼음으로 뒤덮인 해역에도 적용되는 지 명백하지 않다.

요약하면, 얼음으로 뒤덮인 해역, 국제해협, 공선의 통항권에 대한 국제레짐에는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또한 그들 간의 상호관계에도 해당된다. 북방향로 및 북동향로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미국은 적용가능한 레짐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모호함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탐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견해는 서로 충돌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캐나다의 북극 관행은 러시아의 관행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53) J.A. Roach and R. Smith, *Excessive Maritime Claims*, p. 227.

54) J.A. Roach and R. Smith, *Excessive Maritime Claims*, p. 227 footnote 79.

55) Presidential Proclamation No. 5030, 48 *Federal Register* 10, (March 1, 1983), 605. Codified at 3 *Code of Federal Rules* Section 5030. 또한 *ILM*, Vol. 22, (1983), p. 465. 참조. M. Belsky, 'Management of Large marine Ecosystems: Developing a New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an Diego Law Review*, Vol. 22, (1985), 748 and 753. 참조. 또한 LOSC Part XI의 이행협정(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LOSC)과 관련된 진전사항은 R. Churchill and A. Lowe, *Law of the Sea*, pp. 236-8. 참조.

56) United States Oil Pollution Act of 1990 (OPA 1990), 33 *United States Code* (USG) 2701, *Public Law*, 101-380, Title I, 104 Statute 484, August 18, 1990.

57) J.A. Roach and R. Smith, *Excessive Maritime Claims*, pp. 48 and 58, 200-207.

58) LOSC Article 20 and 1958 TSC Article 14(6).

북극해의 자원개발현황과 북극항로

예병환

북극해와 연안의 동토 지역에는 석유와 가스 등 많은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있어, 마지막 남은 천연자원의 보고로 불리고 있다.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업들은 이 지역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극의 자원개발은 또한 북극항로를 이용하여 개발된 자원의 수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물류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북극항로의 경제성은 북극지역의 자원개발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의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곧, 북극해와 연안의 에너지 자원들의 개발 및 수송가능성이 높아지고 물류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북극지역의 자원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러시아, 중국, 노르웨이를 위시한 국가들의 적극적인 북극지역 에너지 자원 개발 움직임뿐만 아니라 국제석유기업들 역시 이 지역의 개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북극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경쟁은 향후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북극지역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자원개발현황과 자원개발에 따른 북극항로의 경제성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 북극지역 자원개발현황

북극권은 지구 표면적의 6%에 불과하지만 가채량 기준 약 22%의 미발견 전통 석유, 가스 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권 자원현황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매장량에 대한 추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북극권 자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미국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이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였는데, 북극지역에는 천연가스 1,668조 ft^3 , 액화천연가스 440억 배럴, 석유 9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표 1참조)¹⁾ 이는 전세계 미개발 천연가스 매장량의 30% 수준이고, 미개발 액화천연가스 매장량의 20%, 미개발 석유 매장량의 13% 수준이며, 이들 에너지자원을 석유자원으로 환산하면 4,12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에도 메탄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오일셰일 등 비전통적 자원과 니켈, 철광석과 같은 광물 자원 역시 풍부하다. 이에 따라, 전세계 에너지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미 Exxon Mobil, Royal Dutch Shell, BP, Gazprom, Eni,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북극해 연안 지역에서 활발한 자원개발활동을 진행 중이다.

1) USGS,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Fact Sheet 2008-3049, p.4.

<http://pubs.usgs.gov/fs/2008/3049/fs2008-3049.pdf>

<표 1> 북극해 에너지자원 현황

Province Code	Province	Oil (MMBO)	Total Gas (BCFG)	NGL (MMBNGL)	BOE (MMBOE)
WSB	West Siberian Basin	3,659.88	651,498.56	20,328.69	132,571.66
AA	Arctic Alaska	29,960.94	221,397.60	5,904.97	72,765.52
EBB	East Barents Basin	7,406.49	317,557.97	1,422.28	61,755.10
EGR	East Greenland Rift Basins	8,902.13	86,180.06	8,121.57	31,387.04
YK	Yenisey-Khatanga Basin	5,583.74	99,964.26	2,675.15	24,919.61
AM	Amerasia Basin	9,723.58	56,891.21	541.69	19,747.14
WGEC	West Greenland-East Canada	7,274.40	51,818.16	1,152.59	17,063.35
LSS	Laptev Sea Shelf	3,115.57	32,562.84	867.16	9,409.87
NM	Norwegian Margin	1,437.29	32,281.01	504.73	7,322.19
BP	Barents Platform	2,055.51	26,218.67	278.71	6,704.00
EB	Eurasia Basin	1,342.15	19,475.43	520.26	5,108.31
NKB	North Kara Basins and Platforms	1,807.26	14,973.58	390.22	4,693.07
TPB	Timan-Pechora Basin	1,667.21	9,062.59	202.80	3,380.44
NGS	North Greenland Sheared Margin	1,349.80	10,207.24	273.09	3,324.09
LM	Lomonosov-Makarov	1,106.78	7,156.25	191.55	2,491.04
SB	Sverdrup Basin	851.11	8,596.36	191.20	2,475.04
LA	Lena-Anabar Basin	1,912.89	2,106.75	56.41	2,320.43
NCWF	North Chukchi-Wrangell Foreland Basin	85.99	6,065.76	106.57	1,203.52
VLK	Vilkitskii Basin	98.03	5,741.87	101.63	1,156.63
NWLS	Northwest Laptev Sea Shelf	172.24	4,488.12	119.63	1,039.90
LV	Lena-Vilyui Basin	376.86	1,335.20	35.66	635.06
ZB	Zyryanka Basin	47.82	1,505.99	40.14	338.95
ESS	East Siberian Sea Basin	19.73	618.83	10.91	133.78
HB	Hope Basin	2.47	648.17	11.37	121.87
NWC	Northwest Canada Interior Basins	23.34	305.34	15.24	89.47
MZB	Mezen' Basin	NQA	NQA	NQA	NQA
NZAA	Novaya Zemlya Basins and Admiralty Arch	NQA	NQA	NQA	NQA
TUN	Tunguska Basin	NQA	NQA	NQA	NQA
CB	Chukchi Borderland	NQA	NQA	NQA	NQA
YF	Yukon Flats (part of Central Alaska Province)	NQA	NQA	NQA	NQA
LS	Long Strait	NQA	NQA	NQA	NQA
JMM	Jan Mayen Microcontinent	NQA	NQA	NQA	NQA
FS	Franklinian Shelf	NQA	NQA	NQA	NQA
Total		89,983.21	1,668,657.84	44,064.24	412,157.09

출처 : USGS,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Fact Sheet 2008-3049, p.4.

<http://pubs.usgs.gov/fs/2008/3049/fs2008-3049.pdf>

북극 석유는 1962년 러시아 타조브스코예(Tazovskoye) 유전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 후 1967년 미국 알래스카 프루드호 만(Prudhoe Bay)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북극권에서 61개의 대형유전 및 가스전(매장량 5억 배럴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러시아에 43개, 캐나다에 11개, 알래스카에 6개, 노르웨이에 1개가 존재한다. 총 61개 발견 유전 중 15개는 아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11개가 캐나다 북서영토(Northwest Territories), 2

개가 러시아에, 2개가 알래스카 북극에 있다. 러시아 43개 유전 중 35개가 서 시베리아 분지에, 5개가 티만 페초라(Timan-Pechora)분지, 2개가 남 바렌츠 분지, 1개가 루들로프 새들(Ludlov Saddle)에 있다.²⁾

현재 북극해 주변, 특히 러시아 북부지방과 시베리아에는 석탄과 철광석등이 다량으로 매장되어있다. 특히 외교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는 철광석과 석탄 부존량으로는 세계 2위 수준이며, 생산량은 5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표 2> 러시아 부존자원

광종	단위	부존량		생산량	
		물량	세계순위	물량	세계순위
석탄	억 톤	1,570	2	3	5
우라늄	톤U	172,402	9	3,413	4
동	천 톤	20,000	9	730	7
금	톤	3,000	4	160	6
철광석	백만톤	25,000	2	110	5
니켈	천 톤	6,600	3	322	1

출처 : KMI, HMC투자증권

러시아에서 북극해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국영석유회사 Rosneft이다. Rosneft는 최근 러시아 컨소시엄인 AAR과 미국 BP의 합작사로 러시아 내 3위 석유 업체인 TNK-BP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Rosneft의 원유 생산능력은 420만 b/d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5%, 러시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세계 최대 석유기업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BP는 이번 지분 매각의 대가로 20%의 Rosneft 지분을 확보하여 러시아 정부에 이어 2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고르 세친 Rosneft CEO는 BP의 경험과 사업능력을 활용해 극지방 등 해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눈 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특히 동사는 러시아 해안 광구 개발 라이선스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동사의 움직임은 북극해 자원 개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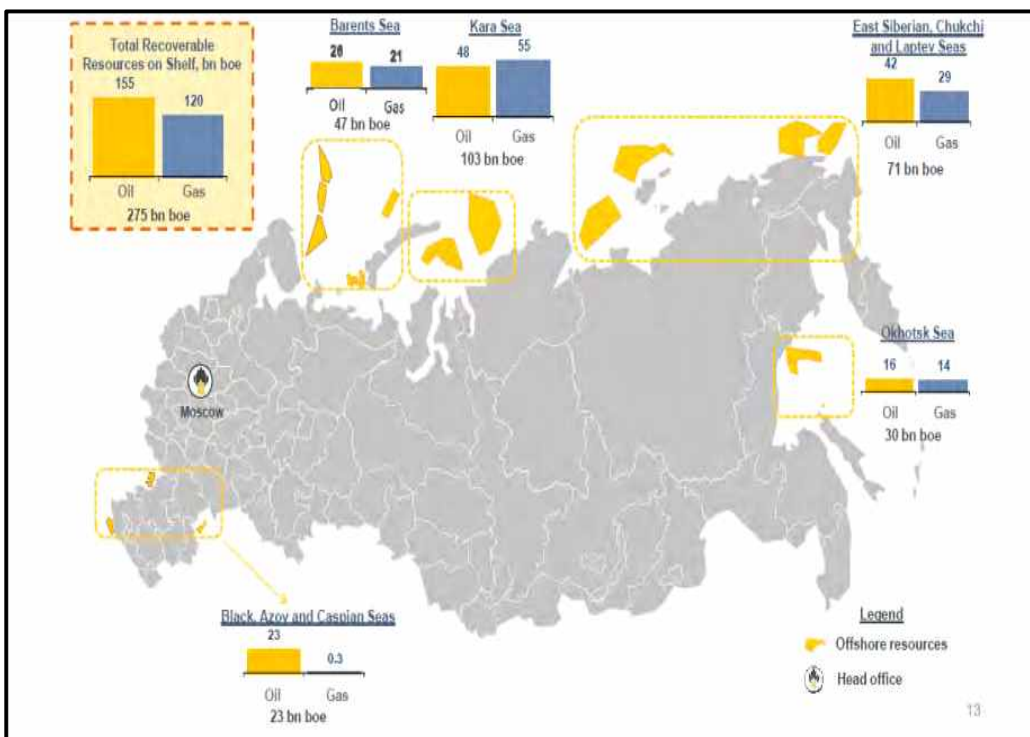
이미 원유 생산 측면에서 세계 1위에 오른 Rosneft는 향후 가스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러시아 최대 국영 가스 기업인 Gazprom의 가장 큰 도전자로 거론 되고 있으며, 북극해 지역 에너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동사는 이미 2011년부터 Exxon Mobil, Statoil, Eni 등 IOC(International Oil Company)와 연계하여 북극해 지역의 자원개발에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Rosneft가 이들 IOC와 협력하려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Offshore 개발 경험 및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원유 및 가스 개발은 그 동안 서시베리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은 이러한 심해 시추 능력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See P. Budzik, "Arctic Oil and Gas Potential,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ffice of Integrated Analysis and Forecasting, Oil and Gas Division Report, (2009), pp. 1-18.

이들 대형 IOC들 역시 셰일 가스 개발 및 기존 광구 노후화 등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신규 광구 개발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해외기업에게 북극해 지역 개발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북극 지역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Gazprom과 Rosneft가 독점) Rosneft는 이러한 러시아 북극해 연안의 Offshore project를 개발하여 2030년까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Exxon Mobil과 함께 2015년 첫 시추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북극해 지역의 자원 개발은 Rosneft의 가스자원 개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Rosneft에 의하면, Rosneft의 전체 가스 매장량 중 88%가 북극해 연안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가스 개발을 위해 북극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 개발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러시아 Offshore 지역과 가채매장량



자료: Rosneft, HMC투자증권

주: 가채매장량(Recoverable Reserves): 인류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채취 가능한 매장량.

HMC 투자증권, Industry Report 2013.08.29. p.18. 재인용.

<표 3> 북극해 지역별 석유, 오일, 천연가스 매장량

지역	석유 (백만 배럴)	가스 (삼억 ft ³)	NGL (천연가스액) (백만 배럴)
북동항로 권역			
West Siberian Basin	3,659	651,498	20,328
East Barents Basin	7,406	317,557	1,422
Yenisey-Khatang Basin	5,583	99,964	2,675
Laptev Sea Shelf	3,115	32,562	867
Norwegian Margin	1,437	32,281	504
Barents Platform	2,055	26,218	278
Eurasia Basin	1,342	19,475	520
North Kara Basins and Platforms	1,807	14,973	390
Timan-Pechora Basin	1,667	9,062	202
Lomonosov-Makarov	1,106	7,156	191
Lena-Anabar Basin	1,912	2,106	56
Vikitskii Basin	98	5,741	101
Northwest Laptev Sea Shelf	172	4,488	119
Lena-Vilyui Basin	376	1,335	35
Zyryanka Basin	47	1,506	40
East Siberian Sea Basin	19	618	10
북동항로 계	31,809	1,226,547	27,745
북서항로 권역			
Arctic Alaska	29,960	221,394	5,904
East Greenland Rift Basins	8,902	86,180	8,121
Amerasia Basin	9,723	56,891	541
West Greenland-East Canada	7,274	51,818	1,152
North Greenland Sheared Margin	1,349	10,207	273
Sverdrup Basin	851	8,596	191
North Chukchi-Wrangel Foreland Basin	85	6,065	106
Hope Basin	2	648	11
Northwest Canada Interior Basins	23	305	15
북서항로 계	58,173	442,106	16,318
북극 합계	89,983	1,668,654	44,064
전세계 미개발 매장량 대비 북극 매장량의 비중	13%	30%	26%

출처 : USGS, HMC투자증권

HMC 투자증권, Industry Report 2013.08.29. p.23. 재인용

II. 북극항로의 이용전망과 경제성변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빙 속도로 볼 때 늦춰 잡아도 2020년엔 6개월, 2025년 9개월, 2030년이면 연중 내내 일반 선박의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빙하가 막고 있어 쇄빙선 투입과 특수선박 확보, 미지의 뱃길을 찾는 데 따른 부담 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얼음이 녹는 정도에 반비례해 이용 가치가 높아질 게 당연하다. KMI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와 북극항로의 운임 비용이 같을 경우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물동량이 2015년에는 28만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2020년 398만TEU, 2025년 1360만TEU, 2030년 2832만TEU로 급격히 늘어난다. 이에 따른 북극항로 화물 수송분담률도 2015년 1.4%, 2020년 13.9%, 2025년 36.0%, 2030년 58.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항로 대비 북극항로의 비용이 80%일 때는 2020년 1169만TEU, 2030년 4370만TEU에 달하고 70% 일 때는 2020년 1298만TEU, 2030년 4481만TEU로 보고 있다.

<표 4> 북극항로 물동량·분담비율 전망

운임수준	물동량(1만TEU)				분담비율(%)4.0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120	1	29	151	406	0.1	1.0	4.0	8.4
110	6	123	553	1342	0.3	4.3	14.6	27.7
100	28	398	1360	2832	1.4	13.9	36.0	58.5
80	246	1169	2513	4377	12.2	40.9	66.6	90.4
70	394	1298	2614	4481	19.5	45.4	69.3	92.5

주: 운임수준은 기존 항로를 100으로 했을 때 기준

주2: 분담비율은 기존 항로에서 북극항로로 옮겨가는 비율.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30년이면 지난 해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1704만TEU)의 1.5~2.6배가 북극항로를 통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북극항로가 아시아 유럽 항로의 주 항로가 되는 셈이다. 해양수산개발원이 한·중·일 3국의 해운·물류기업 80여 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도 비용이 현재와 같고 운항시간이 5일 줄면 한국은 20%, 일본 20%, 중국은 11%의 화주가 북극항로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10일이 줄면 한·일·중이 각각 72%·69%·24%로, 15일이 되면 한국 96%, 일본 95%, 중국 43%로 나타났다. 단축 기간이 빠를수록 화주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북극항로의 최대 장점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때 동근 지구를 빙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북극을 거쳐 최단거리로 가는 경제성이다. 동북아시아~인도양~수에즈운하~지중해~대서양~유럽으로 가는 전통 항로가 아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전체 거리의 40%, 8000km의 단축 효과로 운항시간도 24일에서 14일로 줄어든다. 컨테이너 운송을 기준으로 25~30% 가량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가능한데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이 효과는 더 커진다.

<표 5> 기존 구주항로와 북극항로 거리 비교

(단위: NM)

	항로	도착					
		브레멘	로테르담	앤티워프	리스본	발렌시아	
출발	부산	북극	7,726	7,782	7,855	8,742	9,406
		수에즈	11,098	10,864	10,865	9,806	9,267
		절감거리	-30.4%	-28.4%	-27.7%	-10.9%	1.5%
	싱가포르	북극	10,172	10,228	10,301	11,189	11,852
		수에즈	8,631	8,396	8,397	7,338	6,799
		절감거리	17.9%	21.8%	22.7%	52.5%	74.3%
	상하이	북극	8,167	8,223	8,296	9,184	9,847
		수에즈	10,819	10,585	10,585	9,526	8,987
		절감거리	-24.5%	-22.3%	-21.6%	-3.6%	9.6%
	홍콩	북극	8,837	8,893	8,966	9,854	10,517
		수에즈	10,039	9,805	9,805	8,746	8,207
		절감거리	-12.0%	-9.3%	-8.6%	12.7%	28.1%

출처 : HMC 투자증권, Industry Report 2013.08.29. p.30. 재인용.

물류산업은 파생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원적인 수요가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북극의 자원이 개발 될 수 있는 것이 이를 수요지 까지 수송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해빙(解氷)으로 인한 물류 편의성 증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광물, 가스, 원유 등 이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수요지까지 수송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구체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거리상으로 유럽으로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으로 작용 할 수 있겠지만, 정기선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해빙(解氷)일수가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였을 경우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북극해의 에너지자원개발은 북극항로의 경제성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극해의 원유/가스 중심의 에너지자원개발은 필연적으로 에너지수송을 위해 북극항로의 개발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극항로 개발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화물은 벌크, 특히 원유, 가스를 중심으로 한 Wet Bulk 화물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극항로의 경제성분석은 항상 북극해 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유, 가스 등 천연자원 수송로로서 북극항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에 대한 수요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며, Bulk 화물의 경우 정기선에 비해 수송 조건이 간단하고 Spot 시장이 발달해 있는 특성상 제한된 해빙(解氷)일수에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정책으로 인해 북극 항로를 통한 원유, 가스 수송은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북극항로의 가장 큰 수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극해의 자원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아이스 클래스급 LNG선을 수주한 Yamal Project는 북극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최초의 의미 있는 에너지 자원개발 프로젝트이다. Yamal Project는 Yamal 반도 지역의 가스를 LNG 형태로 Sabetta항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러시아 민영 가스회사인 Novatek과 프랑스 Total이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근 중국의 CNPC가 Novatek의 지분 20%를 인수하면서 중국까지 이 프로젝트에 가세하였다.

향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5백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LNG 플랜트가 한기씩 완공될 예정이며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8년에는 연간 16.5백만 톤의 LNG와 1백만 톤의 천연가스를 처리하여 액화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갖추게 된다.

III. 맺음말

새로운 항로의 개발은 물류환경을 크게 변화시킨다. 북극항로의 개척이 세계물류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세계 주요 항만의 판도를 바꾸리란 건 전망이라기보다는 닥쳐오는 현실

이다.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 중 9개가 몰린 곳이 아시아이다. 이 중 상위 5개 항만이 순서대로 상하이, 싱가포르, 선전, 홍콩, 부산항이다.

<표 5> 2012년 세계 10대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순위

순위	항만	물동량 (단위: 1만TEU)
1	상하이(중국)	3253
2	싱가포르(싱가포르)	3165
3	홍콩(중국)	2310
4	선전(중국)	2294
5	부산(한국)	1704
6	닝보-저우산(중국)	1683
7	광저우(중국)	1473
8	칭다오(중국)	1450
9	두바이(UAE)	1327
10	톈진(중국)	1230

※ 출처: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그러나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이런 항만 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생산해내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유럽으로 화물선을 보낼 때 지금처럼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극동러시아~캄차카해~베링해를 거쳐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타고 유럽으로 가면 된다. 북극항로 상에 위치하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나 홍콩 등은 아시아 허브항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현재 세계 5위인 부산항은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 3대 항만으로의 부상이 불가능하지 않다. 부산항뿐 아니다. 광양 마산 울산 포항 동해항 등도 현재보다 더 많은 화물 처리가 예상되고 북한의 원산항 나진항도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북극항로의 접근 기지로 나진항을 주목, 북한과 중국 양국의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나진항 선석 운영권을 50년 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북극항로가 우리나라 환동해권으로 빠져 나가는 게 유력하기 때문에 일본도 니가타 토야마 카나자와 등 서부 항만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항도 지금보다 더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항 나호트카항, 북극해 연안의 토크시항과 무르만스크항이 북극항로의 수혜지로 평가되며, 유럽에서는 독일 함부르크항,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노르웨이의 주요 항만들의 물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항로의 개척이 부산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이론은 없다. 우선 동북아 경쟁 항만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다. 북극항로에 포함되는 요코하마 상하이와 비교하면 부산에서 로테르담항까지의 운

항거리가 1만2700km로 요코하마 1만3523km, 상하이 1만4875km에 비해 훨씬 짧다. 그만큼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이로 인한 북극항로의 활성화 통해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약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극의 땅, 추코트카와 축치인

김정훈

<그림 1> 추코트카



출처: <http://www.ebftour.ru/chukotka.htm>(검색일: 2015.12.11.).

추코트카 자치구(러시아어: Чукó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추코트어: Чукоткакэн автономны кэн округ)는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자치구이다. 러시아 북동부의 최동단 북극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하 공화국, 마가단 주와 캄차트카 변경주 그리고 북극해 와 베링 해에 인접해 있다. 면적은 737,700 km² ¹⁾이며, 6개의 행정주체를 보유하고 있고 행정 중심지는 아나디리(Анадыр)이다.

<그림 2> 추코트카 행정



- 1. 아나디르스키 구(Анадырский район), 2. 빌리빈스키 구(Билибинский район)
- 3. 이울틴스키 구(Иультинский район), 4. 프로비덴스키 구(Провиденский район)
- 5. 차운스키 구(Чаунский район), 6. 추코트스키 구(Чукотский район)

출처: http://nikopo.blogspot.kr/2010/05/blog-post_26.html (검색일: 2015.12.11.).

1)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2004-05-21). "Территория, число районов,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и сельски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по субъект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Territory, Number of Districts, Inhabited Localities, and Rural Administration by Federal Subje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2015년 기준 총인구는 50,540명이다²⁾. 2010년 기준 하의 민족별 인구구성은 러시아 (25,068명, 49.61%), 축치(12,772명, 25.28%), 우크라이나(2,869명, 5.68%), 에스키모 (1,529명, 3.03 %), 예벤(1,392명, 2.76 %), 추반쯔(897명, 1.78%) 등이다.

<표 1> 추코트카 자치구, 민족별 인구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

민족	1939	1959	1970	1979	1989	2002	2010
러시아	5,183 (24.08 %)	28,318 (60.65 %)	70,500 (69.7 %)	96,400 (68.9 %)	108,300(6 6.1 %)	27,918 (51.87 %)	25,068 (49.61 %)
축치	12,111 (56.27 %)	9,975 (21.36 %)	11,000 (10.9 %)	11,300 (8.1 %)	11,900 (7.3 %)	12,622 (23.45 %)	12,772 (25.28 %)
우크라이나	571 (2.65 %)	3,543 (7.6 %)	10,400 (10.3 %)	20,100 (14.4 %)	27,600 (16.8 %)	4,960 (9.22 %)	2,869 (5.68 %)
에스키모	-	1,064 (2.28 %)	1,100 (1.1 %)	1,300 (0.9 %)	1,500 (0.9 %)	1,534 (2.85 %)	1,529 (3.03 %)
예벤	817 (3.80 %)	820 (1.76 %)	100 (1.0 %)	11000 (0.7 %)	1,300 (0.8 %)	1,407 (2.61 %)	1,392 (2.76 %)
추반쯔	-	-	-	-	900 (0.6 %)	951 (1.77 %)	897 (1.78 %)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5.12.11.)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이 지역의 대표적 정주민은 축치인에서 러시아인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추코트카의 역사적 변모과정을 살펴보고, 오랜 세월 동안 주역을 담당했던 축치인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 북극권 최동단 지역의 인문적 이해를 고양시키는 대표적인 기초 작업 중 하나라 생각한다.

I. 추코트카의 역사³⁾

추코트카 민족관구(Чукот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округ)는 1930년 12월 10일 극동에 위치하고 있는 ‘북방지역 소수민족 연합조직(Об орган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в районах расселения малых народностей Севера)’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형성되었다. 법규에 포함되는 지역(районы)은 다음과 같다: 극동변강주와 야쿠츠크로부터 아나디르스키와 추코트스키에 양도된 전역인 노보-마린스크(Ново-Мариинск), 일명 아나디르가 중심이 되는 아나디르스키(Анадырский), 오스트로브노예(Островное)가 중심이 되는 동부툰드라(Восточной тундры), 니즈네콜림스크(Нижнеколымск)가 중심이 되는 서부툰드라(Западной тундры), 마르코보(Марково)가 중심이 되는 마르코프스키(Марковский), 차운스크 만(Чаунская губа)이 중심이 되는 차운스키(Чаунский)와 스바또이 라브렌티이 만이 중심이 되는 추코트스키(Чукотский)⁴⁾.

2)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на 1 января 2015 года.

3) <https://ru.wikipedia.org/wiki/>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ВЦИК от 10.12.1930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в районах расселения малых народностей Севера”.

1932년 10월과 11월 사이 변강주 구역화 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해 변강주에 직속하는 독립 민족관구로서 기존의 국경 하에 존속하게 됐다⁵⁾.

1934년 7월 22일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ВЦИК)의 결정에 의해 추코트카와 코랴크 민족 관구는 캄차트카 주로 편입되었다⁶⁾. 그러나 편입에 의한 예속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1939년과 1940년 사이 이 지역에서는 ‘달스트로이(Дальстрой)⁷⁾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사업의 관리와 통제권은 지역에 예속되었다.

소연방최고회의간부회의 명령에 의해 1951년 5월 28일부터 관구는 하바로프스크변강주에 종속되었으며, 1953년 12월 3일에는 마가단 주로 편입되었다⁸⁾.

1977년 개정된 소연방 헌법을 근거로 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자치구 관련 법령이 수용됨에 따라 1980년부터 추코트카민족관구는 추코트카자치구가 되었다.

1992년 7월 16일 추코트카자치구는 마가단 주로부터 독립하여 러시아연방주체의 지위를 취득했다⁹⁾.

1. 러시아의 탐험과 정복

이 지역 최초의 정주민은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로부터 건너 온 고대 시베리아 사냥꾼(Paleo-Siberian hunters)들이었다. 이곳은 아메리카를 향한 인류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고 인식되고 있는 베링기아(Beringia) 랜드브리지의 한 부분이기도 하며, 전통적으로 축치(Chukchi people, Чукчи), 유이트(Siberian Yupiks, Юиты), 코랴크(Koryaks, Коряки), 추반쯔(Chuvans, Чуванцы), 에벤(Evens/Lamuts, Эвены), 유카기르(Yukaghirs, Юкагиры)와 오래된 러시아 정착민들의 고향이기도 하다.

16세기 러시아의 카잔과 아스트라한의 정복 이후 우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무역로가 개방되었으며, 상인들과 코사크들의 동쪽으로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코사크들은 전략적인 장소에 요새를 건설하고 토착민들을 짜르에게 복속시켰다.

17세기 전반기에 걸쳐 러시아인들은 북동쪽 최단지역의 도달에 성공했다. 1641년 코사크에 의한 축치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타났다. 1649년 러시아 탐험가 세몬 이바노비치 데즈노프(Семён Иванович Дежнёв, Semyon Dezhnev)가 북동쪽 최단지역 해안을 탐험하고 아나디르(Anadyr River) 강 상류지역에 겨울 정주지를 건설하였는데, 이곳이 아나디르스크(Anadyrsk) 요새가 되었다. 그는 이후 10년 동안 축치인들을 정복하고 공물을 징수하려 노력했지만, 대부분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가혹한 북극 기후와 수렵 동물의 부족으로 인해 요새는 버려졌다.

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зидиума Далькрайисполкома от 20.10.1932 “О проведении районирова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ВЦИК от 22.07.1934 “О нов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деле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7) 1938년 콜리마 상류 지역의 도로와 산업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조합. 참조: Бацаев И. Д., Козлов А. Г. *Дальстрой и Севвостлаг НКВД СССР в цифрах и документах*. В 2-х ч. Ч. 1. — Магадан: СВКНИИ ДВО РАН, 2002. с. 9-10.

8) Указ Президиума ВС СССР от 02.12.1953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9) Закон РФ от 17.07.1992 г. N 3056-I “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вхождении Чукотс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в соста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7세기 말 아나디르스크에서 캄차트카로의 항로가 발견된 이후 요새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했다. 요새는 캄차트카와 다른 항구로 출발하는 탐험대의 전진 기지로 사용되었고, 정주지들은 아나디르스크로 예속되었다. 캄차트카의 풍부한 천연자원이 발견됨에 따라, 북동쪽 최단 지역에 대한 더욱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725년 표트르 대제는 비투스 베링에게 캄차트카 탐험과 아파나쉬 셰스타코프(Afanasy Shestakov, Афанасий Шестаков)에게 축치인 예속을 목적으로 하는 무장된 탐험대를 지휘하도록 명령했다. 이 탐험은 함대가 난파되고, 셰스타코프를 비롯한 축치인들에 의해 살해당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1731년 드미트리 파블루츠키(Dmitry Pavlutsky, Дмитрий Павлуцкий)는 코사크를 비롯하여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예속되어 시베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카기르와 코랴크인들의 도움을 받아 원정을 재시도 했다. 파블루츠키는 아나디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북극해에 위치하고 있는 축치인들의 수비대를 격파했다. 그의 무자비한 공격은 일부 축치인들로부터 강제적으로 공물을 납부하게 하는 점에 있어 부분적 성공을 거두기는 했다. 그러나 1747년 축치인들은 러시아 연대를 격파하고 파블루츠키를 살해했다.

축치인들이 무력 수단에 의해 쉽게 예속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러시아는 전략을 수정하여 그들에게 러시아제국의 시민권을 제공했다. 1778년 체결된 평화협정에 의해 축치인들은 모피나 천연 식품을 공물로 바치는 야삭(yasak, Ясак)으로부터 면제받기도 했다.

동년,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은 케이프 노스(현재, Cape Schmidt)와 프로비던스 베이(Providence Bay)를 탐험했다. 유럽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예카테리나 II세는 동지역의 지도작성을 위한 탐험을 지시했다. 1785년 조셉 빌링스(Joseph Billings)와 가브릴 사리체프(Gavril Sarychev, Гавриил Сарычев)가 지휘한 탐험대는 축치 반도, 알래스카 서안, 알류산 열도의 지도를 제작했다. 1821년부터 1825년까지 페르디난드 브랑겔(Ferdinand von Wrangel, Фердинанд Врангель)과 표도르 마투슈킨(Fyodor Matyushkin, Фёдор Матюшкин)은 동시베리아 해 연안과 콜리마(Колыма), 볼쇼이 아뉴이(Great Anyuy, Большой Анюй), 말르이 아뉴이(Little Anyuy, Малый Анюй) 지역의 탐험대를 지휘했다.

2. 서구의 영향

추코트카 지역은 러시아제국의 지배권으로부터 거의 벗어나 있는 동안, 1820년부터 미국과 영국 그리고 노르웨이를 비롯한 다른 외부세력이 이 지역에서 사냥과 무역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다. 미합중국으로의 알래스카 매매 이후, 미국의 고래잡이와 무역상들이 추코트카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혀나갔으며, 외국의 영향력이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1880년 러시아는 미국의 선박활동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해양순찰대를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기 시작했다. 1888년에는 아나디르 행정구가 신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러시아의 통제가 다시 완화되자 1898년부터 시작된 유콘 지역의 골드러시로 인해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1909년 이 지역을 러시아 통제 내에 두기 위해 아나디르 지역에 아나디르와 추코트카 등 두 개의 지구(district)가 설립되었다. 1902년부터 1912년 사이 러시아는 ‘허드슨베이컴퍼니(Hudson's Bay Company)’와 ‘US북동시베리아컴퍼니(US Northeast Siberia Compan)’와 같은

외국인 회사에게 추코트카 전역의 금과 철, 흑연 채굴권을 허가해주기도 했다.

브랑겔 섬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영유권 주장이 발생하자, 1916년 러시아는 브랑겔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섬으로 공식 천명했다. 1921년 캐나다인 빌호잘무르 스테판손은 사람을 이주시키고 작은 정주지를 건설함으로써 캐나다 영토로 주장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1923년 다른 이주민들이 도착하기도 했으나, 일 년 후 소비에트 정부는 그 섬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고, 거주민들을 축출함으로써 외세의 영향력을 종식시켰다.

3. 소비에트 시대

1919년 이후 이 지역은 농업집단화가 이루어져 토착민의 재정착이 실시되었다. 1941년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였을 때, 추코트카 지역은 주석 생산 시작을 위한 전력을 기울였다. 신속하게 광산이 개발되었으며, 이 산업이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지질학자들은 거대 금맥을 발견했으며, 1950년대 채굴이 이루어졌다.

1977년 추코트카는 행정적으로 마가단 주로 편입되었다.

4. 소비에트 이후 시대

1991년 추코트카자치구는 러시아연방으로부터 '분리(separation)'를 선언하고 자신의 권리취득을 선언했으며, 이는 1993년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의 추인을 받았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Роман Абрамович)가 자치구 지사를 역임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포함한 수십억 루블을 이 지역 경제를 위해 투자를 하였으며, 지역 내 기반시설이 개발되고 학교와 주택 등이 건설됐다. 이로 인해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고 국내 총생산액을 두 배로 증가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었다.

현재의 주도 아나디리는 일명 '레고마을'로 유명하다. 레고처럼 알록달록하게 건물 외벽을 칠한 것이 날씨가 좋지 않은 이 지역 주민들의 우울증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건물 중에는 축치인의 전통과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그림 3> 아나디르 전경



출처: <https://namu.wiki/w/%EC%B6%94%EC%BD%94%ED%8A%B8%EC%B9%B4>(검색일: 2015.12.11.).

II. 축치인의 민속¹⁰⁾

축치인에 관련된 독일인 메르크(K. Г. Мерк)의 필사본은 1887년 제정공공도서관(Императорская Публичная библиотека)이 입수했으며, 지금까지 잘 보관되고 있다. 추코트카 반도(스바토이 라브렌티야 만으로부터 니제-콜림스키 요새까지) 행군에 대한 이 기록은 변방 묘사와 그곳 정주민들의 민속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 메르크의 필사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축치인은 ‘순록사냥꾼(оленные, 이하 순록축치인)’과 ‘정착민(оседлые, 이하 정착축치인)’으로 분류된다. 순록축치인들은 가을이 오기 전까지 여름 내내 몇몇 가구가 순록 거주지 근처에 모여 살며, 자신의 가축은 정주지에서 수일 거리 떨어진 해안 근처에 위치한 목장으로 이동시킨다. 순록축치인들 중 정착축치인들 인근에 거주하는 자들은 자신의 가축을 비축하기 위하여 여름 동안 해양동물을 주된 양식으로 한다. 축치인들은 겨울나기를 위해 육류와 해양동물의 기름 뿐 아니라, 가죽과 고래수염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비축한다. 순록축치인들은 정착축치인들에게 그들로 받은 물품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들을 위해 특별하게 비축된 순록고기를 건네주기도 하는데, 이는 물물교환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베푼 배려에 대한 보상 차원의 행위이다.

순록축치인과 정착축치인의 언어에도 차별성이 존재한다. 순록축치인의 언어는 코랴크 어와 매우 유사하여, 이들 언어의 차이점은 매우 적다. 정착축치인들 역시 코랴크 어를 이해할 수 있으나, 코랴크 어와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4개의 방언군으로 분리되어 자신만의 언어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10) 아래의 글은 일인 K.Г. Мерк 필사본을 3. Титова가 독일어에서 러시아로 번역한 자료 『축치인의 생활 습관과 양식의 묘사(Описание обычаев и образа жизни чукчей)』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 출처: <http://chukot.izbirkom.ru/way/935126.html> (검색일: 2015.12.01.)

이번 호를 포함해 총 2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함.

종교에 대해 언급해 보면, 축치인들은 이전에 땅에서 거주하던 숭배 대상(신)이 천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신을 위해 희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이 인간을 죄에 복속시키려는 악마를 제압해주기를 바라는 축치인들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다. 반면에 축치인들은 악마, 그 자체를 위해 희생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그들의 종교적 개념은 일관성이 없다. 눈으로 그들의 삶을 확인하며, 축치인들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지을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은 축치인들이 천상에 존재하는 신보다 악마를 더 두려워한 다는 것이다.

헌제의식에 있어 순록축치인들은 순록을, 정착축치인들은 개(犬)를 제물로 사용한다. 도축시 그들은 제물의 피를 한 주먹에 쥐고 태양을 향해 뿌린다. 해안가에서는 종종 제물로 사용된 개의 형상을 볼 수 있다. 물 쪽으로 머리를 향한 채 누워있는 제물은 머리와 다리부분만 외피로 덮여있다. 이는 정착축치인들이 평온과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바다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샤먼의식은 샤먼들이 벌거벗은 채 자신의 순록가족으로 만든 유르트 내의 앉은 채로 밤에 진행된다. 이 행위는 비교적 한가한 겨울에 소수의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축치 여성들 모두가 아닌, 소수의 순록축치인들과 그 보다 좀 더 많은 수의 정착축치인들이 샤먼의식을 수행할 수 있다. 의식 중 그들은 마치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악마가 직접 자신의 입술로 대답하는 것처럼 참석자들을 기만(독일인 기행자인 메르크의 입장, 러시아어로 *обманывать* 사용)하기보다는 행위 중 불명료한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거나 대답하기를 강요당하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축치인들은 질병 또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샤먼을 찾아가 간다. 이때 샤먼은 건강하고 정결한 순록 한 마리를 제물로 요구하며, 순록의 가죽과 고기는 샤먼이 취한다. 순록의 머리는 제물로 전시된다. 샤먼들 중 일부는 북을 치며 무아지경(접신상태) 상태에서 주변을 맴돌며 뛰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혀를 베거나 피 흘림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기도 한다. 정착축치인들 중에는 여성의 복장을 하고 선한 안주인의 신분으로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는 남자 샤먼도 존재한다.

<그림 4> 축치인의 주거, 야란가



출처:http://www.liveinternet.ru/users/domenika_live/post245047241/(검색일: 2015.12.11.).

축치인의 주거는 야란가(yaranga, яранга)라 불린다. 그들은 여름과 겨울 동안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으며, 야란가는 함께 거주하는 친척들의 수에 따라 크기와 천막의 규모가 정해진다. 유목지 이동 시 축치인들은 운반에 유리하게 야란가를 가능한 작은 규모로 분리한다. 따뜻한 천막을 유지하기 위해 보통 6-8 마리의 순록 가죽을 사용하며, 부유한 경우에는 순록 15마리의 가죽을 사용하기도 한다. 천막은 부정형의 사각형 형태이다. 출입을 위해서는 천막의 아래 부분을 들어 올린 채 기어 다닌다. 내부는 단지 앉거나 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무릎을 꿇거나 몸을 구부리고 있어야 한다. 평범한 수준의 천막이라 할지라도 내부는 램프의 열기와 사람들의 온기로 인해 따뜻해져 혹한기에도 별거벗은 채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이다.

순록축치인과는 대조적으로 정착축치인의 야란가의 재료는 바다코끼리 가죽이다. 정착축치인의 야란가는 자주 정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잠시 사용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는 항상 벌레가 들끓는 등 매우 열악하다.

<그림 5> 축치 남성과 여성(좌), 순록축치인(우)



축치 남성들의 머리카락은 대체적으로 짧다. 그들은 이를 제거하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칼로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머리카락에 자신의 소변을 적신다. 남성의 복장은 몸을 전체적으로 감싸 보온효과를 유지하게 하는 형식이다. 겨울 동안에 복장의 전체적인 수선작업이 이루어진다. 축치 남성들은 보통 짧은 순록의 생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는데, 드물기는 하지만 속옷과 함께 가공된 순록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다. 발톱이 남아 있는 늑대의 발가죽을 이용해 만든 바지를 입기도 한다. 비교적 추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축치인들은 물개 가죽으로 만든 짧은 양말과 그 안에 물개 털로 만든 것을 신으며, 겨울에는 ‘순록 다리 부분의 긴 털(카무스, камус)’로 만든 양말을 신는다. 여름에는 안감에 털이 있는 물개 가죽으로 만든 짧은 장화를 신으며, 혹한기에는 순록 가죽으로 만든 장화를 신는다. 겨울동안에는 신발 전체를 카무스로 만든 짧은 장화를 착용한다. 펠트 신발의 깔창 용으로 잘 건조된 부드러운 풀 또는 작은 고래수염 조각을 사용하는데, 이것 없이는 장화 내부의 보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림 6> 카무스



출처: <http://elley.ru/what-is-kamus.html> (검색일: 2015.12.11.).

혹한의 겨울을 나기 위해 축치인들은 쿠흐란카(Кухлянка)라는 이중으로 된 모피외투를 입는다. 내부의 쿠흐란카는 겨울 내 착용한다.

<그림 7> 쿠흐란카 상의와 하의



출처: <http://www.furforfurfur/culture/culture/168657-traditsionnye-odzhba-rarobv-krajnospseva> (검색일: 2015.12.11.).

좋은 일기가 허락되는 한 축치인들은 봄, 여름과 가을에는 거의 모자를 쓰지 않는다. 만약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싶다면, 늑대 털로 주변을 장식한 포바즈카(붕대와 같은 형태의 두건, повязка)를 사용한다. 만약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로 귀만개가 있는 털 모자인 말라하이(малахай)를 쓰고, 그 위에 외투나 망토에 달린 모자 형태인 카퓨손(капюшон)을 사용한다. 부유하거나 젊은 남성들은 치장용, 즉 자신들의 멋을 자랑하기 위해 쓰기도 한다. 일부 축치인들은 눈, 수염과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늑대의 머리를 말라하이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8> 포바즈카(좌)와 카퓨손(우)



출처: http://gmir.ru/expo/exposition/vera/vera_sibir/?action=show&category=148&id=2940 (검색일: 2015.12.21.).

<그림 9> 말라하이(좌)를 쓰고 있는 축치인들(우)



출처: <https://otvet.mail.ru/question/13347812> (검색일: 2015.12.21.).

여름에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짙은 안개와 긴 우기 동안에 축치인들은 카퓨손이 달린 우비를 복용한다. 우비는 고래의 내장으로부터 추출한 사각형태의 두꺼운 가죽을 가로형태로 꿰매어 만들어지며, 포대자루 형태이다. 겨울에 축치인들은 매일 저녁 야란가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서 눈을 털어내기 위해 동물의 뼈를 잘라내어 만든 콜로투쉬카(колотушка)로 옷을 두드린다. 그들은 콜로투쉬카를 자신의 순록 또는 개가 끄는 썰매인 나르타(нарта)에 싣고 다닌다.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적합한 복장으로 덮고 다니는 축치인들은 자신의 얼굴을 얼게 만드는 강한 바람과 잔인한 정도로 혹독한 기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추위와 맞닥뜨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음 호 계속 연재).

<그림 10> 콜로투쉬카



출처: <http://www.lib.zabspu.ru/students/diploms/2003/evenki/ramka4.htm> (검색일: 2015.12.21.).

<그림 11> 순록이 이끄는 나르타(좌)와 나르타의 종류(좌)



출처: <http://all-pix.com/sanki-chukchey> (검색일: 2015.12.21.).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사하 공화국, 추코트카의 사라져가는 소수 민족어

서승현

I. 들어가는 말

시베리아 진출은 러시아 혁명 전의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시작된다. 모스크바 공국(Московское царство)의 동슬라브인들의 시베리아 지역으로의 진출에는 이주와 식민이라는 양면성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제정러시아의 열악한 생활여건과 예측에서 벗어나 미개발된 지역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점차 정착한 지역에서 민족적 기초를 굳혀 민족적 발전을 이룩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위로부터의 집단적 식민으로 인한 지배성(支配性)의 확대에서 비롯된 새로운 식민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이주도 그들에 대한 민족적, 국가적 지도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식민지정책에 수렴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랄 산맥 동쪽의 광활한 지역에서의 식민지 개발은 우랄 산맥 서쪽의 러시아 평원에서 전개된 식민운동(제정 국가의 형성)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비에트 러시아 이후의 시베리아 개발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종합 개발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석유, 가스, 석탄, 수력 발전 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대규모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경제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¹⁾

시베리아는 과거에 영구동토지대로서 그 가치가 높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자원개발 그리고 북극해의 항로(북동항로와 북서항로)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인간에게 북극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물류의 허브이며, 동시에 자원의 보고지역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육로 수송 수단인 TSR(시베리아횡단철도)는 TCR(중국횡단철도), TMR(만주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 BAM(바이칼-아무르횡단철도) 등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정부는 사할린과 극동본토 그리고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 러시아 동북지역(사하 공화국-추코트카-베링 해-알래스카)과 북미지역을 연결하는 베링해협 철도, 광케이블, 수도관, 전력선,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TSR과 TKR(한국중단철도), 남북러 가스관과 전력 연결 사업이 협의되고 있지만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사업은 큰 진척을 이루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시베리아지역은 또한 광물자원과 에너지자원(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풍력, 여름에 백야 현상으로 생성되는 태양열, 지열, 조력, 원자력 등)의 보고지역이기도 하다. 북극해의 미개발된 화석연료(특히, 세계 석유와 가스매장량의 4분의 1 추정)와 다이아몬드와 금을 포함한 희귀금속(알루미늄, 니켈, 희귀금속 등)과 수산자원은 인류의 마지막 보물이라고 생각된다.²⁾

1) 이철, 『시베리아 개발사』 민음사; (서울, 1990), p. 11-12.

특히, 시베리아의 북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북쪽지역이 북극해와 연해있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사하 공화국, 추코트카 지역은 석유, 천연 가스, 석탄과 같은 천연 에너지 자원과 다이아몬드와 금, 은과 같은 지하 광물 자원 등이 풍부히 매장되어있다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넓이에 10배가 넘는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은 러시아 니켈의 80%, 코발트의 75%, 은의 70%, 석탄의 16%, 금의 10%를 생산한다. 그리고 러시아 목재의 20%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서 생산된다.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중심지인 크라스노야르스크는 1628년에 요새로서 건설되었는데 금광이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시베리아 철도의 건설에 의해 급속하게 발전했다. 또한 1971년에 완성한 거대한 크라스노야르스크 수력 발전소가 있다.

사하(Sakha) 공화국은 투르크 계통의 민족인 야쿠트(Yakut)인들이 전통적으로 반유목생활을 해온 지역이다. 이 지역은 1620년대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모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자, 야쿠트인들은 이에 1634년과 1642년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당하였다. 이 지역은 극동으로의 우편 체계의 완성, 정치범 수용시설의 건설, 1846년의 금광 발견 등으로 러시아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1880년대와 1890년대의 시베리아 철도의 건설과 레나(Lena) 강으로의 상선 운영으로 러시아인들의 유입이 더욱 증가하였다. 사하 공화국에는 석유, 천연 가스, 석탄, 다이아몬드와 금, 은과 같은 다량의 천연자원이 채취 된다.

특히, 다이아몬드는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가채연수가 30년이나 된다. 이는 세계 다이아몬드 부존량의 25%를 차지하는 셈이다. 석유, 천연가스는 개발 초기단계로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채매장량은 가스가 2.3조 입방미터, 석유는 3억 톤이며 추정매장량은 가스 9.4조 입방미터, 석유 24억 톤이다. 석탄은 총 96억 톤의 매장량으로 러시아 전체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다. 금과 주석도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20%와 5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추코트카는 춥고 척박한 곳으로 겨울 평균 기온은 해안에선 -15°C 정도이나 내륙은 -35°C 정도이며, 비가 적게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 이 지역 농담을 빌리자면 "한 달은 나쁜 날씨요, 두 달은 아주 나쁜 날씨요, 나머지 달은 잔혹한 날씨"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겨울은 타 동시베리아 지역보다 따뜻하나 여름은 다른 지역보다 위도 등의 이유로 추운 편이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 가스, 석탄, 금, 텅스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세계 5위 안에 드는 구리 광산이 있다³⁾

그러나 이렇듯 온 러시아 뿐 아니라 인류에게 중요한 자원을 품고 있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러시아 당국의 문화·언어적 동화정책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문화와 언어를 점점 상실해 가는 현실에 놓여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 소수민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그들의 민족어에 대한 현실적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는 연구자 및 연구 기관들에 따라 3,000개부터 10,000개까지 차이가 있다. 하지만 6~7,000개의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장래에

2) 한종만,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정책" 『통일문제연구』, 58호, (2012), p. 77.

3) <https://namu.wiki/w/%EC%B6%94%EC%BD%94%ED%8A%B8%EC%B9%B4?from=%EC%B6%95%EC%B9%98%20%EC%9E%90%EC%B9%98%EA%B5%AC>

세계의 언어들이 맞게 될 운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견해들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⁴⁾ 세계의 언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유네스코(UNESCO)와 Krauss(1992)를 포함한 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는 약 6,7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으나 2주에 하나 정도의 언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속도로 지속될 경우 2100년 즈음에는 현존하는 언어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Hagège⁵⁾(2009: 9)는 자신의 저서 『On the death and life of languages』에서 21세기 초 세계 언어의 수를 다른 이들의 추정치보다 적은 5,000개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언어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극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해마다 25개 정도의 언어들이 사라지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약 5,000개의 세계 언어들 가운데 절반이 백년 안에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21세기 말이면 세계 언어의 수는 2,500개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심각성은 소멸 리듬의 가속 현상을 감안한다면 존속 가능한 언어의 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사하 공화국, 추코트카 지역의 소수민족어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II.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사하 공화국, 추코트카의 소수민족어 소개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은 튜멘 주, 톰스크 주, 이르쿠츠크 주, 케메로보 주, 하카스 공화국, 투바 공화국, 사하 공화국에 접해 있고, 북쪽은 북극해에 접해 있다. 2002년 집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96만 6000여명이고 인구 분포와 언어 사용 정도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인(86,3%)/러시아어(99,9%), 우크라이나인(3,3%)/우크라이나어(48,9%), 하카스인(1,9%)/하카스어(80,7%), 독일인(1,5%)/독일어(35,2%), 타타르족(1,5%)/타타르어(66,1%), 벨라루스인(0,9%)/벨라루스어(36,8%), 추바시인(0,8%)/추바시어(51,6%) 등.

사하 공화국은 극동 연방관구에 속하지만 지리적으로는 러시아 극동이 아닌 시베리아에 속한다. 러시아의 여러 행정 구역 중 가장 넓고,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행정 구역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 구역이기도 하다. 중심 도시는 야쿠츠크이다.

야쿠트인(45.54%)과 러시아인(41.15%)이 주류를 이루고, 다른 소수 민족은 우크라이나인(7%)과 체첸인, 아제르바이잔인, 고려인, 아르메니아인, 중국인, 에벤인, 에네트인, 나나이인, 돌간인, 축치인, 유카기르인들이 거주한다.

추코트카(Чукотка, 또는 축치 자치구)는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자치구이다. 북동부의 최동단에 위치해 있으며, 베링 해가 위치해 있고 53,000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위의 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수민족어 가운데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서 1%이상의 주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카스어, 타타르어, 사하 공화국의 에벤어, 에네트어, 나나이어, 돌간어, 유카기르어와 추코트카의 축치어의 언어 사용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4) 김병욱, “위기의 언어들과 저항,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프랑스학논집』, 67집, (2009), p. 2.

5) Hagège, Claude, 『On the death and life of languages』; translated by Jody Gladding, New Haven : Paris : (Yale University Press ; Editions Odile Jacob, 2009), p. 9.

III.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사하 공화국, 추코트카의 수소민족어 사용현황

본 기고문에서는 여러 가지 언어 생명도 등급 체계 중에서 ‘유네스코의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UNESCO Atlas of the World's Languages in Danger)⁶⁾, 그리고 유네스코 보고서인 ‘UNESCO Red Book on Endangered Languages: Northeast Asia⁷⁾’를 통하여 이 언어들의 언어 생명도를 알아 보고자한다.

A. 유네스코의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UNESCO Atlas of the World's Languages in Danger)의 언어 생명도 등급 체계

‘유네스코의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에 따르면 절멸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언어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놓았다;

- (1) 불안정한 언어(Vulnerable): 다수의 사람이 사용하지만 공용어가 아니거나 열세인 언어
- (2) 절멸 위기의 언어(Definitely endangered): 부분적으로는 신세대인 어린아이들도 사용하지만 그 사용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언어
- (3) 심각한 절멸 위기의 언어(Severely endangered): 상당수의 언어 사용자가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
- (4) 절멸 임박 언어(Critically endangered): 소수의 노년층만 사용하는 언어
- (5) 절멸 언어(Extinct):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

유네스코 언어 지도는 절멸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1)단계부터 절멸의 위험도가 점점 증가하여 언어의 사용자가 없는 (5)단계까지 분포되어 있다. 유네스코 지도에 따르면 전 세계 언어의 90-95%는 그 생명 유지가 불안한 (1)-(5) 단계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한다. 현존하는 구술 언어의 90%가 금세기 말에는 소멸되거나 거의 소멸될 것이라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최신호에서도 보도하고 있다⁸⁾.

B. UNESCO Red Book on Endangered Languages: Northeast Asia

한편, ‘UNESCO Red Book on Endangered Languages: Northeast Asia’는 수소민족어의 현재 상황, 언어 사용인구, 학교에서의 소수어 교육 상황, 출판물과 관련된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언어의 위험 등급을 아래와 같이 일곱 단계⁹⁾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다;

- (1) 위험에 처하지 않은 언어(Not endangered languages):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 줄 수 있는 언어
- (2)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한 언어(Potentially endangered languages): 많은 어린 아이들이 사용 하지만, 공식어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는 언어

6) <http://www.unesco.org/languages-atlas/>

7) http://www.helsinki.fi/~tasalmin/nasia_report.html

8) 김귀배, “유네스코의 문화와 언어다양성 보존 노력” 『새국어생활』 제17권, 제4호, (서울; 2007), p. 94.

9) ‘유네스코의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와 맞추기 위하여 위험 등급 단계를 낮은 (1)단계부터 가장 높은 (7)단계로 재구성하였다.

- (3) 위험에 처한 언어(Endangered languages): 최소한 어떤 영역의 언어 생활에서는 몇몇의 어린 아이들도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언어.
- (4) 심각하게 위험에 처한 언어(Seriously endangered languages): 상당한 수의 언어 사용자는 있으나 어린 아이들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
- (5) 거의 절멸한 언어(Nearly extinct languages): 언어 사용자의 수가 최대 수 십명 이고 모두 노인인 언어
- (6) 절멸 가능성이 높은 언어(Possibly extinct languages): 남아있는 언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언어
- (7) 절멸 언어(Extinct languages): 고대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없는 언어

1. 하카스(Khakas, Хакас)어

하카스어는 투르크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투바어, 알타이어, 쇼르어와 함께 북동어군으로 분류된다. 러시아의 하카스 공화국을 중심으로 케메로보 주,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우주르(Uzhur) 지역과 샤리포보(Sharypovo) 지역, 예니세이강 상류지역의 미누신스크(Minusinsk) 서부 초원 지역 등에 사는 하카스인을 중심으로 약 6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하카스어는 쇼르(Shor)어의 므라스(Mrass) 방언과 매우 가깝다. 역사적으로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쇼르의 므라스 지역 사람들 중에 일부가 쿠즈네츠키 알라타우(Kuzneckiy Alatau) 산맥을 넘어서 미누신스크(Minusinsk)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므라스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카스어와 혼합된 특별한 쇼르 방언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¹⁰⁾ 하카스어는 알타이제어 공통의 특징인 SOV(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을 취하고, 문법 관계를 명사의 격이나 동사의 활용을 나타내는 접사(접미사)를 어간에 붙여 표현하는 교착어인 한국어나 일본어와 닮은 유형을 갖고 모음 조화의 현상을 볼 수 있다.

‘유네스코의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에 따르면 하카스어는 52,217명(2002 센서스)이 사용하는 5단계 중 2단계인 절멸위기의 언어(Definitely endangered)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UNESCO Red Book on Endangered Languages: Northeast Asia’는 하카스어를 7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에 처한(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5단계인 ‘거의 절멸한(Nearly extinct) 언어’로 평가하기도 한다. 하카스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젊은 언어사용자의 평균 나이가 40대 이상이고 하카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제2외국어인 러시아어의 사용정도는 지역 마다 매우 다르다. 하카스어는 끼릴 알파벳으로 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문과 순수 문학에 사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하카스 공화국의 수도인 아바칸(Abakan)을 포함한 몇몇 지역의 소수의 공립학교에서 하카스어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카스어는 하카스 공화국 전체 인구의 10%만이 사용하는 소수 언어로 전락해 버렸다. 오직 러시아어만을 사용하는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큰 공업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10) http://www.helsinki.fi/~tasalmin/nasia_report.html

2. 타타르(Tatar, Tarap)어

타타르어는 타타르족이 쓰는 투르크어족의 언어로, 러시아 타타르 공화국의 공용어이다. 러시아에는 5,300,000명의 타타르어 사용자가 있다. 사용자의 4,500,000명이 타타르족이다. 기타 사용자는 바슈키르족 (520,000명), 러시아인 (130,000명), 추바슈족 (70,000명), 마리인 (42,000명), 우드무르트인과 모르도바인이다. 타타르 공화국에서 타타르어 방언을 사용하는 민족은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카자흐족, 유대인 그룹이다.

타타르 공화국에서는 2002년 이후 키릴 문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조치는 2004년에 러시아 헌법재판소와 타타르 공화국 최고법원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타타르인 사회에서는 아랍 문자로 표기하기도 한다.¹¹⁾

타타르어에는 알라부가트(Alabugat) 타타르어, 바라바(Baraba) 타타르어, 시베리안(Siberian) 타타르어, 크림(Crimean) 타타르어(Crimea), 크림(Crimean) 타타르어 (Dobruja), 유르트(Yurt) 타타르어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 기고문의 주제와 지역적으로 일치하는 시베리안 타타르어(Siberian Tatar)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시베리안 타타르어는 지방의 하천이나 초원의 이름을 따서 투라(Tura) 타타르어, 티우멘(Tiumen') 타타르어, 토볼스크(Tobolsk) 타타르어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시베리안 타타르어는 시베리아 서남쪽의 초원과 목초지대, 서쪽의 남부 우랄 지역에서부터 동쪽의 오브(Ob)지역 북부에 까지 이르고, 남부 출림(Chulym) 지역에서도 사용되는데, 그 지역이 출림 타타르와의 경제 지역이다. 과거에는 일련의 타타르 방언들을 하나의 통합된 타타르어로 자주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베리안 타타르어와 유럽지역의 타타르어는 언어학적으로 상당히 다르고 상호간의 이해 정도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이 두 가지 언어를 하나의 언어단위로 보려는 경향은 시베리안 타타르어 사용자들보다는 유럽 타타르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더 강한 것 같다.¹²⁾

‘유네스코의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는 시베리안 타타르어를 9,611(2002 센서스)명이 사용하는 2단계인 ‘절멸위기의(Definite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NESCO Red Book on Endangered Languages: Northeast Asia’에 따르면 시베리안 타타르어의 현 상황은 7단계 중 3단계인 ‘위험에 처한(Endangered) 언어’에 속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5단계인 ‘거의 절멸한(Nearly extinct) 언어’에 속하는 형편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아이들의 수나 가장 젊은 언어구사자의 평균 나이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시베리안 타타르 사용자들은 다민족 구성체를 이루고 집밖에서는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시베리안 타타르인들이 이처럼 민족어를 상당히 잃어 버렸음에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이다. 시베리안 타타르 사용자들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일한 이슬람교도들이다. 시베리안 타타르어의 사용 정도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 의해서 상당히 침해를 당했으며 학교 교육이나 종교 교육으로 지방 마다 사용되는 표준 타타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11)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D%83%80%EB%A5%B4%EC%96%B4>

12) http://www.helsinki.fi/~tasalmin/nasia_report.html

3. 에벤(Even, Эвэнский)어

에벤어는 라무트(Lamut, Ламутский)어, 에웬(Ewen)어, 오리크(Orich)어로도 알려져 있으며 시베리아의 에벤족들이 사용하는 퉁구스어족의 언어이다. 이 언어는 동쪽의 캄차트카와 오호츠크해에서부터 서쪽의 레나강에 이르는 사슴 유목민들 사이에서 사용된다. 또한 북쪽으로는 북극해 연안에서부터 남쪽의 알단(Aldan)강까지 퍼져있다.

사하공화국, 마가단주, 하바로프스크 지역, 추코트카 등이 대표적인 언어 사용 지역이다¹³⁾.

2010년 러시아 센서스에 따르면 단지 5,700명만이 에벤어를 사용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언어 지도는 에벤어를 5단계 중 3단계인 ‘심각한 절멸 위기의(Severe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NESCO Red Book은 에벤어를 7단계중 3단계인 ‘위험에 처한 (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5단계인 ‘거의 절멸한(Nearly extinct) 언어’로까지 분류하고 있다. 어린아이들 언어 사용자는 거의 없으며, 가장 젊은 언어사용자의 평균나이는 40대 초반이고, 거의 모든 에벤어 사용자들은 이중 언어자이거나 다중 언어자(에벤어+ 러시아어, 야쿠트어, 코랴어)들이다. 에벤어는 야쿠트어나 러시아어의 끼릴 알파벳을 본뜬 두 개의 철자법을 가지고 있다.

4. 에네츠(Enets, Энецкий)어

에네츠어는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예니세이강 하류를 따라서 정착한 에네츠족들이 사용하는 사모예드어파의 언어이다. 에네츠어는 툰드라 에네츠어와 삼림 에네츠어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하나의 언어에서 파생된 두 개의 방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이 두 방언은 많은 기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툰드라 에네츠어는 오랜 역사에 걸쳐 북쪽으로 등어선이 이동하여 응가나산(Nganasan)어와 비슷해지고, 삼림 에네츠어는 150년에 걸쳐 예니세이 분지를 따라 점차 북쪽으로 대략 500km를 이동하여 현재는 네네츠어와 많이 닮아있다. 네네츠어, 응가나산어와 함께 에네츠어는 북부 사모예드어의 하위 제어로 자주 간주된다.¹⁴⁾

4.1. 툰드라 에네츠어(Tundra Enets, тундровых энцев язык)

툰드라 에네츠어는 마두(Madu, маду)어, 소마투(Somatu, сомату)어로도 불린다. 툰드라 에네츠어는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이전 타이미르 자치구에 있는 예니세이강 하류의 툰드라지대에서 사용된다. 유네스코의 세계 언어지도에 따르면 툰드라 에네츠어는 5단계 중 4단계인 ‘절멸 임박(Critical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되어있다. 세계 언어지도에서 2005년 구세프(Гусев)는 언어 사용자수를 10명으로 예상했다. NESCO Red Book은 툰드라 에네츠어의 현 상황을 7단계 중 5단계인 ‘거의 절멸한(Nearly extinct)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툰드라 에네츠어의 어린이 언어 사용자는 없으며 가장 젊은 언어 사용자의 평균 나이는 40대 이상이고 언어 사용자의 수는 50명 이하가 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數)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툰드라 에네츠의 사용 정도는 기초적인 대화에 쓰이고 대부분은 러시아어와 이중 언어를 구사하며 응가나산어

13) https://en.wikipedia.org/wiki/Even_language

14) https://en.wikipedia.org/wiki/Enets_language

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4.2. 삼림 에네츠어 (Forest Enets, лесных энцев язык)

삼림 에네츠어는 바이(Bay, бай)어, Mangazeia Samoyed(만가제야 사모예드)어, Baikha Samoyed(바이카 사모예드)어로도 불린다. 삼림 에네츠어는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이전 타이미르 자치구에 있는 두딘카 지역(Dudinka raion)내의 예니세이강 하류 삼림 지대에서 사용된다. 유네스코의 세계 언어지도에 따르면 삼림 에네츠어는 5단계 중 4단계인 ‘절멸 임박(Critical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되어있다. 세계 언어지도에서 2005년 구세프(Гусев)는 언어사용자수를 20-30명으로 예상했다. NESCO Red Book은 삼림 에네츠어의 현 상황을 7단계 중 5단계인 ‘거의 절멸한(Nearly extinct)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삼림 에네츠어의 어린이 언어 사용자는 없으며 가장 젊은 언어 사용자의 평균 나이는 40대 이상이고 언어 사용자의 수는 50명 이하가 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數)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림 에네츠의 사용자들은 러시아어와 툰드라 네네츠어를 동시에 구사 할 줄 아는 삼중 언어자(trilingual)들이고 러시아어와 툰드라 네네츠어가 삼림 에네츠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5. 나나이(Nanay/Nanai, Нанайский)어

나나이어(Nanay language)는 퉁구스어족 남퉁구스어파에 속하는 언어이다. 시베리아, 헤이룽장 성에 거주하는 나나이족이 주요 화자이다. 헤진어(Hezhen language)라고도 불린다. 러시아에서는 하바롭스크 지방의 나나이스키 군에서 나나이어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나나이어로 된 책과 교과서의 출판에 힘써왔던 나나이어 화자 집단과, 나나이 군의 민족 자치적 상태 때문이다. 스톨야로프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나나이족 인구는 11,883명이고 이 중 8,940명은 하바롭스크 지방의 교외 지역에서 거주한다. 그러나 100-150명의 원어 민만이 그 지역에 남아있다.¹⁵⁾

유네스코의 세계 언어지도에 따르면 나나이어는 5단계 중 3단계인 ‘심각한 절멸 위기의(Severe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되어있다. 세계 언어지도는 2002년 러시아 센서스를 인용하여 나나이어 사용자 수를 3,886명이라 했다. 그러나 이는 약간 부풀려진 숫자일 거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국에는 20명 정도 언어 사용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NESCO Red Book은 나나이어의 현 상황을 7단계 중 4단계인 ‘심각하게 위험에 처한(Serious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나나이어의 어린이 언어 사용자는 없으며 가장 젊은 언어 사용자의 평균 나이는 주로 40대 이상이고 총 언어 사용자의 수를 5,800명으로 예상했다. 언어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어 나나이족 내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거의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학교에서 나나이어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나나이어 표기를 위한 표준 끼릴 문자가 있으나 강의는 러시아어로 진행된다.

6. 돌간(Dolgan, Долганский)어

돌간어는 투르크어족에 속한 언어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이전 타이미르 자치구 남부에 있

15)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B%82%98%EC%9D%B4%EC%96%B4>

는 두딘카(Dudinka)와 카탕가(Khatanga) 지역과 사하공화국의 아나바르(Anabar)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돌간어는 북동투르크어족에 속한 언어이며 야쿠트어와 사촌지간되는 언어이다.¹⁶⁾ 사실 민족사적이고 행정적인 이유로 돌간어를 하나의 별개 언어로 여기고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야쿠트어의 방언이다.

유네스코의 세계 언어지도에 따르면 돌간어는 5단계 중 2단계인 ‘절멸 위기의 (Definite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되어있다. 세계 언어지도는 2002년 러시아 센서스를 인용하여 돌간어 사용자 수를 4,865명이라 했다. NESCO Red Book은 돌간어의 현 상황을 7단계 중 2단계인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한 (Potential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비록 어릴 때부터 제2 외국어로 러시아어를 배우기는 하지만, 상당한 비율의 어린이들이 돌간어를 여전히 배우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총 언어 사용자의 수는 대략 5,6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어의 침해가 있기는 하지만 돌간어 사용자들은 모국어 사용이 능숙한 편이다. 타이미르 지역의 원주민들도 돌간어를 사용한다.

7. 유카기르(Yukagir, Юкагирский)어

유카기르어는 **고(古)아시아 어군에 속하는 언어**로서 사하 공화국의 해안과 마가단 주 접경 지대에 거주하는 유카기르인들이 쓰는데 **핀란드어**와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원래는 4개 방언이 있었으나 지금은 툰드라(북부)방언과 삼림(콜리마, 남부)방언 2개만 남아있다. 현재 유카기르어가 가능한 유카기르인은 28% 정도에 불과하며 **사하어나 러시아어**가 더 많이 쓰인다.¹⁷⁾

7.1. 툰드라 유카기르(Tundra Yukagir, тундренный юкагирский)어

툰드라 유카기르(북부 유카기르, Northern Yukagir)어는 지역적으로 서쪽 인디기르카강 하류에서부터 동쪽의 콜리마강 분지에 이르는 툰드라 지대에서 사용되며 행정적으로는 사하공화국에 속한다. 이전에는 레나-야나-인디기르카-콜리마 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언어 지도는 툰드라 유카기르어를 5단계 중 4단계인 ‘절멸 임박(Critical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1987년에 Maslova는 언어 사용자의 수를 150명 정도로 예측한 바 있다고 유네스코 세계 언어지도는 밝히고 있다. 한편, NESCO Red Book은 툰드라 유카기르어를 7단계 중 5단계인 ‘거의 절멸한(Nearly extinct)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아이들 언어사용자는 거의 없으며, 가장 젊은 언어사용자의 평균나이는 거의 60대 이상이고, 툰드라 유카기르어 사용자의 수는 대략 700명의 툰드라 유카기르족 중에서 50명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 그나마 툰드라 유카기르와 삼림 유카기르족의 공식적인 인구수가 1970년과 비교하여 1989년에는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증가 상황이 민족적이거나 언어적인 활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 수치에 불과하다고 믿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https://ko.wikipedia.org/wiki/%EB%8F%8C%EA%B0%84%EC%96%B4>

17) <https://namu.wiki/w/%EC%9C%A0%EC%B9%B4%EA%B8%B0%EB%A5%B4>

툰드라 유카기르어와 삼림 유카기르어 모두 러시아어나 야쿠트어를 기본으로 한 끼릴 문자를 사용하는 고유 문자를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거의 모든 유카기르어 사용자들은 러시아어, 야쿠트어, 에벤어, 코랴어 등을 같이 사용하는 다중 언어자들이다.

7.2. 삼림 유카기르(Forest Yukagir, *колымский юкагирский*)어

삼림 유카기르(남부 유카기르, Southern Yukagir)어는 콜리마강 상류지역의 삼림지대에서 사용되며 행정적으로는 사하 공화국과 마가단주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전에는 북부 콜리마 지역의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유네스코 세계 언어지도는 삼림 유카기르어를 5단계 중 4단계인 ‘절멸 임박(Critical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1987년에 Maslova는 언어 사용자의 수를 50명 이하로 예측한바있다고 유네스코 세계 언어 지도는 밝히고 있다.

한편, NESCO Red Book은 삼림 유카기르어를 7단계 중 5단계인 ‘거의 절멸한(Nearly extinct)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아이들 언어사용자는 거의 없으며, 가장 젊은 언어사용자의 평균 나이는 거의 60대 이상이고, 삼림 유카기르어 사용자의 수는 대략 400명의 툰드라 유카기르족 중에서 50명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 삼림 유카기르어 사용자는 다중언어 사용자들이고 두 개의 유카기르어 중에서 삼림 유카기르어가 툰드라 유카기르어보다 더 빠르게 절멸되어가고 있다고 NESCO Red Book은 보고하고 있다. 삼림 유카기르어와 툰드라 유카기르어의 차이점은 즉시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7. 축치어(Chukchi, *Чукотский*)

축치어는 북극 연안에서 베링해에 이르는 러시아의 축치 반도에서 축치인들이 쓰는 언어이다. 코랴크 자치구북동부, 사하 공화국 니즈니콜림스키 군에도 축치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1931년까지 문자가 없었으나 그 후 로마자에 기반한 알파벳이 만들어졌고 1937년 키릴 문자로 바뀌었다. 다만 축치어와 러시아어는 발음 구조가 다른 관계로 러시아어에선 안 쓰이는 *ɣ* (q), *ɟ* (영어 r 발음), *ŋ* (ng) 등의 글자가 추가로 쓰인다.¹⁸⁾

유네스코 세계언어 지도에 따르면 축치어는 5단계 중 3단계인 ‘심각한 절멸 위기의 (Severely endangered) 언어’로 분류되고 있다. 2002년의 인구 센서스는 언어 사용자의 수를 7,742명으로 기록한 바 있다고 유네스코 세계 언어지도는 밝히고 있다. 그리고 NESCO Red Book은 축치어를 7단계 중 3단계인 ‘위험에 처한(Endangered)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축치어가 안전한 언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어린아이들 중에서 극소수의 어린이들만이 축치어를 사용한다. 축치어에는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와 여성이 쓰는 언어 사이에 음성학적으로, 어휘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문법적으로 서로 다른 점들이 존재했다. 그러한 성(性)에 따른 상이점(相異點)들은 지금은 남성의 언어로 획일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략 1,500명의 축치인들 중에 약 1,100명 정도가 축치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NESCO Red Book은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축치어 사용자 중에서 젊은이들은 기초적인 의사 소통에만 자신의 민족어를 사용하고 모두 다 러시아어를 사용할 줄 아는 이중 언어자들이다. 그리고 러시아만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훨씬 많다.

18) <https://namu.wiki/w/%EC%B6%95%EC%B9%98%EC%96%B4>

그러면 소수민족어의 위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소수민족어의 언어 생명도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1> 소수민족어 언어 생명도표

	유네스코의 위기에 처한 세계 언어 지도, 1-5 단계	UNESCO Red Book on Endangered Languages: Northeast Asia, 1-7 단계
하카스어	2	3(5)
시베리안 타타르어	2	3(5)
에벤어	3	3(5)
툰드라 에네츠어	4	5
삼림 에네츠어	4	5
나나이어	3	4
돌간어	2	2
툰드라 유카기르어	4	5
삼림 유카기르어	4	5
축치어	3	3

()안의 숫자는 일부 지역의 언어 생명도를 나타낸다.

<표 1>에 따르면 하카스어, 시베리안 타타르어, 돌간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언어 상황을 보이는 반면에, 툰드라 에네츠어, 삼림 에네츠어, 툰드라 유카기르어, 삼림 유카기르어는 그야말로 절멸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 언어들은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카스어, 시베리안 타타르어, 돌간어의 미래도 우리가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존재의 위기를 맞고 있는 언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V. 언어 보존의 타당성

지난 2백 년 동안 언어의 절멸을 초래하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언어의 절멸은 생태계에서의 종 다양성 소멸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당면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 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생태계 위기의 한 징후가 된다고 한다. 생명체의 생존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종 다양성은 생물학적 생태의 지속과 상속이 가능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은 대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도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어 다양성의 소멸 현상도 인류의 지적 문명의 재앙이자 다가올 불행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끌어와 쓸 수 있는 잠재적 지적 기반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류의 환경 적응력이 현저히 감소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Papia¹⁹⁾는 언어는 사고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꿈꾸는 것과 같은 인간의 기초적인 정신적 활

19) Sengupta, Papia. "Endangered Languages: Some Concer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4, No. 32, (2009), p.17.

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언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키고 언어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는 정체성의 관점, 공평성의 관점, 다양성의 관점이라는 세 가지 넓은 분야로 분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언어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사고가 개념화되고 가치관이 정립되고 인식되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심적인 요소이다. 여기에 언어가 보존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언어로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판단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서로 인정하고, 그 공동체가 살아남아서 무한한 미래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공유한다²⁰⁾. May²¹⁾도 또한 언어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언어적 정체성에 관한 집단적인 의식뿐 아니라 개인적인 의식도 언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말한다. 둘째,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언어는 국가 조직체제에 참여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해당 국가의 지배언어(Dominant language)를 구사하지 못하면 개인의 취업, 교육, 여가 생활의 기회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차별과 불공평을 야기한다.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공식적으로 다언어 사용 정책을 지지하는 Pattern(2001)은 어떤 공동체내에서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중한 교육적인 공간들과 자원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배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언어 사용의 기회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은 자신이 집단이나 공공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언어 구성체나 정책에 지지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²²⁾ 셋째로, 다양성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은 그 사회 안에서는 아무도 가져보지 못한 인간의 행복한 삶의 방식과 비전(Vision)에 대한 다른 체계를 다른 문화로부터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²³⁾. 더욱이, 각 언어는 그 언어의 사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인간의 창의성을 구현하고 있고, 그 자체로서 인간의 위대한 업적물이며 목표이다²⁴⁾. 그러므로 언어의 다양성은 인간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지혜를 구현하는 인류 유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어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²⁵⁾

그러므로 소수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들이 구축해온 그들의 영혼의 사원이자 나아가 인류의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절멸 위기에 처한 툰드라 에네츠어, 삼림 에네츠어, 툰드라 유카기르

20) Pattern, Alan. "Political Theory and Language Policy," *Political Theory*, Vol. 29, No. 5, (2001) p. 697.

21) May, Stephen. "Misconceiving Minority Language Rights: Implications for Liberal Political Theory" Will Kymlicka and Alan Pattern (eds.), *Language Right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141.

22) Latin, David and Rob Reich. "A Liberal Democratic Approach to Language Justice" in Will Kymlicka and Alan Pattern (eds.), *Language Right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103.

23) Parekh, Bhiknu. "Cultural Pluralism and the limits of Diversity," in Gurpreet Mahajan (ed.), *Democracy, Difference and Social Justice*,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205.

24) Reaume, Denise. "Official Language Rights: Intrinsic Value and the Protection of Difference", in Will Kymlicka and Wayne Norman (ed.),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50.

25) 서승현 "러시아 북극권의 절멸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어- 코미어와 네네츠어를 중심으로", 『인문과 학연구논총』, 36권, 3호, (2015), p. 286.

어, 삼림 유카기르어의 위기 상황은 인류 지적 상속의 부분적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사고의 이중교배 없는 순혈주의만으로 문화의 진보는 가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는 우수하고 어떤 언어는 세련되지 않은 원시적이거나 비문명적 언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문법서나 어휘 양의 부족으로 번역이 간단하지 않은 에네츠어나 유카기르어가 영어나 러시아어어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편견으로 영어나 러시아어와 같은 소수의 거대언어만이 이 지구상의 지배 언어로 정착된다면, 인류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어 손실에 대한 우리 정보는 너무나 부족하고 위기에 처한 언어 보존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결속성은 너무 느슨하다. 그러므로 언어 다양성 상실의 결과는 인간의 권리, 윤리, 사회 정의의 관점과 문화적 정체성과 유산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²⁶⁾.

V. 맺음말

언어는 여느 유산과 달리 끊임없이 생산되고 진화되며 사회·문화적 영향과 충격에 민감하다. 언어가 사라지게 되면 언어와 더불어 공동체가 지닌 지식과 사상, 가치 체계의 많은 부분도 사라지거나 축소되어 보다 거대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종속되게 된다. Hale도 “과학적인 언어 연구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인간 활동과 연관 지어볼 때 언어의 다양성은 인간의 지적인 삶에 중요하다.”²⁷⁾라고 하며 언어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간의 기본적인 문법 능숙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본 언어로서 영어가 유일한 언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다른 언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영어만으로도 엄청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언어의 다양성을 상실함으로써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만약 영어가 유일한 언어라면 우리는 영어를 통하여 문법 체계의 기본적인 원리를 많이 배울 수도 있지만, 영어가 갖고 있지 않은 다양한 문법 특성들의 개념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언어를 숙달하는데 중요한 개념 요소들을 잃게 할 것이다. 극히 제한적으로 격변화를 하는 영어(대명사에서만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변하는 것을 일컬음) 사용자가 13가지로 격변화하는 명사와 형용사를 가진 에벤어의 격(Case) 체계²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많은 격들의 의미와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수(Number)의 범주에서 영어만 알고 있는 사용자는 car(단수)-cars(복수)와 같은 대비 구조만 생각할 수 있다. 수의 범주에 관한 그들의 관심은 문법학이론이 수의 대조를 [±단수]로 정의 하느냐 혹은 [±복수]로 정의 하느냐에 있다. 그러나 수의 개념이 영어의 단수, 복수 [±]값으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언어도 있다. 에네츠어, 슬로베니아어(Slovene)²⁹⁾, 소르브어

26) Skutnabb-Kangas, Tove and R. Phillipson.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4).

27) Hale, Kenneth. “Language endangerment and the human value of linguistic diversity” *Language*, Vol. 68, No. 1. (1992), p.35.

28) <http://lingsib.iea.ras.ru/en/languages/even.shtml>

29) 슬로베니아어는 동유럽의 슬로베니아의 공용어이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에서도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남부슬라브어군에 속하며 250만 명의 언어 인구가 있다.

(Sorbian)³⁰, 히브리어, 아랍어는 그들의 품사 범주에 따라서 양수(Dual number)³¹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오스트로네시안어족인 톨로마코(Tolomako)어, 리히르(Lihir)어, 만암(Manam)어는 양수 뿐 아니라 삼수(Trial number)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언어 체계에서 단수는 ‘하나의 사물’을, 양수는 ‘두 개의 사물’을, 삼수는 ‘세 개의 사물’을 나타낸다.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수의 개념을 영어에만 노출된 사용자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개념도 없고, 이해 할 수도 없다. 왜? 생각해 본적이 없으니까. 영어를 양수의 개념을 가진 에네츠어와 대비하여 생각해보거나, 에네츠어를 공부해보거나, 번역을 시도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만 존재하는 곳에서는 양수에 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아니,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³²)

언어의 다양성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은 단지 언어학적인 사고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 언어는 문법체계 그 이상이다. ‘언어’라는 용어는 넓은 영역의 인간 능숙도와 능력을 포함한다. 그래서 언어를 단일 개체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 언어의 다양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점은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지적 풍요로움을 구현한다는 단순한 사실이다.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지적인 생산품과는 종종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운문, 노래가사, 시 등은 그것이 형성하고 있는 언어의 형태적, 음성학적, 통사적 특성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술은 정말로 언어 없이는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의존도가 전자의 것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지적인 전통들도 사람들의 언어적 민족지학(民族誌學)의 일부가 되어서 사실상 언어와 분리하기는 힘들다.

우리가 언어와 지식, 언어와 문화 사이의 본질과 범위를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의 언어 유산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언어가 해석하고 전달하는 지식, 믿음, 가치관을 잃는다는 것을 암시한다³³). 위기의 언어에 대한 정책과 대책방안에 대한 상당한 양의 연구가 지금까지 수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교육에서의 언어권(Linguistic rights; 言語權)을 포함한 언어에 대한 인간의 권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언어 보호와 활성화 프로그램과 계획 개발이다³⁴). 그러나 토착민과 소수민족의 언어 지원 정책에 관한 러시아는 언어의 다양화를 수용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는 다언어(多言語) 사용이 국가의 통일성을 위협하고 언어 정책의 수립과 실천은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거를 제시하며 국가어

30) 소르브어는 서부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언어로서, 고지 소르브어와 저지 소르브어로 나뉜다. Wendish 또는 Lusatian이라고도 불렸다. 독일 남동부 슈프레강 상류지역에서 사용하며, 사용 인구는 10만 내외로 알려져 있다.

31) 에네츠어, 슬로베니아어(Slovene), 소르브어(Sorbian), 히브리어, 아랍어의 양수는 대표적으로 주어 가 두 사람이거나 두 개의 사물일 때에 쓰인다. 그들의 개념 속에 복수는 세 개 이상을 의미한다.

32) 서승현 “러시아 북극권의 절멸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어- 코미어와 네네츠어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권 3호, (2015), p. 293.

33) Zent, S. “Acculturation and Ethnobotanical Knowledge Loss among the Piaroa of Venezuela: Demonstration of a Quantitative Method for the Empirical Study of TEK Change,” in Luisa Maffi (ed.), *On Biocultural Diversity: Linking Language, Knowledge and the Environment*,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001).

34) Maffi, Luisa. “Endangered Languages, Endangered Knowledg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4, Issue 173, (2002), p. 390.

로 단일 러시아어를 주입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인류가 소수민족어의 절멸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절멸 위기의 언어의 보존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실제로 Olthuis³⁵⁾는 자신의 민족어인 Aanaar Saami어³⁶⁾를 보존하기 위하여 18명의 Aanaar Saami어 구사자들과 함께 CASLE(Complementary Aanaar Saami Language Education, 상호보완적인 Aanaar Saami어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한바 있다. 그녀는 핀란드의 Oulu대학교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Aanaar Saami어의 위기 상황과 인간의 권리로서 가져야 할 토착 소수민족어에 대한 보호정책을 지지 할 것을 ‘국제인지언어학회(International Cognitive Linguistics Association: ICLA)’와 유네스코 등에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책으로 편찬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이 각국의 정부나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위기의 소수민족어에 대한 심각성을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언어 보호정책을 취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토착 소수민족어 사용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수 언어의 권리를 선언해야 한다. Nettle과 Romaine³⁷⁾은 사멸 위기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법적인 보호는 분명 유용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소수언어 사용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실례로, ‘저사용(低使用) 언어 유럽 사무국(European Bureau of Lesser Used Languages)’과 메르카토르 네트워크 같은 유럽 연합의 프로그램은 정부가 그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소수의 권리를 보증하고 그들 영토 내에서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유네스코의 언어 권리에 관한 보편적 선언을 지지하였다. 셋째, 위기의 언어들을 문서화하고 문법서, 사전, 교재들에 그 언어들을 문자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과 인간 삶의 다양성에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언어의 다양화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카스어, 시베리안 타타르어, 에벤어, 에네츠어, 나나이어 등과 같은 북극 소수민족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으로 언어학자들은 대중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고취시켜 러시아 정부나 다른 관련 행정기관들이 적절한 언어 정책,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하도록 하여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 하겠다.³⁸⁾ 웨일스 속담, “언어 없는 땅, 심장 없는 땅”³⁹⁾이란 표현처럼, 언어와 같은 무형의 인류 유산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한다.

35) Olthuis, Marja-Liisa, Suvi Kivelä, Tove Skutnabb-Kangas. *Revitalising Indigenous Languages: How to Recreate a Lost Generation*. (Bristol, UK ; Tonawanda, NY: Multilingual Matters, 2013).

36) 우랄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핀란드 북쪽에 거주하는 Saami족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37) Nettle, Daniel and Suzanne Romaine. *Vanishing Voices: The Extinction of the World's Languag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00.

38) 서승현, “러시아 북극권의 절멸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어- 코미어와 네네츠어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6권 3호, (2015), p. 16-17, 19.

39) 김병욱, “위기의 언어들과 저항,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프랑스학논집』, 67집, (2009), p. 34.

<참고문헌>

● 한국어 자료

김귀배, “유네스코의 문화와 언어다양성 보존 노력”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제1권 제4호, 2007.

김병욱, “위기의 언어들과 저항,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프랑스학논집』, 67집, 2009.
서승현, “러시아 북극권의 절멸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어- 코미어와 네네츠어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연구논총』, 36권, 3호, 2015.

이철, 『시베리아 개발사』 민음사; 서울, 1990.

한종만,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한반도 정책” 『통일문제연구』, 58호, 2012.

● 영어 자료

Hagège, Claude, 『On the death and life of languages』; translated by Jody Gladding, New Haven : Paris : Yale University Press ; Editions Odile Jacob, 2009.

Hale, Kenneth, “Language Endangerment and the Human Value of Linguistic Diversity,” *Language*, Vol. 68, No. 1, 1992.

Krauss, Michael, “The world’s languages in crisis”, *Language* Vol. 68, No. 1, 1992, 4-10.

Latin, David and Rob Reich, “A Liberal Democratic Approach to Language Justice” in Will Kymlicka and Alan Pattern (eds.), *Language Right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Maffi, Luisa, “Endangered Languages, Endangered Knowledg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54, Issue 173, 2002.

May, Stephen, “Misconceiving Minority Language Rights: Implications for Liberal Political Theory,” Will Kymlicka and Alan Pattern (eds.), *Language Right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Nettle, Daniel and Suzanne Romaine, *Vanishing Voices: The Extinction of the World’s Languag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Olthuis, Marja-Liisa, Suvi Kivelä, Tove Skutnabb-Kangas, *Revitalising Indigenous Languages: How to Recreate a Lost Generation*. Bristol, UK ; Tonawanda, NY: Multilingual Matters, 2013.

Parekh, Bhiknu, “Cultural Pluralism and the limits of Diversity,” in Gurpreet Mahajan (ed.), *Democracy, Difference and Social Justice*,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attern, Alan, “Political Theory and Language Policy,” *Political Theory*, Vol. 29, No. 5, 2001.

Reaume, Denise, “Official Language Rights: Intrinsic Value and the Protection of Difference,” in Will Kymlicka and Wayne Norman (ed.),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Sengupta, Papia, “Endangered Languages: Some Concer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4, No. 32, 2009.

Skutnabb-Kangas, Tove and R. Phillipson,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4.

Zent, S., "Acculturation and Ethnobotanical Knowledge Loss among the Piaroa of Venezuela: Demonstration of a Quantitative Method for the Empirical Study of TEK Change," in Luisa Maffi (ed.), *On Biocultural Diversity: Linking Language, Knowledge and the Environment*, Washington, D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001.

<https://ko.wikipedia.org/wiki/%ED%95%98%EC%B9%B4%EC%8A%A4%EC%96%B4> (검색일: 2015.12.02.)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D%83%80%EB%A5%B4%EC%96%B4>(검색일: 2015.12.02.)

<http://www.unesco.org/languages-atlas/index.php>(검색일: 2015.07.05.)

http://www.helsinki.fi/~tasalmin/nasia_report.html(검색일: 2015.07.05.)

<https://namu.wiki/w/%EC%B6%94%EC%BD%94%ED%8A%B8%EC%B9%B4?from=%EC%B6%95%EC%B9%98%20%EC%9E%90%EC%B9%98%EA%B5%AC>(검색일: 2015.12.02.)

<https://namu.wiki/w/%EC%9C%A0%EC%B9%B4%EA%B8%B0%EB%A5%B4>(검색일: 2015.12.02.)

<https://namu.wiki/w/%EC%B6%95%EC%B9%98%EC%96%B4>(검색일: 2015.12.02.)

<https://ko.wikipedia.org/wiki/%ED%83%80%ED%83%80%EB%A5%B4%EC%96%B4>(검색일: 2015.12.02.)

<http://lingsib.iea.ras.ru/en/languages/even.shtml>(검색일: 2015.12.09.)

https://en.wikipedia.org/wiki/Even_language(검색일: 2015.12.04.)

https://en.wikipedia.org/wiki/Enets_language(검색일: 2015.12.04.)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B%82%98%EC%9D%B4%EC%96%B4>(검색일: 2015.12.02.)

<https://ko.wikipedia.org/wiki/%EB%8F%8C%EA%B0%84%EC%96%B4>(검색일: 2015.12.02.)

러시아 서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의 문양들

계용택

러시아 서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은 혹독한 기후조건과 극도로 열악한 거주환경에 의해 실용적인 성격이 강한 전통문화를 쌓아왔다. 문양은 문화를 심볼로 표출된 것으로 민족의 사상을 예술미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드화된 사상이 포함된 정보를 지니고 있다.

문양의 세계는 매우 넓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문양이 가지고 있는 자체 법칙과 생존력에 의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몇몇의 문양 모티브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시기에 걸쳐 확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문양에는 다양한 기하학적인 형태 및 식물에 유래된 모티브가 담겨져 있다.

식물 모티브에서 따온 문양들은 주로 식물의 잎, 꽃, 열매, 가지 등의 형상을 그렸다. 자연에서 가져오는 문양의 모티브들은 동물이나 사람들과 같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형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은 문양표시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비록 이들 문양의 주술적 효용에 대해 아마도 적은 수의 사람들만 믿고 있지만, 문양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정신이 전해 내려져 왔다.

몇몇의 문양들은 우리에게 잘 알려졌으며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소수민족들에서 자신의 문화형성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그들의 삶이 생겨난 자연적 환경 및 사회적 발전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과 융화되어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서 나오는 형상들과 리듬을 느낄 수가 있다. 문양은 생활 모습에 대한 상징적 표현 제시와 더불어 성숙된 정신을 보존 유지하게 하여, 문양을 지니는 사람들에게 힘과 건강을 준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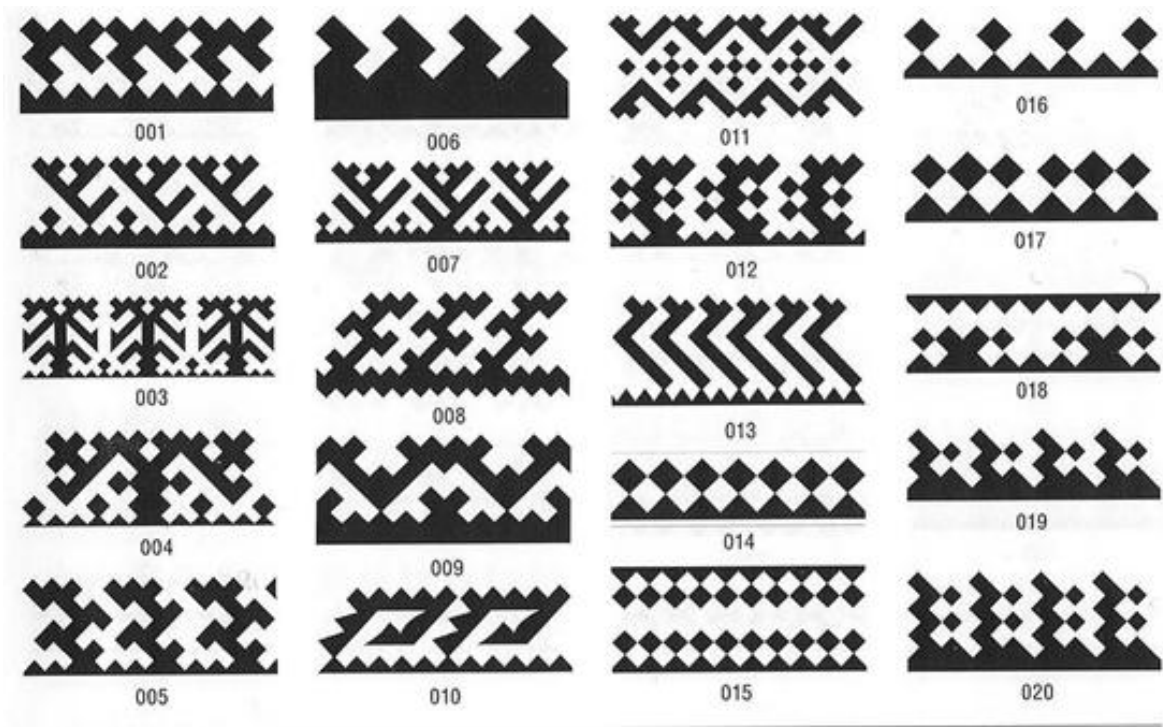
예를 들면, 돌간족은 사냥꾼의 모자에 발톱 또는 귀, 눈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이들 그림은 사냥꾼에게 예민한 청각과 날카로운 시력을 가진 강력한 짐승의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I. 만시족

만시족은 러시아의 소수민족으로 한티-만시 자치구에 살고 있다. 만시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민족으로는 한티족이 있다. 만시족은 만시어를 사용하며 강력한 러시아인으로서의 동화정책 여파로 약 60퍼센트의 만시족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약 12,269명의 만시족이 러시아에 살고 있다. 그중 약 200명의 만시족이 러시아 스페르들로프 주 북부 지방에 거주한다.

또한 만시족 일부는 프리모르 지방 북서지역의 국가지정 사냥금지지구 '비쉐르스키이'에서 산다. 만시족의 민족예술에는 기본적으로 문양예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문양 대부분

의 모티브는 그들의 조상인 한티족 및 셀쿠프족으로 부터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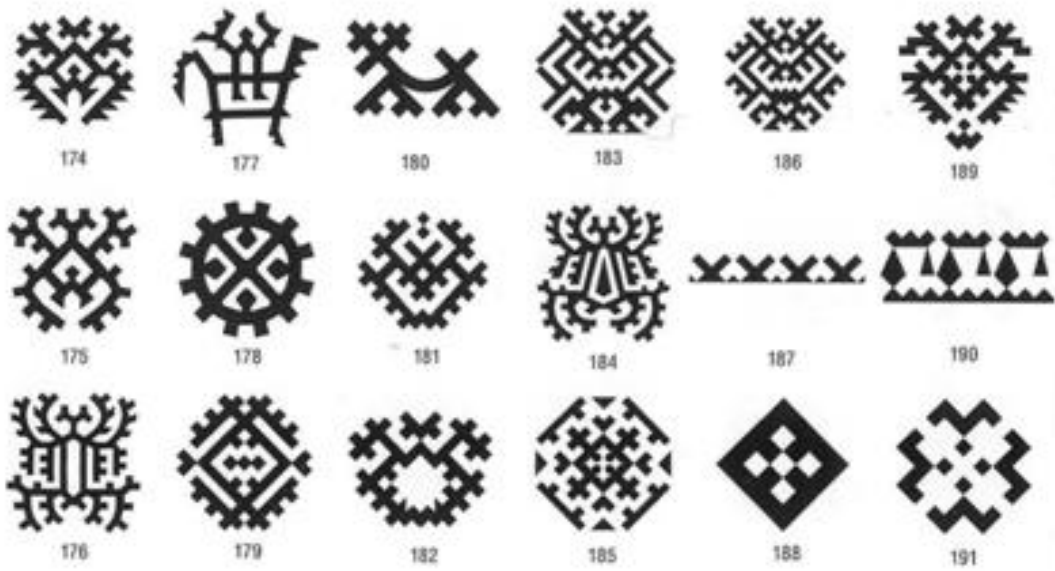


- | | | |
|-------------------|--------------------|------------------|
| 001 - 앉아 있는 검은 담비 | 008 - 어린 담비의 귀 | 015 - 2줄의 작은 머리들 |
| 002 - 자작나무 가지 | 009 - 자작나무 가지 | 016 - 희귀한 작은 머리들 |
| 003 - 야생순록 뿔 | 010 - 창꼬치 턱 | 017 - 3개의 머리 |
| 004 - 암순록 뿔 | 011 - 농어비늘 무늬 | 018 - 양방향의 머리 |
| 005 - 여우 발꿈치 | 012 - 이웃하여 앉아있는 모습 | 019 - 한방향의 머리 |
| 006 - 다람쥐 흔적 | 013 - 큰 파도 | 020 - 2개의 머리 |
| 007 - 자작나무 가지 | 014 - 작은 머리들 | |

만시족의 문양은 직물의 무늬에서 자주 나타나는 순록의 뿔 또는 마름모 모양, 파도 모양의 선, 그리스 유형의 만자모양, 지그재그 선등 기하학적 모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양은 일반적으로 직선과 뾰족한 가지들 그리고 굴절모양이 매우 드문 거대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형상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만시족 문양의 몇몇의 경우에서 문양의 무늬와 배경의 구성상 균형성을 볼 수 있다. 실류엣 문양의 경우 특히 장미꽃 모양의 무늬가 숨겨진 테두리 구역을 볼 수 있다. 문양 무늬의 대부분은 대칭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나 아주 드물게 비대칭 형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만시족 문양의 특징으로 밝은 것과 어두운 것과의 대비 구성을 들 수 있다. 만시족의 털 옷감에는 무색의 문양이 들어가고 모직이나 구슬에는 선명한 색채의 문양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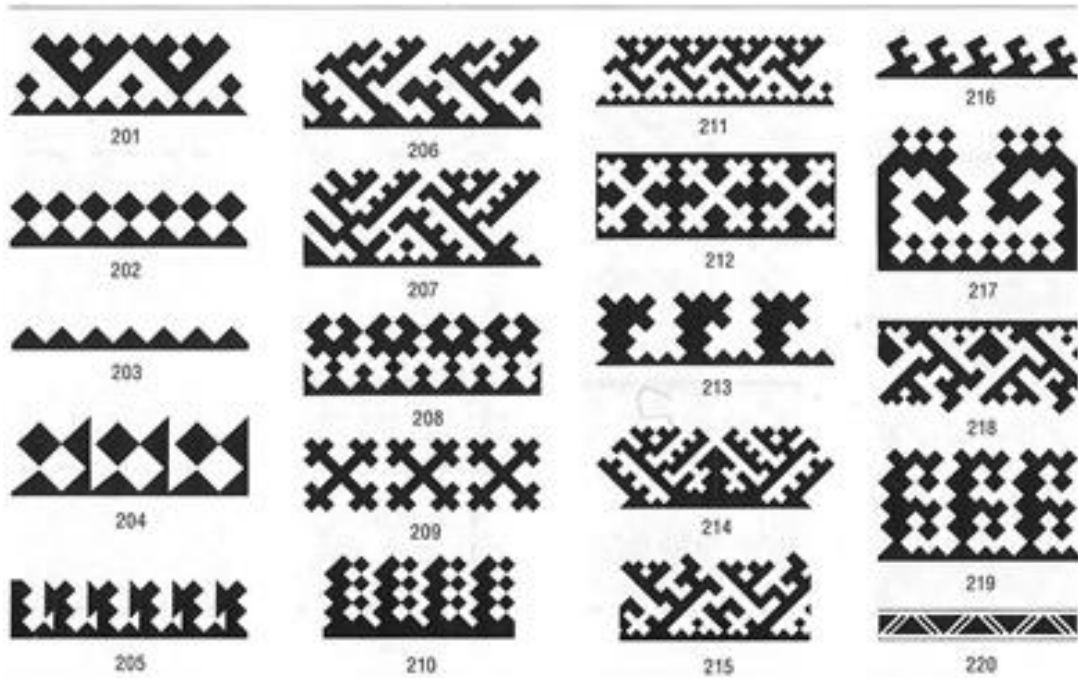
- | | | |
|-----------------|-------------|----------------|
| 174 - 가방 문양 | 180 - 순록 | 186 - 가방 문양 |
| 175 - 가방 문양 | 181 - 가방 문양 | 187 - 창코치 이빨 |
| 176 - 곰 이미지 | 182 - 가방 문양 | 188 - 바늘꽃이 문양 |
| 177 - 말에 탄 사람 | 183 - 가방 문양 | 189 - 개구리 |
| 178 - 큰 등지 | 184 - 곰 이미지 | 190 - 망아지 말굽 |
| 179 - 반짝이는 별 문양 | 185 - 가방 문양 | 191 - 늪 위의 까마귀 |

한티족 동부그룹(수르구츠스키 민족, 바호브스키 민족) 및 나림스키 셀쿠프족의 문양들은 종종 프리오브스키이 유형 문양의 곡선형 윤곽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한 형상들에는 만자모양, Γ-형상, 뿔의 가지 형상, 대칭 및 비대칭 형상의 머리, 새싹의 수직선, 가지의 지선에서 나온 수직선, 십자가등이 있다.

이러한 형상들은 한티족 및 만시족 뿐만 아니라 유럽 독일민족 및 우랄동편 독일 민족, 타조프스키 및 나림스키 셀쿠프족, 느가나산족, 사모디이스키족, 우고르족, 케트족들의 문양에 확산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양들은 시베리아 경계를 넘어 볼가 거주 민족들, 특히 마리 민족 및 모르드바 민족에게서 유사하거나 좀 더 복잡한 문양으로 발전되었다.

II. 한티족

한티족은 북서시베리아에 사는 우고르 그룹에 속하는 소수 원주민으로 예전에는 오스타족으로 불리웠다. ‘한티’는 한티족의 자칭으로 ‘사람’을 의미한다. 2002년도 인구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거주 한티의 인구수는 28,678명이다. 이들 중 59.7퍼센트는 한티-만시 관구에 거주하고 그 밖에 야말로-네네츠 관구에 30.5퍼센트, 톱스크 주에는 3.0퍼센트, 코미공화국에는 0.3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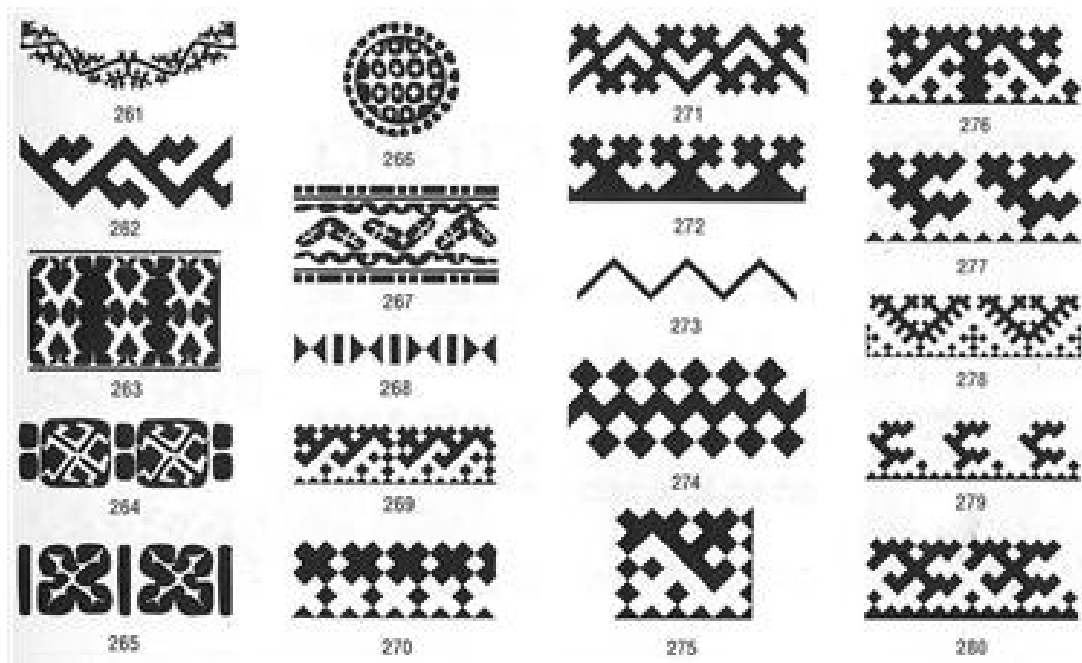
- | | | |
|---------------|------------------|------------------|
| 201 - 토끼의 귀 | 208 - 요리 도구 | 215 - 자작나무 가지 |
| 202 - 창꼬치 이빨 | 209 - 개의 앞발 | 216 - 자작나무 껍질 무늬 |
| 203 - 창꼬치 이빨 | 210 - 구름 이미지 | 217 - 털 모자이크 |
| 204 - 구름 이미지 | 211 - 자작나무 껍질 무늬 | 218 - 털 모자이크 |
| 205 - 다람쥐 이빨 | 212 - 털 모자이크 | 219 - 삼나무 뿌리 |
| 206 - 토끼의 귀 | 213 - 자작나무 껍질 무늬 | 220 - 자작나무 껍질 무늬 |
| 207 - 자작나무 가지 | 214 - 털 모자이크 | |

여성들은 순록의 털 및 가죽, 구슬로 수놓은 색상 있는 모직 등으로 옷이나 신발 등을 바느질로 만든다. 한티족은 전통 문양인 ‘토끼의 귀’, ‘자작나무 가지’, ‘담비의 흔적’, ‘순록의 뿔’, ‘창꼬치의 이빨’등을 보존하고 있다. 엄격한 대칭에 의한 동물모양을 모티브로 한 문장형성 관습에 의해 동물모양 및 식물모양, 대칭형태 문양들이 만들어 졌다. 형상들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윤곽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종종 꽃잎 모양과도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주로 붉은색과 파란색 2가지 색상으로 된 무늬들이 사용되었다. 형상의 윤곽 안쪽에는 정교한 장식 무늬가 배치되어 있다. 윤곽을 그리는 선들에서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 및 수염모양이 있는데 이는 니취니이르티쉬 유형의 문양 형상이다. 문양의 대부분은 기하학적인 무늬가 조밀하게 그려져 있다.

주요 형상들에는 나무를 향해 독립적인 또는 한쌍의 새들, 십자가 모양의 꽃잎들, 8개의 꽃잎 모양, 점진적 모양의 마름모 꼴등이 있다. 20세기 초에 이르티쉬강 주변에 사는 남부 한티족 및 남부 만시족에게 이들 문양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 문양들은 1920년대 들어와 시베리아 지역을 넘어 불가강 주변에 사는 모르드바 민족, 마리 민족, 추바쉬 민족들에게 전파되어 사용되기 시작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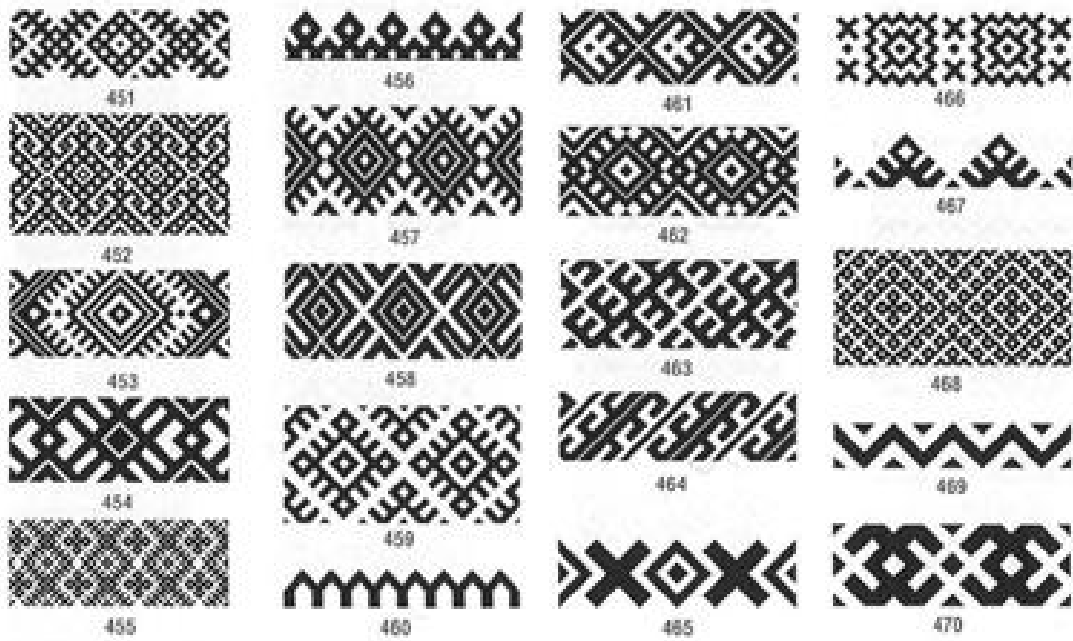


- | | | |
|------------------|------------------|-----------------|
| 261 - 여성신발 무늬 | 268 - 자작나무 껍질 무늬 | 275 - 검은 담비 |
| 262 - 지그재그 형상 무늬 | 269 - 검은 담비 | 276 - 검은 담비 |
| 263 - 상자 무늬 | 270 - 작은 십자가 | 277 - 자작나무 가지 |
| 264 - 어치의 머리 | 271 - 순록의 뿔 | 278 - 토끼의 귀 |
| 265 - 바구니 옆면 무늬 | 272 - 십자가 무늬 | 279 - 자작나무가지 무늬 |
| 266 - 바구니 뚜껑 무늬 | 273 - 지그재그 | 280 - 자작나무가지 한쌍 |
| 267 - 바구니 옆면 무늬 | 274 - 머리 | |

III. 코미 민족

코미 민족은 코미-지리야 민족, 코미-모르트 민족들을 포함하며 핀-우그로 그룹 구성 민족으로 러시아 코미공화국의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의 코미 민족 그룹은 20세기 까지 유지 되었다. 러시아 전체에 코미-지르얀 민족은 2010년도에 약 22만8천명, 2002년에는 약 29만3천명이 살았다.

코미-지르얀 민족은 다른 민족들로 둘러싸인 영토에서 그들과 섞여서 살았으며 주로 러시아 연방 내 아르한겔스크 주, 키로프 주, 옴스크 주에서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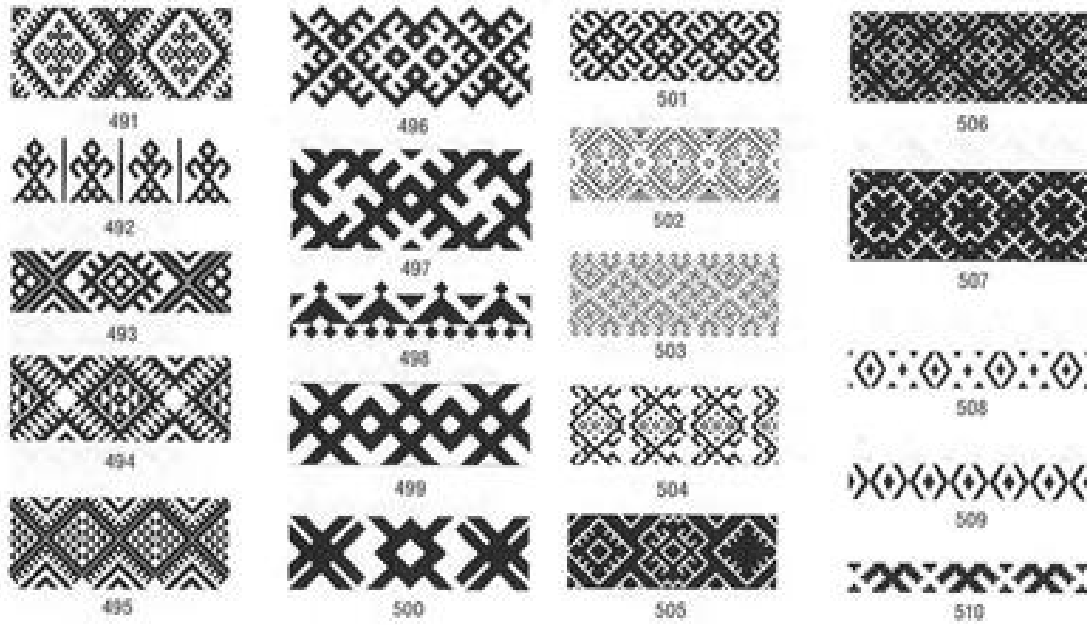


451 - 옷감 문양
 452 - 옷감 문양
 453 - 옷감 문양
 454 - 옷감 문양
 455 - 작은 십자가
 456 - 옷감 문양
 457 - 옷감 문양

458 - 2개의 십자가
 459 - 상자, 목걸이
 460 - 지그재그
 461 - 벨트 문양
 462 - 벨트 문양
 463 - 나상 섬유 무늬
 464 - 나상 섬유 무늬

465 - 벨트 문양
 466 - 벨트 문양
 467 - 옷감 문양
 468 - 작은 십자가
 469 - 지그재그
 470 - 2개의 십자가

이들 문양에는 기하학적인 모티브가 주를 이루는 데 여기에는 교차와 연결을 반복하는 비스듬한 십자가 모양, 단순한 마름모 꼴 모양 등이 주류를 이룬다. 전형적인 기하학적 모티브 외에 사람이나 짐승모양 모티브를 형상화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밖에도 식물의 꽃잎, 꽃봉오리, 줄기, 가지 등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 491 - 옷감 문양
- 492 - 옷감 문양
- 493 - 옷감 문양
- 494 - 톱 이빨
- 495 - 톱 이빨
- 496 - 벨트 문양
- 497 - 양의 뿔

- 498 - 벨트 문양
- 499 - 2개의 십자가
- 500 - 옷감 문양
- 501 - 옷감 문양
- 502 - 옷감 문양
- 503 - 양의 뿔
- 504 - 옷감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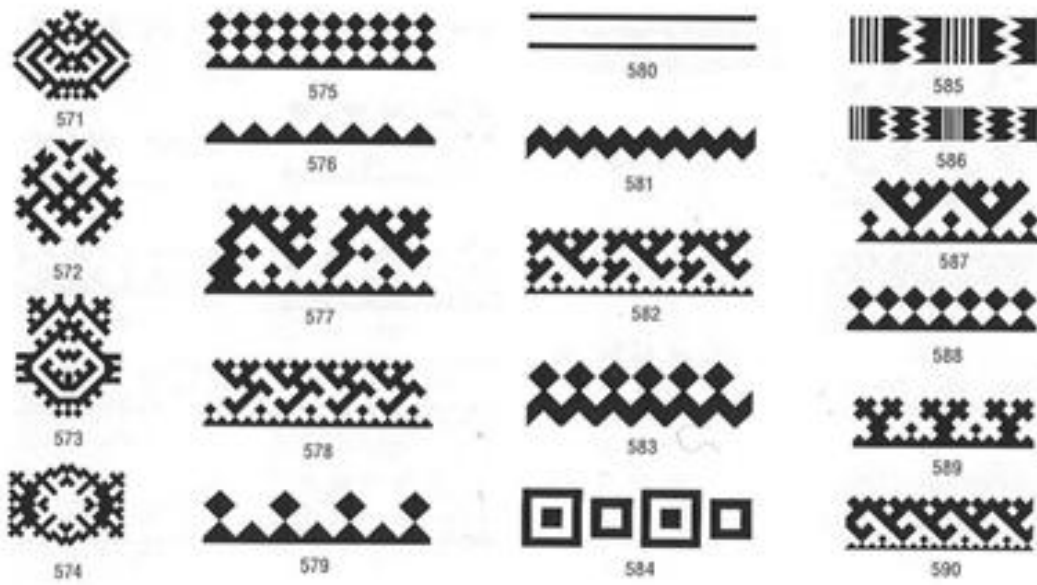
- 505 - 옷감 문양
- 506 - 옷감 문양
- 507 - 2개의 십자가
- 508 - 옷감 문양
- 509 - 옷감 문양
- 510 - 순록의 뿔

IV. 네네쯔족

네네쯔족은 ‘넨츠족’, ‘사모에드’, ‘유라키’ 등으로 불려 졌으며 ‘사모디이스키’ 민족그룹에 속하며 콜스키 반도의 북극해 유라시아지역 연안에서 타이미르 반도에 걸쳐 거주한다. 10세기에 남부 시베리아에서 현재의 거주 지역으로 이동 해왔다. 러시아의 북부에 사는 원주민 소수민족 중에 네네쯔족은 가장 인구수가 많았다. 200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에 4만 1302명의 네네쯔족이 살고 있고, 이중 약 2만7천명이 야말로-네네쯔 자치구에 거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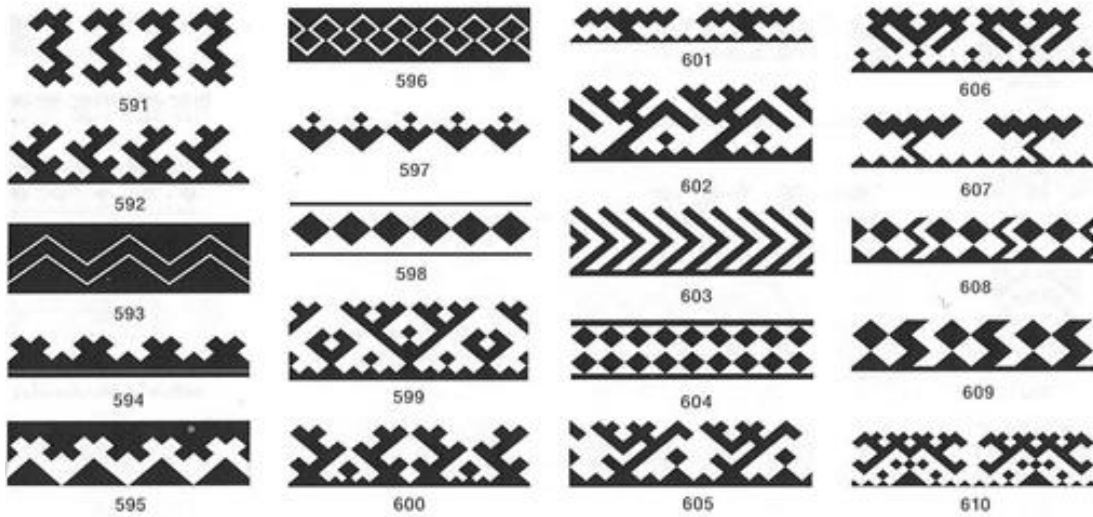
네네쯔족의 문양 무늬는 엄격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성으로 지그재그, 모서리, 마름모 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네쯔족은 이러한 그림-모양들을 그들에게 친숙한 북부 자연의 살아 있는 화신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네쯔족의 문양은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

이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문양들에서는 형상들의 모양에 따라 직접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순록의 뿔’, ‘토끼의 귀’, ‘물고기의 꼬리’, ‘소나무 솔방울’, ‘백조’ 등이 있다.



- | | | |
|---------------|---------------|--------------|
| 571 - 바구니 문양 | 578 - 아름다운 뿔 | 585 - 모자 문양 |
| 572 - 바구니 문양 | 579 - 머리 | 586 - 모자 문양 |
| 573 - 바구니 문양 | 580 - 라인(선) | 587 - 아름다운 뿔 |
| 574 - 바구니 문양 | 581 - 원추형 천막 | 588 - 머리 |
| 575 - 머리 | 582 - 가장자리 문양 | 589 - 곰의 흔적 |
| 576 - 원추형 천막 | 583 - 머리 | 590 - 달리는 개 |
| 577 - 가장자리 문양 | 584 - 가장자리 문양 | |

네네쯔족들의 문양 모티브에는 사람 및 동물, 식물의 형상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단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형상들로는 만자모양, Γ - 모양, 가지 많은 뿔 모양, 대칭 및 비대칭 모양, 머리, 가지에서 나온 수직선, 십자가 등이 있다.



- | | | |
|--------------|-----------------|-----------------|
| 591 - 곰의 귀 | 598 - 순록이 다니는 길 | 605 - 아름다운 뿔 |
| 592 - 여우 발꿈치 | 599 - 아름다운 뿔 | 606 - 가장자리 문양 |
| 593 - 원추형 천막 | 600 - 아름다운 뿔 | 607 - 목 없는 검은담비 |
| 594 - 토끼의 귀 | 601 - 창코치 뼈 | 608 - 털 모자이크 |
| 595 - 토끼의 귀 | 602 - 아름다운 뿔 | 609 - 털 모자이크 |
| 596 - 머리 | 603 - 여우의 가슴 | 610 - 거의 날개 |
| 597 - 까마귀 | 604 - 늑대 울가미 | |

V. 돌간족

돌간족은 ‘티아-키히’, ‘사하’ 라고도 불리 우며 러시아에 살고 있는 터어키어 사용 민족이다. 돌간족은 주로 크라스노야르 지방 타이프로 돌간-네네즈 자치지역에 약 5천5백명, 야쿠치아 공화국에 약 1천9명이 살고 있으며 러시아정교를 믿는다.

돌간족은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무늬인 줄무늬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문양은 매우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돌간족들은 무엇보다도 하얀 털을 꼬아 만든 줄로 가장자리에 무늬를 내고 색깔 있는 구슬로 장식한 색깔 있는 모직물 또는 검은 모피의 조각들을 덧댄 순록의 가죽으로 의복이나 신발 등을 만들었다.

줄무늬의 개수는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2개 또는 수십 개의 줄무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돌간족은 다른 북부지방의 민족처럼 줄무늬의 폭과 재질, 색상을 다양한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줄무늬 외에 돌간족의 문양에는 직사각형, 장사각형, 마름모꼴등의 모양으로 구성된 모티브 그룹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 모양들 간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겹치거나 모퉁이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다수를 차지한다.

가끔 정사각형의 모양이 서양 장기관의 순서대로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티브와 함께 삼각형, 지그재그, 삼각형에서 나온 지그재그 형태의 2개의 선 및 갈매기 형상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 | | | |
|-------------|----------------|------------------|
| 626 - 작은 발톱 | 633 - 실로 만든 무늬 | 640 - 모피 무늬 |
| 627 - 늑골 모양 | 634 - 구슬 무늬 | 641 - 모피 무늬 |
| 628 - 구슬 무늬 | 635 - 구슬 무늬 | 642 - 작은 뿔 |
| 629 - 구슬 무늬 | 636 - 구슬 무늬 | 643 - 가장자리 구슬 무늬 |
| 630 - 꽃잎 | 637 - 구슬 무늬 | 644 - 가장자리 구슬 무늬 |
| 631 - 구슬 무늬 | 638 - 모피 무늬 | 645 - 가장자리 구슬 무늬 |
| 632 - 구슬 무늬 | 639 - 모피 무늬 | |

이밖에 작은 사이즈로 지그재그 모양 및 정사각형, 짧은 수직선, 원 등이 돌간족의 문양에 사용되었다. 여성의 의복에는 특별한 문양이 장식되었는데, 예를 들면 여자용 털모자의 측면에 원추형 천막의 모양과 비슷한 커다란 무늬가 장식되었는데 이는 여성의 심볼을 의미 하는 것이었다. 돌간족의 문양은 단순하고 엄격한 기하학적 무늬, 직선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문양은 모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색상이 없는 형상들로 구성된 것들도 있다. 곡선의 형상들 중에는 편도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가끔 직선 경계선을 교차하기도 한다. 문양들은 주로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는데 돌간족의 문양은 사얀-알타이 유형에 속한다.

주요한 형상들로는 삼각형, 격자형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내부에 그려진 삼각형, 이웃하여 서로 겹치는 지그재그, 갈매기 모양, 비스듬한 격자, 마름모꼴, 작은 직사각형이 내부에 그려진 직사각형, 대각선으로 교차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또는 편도 모양 형상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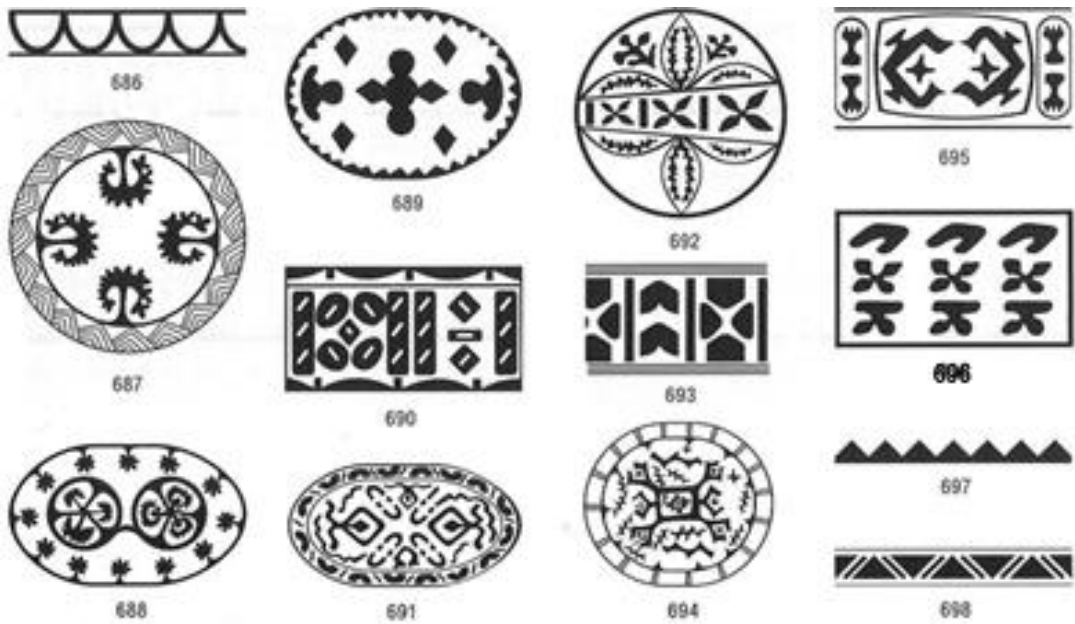
이들 문양들은 알타이 민족, 쇼르즈 민족, 출림스키 타타르 민족, 토팔라르 민족, 투바 민족, 야쿠트 민족들에게도 분포되어 있다. 이들 문양의 근원을 살펴 보면 우그로 민족 및 사모디이 그룹 민족, 돌간족, 프리에니세이 에벤키족, 부랴트 민족, 축취족, 코랴족, 유카기르족 등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문양의 부분적인 모티브들은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살고 있는 몇몇의 민족들에게도 알려져 있다.

VI. 셸쿠프족

셸쿠프족은 ‘수스세 쿨’, ‘추밀-쿨’ 족으로도 불리졌고 서시베리아의 북부지역에 산다. 1930년대 까지 ‘오스타코-사모에드’ 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200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약 4천 250명이 러시아에 살고 있다.

셸쿠프족은 톰스크 주 북부에 1787명, 튜멘주 북부에 1857명, 크라스노야르 지방에 412명이 살고 있다. 셸쿠프족에 있어 거주지 지역적 그룹에 따라 가지고 있는 문양의 형태는 동일하지 않다

타좁스키 셸쿠프족은 네네츠 민족의 문양을 습득하였으며 바이쉴스키 셸쿠프족은 삼각형 및 지그재그 모양, 정사각형, 횡선들을 수용하였다. 나림스키 셸쿠프족의 경우 동부지역의 한티족의 문양들과 흡사하다.



- | | | |
|---------------|---------------|---------------|
| 686 - 가장자리 문양 | 691 - 꽃잎 모양 | 696 - 가장자리 문양 |
| 687 - 꽃잎 모양 | 692 - 가장자리 문양 | 697 - 가장자리 문양 |
| 688 - 꽃잎 모양 | 693 - 가장자리 문양 | 698 - 가장자리 문양 |
| 689 - 꽃잎 모양 | 694 - 꽃잎 모양 | |
| 690 - 가장자리 문양 | 695 - 가장자리 문양 | |

타좁스키 및 바이쉴스키 셸쿠프족은 돌기 끝까지 확장된 직선 및 곡선 모양의 문양을, 나림스키 셸쿠프족은 직선 모양만을 가진 문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 문양들은 주로 의복 및 자작나무로 만든 식기에 장식되었다.

문양들은 직선적인 기하학적 모양으로 각각의 독립된 모양에 분기된 가지와 고리모양을 추

가하고 양탄자에서의 무늬 구성 형태와 같이 모든 표면에 가득히 배치하였다. 고립된 규모가 큰 모양은 내부에 마름모꼴이나 정사각형, 선 등으로 채워져 있다. 양탄자 형태의 배치와 함께 이르티쉬-알타이 유형의 문양에서는 구역을 이루는 배치를 볼 수 있다.

주요한 형상들로는 격자형 마름모꼴, 여러 형태로 결합한 고리 모양의 형태 등이 있다. 이들 문양은 한티족 남부그룹(이르티시, 사딤, 콘다) 및 남부 만시족 및 나림스키 셸쿠프족, 북알타이 쇼르쯔 민족 및 쿠만딘 민족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유럽지역에 사는 많은 민족들의 문양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보여 지고 있다. 거의 모든 시베리아 민족 및 러시아 유럽지역 거주 민족들, 중앙아시아 및 카프카즈에 북아시아 유형의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럽 및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인도)에도 전파되어 졌다.

문양의 형태는 곡선 및 단순성, 엄격한 기하학적인 형태 등이 있으며 문양 표면 대부분에 작은 도형들이 들어차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문양의 주요 형상에는 점 또는 원, 반원, 원 또는 동심원의 중심에 점이 있는 원 등이 있다. 구역별 점 또는 원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 드물게 복잡한 형상들이 꽃잎모양의 그룹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늬들은 수평선 또는 지그재그선의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 민족들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문양을 형성하고 있으며 민족의 창조성 안에서 점차로 기본적인 원리 및 형태가 확고히 다져지게 된다. 각각의 시기마다, 각각의 민족문화에는 표면을 장식하는 모티브, 형태 등으로 자신의 문양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문양들은 시기별 또는 나라별로 다른 예술적인 생산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의 조상들을 둘러싸고 있는 출생의 기억 또는 유전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각각의 시대 및 각각의 문화는 자신의 문양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 각각의 민족 문양들에 있는 무늬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 심볼로 사용되어 왔다.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영혼의 세계에서, 단순하고 충분히 명확한 요소들로부터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다차원의 그림의 형성 되었다.

문양은 결코 이야기체가 될 수 없다. 문양은 이야기가 될 수 없으며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문양은 사람들에게 결코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문양은 단지 리듬만 묘사할 뿐이다. 이 리듬은 사람들의 감정이고 행위이고 사상이다.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고 또는 그림을 그리고 또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일을 하러 간다. 이러한 모든 움직임은 신체 및 신체의 한부분인 손이나 발이 리드미컬한 조직된 요소들로 표현된다.

이러한 문양들 덕에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는 리듬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교차된다. 우리는 더욱이 특정한 리듬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우리가 고안한 리듬을 우리는 문양에 표현되도록 노력하기도 한다.

러시아 북극권 관광과 한국의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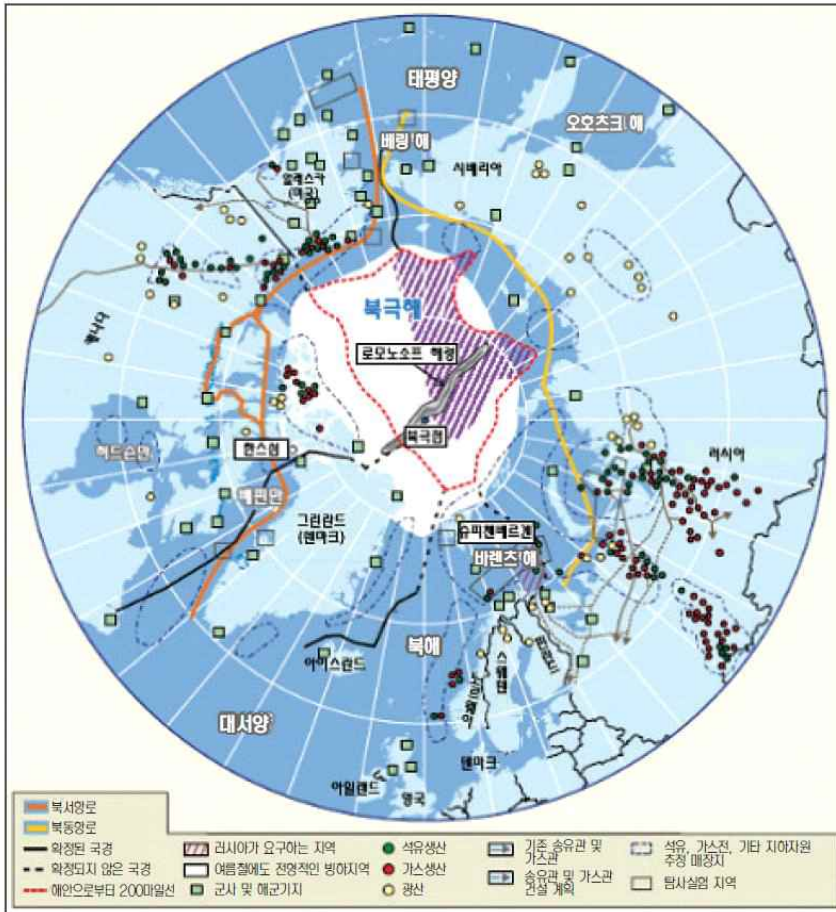
이재혁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환경보전지역의 하나인 북극해 지역은 경제적 개발과 함께 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의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으로 북극권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러시아는 북극해 국립공원을 확장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북동항로 시작점인 베링 해 지역이 관광루트로 유력하다. 아직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북극해지역에서는 해상 연계를 통한 크루즈 관광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동해와 오호츠크 해를 통하여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을 연결하는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고 북극권으로 연결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북극권 관광을 보다 효율적인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국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I. 러시아 북극권의 개관

북극권은 북위 66.5도 이북 지역으로 면적은 약 2,100만km²에 이른다. 북극권의 범위는 산림성장의 한계선, 북극 유빙 남하 한계선, 영구 동토 층 한계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기후학적으로는 7월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인 지역을 포함하며 유라시아 대륙, 북미 대륙, 그린란드에 둘러싸여 있다. 북극해는 2~3m의 해빙(Sea Ice)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로 면적은 1,400만km²로 지구 해양의 3%에 해당하고, 전 세계 미 발견 채굴 가능 매장량의 20%에 상당하는 석유·천연가스가 부존하고 러시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8개 국가가 인접한다.

<그림 1> 북극권 개관



출처: 한종만,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과 국제정치, v. 27, 2, 2011, p.189.

러시아는 북극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절반 이상이 북위 70° 이북에 위치하고, 전체 영토의 5분의 4 정도가 북위 60° 북쪽에 위치한 고위도 국가이다. 러시아 영토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은 북위 82°에 위치한 제믈랴 프란차 요시파 제도(Zemlya Frantsa Josifa Island)에 있는 루돌프 섬(Rudolf Island)이다. 러시아 본토에서 가장 북쪽 육지 끝은 북위 77° 41' 타이미르(Taimyr)반도의 체류스킨(Chelyuskin)이다. 러시아 북극지역은 여름과 겨울 기온차 차이가 크고, 고지는 만년설로 덮여있고, 낮은 곳에는 툰드라·초원·관목림이 발달한다. 낮은 기온 때문에 일년 중 대부분 기간 동안 지표가 얼어 있는 영구동토층이 널리 발달하지만, 여름에는 일시적으로 영구동토층의 표토가 녹으면서 저평한 곳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되면서 통행이 곤란하고 모기가 번성하여 인간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준다.

지형적으로 북극권에는 콜라-카렐리야지역·서시베리아저지·중앙시베리아고원·동부산악지대가 포함되며, 오브 강, 이르티슈 강, 예니세이 강과 레나 강 등이 북극해로 흘러든다.

러시아는 자국의 북극지대(Russian Arctic Zone)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행정구역에 따라 북극지대에 속하는 지역으로는 무르만스크 주, 카렐리야 공화국의 로우히(Лохви), 켐(Кемь), 벨로모르스크(Беломорск)시 단위 행정구, 아르한겔스크 주의 오네가(Онега),

프리모르스키, 메젠(Мезень) 시 단위 행정구; 아르한겔스크, 세베로드빈스크, 노보드빈스크 시와 부속도서, - 코미 공화국의 보르쿠타(Воркута) 시, 네네츠 자치구, 야말-네네츠 자치구, 타이미르(돌간-네네츠) 시 단위 행정구; 노릴스크 시, 투루한 시 단위 행정구의 이가르카 시, 사하 공화국(야쿠티야)의 아브이(Абый), 알라이하(Аллайха), 불룬(Булун), 니즈네콜리마(Нижнеколыма), 올레녹(Оленёк), 스투드네콜리마(Среднеколыма), 우스트-야나(Усть-Яна), 에벤-비탄타이(Эвено-Бытантай), 베르흐네콜리마(Верхнеколыма) 행정구, 추코트카 자치구¹⁾ 등이 포함된다.

<그림 2> 러시아의 북극지대



자료: <http://www.b-port.com/news/item/96124.html>(검색일 2015.12.20.)

러시아의 북극권 개발과 관광

지난 2015년 9월 4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1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설 주요 이슈는 러시아경제 현황 및 투자대상 지역으로서의 극동지역의 매력 등이었다. 이 연설에서 푸틴은 극동지역의 투자 대상 분야의 하나로 관광 분야의 투자를 강조하였다.²⁾ 이미 러시아는 2014년 5월 ‘2020 러시아 연방 관광 개발 전략’³⁾을 수립하고, 관광

1) 제성훈·민지영,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24-27.
 2) “..... 극동지역에서 이미 활동 중인 또는 활동하려고 하는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선, 철강산업, 목재가공산업, 바이오자원, 교통, 에너지, 의료보건 분야, 관광 등 극동지역의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하는 내내 협조와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또는 부총리이자 극동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인 트루트네프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트루트네프는 해당 권한이 있습니다.....”
 3)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 А С П О Р Я Ж Е Н И Е от 31 мая 2014 г. № 941-р МОСКВ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2015년 12월 3일 푸틴 대통령의 연말교서에서는 북극항로의 개척과 극동 연안과 북극권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태평양 연안에서 비즈니스 활동 및 북극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통로로 사용될 경쟁력 있는 북방항로의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

세계적 관광국의 공통점은 과거 중심 국가의 경험을 가진 나라이거나 현재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세계인의 인지도가 높은 나라이거나, 역사상 문화의 전통이 깊고 풍부하여 세계문화유산 등 불거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자연경관이 빼어난 불거리를 제공하는 나라 등이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북극지역은 역사적, 문화적 요소가 약한 반면에 자연경관을 포함한 관광자원 요소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지역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러시아 북극권과 이에 연결된 태평양권은 유럽과 아시아적인 지리적 환경을 함께 갖고 문화의 혼합지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환경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 에코투어리즘을 만족시킬 수 있어 미래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다.

II. 러시아 북극권 관광자원

1. 인문적 관광자원

관광자원은 크게 인문적 자원과 자연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문적 관광자원에는 그 지역의 문화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 레크레이션 자원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에는 20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세계 영토의 1/8이라는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는 러시아는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아시아러시아와 유럽러시아로 구분되며, 아시아러시아 지역인 시베리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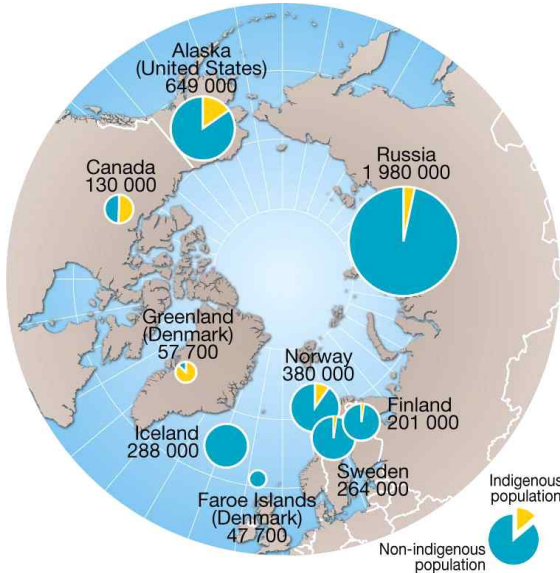
대표적 시베리아 민족으로는 사하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야쿠트족(якуты), 동시베리아의 툰드라지역, 부랴티아 공화국 북부, 아무르 주, 자바이칼변강주 등 광활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에벤키족(эвенки), 야쿠티아와 하바롭스크 변강주, 마가단 주, 추코트카 자치구까지 분포되어 있는 에벤키족, 전통적으로 하바롭스크 변강주 남쪽에 거주했고, 일부는 아무르 강과 타타르해협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오로치족, 사할린의 원주민이었던 오로크족, 캄차트카 변강주, 야쿠티아의 북동부, 마가단 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축치족 등이 있다. 이들의 생활의 모습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극권 개발로 인해 소수민족들의 생활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들의 전통적인 문화는 러시아의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며, 이들의 생활상을 보존하고 전통의식 등을 공연하는 방법들은 통하여 중요한 인문적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극동지역의 최대 면적을 차지하는 사하공화국은 북극권 거주민인 야쿠트인들의 자치공화국으로서 북방민족의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사하공화국의 2010년의 민족별

4)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752&spphrase_id=24799 (검색일 2015.12.27.)

구성을 살펴보면 야쿠트인들이 466,492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정도로(49.9%)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인 353,649명(37.8%), 우크라이나인 20,341명(2.2%), 에벤키인 21,080명(2.2%), 에벤인 15,071(1.6%), 타타르인 8,122(0.9%)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3> 북극지역 원주민 분포도



출처:
http://www.grida.no/graphicslib/detail/population-distribution-in-the-circumpolar-arctic-by-country-including-indigenous-population_1282(검색일 2015.12.27.)



출처: Bernadette Wurm, Die EU-Arktispolitik im internationalen Kontext - Eine Analyse der europäischen und kanadischen Positionen, Diplomarbeit, Universität Wien, Mai 2010, p.20.

인구 사회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다른 국가의 북극지대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북극지대에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약 200만 명이 거주하며, 이는 북극지역 전체 인구(약 420만 명)의 약 1/2에 해당한다. 그중 87%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북극지대에는 인구 5,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46개의 도시가 있으며, 1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도 4개(무르만스크, 노틸스크, 노비 우렌고이, 노야브리스크)나 된다.

또한, 러시아의 북극지역에는 소련 시절 국가의 지원으로 석유·가스 콤플렉스, 수송관, 발전소, 광산, 철도, 비행장, 항구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서시베리아, 티만-페초라, 동시베리아 지역에는 대규모 석유·가스 매장지들도 위치해 있다. 2007년 기준 러시아 북극지대는 국내총생산의 약 20%, 수출의 약 22%를 담당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경제 인프라의 낙후, 저렴한 여객교통 서비스의 부재, 주택부족 등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택보조금을 기다리는 주민이 65만 명에 달하는 등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1> 러시아 북극권 지역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200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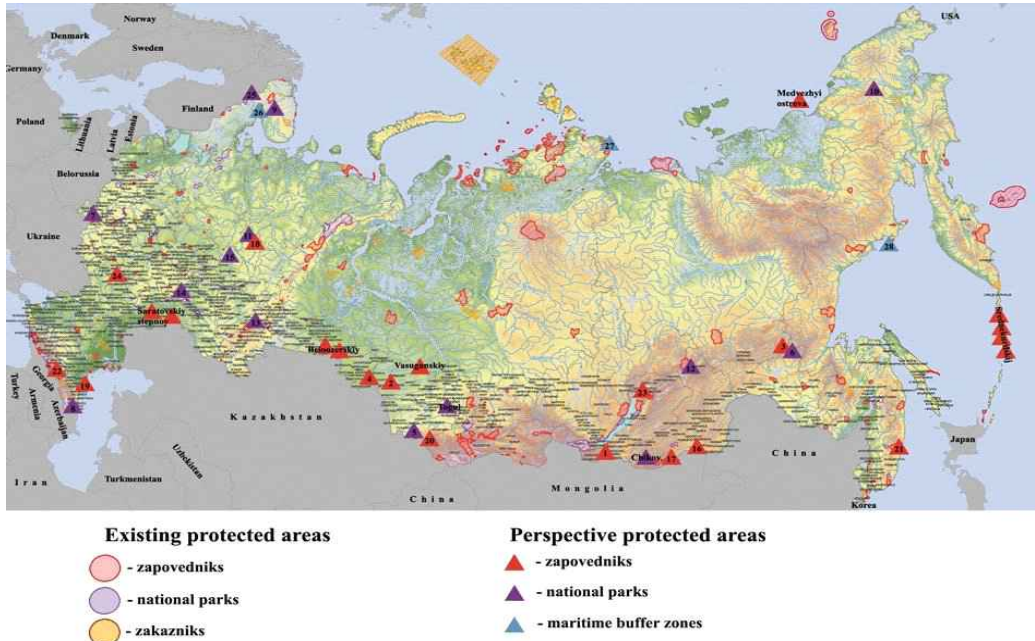
북극권(행정구역)	총인구	원주민 비율	여성 인구 비율	0-14세 인구 비율	평균 수명(세)	유아 사망률*	대학 졸업률	가처분 소득(**)	종속률	복합지수(***)
아르한겔스크 주	1280200	0.5%	53.3	16.3%	64.8	10.2	12.1	7465	1.1	3
추코트카 자치구	50500	20.9%	47.9	21.7%	58.9	23.2	14.6	19267	0.3	5
에벤크 자치구	17000	19.3%	50.0	24.2%	59.1	21.3	11.5	9765	0.5	4
카렐리아 공화국	693100	0.0%	54.2	15.5%	63.8	7.6	13.7	6734	1.0	3
한타-만시 자치구	1488300	1.4%	50.8	19.9%	68.8	7.5	15.9	16851	0.7	6
코미 공화국	974600	1.0%	52.5	17.5%	64.2	7.0	12.2	10710	1.1	4
코라크 자치구	22600	34.2%	50.0	22.0%	56.0	33.0	9.9	12389	0.6	3
마가단 주	168500	8.7%	51.6	17.0%	63.4	14.2	15.4	10682	0.8	4
무르만스크 주	857000	0.2%	51.6	15.7%	65.2	10.3	15.5	9853	0.9	5
네네츠 자치구	42000	14.3%	51.2	22.3%	62.2	15.2	9.9	-	0.5	4
사하 공화국	950000	2.4%	51.5	23.6%	65.6	10.6	14.6	10733	1.0	5
타이미르 자치구	38400	19.0%	51.8	22.9%	63.8	7.4	13.3	11641	0.7	5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532600	5.9%	50.7	21.3%	68.9	13.0	16.8	20447	0.5	6

주: * 유아 1,000명 당; ** 미국 달러(PPP 기준); *** 복합지수는 6개 지표(여성인구 비율, 유아사망률, 대학졸업률, 가처분소득, 종속률)에서 추출한 것임
 자료, 한종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1 2015 Spring, p.74

2. 자연적 관광자원

자연적 관광자원은 관광자원 가운데 가장 원천적인 것으로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자연 현상이 관광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북극지역은 광대한 공간적인 규모를 바탕으로 인간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자연적 장애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천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102개의 국가 자연 보호 구역, 47 개의 국립공원과 69개의 주 자연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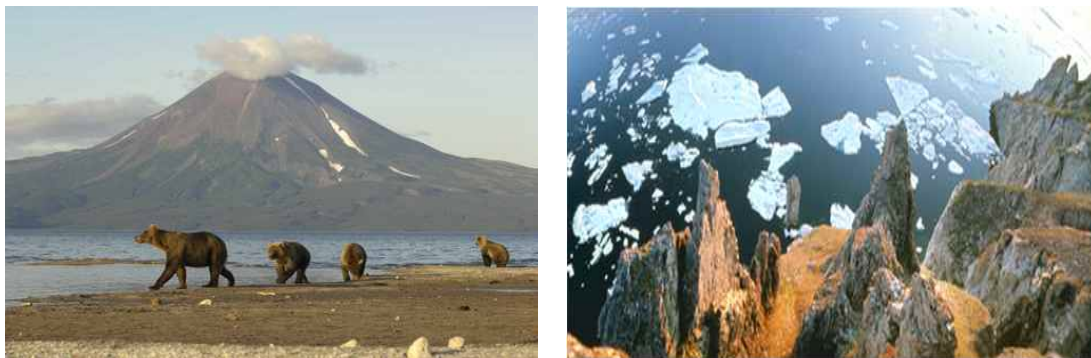
<그림 4> 러시아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 분포



출처 : WWF(http://wwf.panda.org/wwf_news/?uNewsID=194088(검색일 2015.10. 17))

러시아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많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다.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문화기구)는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자 하는 유엔(UN)의 특별 기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연문화 랜드마크들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들로는 캄차카 화산(1996년 등재), 시호테-알린(Сихотэ-Алинь) 산맥(2001년 등재), 브란겔 섬(Остров Врангеля, 2004년 등재), 레나 석주(Ленские столбы, 2012년 등재)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 캄차트카 화산과 브란겔 섬



출처: <http://russiafocus.co.kr/travel/2015/02/09/46579>(검색일 2015.10.25)

2013년 연말 러시아의 로스투어리즘(Rosturism)사는 2014년부터 러시아 북극지역에 외국인 관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⁵⁾ 또한 러시아관광청은 2014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

5) <http://www.itar-tass.com/spb-news/813070>(검색일 : 2015년 10월 17일)

아 북극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미 시베리아지역의 최대 관광지인 바이칼 호와 레나 강 북극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자연 생태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자연 경관 생태관광지로는 북극해 지역의 영구동토대에 위치하며 마지막 빙하시대의 생태환경을 볼 수 있는 홍적세 공원(플라이스토센 공원, Плейстоценовый парк)과 레나 강(4,310 km) 하구의 레나 강-삼각주(Lena-Delta)를 들 수 있다. 레나강-삼각주는 자체 면적만 30,000 km²로 세계의 가장 큰 삼각주 중 하나이다. 레나-삼각주를 포함하여 61,000 km²의 면적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야생동물보호구역(Zapovednik,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북극해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하여 북극해 생태관광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태관광(ecotourism)은 대중관광의 대체물로서, 보통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파괴되기 쉬운 원시 상태의 보호지역 또는 소규모 지역을 책임 있게 여행하는 것을 말하며, 세계 각국은 환경의 보전과 관광행위의 적합점으로 생태관광의 지지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환경보전지역의 하나인 북극해 지역은 경제적 개발과 함께 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의 레나강-삼각주 지역은 북극해의 개발 가능성과 함께 지리적으로 용이한 접근성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갖는 지역으로 미래의 생태관광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러시아 북극국립공원

러시아 북극국립공원은 지리적으로 노바야 젤랴 북부, 프란츠 요제프 제도, 두 섬 사이의 북극해에 위치한다. 면적은 14,260km²(육지 6,320km², 바다 7,940km²)이며, 러시아에서 3번째로 큰 국립공원(2009년 기준 국립공원은 41개)이다. 프란츠 요제프로 부터 북극점까지의 거리는 869km이다.

1994년 4월에 Franz Joseph Land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2008년 러시아 북극국립공원(Russia Arctic National Park)의 구상을 발표하고, 2009년 6월에 국립공원 설립 법령에 서명하였다. 2011년 4월에 국립공원으로 개장하였고, 2012에 UN은 국립공원 내 자연보전 기금으로 5백만 루블을 제공하였다. 2012년에는 Franz Josef Land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15억 루블(530억 원) 규모의 정화 사업 실시하였다.

<그림 6> 러시아 북극국립공원



출처: <http://rus-arc.ru/ru/Tourism>(검색일 2015.10.27.)

2015년 여름에 1,225명의 관광객이 "러시아 북극국립 공원을 방문했다. 이는 738명이 방문했던 2014년에 비해 거의 70 %가 증가한 숫자였다.

2015년에는 11척의 크루즈 선이 방문을 했고, 일곱 번은 원자력 쇄빙선 "승리의 50년"이 북극해 항로에 동반 수행하였다.

2015년 여름 노바야 제믈랴 제도와 프란츠 요셉의 땅을 41 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2백77명의 가장 많은 관광객 수는 중국인이었다. 올해에게 스위스와 호주에서 온 관광객의 수가 증가했다. 오만과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처음으로 "러시아 북극"을 방문했다.

약간의 러시아 관광객의 수의 증가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45명의 러시아인이 방문하여 크루즈 중 하나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방문자 비율은 방문자 총수의 6 %이다.

성별 방문자 비율에서 2015년 여름 여성 방문자 비율은 2014년 1%보다 적은 45 %였다. 북극 관광객들의 연령별 분석에서 50-70세의 비율이 가장 높아 절반에 육박했고, 70세 이상의 그룹이 20%, 30- 50세 여행자가 23%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러시아 북극국립공원 관광객 현황



자료: <http://rus-arc.ru/ru/Tourism/Statistics>(검색일 2015.12.27)

IV. 한국과 러시아 북극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언

관광산업은 단일산업으로서 세계 최대의 산업이며 세계 최고의 고용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전 세계의 2억 7,7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전 세계 GDP의 9.8%에 이를 만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⁶⁾ 따라서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 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⁷⁾ 관광산업은 고용효과 이외에도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를 통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역들이 지역의 유·무형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방한과 함께 한국과 러시아 정상이 양국 상호 비자면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는 '2014~2015년 한·러 상호방문의 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상호방문의 해 지정'은 2014년부터 단기 관광객에 대한 60일간 무사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간 관광교류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관광분야 협력 사업 개발, 회의·보상관광·컨벤션·전시(마이스: MICE) 및 의료관광, 미식관광 개발, 관광통계, 정보 교환, 문화, 예술, 체육행사와 관광 연계,

6) <http://www.wttc.org/Welcome to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검색일 : 2015년 10월 20일).

7)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 현학사, 2007), p. 15.

관광교류 시 문제 또는 불편사항 해소 노력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한·러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 체결로 8만~24만 원이 소요되는 비자발급 비용과, 비자를 발급하는데 드는 시간 등, 양국 관광교류의 장애물이 해소되어 양국 간 관광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연해주만 보더라도 2015년 상반기에 관광목적으로 연해주를 찾은 한국인의 수는 9,559명이고,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연해주 사람들의 수는 44,166명이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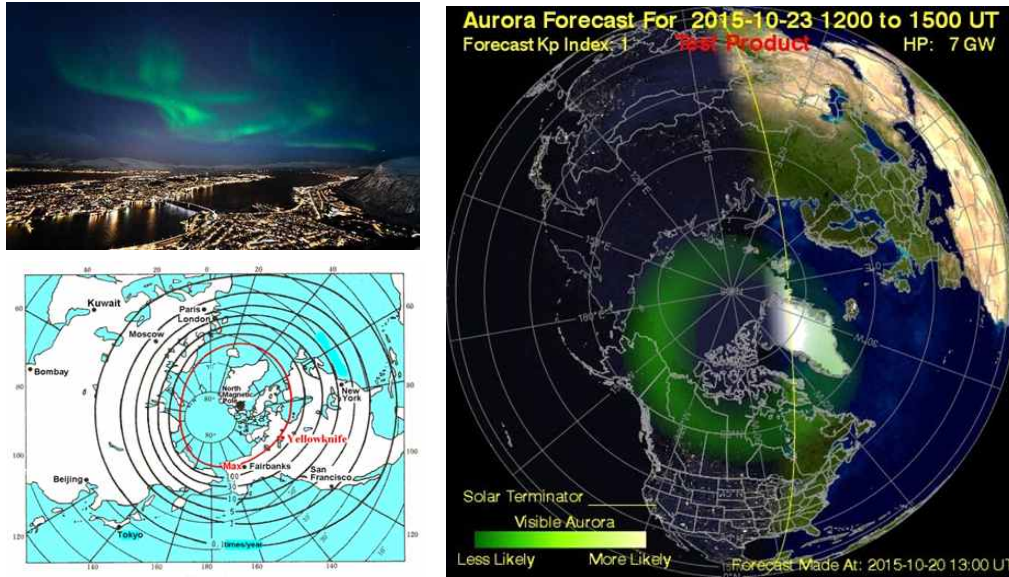
양국 간의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반인의 러시아 북극지역의 관광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교통인프라의 부족과, 지역의 사회적 여건의 불안정을 들 수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여름철에 한정되어 여행해야 하며, 비교적 관광수요가 적은 데 따른 높은 관광경비를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을 비롯한 북극지역의 관광인프라 개발과 관광산업의 합리적인 발달은 현재 한국에서도 급격한 관심을 갖는 자연생태경관(숲, 강, 호수 시스템, 독특한 풍경과 자연, 야생동물과 어업의 관광물)을 위한 관광 상품의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며, 북미의 캐나다와 알래스카 및 북유럽의 북극권 지역을 선호하는 백야(화이트 나이트)와 극광(오로라) 관광의 대상지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러시아에서 극동지역을 제외하고 서유럽 지역의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원거리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재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속초와 동해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적극 활용할 시점이다. 한국에서 러시아로의 관광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관광산업의 상호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러시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매력적인 상품개발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근거리에 광대한 생태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연적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북극지역의 동부 지역에서 생태 및 크루즈 관광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이 있는 지역은 캄차트카 변경주의 ‘크로노츠(Кроноцкий) 국가자연보호구역’과 ‘코만도르(Командорский) 국가자연보호구역,’ 추코트카 자치구의 ‘브란젤 섬(Остров Врангеля)과 ‘베링기아(Берингия)’ 지역이다.

8) 조윤미, “러시아 관광객 방한 실태와 한국관광 마케팅 방향,” 『제3차 한-러 극동 지식포럼, 한-러 극동 문화 및 관광협력을 위한 대화』 발표자료집(2015. 9. 18.), p. 7.

<그림 8> 북극권의 극광과 NASA의 예보시스템



자료: <http://www.swpc.noaa.gov/products/aurora-3-day-forecast>

현재 러시아 여행사 업계는 포화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부 여행사들은 더 많은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행상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지만, 이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러시아연방정부의 새로운 법안은 여행객 보호를 위한 보상펀드 조성을 의무화하였고, 보상펀드 적립액은 연간 수익의 0.1%로 하였다. 이 법령을 통해 연간수익 2억 5000만 루블(770만 달러) 이하의 여행사들은 고객에게 최대 3,000만 루블(92만 달러)까지 보상하고, 연간 수익 2억 5000만 루블 이상의 여행사들은 보상액을 최저 3,000만 루블에서 여행사 수익의 12%까지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⁹⁾ 한국의 러시아 관광에는 러시아의 여행업체와 제휴를 통해 한국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연이 제공하는 순수의 동식물상, 경관과 탐험 역사 등을 관광상품으로 기획하여 기존의 관광형태와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해야 하고, 관광객 안전 구호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

최근의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으로 인해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북극권 관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북극해 관광을 살펴볼 때 캐나다 북극을 방문하는 크루즈 선박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에는 1984년에 비해 22 배에 해당하는 크루즈 선박의 관광이 이루어졌다.¹⁰⁾ 해양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북극해 관광은 세계 관광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북극권 관광은 세계의 인구밀집지역인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함께 앞으로는 캐나다, 미국,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러시아는 북극해 국립공원을 확장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북동항로 시작점인 베링 해 지역이 관광루트로 유력하다. 크루즈 관광은 숙박, 식음료, 위락시설 등의 각종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

9) <http://www.itar-tass.com/spb-news/813070>(검색일 : 2015년 10월 15일).

10) STEWART, E.J., HOWELL, S.E.L., DRAPER, D., YACKEL, J., TIVY, A., “Sea Ice in Canada’s Arctic: Implications for Cruise Tourism,” *ARCTIC*, VOL. 60, NO. 4(DECEMBER 2007), p.370.

게 수준 높은 선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관광지를 기항하면서 관광자원을 접하는 선박관광이다. 즉 단순히 지역을 이동하는 일반 여객선(페리선)과 달리 전체 여정 자체가 위락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여행으로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관광하게 하는 여행이다.¹¹⁾ 장기적으로는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 될 경우 북극해 전역을 관통하는 크루즈 운항도 가능하다. 아직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극동지역에서는 해상 연계를 통한 크루즈 관광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거쳐 알래스카 관광에 나서고 있다. 올해 첫 시도로 러시아는 북극해에 이미 3대의 크루즈를 띄웠다.¹²⁾ 한국에서는 그동안 제주와 부산, 인천항에만 들어오던 크루즈선이 2016년 1월 7일에는 동해항에도 기항하기로 하는 등 한국의 동해안이 국제 크루즈선의 기항지로 확대되고 있다.¹³⁾ 최근에는 한국의 국적 크루즈선 취항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팬스타그룹 계열사인 팬스타라이너스와 현대상선이 출자한 코리아 크루즈라인(주)이 최근 법인등기를 완료했고, 내년에 크루즈선을 빌려 몇 차례 시범운항한 뒤 2017년 승객 2천 명 정원의 7만t급 크루즈선을 확보하여 취항할 예정이다.¹⁴⁾ 앞으로 동해와 오호츠크 해를 통하여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을 연결하는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고 북극권으로 연결한다면,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북극권 관광의 효율적인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북한을 한·러 관광루트에 포함시킬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10만 여명 수준이고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러시아 등 서구지역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북한의 관광수입이 약 350~497억 원에 이를 것을 추정하고 있고, 북한 역시 관광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¹⁵⁾ 북한을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관광루트에 포함시킨다면, 환동해지역의 상생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11)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 : 현학사, 2007), pp.145-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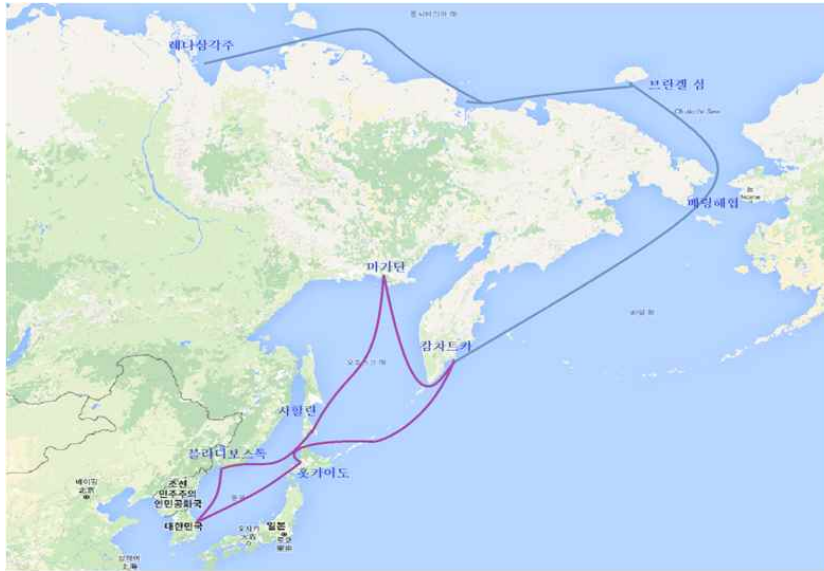
12) <http://kr.sputniknews.com/society/20150819/525136.html#ixzz3p1miIHgx>(검색일 : 2015년 11월 15일).

13) 강원일보, 2015년 10월 19일, 1면.

14) <http://www.nocutnews.co.kr/news/4524593#csidx1WkfNN>(검색일 2015.12.28.)

15) 중앙일보, “열병식도 관광 상품 - 북, 외화벌이 총력전,” 2015년 11월 3일, 23면.

<그림 9> 한국-극동-북극해 크루즈 관광 노선 안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극권으로의 일반인들의 관광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자연조건의 불리함과 함께 지역개발의 지연으로 지역의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았으며, 기후적으로 여름철 중심의 한정된 여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성의 어려움과 한정된 관광기간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광 경비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천혜의 자연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 빈번한 관광객 출입이 야기할 환경 오염 문제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광객의 안전과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구호기반을 갖춰야 한다.

북극권과 연계된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동식물상 및 경관과 탐험, 역사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관광 컨설팅과, 시설 투자, 과학 연구 협력, 환경 정화 사업 등에 한·러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세계 학계는 온난화로 북극해가 점차로 해빙되어 2020년에는 6개월, 2030년에 1년 내내 일반 항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은 이미 북극항로의 얼음분포 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¹⁶⁾ 북극해 안전항로 선정에 필요한 얼음상태, 얼음경계 정보 및 해양과 대기수치 예측자료 등을 수집해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러 간의 과학기술 협력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북극해로 나아가는 한국의 역할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북극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의 관광업계가 러시아의 관광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7/0200000000AKR20151017059300003.HTML?input=1179m>(검색일: 2015년 11월 18일).

<그림 10> 러시아 북극권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

러시아 북극권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전략 연구』, 국토해양부, 2010년 12월.
- 김민수, 『러시아연방 소수민족 극동편』, 서울: 참글, 2012.
- 김성귀, 『해양관광론』 현학사, 2007.
- 박병권·박상범, 『북극연구의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북극연구의 미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1.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 서울: 신아사, 2010.
- 엄선희, “북극해에 대한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계간해양수산』, 2011.5, pp. 232-240.
- 원학회, 한종만, 공우석, 『러시아지리』, 서울: 아카넷, 2002.
- 이재혁,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광자원과 한국 관광산업 개발 방안,”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9권 2호, 2015, pp.103-128.
- 계성훈·민지영, 러시아의 북극개발전략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변화와 대응방안』, 2009년 6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극지연구소, 『북극해를 말하다』, 2012.
- 한종만 외,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 서울: 신아사, 2010.
- 한종만,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2011, pp.183-216.
- 황진희·엄선희·허소영,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년 2월.
- ACIA(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Impacts of a Warming Arct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Alexandrov, Oleg, “Labyrinths of the Arctic Policy: Russia Needs to Solve an Equation with Many Unknown,” *Russian in Global Affairs*, Vol.7, No.3 (July- September) 2009, pp.110-118.
- 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AC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1042-1045.
- Dierks, Jan, *Tourismuskonzept für die Republik Sakha(Jakuti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ethischen und ökologischen Aspekte des Jagdtourismus*, Ernst-Moritz-Arndt-Universität Greifswald, Botanisches Institut Fachrichtung Diplom-Landschaftsökologie und Naturschutz, 13 Juni, 2002.
- Dieter K. Müller • Linda Lundmark • Raynald H. Lemelin(Ed.), *New Issues in Polar Tourism -Communities, Environments, Politics*(Springer Dordrecht Heidelberg New York London, 2013).
- Ellenberg, E. Scholz, M., Beier, B., *Oekotourismus*(Heidelberg·Berlin·Oxford: Spektrum Akademischer Verlag, 1997).
- Engberding, Hans und Bodo Thöns, *Transsib-Handbuch: Unterwegs mit der Transsibirischen Eisenbahn* (Berlin: Trescher-Reihe, 2003).
- James Forsyth (정재겸 옮김),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서울: 솔, 2009.
- Lundberg, Ulla-Lena, *Sibirien* (München: National Geographic, 2006).
- Seelmann, Katrin, *Der völkerrechtliche Status der Arktis: der neue Wettlauf zum Nordpol* (Wien: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2012).
- Seidler, Christoph, *Aktisches Monoploy: Der Kampf um die Rohstoffe der Polarregion* (München: Deutsch

Verlag-Anstalt, 2009)(크리스토프 자이들러 지음/박미화 옮김. 『북극해 쟁탈전 - 북극해를 차지할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도서출판 숲, 2010).

STEWART, E.J., HOWELL, S.E.L., DRAPER, D., YACKEL, J., TIVY, A., "Sea Ice in Canada's Arctic: Implications for Cruise Tourism," *ARCTIC*, VOL. 60, NO. 4(DECEMBER 2007), pp.370-380.

Лукичев А.Б., "Экотурист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Журнала Экотуризма* №4, 2012, pp.3-15.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 А С П О Р Я Ж Е Н И Е от 31 мая 2014 г. № 941-р МОСКВА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UNEP 홈페이지 <http://www.unep.org/regionalseas/>

국제대륙붕관리국(ISA) 홈페이지 <http://www.isa.org.jm>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 <http://www.imo.org>.

북극위원회(the Arctic Council) 홈페이지 <http://www.arctic-council.org>.

<http://rus-arc.ru/ru>

<http://russiafocus.co.kr/multimedia/video/2015/09/30/443879>

<http://www.itar-tass.com/spb-news/813070>

<http://www.scienceforum.ru/2015/discus/794/11260>

<http://www.wttc.org/Welcome to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북극의 관문 - 러시아 무르만스크(Мурманск)

박종관

I. 북극과 북극항만도시의 중요성

러시아는 전 세계영토의 약 1/8라는 광활한 영역¹⁾을 보유한 국가다. 이에 넓은 영토를 보유한 국가로서 최근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과 더불어 국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북극권의 최대 이해 당사국이 되었다. 북극의 해빙현상은 북극권 66도 33분의 라인 선상에 대거 포함되어 있는 거대한 러시아영토에 대한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약 195개의 다민족 다언어 사회의 구성²⁾으로 우랄산맥에서 태평양 연안을 아우르는, 즉 유럽러시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극동을 지나 베링해까지 연결되는 광대한 북극권 지역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총 8개 연방구와 85개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러시아는 13개 행정지역이 북극권에 속하는데 이는 북극이사회(AC)³⁾의 29개 북극권 행정지역⁴⁾ 중 가장 많은 지역을 확보하고 있다. 무르만스크는 북극권에 속해 있으며 러시아에게는 북극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중요 거점항구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2015년 12월 1일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창립한 “북극연구단(KARG)”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인 북극과 북극지역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현장감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러시아 유럽권 북극지역인 아르한겔스크와 무르만스크를 직접 여행하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도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러시아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곳은 당연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다. 그 다음으

1)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을 병합하기 전 러시아 영토는 총 17,075,200km²이었으나 병합한 후 2015년 현재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 영토는 17,125,407km²으로 세계 1위 국가이다.

2) 러시아연방의 민족적 구성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부자료를 분석하면 19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다 (<https://ru.wikipedia.org/wiki/>). 1926년의 민족구성 조사의 175개 민족을 시작으로 소련 및 러시아에서는 지속적인 조사에 따라 1937년 109개, 1939년 99개, 2002년 통계에서 182개 민족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http://www.demoscope.ru/weekly/2008/0319/tema01.php>).

3) 북극이사회(The Arctic Council)는 북극연안의 5국(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과 비 연안국 3국(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이 지난 1996년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오타와 선언을 통해 포럼 성격의 북극이사회를 발족했다. 현재 북극이사회는 북극권국가뿐만 아니라 비 국권들도 이해당사국들로서, 비 북극권 국가 중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북극이사회 영구옵서버 국가 이외에도 2013년 5월 스웨덴 키루나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탈리아가 영구 옵서버로 가입하면서 총 12개 국가로 구성되었다. EU 또한 향후 가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행정구분상으로 북극권은 29개의 행정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북극권 행정지역으로는 알래스카, 북부 캐나다[유콘(Yukon), 북서, 나누부트(Nunavut) 지역, 누나빅(Nunavik), 래브라도(Labrador),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Faroe) 제도, 노르웨이 북부지역[핀마르크(Finmark), 노르란(Nordland), 트롬스(Troms), 스발바르(Svalbard)], 스웨덴[노르보텐(Norrbotten), 베스테르보텐(Vasterbotten), 핀란드[라플란드(Lapland), 오울루Oulu]], 러시아연방의 북부지역[카렐리아 공화국, 코미공화국, 아르한겔스크 주, 무르만스크 주, 한티-만시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네네츠 자치구, 타이미르(돌가노-네네츠) 자치구, 에벤크 자치구, 사하공화국, 추코트카 자치구, 마가단 주, 코랴크 자치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는 극동지역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문화·예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꼽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러시아하면 이곳도 빠질 수 없는 곳이 될 지역이 있다. 바로 북극이다.

북극으로 가려면 북극권 항구도시인 아르한겔스크와 무르만스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두 도시인 아르한겔스크와 무르만스크...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존재 자체만으로 영웅과 전략이라는 수식어가 늘 동반되는 유럽지역 러시아 최북단의 항만도시인 아르한겔스크를 필자는 지난 <북극저널 3호>에서 소개했다. 이번 <북극저널 4호>에서는 아르한겔스크에 이어 19세기 말 도시건설계획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볼셰비키혁명 이전인 1915년, 도시의 기초가 된 콜라반도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무르만스크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한다. 특히 무르만스크는 1, 2차 세계대전과 소련시기를 거치면서 러시아의 북극권에 대한 지정학 및 지정학적으로 이해권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북극권 항만도시이다. 또한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에 따른 북극활용에 대한 중요 핵심지역이기도 했다. 즉 고르바초프는 1986년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에 이어 다음해인 1987년 10월 소비에트 건국의 초석이 된 10월 혁명의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혁명 이후 볼셰비키들에 의해 발전하기 시작한 무르만스크를 방문하여 '무르만스크 선언'으로 냉전 상황을 종식시키고 북극을 '평화지대'로 선언하며 소련의 변화를 위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으로 삼았다.

II. 무르만스크의 역사와 위치

러시아 서북쪽 북극권의 중요 관문인 무르만스크는 포트르 대제 때 시베리아를 비롯해 러시아 인들에게 한 서린 유배지로 활용된 곳이다. 이후 러시아는 포트르의 서구화 추진과 뒤를 이은 예카테리나 II에 들어 북극권에 대한 관심과 발전의 초석을 갖게 되었다. 북극권 탐험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항만도시로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며, 오늘날 러시아 군 전략의 핵심인 북해함대가 위치하며 전략적 활용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찍이 러시아의 어부와 상인은 작은 배를 타고 무르만스크의 해안을 따라 노르웨이까지 진출했다. 영국인 또한 바로 그 북쪽 관문을 통해 러시아에 도착했다. 이는 당시 유럽으로의 진출로가 막혀 있어서인데 러시아 서쪽으로 통하는 관문인 리보니아의 요새에 가로 막혀 있었다.⁵⁾ 이렇듯 북극해를 통한 상업적 교류가 16세기부터 이루어지면서 교류지가 되었다. 러시아 연대기 기록에 의하면 1555년 겨울, 러시아 북서쪽 핀란드 근처에 살던 카렐리아인이 무르만스크 해안에 정박한 두 척의 배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 선박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었는데, 승무원들은 모두 죽었고 화물만 잔뜩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⁶⁾ 러시아의 북극권 진출과 개발은 우선 아르한겔스크가 18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건설되기까지 러시아 서북지역에서의 유일한 무역항이었고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 북 드비나강 하구에 위치해 있는 아르한겔스크 항은 백해를 지나 북극해의 바렌츠해로 뻗어나가는 무역항이다. 무르만스크 개발 전인 1584년 러시아 상인들의 동방진출의 거점으로 건설되었으며 이후 북극탐험의 전초기지로 활용되었다.

5) 미하일 일리인 저, 이종훈 역. 『코페르니쿠스, 인류의 눈을 밝히다』 일리인이 들려주는 중세 이야기. 서해문집. 2008년, p. 216.

6) 위의 책. p. 216.

아르한겔스크로부터 북극권의 새로운 영토 무르만스크 해안을 따라 바렌츠해와 백해를 최초로 탐험한 리투스(Ф.П. Литкс, 1797-1882), 루사노프 블라디미르(1875-1913)등의 수많은 북극 탐험가들의 행적이 남겨져 있다. 또한 크림전쟁(1865-1855)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가 백해연안 아르한겔스크의 니콜라-코렐리 수도원을 포위한 전쟁의 역사도 있다.⁷⁾ 무르만스크는 북극권의 탐험과 지속적인 활용의 필요성으로 인해 발견 및 개발되기 시작하여 열지 않는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으로서 제정 러시아와 소련시대에 지나면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으며 급성장 할 수 있었다. 무르만스크가 공식적인 도시로 설립된 시기는 1917년인데 이후 1300명을 시작으로 1989년 46만 8천명의 인구가 살았던 소련의 중요 도시였다. 1991년 소련붕괴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갔으며, 2015년 기준으로 30만 5천명을 조금 넘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러시아인이다.⁸⁾

무르만스크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자동차 도로 M10을 시작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P21을 따라 1967km 북쪽에 위치해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P21을 따라 1343km,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직선거리로는 약 1490km와 1020km이다. 이 외에도 열차⁹⁾를 이용한 철길을 따라가면 1일 10시간, 1800km에 다다르며, 항공¹⁰⁾으로 이동할 경우 약 2시간 35분 정도 소요된다. 현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몬체고르스크, 키롭스크 철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북극을 통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러시아의 중요 거점 항구도시이다.

북위 68도 58분에 위치해 있는 무르만스크는 북극권지역으로 아르한겔스크를 비롯한 러시아에서 북극으로 향할 수 있는 러시아 유럽 권 유일한 항만도시 중 한 곳이다.¹¹⁾ 5월부터 7월까지 해가 지지 않는 날의 백야 현상¹²⁾이 계속되는 도시로서 북극의 공간적 및 행정적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데, 북극이사회의 실무그룹인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에 따른 북위 66도 32분부

7) 크림전쟁(1853-1856)은 니콜라이 1세가 '유럽의 헌병'을 자처하며 각국의 내정에 간여하다 발생한 전쟁이다. 강력한 러시아 군사력을 믿었던 니콜라이는 근동과 발칸 지방의 패권을 두고 러시아와 유럽열강이 충돌한 싸움이다. 전통적으로 열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 추진한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 및 프랑스와 오스만투르크 문제를 두고 벌인 전투다. 이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투르크를 지원하면서 발칸반도, 흑해 북부 연안, 카프카스 지방에서 주로 진행되었으며, 영국과 프랑스연합군은 바다를 장악하면서 흑해, 발트 해, 백해, 베링 해등의 러시아 해안요새를 공격했다. 러시아 목재벌선은 연합군의 증기선을 적수가 되지 못했고, 마지막 결전장소로 크림반도를 택했다. 크림반도 전쟁은 세바스토폴 요새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연합국간의 349일 동안 계속되었던 전투였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패하고 아조프해 및 세바스토폴 요새는 연합군에게 함락되었으며, 마침내 1856년 3월 파리강화조약으로 흑해 중립화를 선언했다.

8) 필자가 무르만스크를 여행하는 동안 주민의 말에 따르면, 1980년 말 유동인구 합쳐 약 100만에 가까운 인구가 무르만스크에 거주했다고 한다.

9) 2015년 7월 기준으로 모스크바에서 무르만스크로 이동할 경우 열차는 1일 6대로 소요시간은 1일 8-14시간 소요된다. 경비는 쿠페: 4800~7500루블, 플라치까르타: 3400~5100루블이다.

10) 2015년 7월 기준으로 모스크바에서 무르만스크로 이동할 경우 항공편은 직항일 경우 2시간 35분 소요되지만,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경유하며 총 6~10시간 소요된다. 비교적 자주 있으며 경비는 6600~24000까지 이다.

11) Ronald O'Rourke, Changes in the Arctic의 북극의 공간적 개념의 정의로 살펴볼 때, 북극이사회의 실무그룹인 '북극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AMAP: Arctic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me)'은 북극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북위 66도 32분부터 북극점까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위 62도부터 북극점,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북위 60도부터 북극점까지의 공간이며, 이 정의에 따르면 알류산 열도, 허드슨 만, 북 대서양의 일부, 래브라도(Rabrador)해를 포함한다.

12) 백야현상(Полярный день)은 북위 68도 이상의 지역에서 약 40일간, 북극점에서는 189간 진행되는 해가지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러시아 최북단 도시인 무르만스크에서는 5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62일간 백야현상이 지속된다.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백야현상은 북극점에서 3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 이상 지속된 기록이 있다. 반대로 겨울에는 해가 없는 날(Полярная ночь)인 밤이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터 북극점까지에 포함된다.¹³⁾ 따라서 무르만스크는 러시아의 북극영역으로 북극점에 좀 더 근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무르만스크 위치



III. 무르만스크의 전략적 가치

무르만스크 시는 러시아 유럽권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무르만스크 주도로 항구도시다. 남쪽으로는 백해와 북쪽으로는 바렌츠해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콜라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도시의 북쪽은 고지대로 툰드라지대와 남쪽지역은 타이가지대로 형성되어 있다.

러시아유럽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무르만스크는 냉전시대 전략적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콜라강¹⁴⁾의 지류로 인해 겨울에도 유일하게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알려진 무르만스크 항은 냉전시대의 종말과 체제전환 이후의 여러 해를 거치면서 국가적 경기불황 및 모스크바의

13) 아르한겔스크 주의 수도인 아르한겔스크 시는 북극이사회의 실무그룹인 ‘북극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AMAP)에 따른 북극의 공간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르한겔스크 주의 영토(589 913km²)는 서유럽 국가 중 넓은 영토국가인 프랑스(547 030km²)와 스페인(504 782km²)의 국가를 보다는 크며, 대부분의 영토가 북극의 공간적 범위에 속한다.

14) 콜라강(река Кола)은 무르만스크 주의 콜라만에 위치한다. 강 길이는 83km, 면적은 3850km²이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 콜라강의 정확한 어원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2개의 설이 있다. 첫째는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사미족의 언어인 콜리옥«кольюк» - 황금강«золотая река»에서 시작한다. 1532년 연대기에 따르면 이 용어를 러시아인들이 오늘의 콜라강으로 부르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핀-우그르어인 쿨리오키 «кульйоки» - 르의브나야 리까(물고기 강)«рыбная река»에서 설이 전해진다. 현재 콜라강으로는 3개의 철로 연결다리, 5개의 자동차 다리 및 1개의 보행다리가 있으며 강을 중심으로 동서를 연결해 준다.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를 받으면서 대 내외적인 관심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갔다. 실제로 북극에 대한 관심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부터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급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2008년 배럴당 138달러로 정점을 도달하자 자원의 보고인 북극지역에 관심이 쏠리면서 북극해 유전 탐사에 대한 경제성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같은 해인 8월 베링해협을 통과 및 태평양과 유럽으로의 관문인 그린란드를 지나 대서양을 연결해주는 북극항로가 정식으로 개통되면서 결빙되어 있던 바다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했던 북극항로가 열리면서 북극의 가치는 더욱더 고조되어 갔다. 이렇듯 북극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특히 2000년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집권과 ‘강한 러시아’ 전략으로 북극개발에 동반한 러시아 북극권 항만도시인 무르만스크 시와 주에 대한 관심 또한 증폭되어 가면서 도시 또한 전략적 가치 상승으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르만스크 시 콜라강 북쪽 항구에는 알료샤«Алёша» 기념비가 언덕위에 우뚝 서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인 1941년 연합군의 주요 보급물자 항구로 도시발전의 초석이 된 수산가공업, 조선, 제재업 등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도시를 지키기 위해 독일군과 시민들이 강력한 저항으로 싸우다 죽어간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알료샤는, 해발 173미터 고지에 35미터의 높이로 도시의 상징물이다. 죽은 용사들이 묻혀있는 서쪽 전쟁기념관의 무덤방향을 향하는 알료샤의 시선과 눈은 이미 오래전 전사한 용사들이지만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도시 중심에 세울 계획이었으나 지금의 자리에 세워진 알료샤는 1969년 10월 17일 건축을 시작으로 1974년 10월 19일에 완공되었으며 지금은 무르만스크의 랜드마크로 중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림 2> 제 2차세계대전시 조국을 위해 죽어간 무명용사 “알료샤” 기념비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이렇듯 무르만스크는 알료사를 비롯하여 독일 파시스트로 인한 제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독일군에게 정복되지 않는 영웅도시이다. 1985년 소련의 최대 영웅도시에게만 수여하는 레닌의 영웅 훈장인 황금메달 «Золотая звезда»은 전승 40주년을 기념하여 무르만스크 시에 수여되어 경제적 발전을 비롯한 전략적 도시로 재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무르만스크 항은 연중 부동항으로 러시아 최대함대인 북극함대의 모항이다. 특히 무르만스크에서 바렌츠해로 흐르는 콜라강을 따라 북동쪽 25km에 군사보안 행정지역으로 북극함대기지 시베로모르스크(Североморск)¹⁵⁾가 위치해 있다. 1951년 4월 18일 명명된 이 도시는 무르만스크 시를 우회하는 일명 ‘상트페테르부르크대로’¹⁶⁾를 지나 위치해 있는데, 현재 시베로모르스크에는 약 49,719명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은 주로 군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무르만스크는 부동항의 이점으로 북극해의 주요 어항과 선적항일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쇄빙선 ‘세브모르푸트(Sevmorput)’를 포함한 세계 유일의 핵추진 함대의 모항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최초의 핵 쇄빙선인 ‘레닌호’¹⁷⁾가 정박해 있으며, 퇴역 후 박물관으로 일반인 및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레닌호는 1959년 12월 3일 부터 1989년까지 총 650,000마일을 시속 36km의 최고 속도로 얼어붙은 북극해를 누비고 다니며 북극권을 탐사해 왔다. 44,000마력으로 30년 동안 4개월씩 북극 탐험을 나갔으며 쇄빙선에는 26명이 상시 거주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무르만스크는 러시아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곳이기도 하다. 러시아 북극함대 소속의 2만 t급 신형 핵잠수함인 쿠르스크호가 침몰해 승무원 118명 전원이 사망한 것이다. 이는 2000년 8월 12일 러시아 무르만스크 인근의 바렌츠 해에서 러시아 해군뿐만 아니라 세계 해군 사상 가장 큰 참사로 기록될 만한 사고로 기록되었다. 원인이 불분명했던 이 사고를 둘러싸고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추측과 가설이 나돌기도 했다.

15) 시베로모르스크(Североморск)는 사포노바(Сафоново), 로스랴코버(Росляково), 사포노바-1(Сафоново-1), 시베로모르스크(Североморск-3), 슈코제로(Шукозеро)지점과 함께 1996년 11월 26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결정 № 1606에 따라 “무르만스크 주내 중요 군사기밀 행정지역으로 형성되었다.

16) 무르만스크 주민들은 도시 외곽을 지나 시베로모르스크로 이어지는 도로를 상트페테르부르크대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동-합류대로(Восточно-Объездная дорога) 이다. 이 도로를 따라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등에서 온 러시아 부자들에 의해서 호화스러운 고급주택을 지어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17) 필자는 지난 7월 11일 1일 1시간 동안 레닌호를 관람했다. 엔진기관실등을 비롯해 쇄빙선 일 부분을 전문 가이드 동행으로 관람했는데, 관람 시간 내내 러시아의 소련시대의 힘을 레닌호로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실제로 당일 모스크바, 로스토프 나 돈우, 카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러시아 관광객들과 함께 관람했다.

<그림 3> 무르만스크 항에 정박해 있는 ‘레닌호’



주: 무르만스크 항에 정박해 있는 레닌호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그림 4> 침몰한 핵 잠수함 ‘쿠르스크호’



주: 2000년 8월 12일 바렌츠해에서 침몰한 러시아 핵 잠수함을 추모한 기념비와 등대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북극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와 부동항을 가진 바렌츠 해 항구도시인 무르만스크에 대륙붕 자원채굴 관련 기술 클러스터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바렌츠 해는 풍부한 수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북극권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지역이며, 러시아 대륙붕 석유 매장량의 70%, 가스의 90%가 집중 매장되어 있다.¹⁸⁾ 무르만스크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

18) 한종만, “러시아의 북극전략과 거버넌스.”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편,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 센터 PEACE TUNNEL magazine, (명지출판사), P.47.

한 바렌츠 해의 슈토크만(Shtokman)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와 가스매장지가 있다는 관측에 의해 무르만스크에 클러스터 시설시공을 계획하고 있다. 슈토크만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은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5-6년 치에 해당(추정치: 3조 9천억 평방미터)한다. 러시아 북부 해안에서 약 600km 떨어진 이 가스전은 수심 350m의 북극 심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빙산의 위협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어 세계에서 개발이 어려운 가스전 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2010년 8월 슈토크만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SDAG(Shtokman Development AG)회의를 개최했다¹⁹⁾. 이와 관련하여 무르만스크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슈토크만 가스전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인 가스프롬사²⁰⁾가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셸(Shell)의 북극원전 개발에 따른 환경적 재앙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듯이, 슈토크만 가스전을 비롯하여 러시아 북극권에서의 가스과 원유개발로 인한 소수민족 및 원주민과 정부, 북극권을 보호하려는 환경단체와 이해권의 당사자인 기업 간의 긴장감으로 인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극의 유전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원유 유출 사고가 날 경우 현재 기술로는 전 지구적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이는 북극 해뿐만이 아니라 거센 파도를 타고 5대양 6대륙의 지구 전체로 전위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행기간 동안 이번 여행지와 인접해 있고 북극개발에 대한 이해 국가인 북유럽 국가의 노르웨이 항만도시인 키르케네스(Kirkenes)도 다녀왔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P21 자동차 도로를 따라가면 북유럽국가와 접하게 되는데, 키르케네스는 노르웨이 본토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항구도시로서 핀란드 및 러시아국경과의 교착지점으로 북극항로 운항 및 수산업분야에 있어 중요한 전초기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유인 즉, 러시아의 무르만스크와 아르한겔스크 등 러시아 북극권의 항만도시와의 수산업에 있어 적지 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예로, 노르웨이 북극권 항구들은 북극권에서 어획한 러시아 선박들이 노르웨이 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²¹⁾ 이로 인한 노르웨이의 항만도시들의 수산업은 나날로 번창해 갈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노르웨이 추디(Tschudi)회사는 키르케네스 항에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며, 완공되면 한국기업들이 이 물류단지를 이용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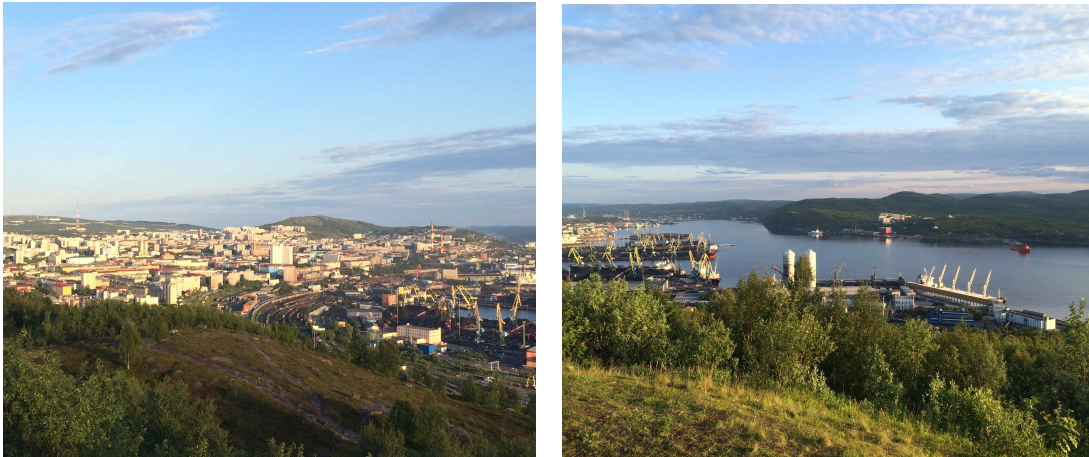
19) <http://www.shtokman.ru/>(검색일: 2015.12.13.)

20) 가스프롬사는 러시아 유일의 가스 수출사로 대부분의 가스를 북극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의 자원 국가주의 성향과 욕구가 강력한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실력자인 푸틴 대통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21) 무르만스크 여행 중 만났던 대다수의 시민들의 말에 따르면, 북극해 및 기타 지역에서 어획한 러시아 선박들이 무르만스크 항을 비롯하여 자국의 항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러시아 항을 사용했을 경우 높은 관세, 복잡한 절차로 인한 시간낭비, 관료주의의 횡포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인근의 노르웨이의 항들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한다. 키르케네스 항을 비롯하여 북극권 노르웨이 항들을 사용했을 경우 러시아보다 관세 및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하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들 또한 육로로 노르웨이를 통하여 수입되는 어류를 구입한다고 한다. 이렇듯 러시아 정부의 내적 시스템을 변화하지 않으면 노르웨이의 수산사업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 생각한다.

IV. 무르만스크의 전략적 중요성

<그림 5> 무르만스크 정경



주: 무명용사 ‘알료샤’ 기념비에서 바라본 무르만스크 시의 항구 정경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앞서 언급한대로 무르만스크는 콜라 반도 북쪽을 중심으로 추운 혹한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 항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 작은 어촌마을이었으나 1915년 무르만스크 철도개통과 더불어 군수보급 항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의 원조물자 양륙지로 독일군과의 대 접전지이기도 했다. 이렇듯 중요 거점항구 도시이기에 소련시절부터 시비르모르스크(Североморск)에 핵 잠수함 북해함대 기지가 위치해 있다.

무르만스크의 철도 개통 이전 러시아 서북쪽 중요항구 도시는 아르한겔스크였다. 하지만 1916년 얼지 않는 콜라만 항의 무르만스크로 어류(생선)가공 및 (배 수리)조선 수선 산업들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아르한겔스크는 오랫동안 이어온 러시아 북쪽 항만의 특권을 조금씩 상실하게 된다.

동경 33°05′, 북의 68°58′로 러시아 최북단에 위치해 있는 항구도시인 무르만스크는 1차 및 2차 세계대전 시 중요 전략적 전투지였다.

이렇듯 무르만스크는 단순한 항구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러시아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군수물자를 운반한 중요 항으로 파스시트와의 격전지로서 러시아 역사에 남게 된 중요 도시였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 소비에트 시절 무르만스크는 전체 소비에트시대의 몇 안 되는 영웅의 도시로 명명되기도 했다. 이를 증명하듯 무르만스크 시 중심의 언덕에는 조국수호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무명용사를 추모하는 알료샤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V. 결론

무르만스크는 러시아 서유럽 최북단인 북극권의 중요 항만도시로서 16세기 중엽 이후 모스크바 공국의 시베리아 개척의 일환과 맞물려 러시아인들에게 발견되었다. 북극양인 바렌츠해로 흐르는 콜라강 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콜라강의 지류로 인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다. 러시아 서북쪽 북극권 관문 항구도시로서 정치, 경제를 동반한 지리적 및 전략적으로 중요 항만도시이다.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으로 유럽 국가들과 무역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아르한겔스크에 이어 볼셰비키 혁명 후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극양을 따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과의 연결로 사용되었다. 무르만스크는 러시아 역사에서 영토 확장에 관련된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1765년과 1766년에 치차고프 제독 (Василий Яковлевич Чичагов, 1726-1809)은 북극지역 연구의 목적으로 치차고프(Чичагов), 빠노프(Панов), 바바예프(Бабаев) 3개의 북극해 탐사선을 이끌고 얼어붙은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의 캄차트카까지 여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목으로 만든 탐사선들은 두꺼운 북극해의 얼음으로 인하여 슈피츠베르겐(노르웨이의 �발바르 제도)을 지나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했다. 러시아인들의 이러한 북극에 대한 도전과 탐험은 이후 과학의 발달로 높은 기술력을 동반한 쇄빙선으로 북극을 자유롭게 오가며 연구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녹는 북극해빙은 북극이사회국가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 등 전 지구적 차원으로 북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극권지역에 매장되어 미 발견된 활용 가능자원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 매장량의 13%인 900억 배럴의 석유와 30%로 1,700조^m 가스자원, 그 중 천연가스 440억 배럴 상당의 액화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미국지질조사국은 2008년 발표했다. 또한 니켈, 팔라듐, 구리광산, 인회석 광산, 석탄광, 아연광, 그린란드의 희토류 등 1조 달러가 넘는 가치의 광물자원을 비롯하여, 북극해양속에 생존해 있으며 러시아의 15%와 전 세계 어획고의 5%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을 동반한 경제적 가치, 이에 따른 지구환경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환경적 가치와 연구, 지구 생태학의 과학적 가치, 잠재적 북극 크루즈 관광에 따른 관광자원 등의 매우 높은 잠재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 외에도 북극권은 남극과 달리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인식하여 지역 원주민의 지문화적 가치 등 수많은 학술적 가치의 등장으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연결로의 북극해를 경유할 해양루트와 이를 연결할 내륙과의 연결 교통망 시스템, 군 안보적 차원의 지 전략적 가치 등 수많은 잠재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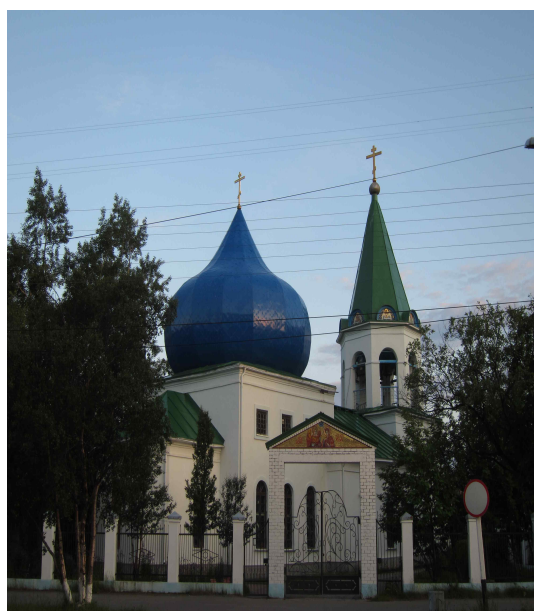
이런 맥락으로 북극권 국가 중 북극권에 대한 가장 큰 이해력을 갖고 있는 유럽권 러시아의 두 도시인 아르한겔스크와 무르만스크는 향후 북극개발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거점 항만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러시아 또한 북극개발과 육해공의 활용에 따른 북극의 이해권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두 도시의 개발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극개발은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과의 공동된 이해관계의 성립으로 북유럽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조성 차원에서 인근지역의 중요 항인 무르만스크는 러시아 북극권 항만개발의 최우선적 순위가 될 것이다.

<그림 6> 북극에 나간 어부를 기다리는 여인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그림 7> 무르만스크의 초석이 된 도시 '콜라', 콜라의 역사가 담긴 기념비와 교회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그림 8> 무르만스크 중심에 위치한 ‘북극호텔’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그림 9> 1916년 이래 무르만스크 항을 대표한 인물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그림 10> 무르만스크 시청과 의회



출처: 본인이 직접 촬영

북극항로: 러시아 정복 역사, 경제적 의미*

백영준

북극지역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기능 회복에서 필연적으로 돌아오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최근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더 자주 의견을 듣는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러시아 시민들은 북극항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1> 쇄빙선들



<그림 2> 북극항로에 위치한 바다이름과 항해로 소개



북극항로는 무엇인가? 이것은 북극해(카라해, 랍테프해, 북-시베리아 해, 추코트카 해)를 통하는 해양 교통의 주요간선, 통행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북부 유라시아 해안을 따라 베링해로 연결된다.

* 이 글은 전자저널 『LIVEJOURNAL』에 탑재 된 Alexey Sannikov의 글 “Северный морской путь: история осво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을 석사급 연구원인 필자가 번역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임.
출처: <http://maximilienr.livejournal.com/33187.html> (검색일: 2015. 12. 15).

북극항로의 역사는 지난 세기와 북극 지역 항해 연구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존하는 가설로, 백해에 연안에 살고 있는 러시아 사냥꾼들(Поморские охотники)이 북극 항로를 처음 항해 하였다. 이들은 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소형 선박으로 베링 해에서 해양 동물을 사냥하였다.

그렇게 12-13 세기가 지나, 콜구예프 섬(острова Колгуев)과 마이가치 섬 (Вайгач)과 노바 야 지믈랴 군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가설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 이러한 항해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첫 문서화된 북극항로 항해 시도는 16세기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앞서 우리 시대의 주요 항로 지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15세기 활발한 원거리 항해기술 발전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인 무리들의 주요 목표는 아시아 상품들을 얻는 것이었다. 그런데 육상을 통한 무역 연결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은 적대적인 무슬림의 땅을 통해야 했다, 당시 유럽인들은 무슬림과 끊임없이 투쟁하였고 이것은 육상무역을 불가능하게 했다.

아시아로의 항로의 발견의 선구자는 포르투갈 인들로 여겨진다.

포르투갈은 유럽의 서쪽 국가로서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해서, 인도로의 항로를 찾기 위한 위치적인 메리트가 있었다.

그들의 이 활동은 1415년 시작해서 1499년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 지속했다. 1488년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Bartolomeu Dias)는 아프리카의 해안이 최종적으로 북쪽으로 바뀌게 되는 희망봉을 발견했다. 그리고 11년 후에 바스코 다 가마의 탐험은 아프리카를 넘어 인도에 도착했다.

이것과 동시에 그들의 이웃인 스페인은 대서양을 통해서 아시아로 도달하는 것에 도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도달한 곳은 명백하게 아시아가 아닌 서쪽 땅 전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

일설에 의하면 콜롬부스는 그가 새로운 대륙을 찾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5천 킬로미터 서쪽에는 아조레스 제도 (Azores)의 서쪽으로 인도가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3> 바스코 다가마(1469 - 1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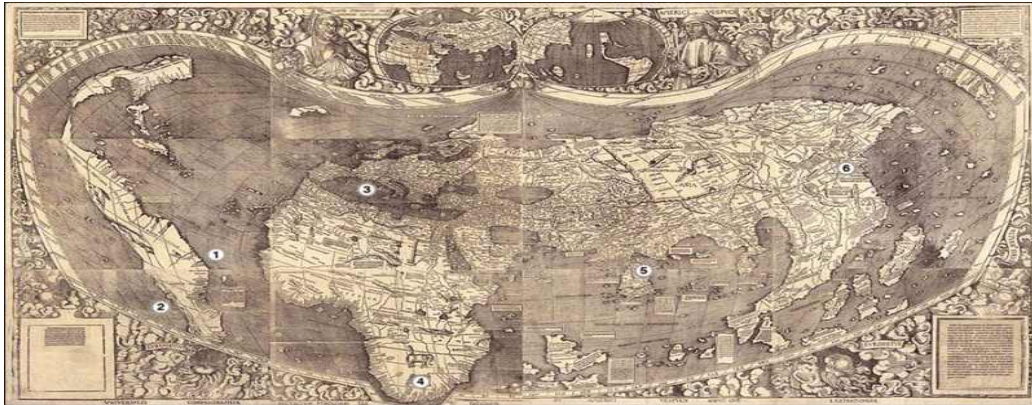
세계 최초의 마르틴 발트물러(Martin Waldseemüller) (1507 - 1595년)의 지리지도에서 일목요연하게 그 당시 지도에서 명백하게 “거짓된” 아메리카를 설명하고 있다.

1519년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Ferdinand Magellan)은 아프리카 주위의 원정과 필리핀 섬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떠났다.

이렇게 16세기 중반에 아시아로 가는 유명한 두 개의 뱃길이 있었다: 희망봉을 건너는 방법과 마젤란 해협을 통하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한번 떠나면 일 년이 걸릴 정도로 충분하게 멀었다. 그뿐만 아니라, 스페인 인들과 포르투갈 인들은 이 경로들의 독점을 열심히 지켰

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두 강대국과 바다에서 대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세가 다른 국가들에게 좋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해양 세력들인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시아로 가는 자신들만의 길을 찾았다. 그들의 첫 번째 탐사 방향은 북쪽으로 캐나다까지, “북-서 항로”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탐사 방향은 북쪽으로 유라시아까지 “북-동 항로”.

<그림 4> 마르틴 발터물러의 세계지도



이렇게 북극항로의 사용의 경제적 성질은 당연한 숙명이었고, 동쪽의 부에 도달하는 방법 밖에 다른 목적은 없었기에, 유럽인들의 빙하로 둘러 쌓여있는 북극을 지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

휴 윌로비 경(sir Hugh Willoughby)은 1553년에 북극항로 탐험에서 유럽인 가운데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계속 도전했지만 더 이상 북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는 얼음 위에서 죽음을 맞았다. 이 탐험이 실패하고 반세기 이상 지난 후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로 자신들의 목표를 바꾸었다. 그리고 이 영국인들에 의해 탐험된 북동항로의 가치는 먼 미래에 러시아 선원들의 성공적인 북극항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영국 탐험가들은 자신들의 여행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러시아어로 이 기록들이 발표된 것은 1937년 “16세기 모스크바 공국으로 영국인의 탐험”이라는 책에서이다. 이 책은 1598년에 쓰여진 리처드 헉슬리의 에세이집 “여행기” 복각판이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러시아 선원들은 백해를 통해서 노르웨이와 무르만스크 해안에서 무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내용은, 1556년 러시아의 북쪽 땅을 탐험한 경험이 있는 영국인 여행가 스테판 바로우(Stephen Barrow)의 회상록이다, 그는 이곳에서 원주민의 오비강 하구에 대한 정보와 바렌츠 해의 관측과 많은 러시아 선박들에 대한 총합적인 정보를 얻었다. 이후 1572년 시베리아를 효과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 중요한 망가제(Мангазее) (타즈강 하구, 오비만 지류의 하구)에 카자크 마을이 만들었다. 강한 악천후 조건으로 오랫동안 바다를 통해서 동쪽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하천 연안을 이용해서 동진을 하였다. 그러나,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이동하는 통로의 존재 가설의 진보로 보다 많은 현실가능성이 생겼고, 1648년에 세멘 데쥐네프(Семен Дежнев) 대장은 축치와 알래스카 사이의 해협을 발견하였다. (베링해협) 그러나 이 방법을 실행하



<그림 5> 아돌프 노르젠 솔드 (1832-1901)

기 위한 어려움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고, 북동항로의 다른 도전은 19세기 말에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첫 북동항로 가로지르는 통과는 스웨덴 탐험가 아돌프 노르젠 솔드(Adolf Nordenskiöld)가 1879년에 해냈다.

북극항로 개발의 경제적 중요성 이론은 학자 로모노소프(М.В. Ломоносов)와 멘델레프(Д.И. Менделеев) 부터, 북극 탐험가 콜차크(Колчак) 까지 유능한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증명했다. 당시 러시아제국 당국은 시베리아와 극동에 걸쳐 존재하는 집락들의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의 가치는 분명했다. 유럽의 일부분으로서의 러시아제국은 인프라 건설을 방치했다. 우랄을 관통하는 활발한 철길 건설의 시작은 20세기 초

에 겨우 시작되었다. 많은 시베리아의 강들은 주요 교통수단이고 이것을 묶는 큰 교통수단 시스템이 필요 했다.

그러나 러시아제국에서 이 구상의 실현은 되지 못했다. 처음으로 북극항로의 법적 지위는 러시아 적백내전 시기에 겨우 결정되었다. 1919년 4월 23일 콜차크(Колчак) 정부 내에서 북극항로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이었고, 위원회의 업무는 러시아 무역조직들을 포함했고, 서유럽국가들과 반혁명정부에 의해 관리되었다. 볼셰비키도 마찬가지로 북극항로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콜차크 정부 전복 후 1920년에 기존의 위원회는 북극항로 위원회(КомСеверПуть)로 개혁되었다. 북극항로의 간선화를 통해서 러시아와 유럽의 지속적인 경제적 연결 그리고 오비강 하구와 예니세이 강, 레나 강, 그리고 깔리마 강을 통한 유럽러시아 및 외국과의 상품교환, 화물수송 등에 대해서 위원회는 연구를 시작했다.



<그림 6> 슈미트 (1891-1956)

새로운 소련 정부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북극항로의 중요성 연구에 접근했다. 제정러시아 시대에 북극항로에 산발적인 탐험을 보냈다면, 볼셰비키는 20년의 과학적 사전준비를 해서 북극항로를 통과했다: 연구, 빙하조사 등과 1932년 탐험의 지휘자인 슈미트(О.Ю. Шмидт)는 최초로 어떤 항구에도 머물지 않고 북극항로를 통과했고 이 성과로 슈미트는 북극항로 관리단이 조직되고 (ГУСМП)의 최고 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수송과 건설과 산업 계획을 시작으로 모피무역 문화거점 창조, 학교와 병원 건설까지 모든 위탁받은 부분을 관리했다.

지금 우리시대의 경제는 직접적으로 통하고 있다.

북극항로의 경제적 중요성의 특징은 시간과는 무관하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영역이 영구 동토조건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 연중 사용하는 길(육상교통로)을 만

들 가능성은 없다. 처음으로 북쪽 지역과 극동지역이다. 이 지역들로의 보급은 공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이것은 바다를 통한 보급보다 효과가 적다. 이외에 북극항로는 많은 내륙수로(강들)를 간선으로 해서 연결된다. 북극항로는 시베리아의 강 길과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인프라로 통합하는 척추 즉 하나의 교통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북극항로는 유용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의 통제를 보증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대륙붕에 위치한 유용한 광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야말, 타이미르, 북야쿠치야와 추코트카 같은 북쪽지역 또한 포함된다. 소련시절 답사 그룹들의 성공 덕택으로 소련의 광업은 북쪽으로 대폭적으로 진행되었다.(니켈, 백은, 구리 - 노틸스크 다이아몬드, 금 - 야쿠티야, 텅스텐 - 추코트카) 대륙붕을 통한 것 또한 잊으면 안된다. 현재 에너지 자원의 채굴은 북쪽으로 모두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륙붕에서도 또한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원산지는 바이가치(Вайгач) 섬 지역명과 같은 해양플랜트는 2014년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적절한 수송 인프라 없이는 그곳의 석유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모두의 큰 재산인 북극의 보호도 또한 요구된다. 이것을 위해서 군함들을 통한 북극해의 순찰을 가능하게 했고,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강력한 쇄빙선과 항구 시스템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연설명하자면 첫 번째 북극항로를 사용한 것은 대조국전쟁(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 목적이었고, 그 당시 군함은 태평양과 바렌츠 해를 다녔다. 군사 방면의 북극항로 사용은 북극 군사적응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러시아의 우월함을 나타낸다. (см. газета “Суть Времени” - “В Арктике станет жарко”, ч.1, ч.2)

<그림 7> 북극항로 러시아 수송로 시스템



세 번째,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과 사이의 최단항로인 북극항로를 주요 수송로로 이용한다. 현재 북극항로 수송은 러시아 없이는 어떠한 나라도 쇄빙선의 부재로 단독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비약적으로 유럽의 나라들과 무역을 확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 그 선두의 중국, 우리는 북극항로의 특수성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북극의 자원으로의 접근성에 중국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접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집중을 선택했다. 예를 들자면, 야말-LNG(Ямал-СПГ) 액화천연가스 공장 프로젝트이다. 중국은 1,350억 미국 달러를 투자했다. 북극항로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은 약 4천 킬로미터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안전하다 북극항로에는 해적이 없다, 현재 남쪽 바다를 통한 길 특히 남중국해와 아프리카 근해에서 2013년 한해에 해적행위가 300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북극항로의 접근가능성이 늘어나고, 북극을 덮고 있는 빙하가 단계적으로 물러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북극항로의 동쪽 부분은 현재 침체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소련의 붕괴와 북쪽 지역들의 생산저하와 인구유출에 관련이 있고 이 것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89년 북극항로로 운송량이 연간 800만 톤 이었다면 현재는 4배가 적은 상태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북극항로의 두 가지의 전망을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경제 개발부(МЭР), 러시아과학아카데미(РАН), 중앙연구소(Централь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와 해군 선박 숙련-디자인 연구소(опы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ий институт морского флота) 등은 북극항로 문제(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라는 공동연구 논문에서 북극항로 수송 성장 증가 예측을 내놓았다. (아래의 표 참조)

<표 1> 2020년까지의 북극해의 물동량 예측 평가 표

물동량	1 예상치	2 예상치
전체 수출	10,450	16,045
전체 수송 (건조화물)	0	250
전체 수입 (건조화물)	40	55

이것은 객관적인 원인에 기인한다:

- 북극 조건에서 적응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아이스 클래스 쇄빙선의 필요성)
- 쇄빙선 서비스에 대한 추가비용 지불;
- 해당위치에서 경쟁시키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프라 개발의 필요(반복적인 인프라 개발과 쇄빙선의 경험 축적을 통해서) 기타 등등;
- 북극항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기상에서 오는 리스크로 예측 불가능한 운송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 연중 짧은 항해기간(4개월)

위와 같이 문제가 많은 북극항로의 복구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인프라 시스템으로서 북극항로의 역할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자우랄의 공업단지의 모든 회복이 가능하다, 그 외에 모든 인프라 시스템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무엇을 만들 것 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대의 핵 추진 쇄빙선을 건조하는 데에만 30~40억 루블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는 항구와 선박수리도크와 하천항구와 환승가능한 철도의 복원과 동시에 시베리아의 지역 특히 시베리아의 북부지역의 실제적인 복원이 필요하다.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원문번역 2부

백영준

21세기 자원, 기후변화, 영토와 영해 및 물류와 유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북극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극해에 가장 긴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권 개발을 중요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공화국의 북극권 개발과 국가안보 확보 전략 2020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이하 ‘북극권 개발전략 2020’으로 칭함)’을 제기하고 있다. ‘북극권 개발전략 2020’은 2008년 9월 18일 승인된 ‘2020년까지와 미래의 북극권 내 러시아연방공화국 국가정책 원론(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дальнейшую перспективу, 이하 ‘북극권 국가정책원론 2020’으로 칭함)’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2008년 8월 2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 의해 승인된 ‘북극권 개발전략 2020’의 원문을 번역한 글이고, 분량 관계로 2부로 나누어서 연재할 계획이다.

이 글은 지난 북극연구 저널 3호에 투고한 1부에이어서 2부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과학과 기술 발전 목적 하에 예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а) объединение ресурсов и возможностей(자격) государства, бизнеса,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го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сектора в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ки и внедрения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ключая разработку новых или адаптацию существующих к арктическим условиям на базе профиль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латформ;

자원의 통합과 국가의 가능성, 비즈니스, 지방 개발에서 과학 기술 분야의 경쟁의 형성과 진보적인 기술 도입을 포함한 새로운 개발 혹은 북극 전문지식관련 기술 플랫폼의 북극 조건에서 현지 적응을 위한 과학과 교육;

б) разработка материалов, адаптированных к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м условиям Арктики, а также внедрение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и приборной базы, адаптированных к проведению поляр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재료들의 개발, 북극 자연-기후 조건에게 적응, 뿐만 아니라 기술 수단 도입 과 도구의 획일화, 극지 과학탐사 실행에 적응;

в) разработка и внедрение новых видов техни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 области р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освоения морски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а также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и ликвидации аварийных разливов нефти в ледовых условиях;

지방의 합리적인 자연 사용으로 지역 개발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г) реализация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фло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ключая глубоковод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глубоководных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х систем;

심해 탐사와 심해 탐험 로봇기술 시스템을 포함한 러시아연방 과학 탐사선 개발 프로그램 실현;

д) научное обоснование долгосрочных перспектив 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Арктике;

북극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장기 전망과 주요 방향 발전 활동;

е) проведение комплекс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 изучению опасных природных явлений, разработка и внедр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етодов их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в условиях меняющегося климата;

위험한 자연현상 연구와 현대적인 기술 도입과 방법(method)로 종합 과학 탐사 실행

ж) прогноз и оценка последствий глобаль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происходящих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д влиянием естественных и антропогенных факторов, в среднесрочной и долгосрочной перспективе, включая повышение устойчивости объе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글로벌 기후변화 결과 평가 및 예측, 러시아연방 북극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대상 하부구조의 안정성 증가를 포함한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원인의 영향들 아래, 수단과 장기 전망;

з) проведение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и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и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Арктике, в том числе с целью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ия наличия 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рав на отдельные акватории арктических морей;

지방 역사, 문화와 경제 지역, 뿐만 아니라 북극에서 경제의 법적 조절과 이외의 다른 활동, 포함한 러시아연방의 역사적 권리의 문서화 목적으로 탐사 실행;

и) изучение влияния на здоровье населения вредных факторов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научное обоснование комплекса мероприят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оздоровление среды обитания населения и профилактику заболеваний;

주민 건강에서 주위환경의 해로운 영향 원인 연구, 거주민과 질병 예방의 건강 수단에서 집중적인 과학적 증거와 복합 대책 수립;

к) развитие экспед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целях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х и комплексных научных проектов в Арктике,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북극에서 국제협력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과학 프로젝트를 실현을 목표로 탐험발전 활동

л)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го и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еспечение участия российских научных и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глоб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ах в Арктике.

북극 내에서 글로벌 지역 기술연구 프로젝트에서 러시아 과학자들과 교육기관들의 국제협력 참여보장 가능성을 확보

15.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еди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러시아연방 북극권에서 정보기술 통신 및 단일정보 공간의 형성 목적 하에 예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а) внедр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истем (в том числе подвижных) связи, телерадиовещ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движением судов и полетам и авиации,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зондирования Земли, проведения площадных съемок ледового покрова, а также системы гидро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ого и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учных экспедици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현대적인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도입(모바일 기술을 포함) 연결, 방송, 선박 교통 관리와

항공 지상 원격 감지, 빙하조사, 및 수문기상과 기상 시스템과 과학연구탐험 확보;

б) создание надежной системы оказания услуг связи, навигационных, гидро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их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услуг, включая освещение лед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и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природного и техног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ликвидацию их последствий, эффективный контроль 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и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Арктике,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чет примен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путниковой системы ГЛОНАСС и создания многоцелевой кос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Арктика», модернизации радио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дальнего действия «РСДН-20» («Маршрут»);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빙하 정보를 포함한 항해, 기상 및 정보 서비스, 예측 확보 및 자연 및 인위적인 비상사태의 예방, 및 영향의 제거, 북극에서 글로벌 네비게이션 위성 시스템 GLONASS의 사용을 포함한 효과적인 경제 컨트롤 및 기타 활동, 및 다목적 우주 시스템 «Арктика»의 구축, 장거리 탐색 시스템 «РСДН-20» («Маршрут»)의 현대화;

в)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зволяющей осуществлять оказание услуг связи населению и хозяйствующим субъектам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путем прокладки подводных волоконно-оптических линий связи по трассе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интеграции с сетями связ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모든 러시아 연방 북극권 거주민 및 사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북부항로를 따라 해저 광섬유 부설을 통해 다른 국가와 통신네트워크를 포함한 현대적인 정보 통신 사회간접자본 서비스 구축.

16. В целях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обеспеч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러시아 연방 북극권에서 환경보호 및 자연안보 확보 목적 하에 예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а) обеспечение сохранения б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нообразия арктической флоры и фауны в условиях расшир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глобальных изменений климата, включая: развит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сети арктических особо охраняемых природ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акватор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мониторинг состояния экосистем и объектов растительного мира;

주요 러시아연방 북극과 자연보호지역 망의 확장과 발전 및 세계 생태계와 식물 모니터링;

을 포함한 경제활동과 글로벌 기후변화 확대 속에서 북극의 식물과 동물의 생물학적 다양성 보장:

б) развитие и расширение сети особо охраняемых природ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акватор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주요 러시아연방 북극과 자연보호지역 망의 확장과 발전

в) ликвидац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ущерба, причиненного в результате прошл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военной и и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ключая оценку причиненног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ущерба и реал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очистке арктических морей и территорий от загрязнения;

러시아 연방 북극권 내에서 이전 경제적 활동, 전쟁/기타 활동으로 인해 오염된 북극 바다지역의 청소로 환경 피해의 평가를 포함한 환경오염 제거;

г) минимизация негативного антропоген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условленного текуще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и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ключая: разработку, обоснование и реал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снижению угроз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е, вызываемых расширением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Арктике, в том числе на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принятие мер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федер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на объектах 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и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북극권 주위환경에서 부정적이고 인위적인 작용 최소화, 조건부 현행의 경제, 개발, 근거 및 주위 환경의 낮은 위협의 활동 실현을 포함한 기타 활동으로 대륙붕을 포함한 북극에서 경제활동 증대를 불러일으킨다. 러시아연방 북극권 영역에서 할당된 경제 목적과 기타 활동에서 국가 환경 관리로 효과를 높이는 조치를 취한다;

д)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и объективных и измеряемых показателей оценки состоя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формировании системы наблюдения за состоянием и загрязнением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спользующей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наблюдения наземного, авиационного и космиче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й с существующим и создаваемы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истемами наблюд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обнаружение и прогноз опасных и экстремальных природных явлений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негатив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а также своевременное обнаружение и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природного и техно

г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러시아연방 북극권에서 부정적 기후 변화를 포함한 극단적인 혹은 인위적인 기상현상의 조기발견 및 자연의 비상상황 예측 등의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선, 객체 사용 및 환경 평가의 측정 지표를 기초로 하여, 감시 시스템의 형성 및 현대적 모니터링 수단을 사용하여 지상의 환경오염, 공중 및 우주기반,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 및 국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감지 기능을 제공;

е) разработка и внедр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ханизмов, стимулирующих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рациональное ис

пользование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и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энерго- и ресурсосбережение, утилизацию попутного нефтяного газа в районах нефтедобычи.

광물 및 생물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에너지 및 자원절약, 석유 생산지역에서 석유 가스 이용 유도로 개발 및 재생산을 유도하는 경제 메커니즘 도입.

17. В целях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сохранения Арктики в качестве зоны мир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국제협력과 평화의 영역으로써 북극 발전 목적 하에 예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а) обеспечение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двустороннего и много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приарктиче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а основ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ов и с оглашений, участницей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연방과 국제조약에 의거 된 북극권 국가들 및 러시아연방과 조약에 서명된 국가들의 대외 무역 활동의 효율성을 개선, 상호 이익 확보 및 다자간 협력;

б)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приарктиче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 целях защиты национальных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и и реализац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актами прав прибреж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Арктическом регионе, в том числе касающихся вопросов разведки и разработки ресурсов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шельфа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его внешних границ;

연안국의 국제 규정에 규정 된 러시아의 국가 이익과 권리의 실현의 보호 목적과 대륙붕과 그 외부 국경의 확립 및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북극지역에서 북극인접 국가들과 러시아연방의 상호협력

в) объединение усилий приарк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в создании един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поиска и спасения, а также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техногенных катастроф и ликвидации их последствий, включая координацию деятельности спасательных сил;

북극 연안 국가들의 각각의 구조 기관들의 협력을 포함한 인재(人災) 방지 및 그 영향 제거를 위한 단일의 지역 수색 및 구조 시스템의 구축;

г) укрепление на двусторонней основе и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приарктиче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активиз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а также пригранич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в области эффективного освоения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сохранения природной среды в Арктике;

북극 연안 국가들, 경제 활성화, 화학 기술, 문화협력, 그리고 지역 천연자원의 효과적인 개발 및 북극의 자연 보호 포함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연방과 이웃 지역 기관들과 주요 관계 구조 강화;

д) обеспечение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норвежском архипелаге Шпицберген;

노르웨이의 슈피첸베르겐에서 러시아 영향력 하에서 경제/과학활동 상호이익 보장;

е) содейств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эффективном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ранзитных и кросс-полярных воздушных маршрутов в Арктике, использован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удоходства в рамках юрисдикц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договор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국제 조약에 따른 러시아 연방 관할의 북극에서 왕복 혹은 편도의 항공로 및 국제운송을 위한 북부항로 운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관 조직을 추진;

ж) активизация участия росс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в работ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орумов, посвященных аркт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북극문제를 다루는 국제 포럼에 러시아 국영 기관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충;

з) осуществление регулярного обмена информацией о состояни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а также данными о климате Арктики и его динамике,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систем гидро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их наблюдений за климатом Арктики, в том числе из космоса;

환경 정보의 정기적인 데이터의 교류를 실시하고, 북극 기후의 기상 관측 시스템의 개선으로 우주를 포함한 북극의 기후와 역학 및 국제 개발협력;

и) организация комплекс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экспедиций для изуч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ледовой обстановки, уровня загрязнения морских вод, морских экосистем) и влияния на нее наблюдаемых и прогнозируем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환경연구(빙하 상황, 해수, 해양 생태계의 오염 수준) 및 기후 변화 관찰 및 전망을 위한 국제 복합 과학연구 탐험을 조직한다.

к) развитие диалога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северных стран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в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ки климатической 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지역 기후 연구 및 에너지 정책부문에서 북유럽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간 교류 발전

л)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изма, в том числе рекреационного, научного, культурно-познавательног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오락, 과학, 문화, 환경을 포함한 국제 관광 발전.

18.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щиты и охра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러시아연방 국경 방어와 보호, 군사안보 확보 목적 하에 예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а) обеспечение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оперативного режима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ключая поддерж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уровня боеготовности группировок войск (сил) общего назначе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ругих войск, воинских формирований и орган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уществующим и прогнозируемым характером военных опасностей и военных угро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현재 러시아연방 북극권에 군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타국 군대에 대해 북극권에서 러시아군의 유리한 전술 체제의 확보, 및 군대의 전투 준비;

б) всестороннее обеспечение боевой и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на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ом и достаточном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 недопущения силового давления и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Ро

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ее союзников, обеспечения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России в Арктике и возможностей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г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всех видов ее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в иключите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е и на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м шельф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нейтрализации внешних и внутренних военных опасностей и военных угроз в мирное время, обеспечен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держивания, а в случае вооруж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 отражения агрессии и прекраще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на условиях, отвечающих интереса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포괄적인 군사작전과 동원준비 수준, 러시아연방과 동맹국에 대한 비군사적 압력과 침략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과 충분함, 러시아연방 북극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북극에서 활동의 모든 원활한 실시의 제공측면에서 러시아의 주권적 권리를 확보;

в)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труктуры, состава, воен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ругих войск, воинских формирований и органов,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х базирования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также системы оператив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и в интересах развертывания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сил),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й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задач в Арктике;

구조 조직 개선, 군사 경제와 물류 지원 러시아연방군과, 다른 군대, 군인의 형성과 조직, 러시아연방 북극권에서 군대의 기초 하부구조 발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소에 병력(군대) 배치 및 북극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술 시스템 설치;

г)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контроля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надв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항공공간과 지면 영역의 관리개선;

д)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ехнологий двой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в интересах комплексного решения задач обор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обеспечения устойчив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북극권에서 포괄적인 방어와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발전 이해관계를 위한 이중용도 기술의 사용;

е) проведение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их работ с целью опреде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в перечень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координат точек, определяющих положение исходных линий для отсчета ширины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д,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и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шельфа.

러시아 영해(경제지역 및 대륙붕)의 폭을 알아내기 위한 수로 사업을 수행

IV. Механизмы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IV. ‘북극권 개발전략 2020’의 실행 메커니즘

19. Устойчив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а основе систем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государства, коммерческих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еханизм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ключев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участия государства в устранен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шени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а также созд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механизмов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북극권 국가정책원론 2020 시스템 상호작용으로 러시아연방 북극권의 확고한 사회-경제 발전 실현, 영리 및 비영리 기관과 시민단체가 국가-개인의 파트너십 투자 프로젝트를 실현할 때에 이 메커니즘을 이용, 사회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경제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

20. Основными механизмами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являются:

‘북극권 개발전략 2020’의 실현을 위한 ‘북극권 국가정책원론 2020’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북극권 사회-경제 발전 정부 프로그램;

б) и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е и ведомственные целевые программы, а также отраслевые стратегии, региональные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ограммы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북극권 영역 복합발전의 기타 러시아연방 정부 프로그램, 연방과 대상 부서 프로그램 및 부문별 전략, 지역 및 지방자치 프로그램, 주요 기업 프로그램 정책들의 감독.

21. Приоритет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 сфере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щиты и охраны государс

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еспечиваются реализацией мероприят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ооружения на 2011 – 2020 годы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оронного заказ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х и ведомственных целевых программ и планов по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러시아 연방 북극권에서 국가 프로그램 및 연방 및 부서별 목표 프로그램 등 국가 계획 정책을 실행하여, (명령 국가 병기 프로그램 2011-2020 년 국가 방어구조의 실행 수단을 확보), 군사안보의 영역에서 우선순위 및 러시아연방 국경 방어,

22. Содержание работ и объемы их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определяются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х и ведомственных целевых программ, а также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мероприятий непрограмм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реализацию Стратегии, в пределах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предусматриваемы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а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в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финансовый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연방예산 및 각 회계연도와 계획기간에서 러시아연방의 국가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확정된 예산, 연방과 부서단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비 프로그램 성격의 예산에 부속되어 있는, 배정된 예산 안에서,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실현의 확보 및 연방 예산 사용으로 이해관계가 예견되는 연방집행기관의 사업 순서 및 자금공급.

23. Внебюджетное финанс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на принцип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и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еализацию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социальн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иродоохранных и иных проектов.

예산외 재정 확보 실현 국가-개인 파트너십 원칙, 개발기관 수단방법, 장기적인 인프라, 사회, 혁신, 자연보호와 기타 프로젝트 개발로 국제금융기관과 외국의 투자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실현한다.

24.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базы в сфере формирования ос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закрепления ее статуса как особого объек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 уточнением перечн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х включаются в ее состав, а также в сфере установления особых режимов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судоходства по трассам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예견되는 ‘북극권 국가정책원론 2020’ 러시아연방 북극권 국가관리 형식 범위 에서 규제 근거 향상, 법률제정 근거 지위 확보, 특별한 대상으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목록의 정부 규제근거 상태의 입법통합 할 것인가, 규제근거 형성에서 포함되는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범위에서 특수한 자연사용 제도 및 자연보호 수단 확립 및 북부항로 지정으로 선박 정부규제.

25. Задачи сохран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и обеспечения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Арктики будут решаться на основе утвержд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цепци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меры п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орядка традицион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создания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общин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 охраны земель в местах и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традицион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연방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앞으로 러시아연방의 ‘북극권 국가정책원론 2020’을 기초하여 정부는 북부의 선주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승인으로 북극 토착민의 민족문화 발전 보증 및 이들의 전통적 삶의 모습을 보존 시행, 앞으로 극지 전통 어업 규제 방법 및 토착민 커뮤니티 설립 및 사용으로 그곳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삶과 노동 경제활동으로 땅을 지키는 수단 실현

26.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будет обеспечиваться усилением координ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всех уровней, а также включением вопросов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тратег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федеральных округов 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а также в отраслевые стратегии и программы.

앞으로 모든 수준의 국가 기관에서 조종 활동 제공을 늘릴 뿐만 아니라 연방 관구 및 러시아연방 주체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장기 사회-경제 발전에서 러시아연방 북극 사회발전 문제 삽입, 뿐만 아니라 산업계획과 프로그램에서도 북극권에서 러시아연방 정부통제 시스템 효율 향상.

27. Реализация мероприятий Стратег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формирование системы мониторинга и анализа состоя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уровн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выделением ее в качеств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объек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наблюдения.

러시아 연방 북극권에서 국가 안보의 분석 및 사회 경제적 발전수준 등의 국가 통계의 독립적 객체 관찰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형성하여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실행 대책을 제공한다.

V. Этапы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V.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실행 단계

28. Реализация Стратеги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два этапа.

28. 전략실행을 이루기 위한 두 단계

29.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до 2015 года) обеспечиваются:

2015년도까지 전략 실행을 위한 첫 번째 단계 준비

a) создание необходимых условий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утем комплексн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ключа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й базы и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ордин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убъек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разработку и реализацию ме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активное привле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북극에서 러시아 연방 국가 정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규제 및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 개발 및 경제적 부양책 실행은 러시아연방 북극권의 통합 개발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결성 전제조건이다.

б)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реализа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국가 러시아연방 북극권 기간 2020년까지의 사회 경제 개발 프로그램 형성 및 실행;

в) завершение гидрографических работ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на основании их результатов предложений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несения изменений или пересмотра перечня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координат точек, определяющих положение исходных линий для отсчета ширины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д,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и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шельфа;

러시아 영해(경제지역 및 대륙붕)의 폭을 알아내기 위한 수로 사업 수행

г) обеспеч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правового оформления внешней границы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шельф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еверном Ледовитом океане, недопущение пространственных потерь и худших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прибрежными арктичес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правовых услов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러시아 연방 북극해, 공간 손실의 방지 및 대륙붕의 바깥 쪽 한계의 국제법적 등록 확보 및 최악의 상황을 가정 러시아연방 북극권과 북극해 연안 국가들과의 법적 조건 비교;

д)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береговой охраны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북극권에서 러시아 연방 해안 보안 경비대 구축 및 발전;

е) создание комплекс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центра обработки, передачи и хранения данных, а также сетей мобильной, беспроводной и спутниковой связи и передачи данных)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ервисов (сеть «Интернет», телевидение, связь и другие) органа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физическим и юридическим лицам;

종합 정보 통신 사회간접자본 결성 (처리 센터, 데이터 전송 및 저장뿐만 아니라, 모바일, 무선 및 위성 통신 및 데이터 네트워크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텔레비전, 통신 및 기타) 공공 기관, 개인 및 법인 기관;

ж)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ой готовности, включая создание комплексных аварийно-спас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통합 구조 센터 결성을 포함한 구조 준비 시스템 발전;

з) разработка еди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мониторинга состояния и загряз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нной с аналогичным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истемами;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오염 상태를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 시스템의 발전;

и) обеспечение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проблем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и приклад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на базе профильны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латформ,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научных и гео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основ управления арктически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включая разработку средств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

оборо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также надежно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систем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Арктики;

현대과학 및 북극 지역에서의 지리정보 관리체계 결성, 방위 및 안보 문제해결을 포함한 개발 하여 러시아 연방 북극권에서 응용연구 관련 기술 플랫폼에 기초를 확보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к) реализация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ключая приоритетные проекты по ликвидаци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прошл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и и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по реабилитации арктических морей от ядерно и радиационно опасных объектов;

러시아연방 북극권에서 자연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실행 조치, 과거 경제 및 기타 활동에 의한 환경 영향을 제거, 그리고 원자력과 방사선의 위험 개체로 부터 북극 바다의 재활을 포함한 우선 프로젝트

л) определение м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развития традиционных отраслей хозяйствован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Арктики.

북극 소수민족 전통 경제 사례의 개발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조치

30.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до 2020 год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ереход к устойчивому инновационному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0년 까지 두 번째 단계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지속 가능한 혁신 경제 및 사회 발전으로의 전환

31.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обеспечиваются:

31. 두 번째 단계 준비

а) реализация конкурент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ласти освоения мнерально-сырьевых ресурсов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шельф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러시아 연방 북극에서 대륙붕의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연방의 경쟁 우위의 실현;

б) развитие погранич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тех

ническое переоснащение пограничных органов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의 국경 사회간접자본 발전 및 안보 관련 연방기관의 기술 재정비

в)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единой системы комплексного контроля за надв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ой с участием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ализующих свои полномочия в обла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연방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하나의 종합 컨트롤 시스템의 구축, 러시아 연방 북극에서 국가안보 권한을 실현

г)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комплекс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защиты территорий, населения и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объекто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угроз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природного и техног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주민 및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주요 시설들의 자연적 혹은 인공적 위협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지역보호를 위한 안보 컨트롤 시스템 발전;

д)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многоцелевой косм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Арктика», модернизация радио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истемы дальнего действия «РСДН-20» («Маршрут»);

다목적 우주 시스템 (Арктика) 발전 및 구축, 원거리 네비게이션 시스템 «РСДН-20» («Маршрут») 의 현대화

е) развит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флота, в том числе ледокольного, для решения задач транспорт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арктических районов, а также евразийского транзита;

북극지역들의 수송지원 및 유라시아 수송 문제해결을 위한 쇄빙선을 포함한 함선으로 북부항로의 사회간접자본 발전;

ж) реализация комплекса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долгосрочного неистощите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ключая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тенциала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арктических морей;

러시아연방 북극권에서 북극해의 생물자원의 효과적 사용을 포함한 해양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종합 측정 실현

3) снижение и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негатив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окружающую среду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북극권에서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 및 방지;

и) завершение созд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 целях образования еди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의 단일 정보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현대적인 정보통신 사회간접자본의 완성.

32. Реализация Стратегии обеспечит комплексное наращивание конкурент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целях укрепления позиц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упроч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ддержания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активизацию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북극에서 러시아연방의 위상 굳히기 및 국제 안보 강화,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략의 포괄적인은 구축 경쟁 우위를 제공

33. На всех этапах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ся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циональ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ресурсов и сохранение природной среды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нованные на е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ном науч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모든 단계 조치를 포함한 전략 실행은, 러시아연방의 북극권 자원의 합리적인 사용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목표로 체계적인 종합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VI.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러시아연방 북극권 사회-경제 발전 ‘북극권 국가정책원론 2020’의 특성 과 국가안보 보장

34.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러시아연방 북극권 사회-경제 발전 ‘북극권 국가정책원론 2020’의 특성과 자주 국가안보 확보:

а) соотношение объема привлеченны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финансовых средств (с учетом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на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счет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нтенсифик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общего объема ассигнован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эти цели;

러시아연방 북극권 프로젝트의 실행 공공 - 민간 파트너십의 개발을 통한 국제 협력의 강화 및 이 목적을 위해 연방 예산에서 총 할당 추가 자금의 유치 양의 비율(외국인 투자 포함)

б) соотношение доходов 10 процентов наиболее обеспеченного и 10 процентов наименее обеспеч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й дециль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소득비율 최고 10퍼센트 그리고 10퍼센트 낮은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주민(지역 분위 계수)

в) удельный вес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ресурсной базы (включая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в общем объеме ресурсной базы (в том числе в энергобалансе и энергопотреблени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의 북극권에서 신재생 자원 기반 재생의 공유(전기를 포함) 전체 자원 자료(에너지와 전력 소비에 포함)

г) грузооборот по трассам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북부항로를 통한 물동량

д) коэффициент доступности авиаперевозок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의 북극 지역에서 항공 운송의 경제성 지수;

е) коэффициент естественного прироста населен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1000 человек);

러시아 북극의 인구의 자연 증가의 속도(1000명 당)

ж) доля населен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меющего постоянный доступ к отвечающему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м нормам питьевому снабжению,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북극권 인구 비율, 러시아 연방 북극지역의 전체 인구가 마시는 역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깨끗한 물 공급율;

з) доля загрязненных (без очистки) и недостаточно очищенных сточных вод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сточных вод, сбрасываемых в поверхностные водные объекты;

비 처리 폐수 및 모든 지표 시설에서 배출된 폐수 및 불충분 하게 처리된 폐수 점유율;

и) доля рекультивированных земель от общей площади земель, подвергшихся нарушению, включая земли, подвергшиеся радиоактивному и химическому загрязнению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모든 매립지, 러시아연방 북극권의 위법적인 매립지 및 화학 오염으로부터의 매립지 점유율

к) численность популяций редких и исчезающих видов животных, занесенных в Красную книгу России, обитающих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북극권에 살고 있는 러시아 붉은 책에 나와 있는 희귀 및 멸종 위기 종의 개체 수;

л) доля населения, использующего сеть «Интернет»,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북극권의 모든 인구수로 부터 인터넷 망 사용인구 점유율

м) объем предотвращен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ущерба в результате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탐색구조 활동의 결과로서 피 경제적 손실량;

н) доля продукции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и наукоемки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валовом внутреннем продук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러시아연방 북극권 첨단 기술 상품 및 하이테크 산업 점유율

о) количество экспедиций морски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орских ресурс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й (живых и неживых ресурсов)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해양 과학 연구 탐험의 수, 해양자원 탐험(생물 및 비 생물자원)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모든 무기 수량으로부터의 군사 및 특수 기술 및 군사 및 특수 장비 현대 무기 점유율.

п) доля современных образцов вооружения, военной и специальной техники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общего количества вооружения, военной и специальной техники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북극권에서 현대적인 무기, 특수 기술 특히 군사 및 무기의 전반적인 양질의 점유율

35. Значения основн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определяются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и рассчитываются после выделения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качеств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объек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наблюдения.

36.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остоя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следующими индикативными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사회 경제개발 및 국가 안보 상태 수준 다음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а) увеличение дол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валовом внутреннем продук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 структур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экспорта;

러시아연방의 국가 수출 구조의 국내 총생산 (GDP) 에서 러시아연방 북극권의 점유 증가;

б) рост удельного веса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коемкой инновационной продукции (и услуг) в общем объеме продаж внутр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 экспорте;

모든 러시아연방의 수출 전체 매출에서 지역 지식 기반의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의 비중 증가;

в) увеличение темпов рос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Арктической

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북극권의 기업의 노동 생산성 속도 증가;

г) прирост балансовых запасов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за счет проведения геологоразведочных работ в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북극권에서 지질탐사 비용부담으로 유용한 광물의 보유량 균형 성장;

д) увеличение ожидаемой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жизн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рктической з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연방 북극권 북부 및 시베리아, 극동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예상 기대수명 증가,

VII. Контроль за реализацией Стратегии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실행을 위한 관리

37. Контроль за реализацией Стратеги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실시)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실행을 위한 관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수행한다.

38.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еспечивают системный мониторинг и анализ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Арктике.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ординац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контролю за реализацией Стратегии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уполномоченным федеральным органом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ли рабочим органом, формируем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해 활동의 조정 권한이 부여된 연방 행정당국 혹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해 형성된 통제기관에 의해서 전략 실행통제 시행한다. 러시아 연방 정부, 연방 관련 행정 당국들과 러시아연방 주체 행정 관련당국의 시스템 모니터링을 제공 그리고 북극에서 러시아의 국가 정책의 실행의 분석을 제공한다.

39.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ет ежегодный доклад Президент

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ходе и результатах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39. 러시아 연방 정부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실행에 대한 진행 및 결과를 연례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북극권 관련 뉴스
(2015.10.01 - 2015.12.27. 최신 뉴스 순 정리)**

계용택

2015-12-24 http://polit.ru/news/2015/12/24/arctic_shelf/

☞ 유엔은 2016년 2월에 러시아의 북극대륙붕에 대한 영토를 확장시킬 것이다.

2015-12-24 <http://www.kommersant.ru/news/2884394>

☞ 북극에서의 백색 암곰 살해에 대해 분개하다.

2015-12-24 <http://tass.ru/obschestvo/2552717>

☞ 러시아 국방부 : 북극에서의 곰 살해에 대해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2015-12-23 <http://lenta.ru/news/2015/12/23/bear/>

☞ 러시아 국방부 북극 건설기지 현장에서 북극곰에게 폭발물을 먹이다.

2015-12-23 <http://fishretail.ru/news/na-predsdatelstvo-rf-v-sovete-barentse-vaevroarkticheskogo-353362>

☞ 바렌쯔해 및 유럽북극지역 위원회는 러시아 대표부에 3천만 루블을 제공한다.

2015-12-22 <http://lenta.ru/news/2015/12/21/oilbact/>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생물학자들은 북극에서 1백여 개의 석유분해 박테리아를 분리해 내다.

2015-12-21 <http://tass.ru/armiya-i-opk/2544517>

☞ 극동지역에 북극 육군항공대학 참모부를 위한 얼음 사격장이 만들어 지다.

2015-12-18 <http://polit.ru/news/2015/12/18/kamov62/>

☞ 2016년에 북극에서 여객수송을 위한 헬기가 운용될 것이다.

2015-12-16 <http://www.uralinform.ru/news/society/242897-globalnoe-poteplenie-arktiki-pobila-temperaturnyi-rekord-poslednih-115-let/>

☞ 지구온난화 : 115년 만에 북극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온도에 도달하다

2015-12-14 <http://fishretail.ru/news/pravitelstvo-pereraspredelilo-obyazannosti-vnutri-arkticheskogo-soveta-353058>

☞ 러시아 정부는 북극위원회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들을 재조정 하다.

2015-12-12 <http://www.ng.ru/news/526969.html>

☞ 고고학자들은 북극에서 고대의 사냥꾼들이 흰색 곰들을 사냥하여 먹은 흔적을 발견하다.

2015-12-11 <http://www.ng.ru/news/526911.html>

☞ 러시아는 북극에서 4곳의 군사기지 건설을 완료하다.

2015-12-09 <http://www.kommersant.ru/news/2872793>

☞ 북극에서 C-300 대공미사일 시스템이 전투작전을 위해 가동에 들어간다.

2015-12-08 <http://www.kommersant.ru/news/2872267>

☞ 러시아 군사령부 : 러시아는 2015년에 북극 2개의 지역에서 C-400 대공미사일 시스템 부대를 운영하다.

2015-12-08 <http://lenta.ru/news/2015/12/07/arcticarctic/>

☞ 북극에서 올해 말까지 군사기반시설에 필요한 400개의 시설물들을 건설할 것이다.

2015-12-07 <http://fishretail.ru/news/uchenie-tinro-proveli-unikalnuyu-ekspeditsiyu-po-352819>

☞ 북극해 생물자원 연구소의 학자들은 북극에서의 독특한 탐사를 시행하다.

2015-12-07 <http://24rus.ru/more.php?UID=128973>

☞ 드미트리 로고진은 북극발전에 필요한 우선순위 목록들을 점검하다.

2015-12-07 <http://lenta.ru/news/2015/12/07/rogozin/>

☞ 로고진은 북극대를 건너는 '추운 비단길' 건설을 제안하다.

2015-12-07 <http://24rus.ru/more.php?UID=128966>

☞ 빅토르 톨로콘스키이 : 북극은 미래에 있어 많은 프로젝트의 산실이 될 것이다.

2015-12-07 <http://echo.msk.ru/news/1672450-echo.html>

☞ 러시아 군사령부 : 북극에서 6곳의 군사기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2015-12-07 <http://www.ng.ru/news/526307.html>

☞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북극의 오늘과 내일' 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5-12-07 <http://24rus.ru/more.php?UID=128957>

☞ 빅토르 톨로콘스키이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북극포럼에 참석하다.

2015-12-04 <http://24rus.ru/more.php?UID=128892>

☞ 러시아에서 북극영토의 안전보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린다.

2015-11-30 <http://lenta.ru/news/2015/11/30/arctica/>

☞ 2016년에 북극에서 러시아 낙하산 부대는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할 계획이다.

2015-11-27 <http://tass.ru/ekonomika/2479563>

☞ 북극에서의 어업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2015-11-25 http://polit.ru/news/2015/11/25/arctic_helicopter/

☞ 러시아 국방부 : 북극에 최초의 Ми-8АМТШ-ВА 헬기가 공급된다.

2015-11-24 <http://echo.msk.ru/news/1664036-echo.html>

☞ 러시아 북극지방에서 '북극의 수호자' 라고 불리는 군사기지 건설 근로자 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다.

2015-11-23 <http://lenta.ru/news/2015/11/23/clash/>

☞ 러시아 북극 군사기지 건설에서 하도급 계약의 파기로 특수건설업자들이 하도급업자를 비난하다.

2015-11-23 <http://echo.msk.ru/news/1663736-echo.html>

☞ 북극에서의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수백 명의 건설노동자들은 돈과 식량이 없어 건설현장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2015-11-21 <http://tass.ru/politika/2460204>

☞ 돈스코이 : 2016년 가을에 북극발전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국가두마에 제출할 것이다.

2015-11-20 <http://tass.ru/politika/2456931>

☞ 로고진 :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은 아마도 북극에 군대를 주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2015-11-20 <http://www.ng.ru/news/524494.html>

☞ 로고진 : 북극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기지는 경제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015-11-20 <http://24rus.ru/more.php?UID=128442>

☞ 북극개발은 러시아의 국가이데아가 발현되는 것이다.

2015-11-20 <http://lenta.ru/news/2015/11/19/chinanorth/>

☞ 러시아 환경자자원부는 북극개발에서의 중국 참여를 지원하다.

2015-11-19 <http://tass.ru/politika/2452107>

☞ 푸틴 : 북극포럼은 유망한 프로젝트 실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15-11-18 <http://www.kommersant.ru/news/2856543>

☞ 미국과 러시아는 북극포럼의 범위 안에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5-11-17 <http://www.uralinform.ru/news/society/241181-arkticheskii-volk-objivaet-ekaterinburgskii-zoopark/>

☞ 북극의 늑대는 예카테린부르크 동물원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다.

2015-11-16 <http://www.kommersant.ru/news/2855224>

☞ 로스네프치는 북극사주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의 참여를 논의하다.

2015-11-11 <http://fishretail.ru/news/rossiyskie-uchenie-issleduyut-ribnie-zapasi-arktiki-351904>

☞ 러시아 학자들은 북극지역에서의 어류자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다.

2015-11-07 <http://tass.ru/armiya-i-opk/2412703>

☞ 발트함대 선박 '알렉산드르 푸쉬킨'호가 북극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발틱으로 돌아오다.

2015-11-07 <http://tass.ru/nauka/2413444>

☞ 학자들은 제비갈매기의 발에 표식을 달아 북극에서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다.

2015-11-03 <http://tass.ru/politika/2404220>

☞ 러시아 안보위원회 비서 :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의한 북극에서의 대규모 자원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2015-11-03 <http://24rus.ru/more.php?UID=127869>

☞ 러시아 국방부 소속 부대들이 북극지역 쓰레기 청소 계획을 초과달성 하다.

2015-11-02 <http://lenta.ru/news/2015/11/02/usa/>

☞ 미국 국무성은 러시아의 인공위성 '북극' 에 필요한 부품들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다.

2015-11-02 <http://polit.ru/news/2015/11/02/arctic/>

☞ 러시아 북극위성 '북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발사가 연기되다.

2015-10-31 <http://lenta.ru/news/2015/10/30/arctic/>

☞ 대중매체들은 북극 러시아 군사시설 건설 근로자들의 파업 소식을 전하다.

2015-10-29 <http://lenta.ru/news/2015/10/29/arctictour/>

☞ 러시아인들에게 휴일 북극 관광을 권유하다.

2015-10-22 <http://news.tut.by/world/469665.html>

☞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극에서의 대규모 군사기지 구축에 대해 설명하다.

2015-10-22 <http://www.kommersant.ru/news/2837709>

☞ 세르게이 쇼이구 : 러시아는 2018년 까지 북극부대 그룹을 창설할 것이다.

2015-10-17 <http://www.kommersant.ru/news/2835072>

☞ 미국은 북극에서의 자신의 경제수역 임대를 거부하다.

2015-10-16 <http://lenta.ru/news/2015/10/16/stariyoskol/>

☞ 러시아 잠수함 '스타리 오스콜'은 북극에서 시험 항해를 실시하다.

2015-10-16 <http://lenta.ru/news/2015/10/15/dolgorukiy/>

☞ 미사일탐재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는 북극에서 최초로 원거리 항해를 실시하다.

2015-10-14 <http://lenta.ru/news/2015/10/14/arctic/>

☞ '우랄 차량공장'은 북극용 장갑수송차 제작에 들어간다.

2015-10-13 <http://www.kommersant.ru/news/2831585>

☞ 러시아는 2017년 까지 유럽북극지역 위원회 의장국이 된다.

2015-10-12 <http://tass.ru/proisshestiya/2336726>

☞ 러시아 구조잠수부는 북극해에서 노르웨이 유조선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2015-10-09 <http://24rus.ru/more.php?UID=127071>

☞ 연방위원회 소속 북극관련 전문가회의 간부회 : 극지방 지역들에서 거주하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2015-10-08 <http://lenta.ru/news/2015/10/08/clone/>

☞ 북극에서 맘모스 복제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유골들이 발견된다.

2015-10-07 <http://tass.ru/nauka/2324111>

☞ 칠린가로프 : 학자들은 북극에서 특정국가에 의한 대륙붕 점유 여부를 규정하여야 한다.

2015-10-06 <http://lenta.ru/news/2015/10/06/arcticvisa/>

☞ 프리모르 정부 : 단기 북극투어를 위하여 러시아 입국 비자정책을 폐지하여야 한다.

2015-10-05 <http://tass.ru/armiya-i-opk/2318612>

☞ 러시아 북극의 '사냥꾼' 단지에서 북극에 거주하는 군인들에 대한 통제실험에 들어간다.

2015-10-05 <http://tass.ru/armiya-i-opk/2317960>

☞ 러시아 국방부 : 러시아 공수부대는 북극에서 얼지 않는 축전지를 개발하다.

연구단과 북극 관련 주요 보도자료

권세빈

1. 러시아, 북극에 방공기지 구축

러시아가 북극에 방공(air defence)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극지역에서 건설 중인 새 해군기지를 포함해 스레드니(Sredniy)섬 방공기지에 군함 한 대를 파견했다. 또 쇠빙선 한 대는 '북극 함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빙하 사이로 수로를 만들고 있다. 스레드니섬 이외에 알렉산드라·로가체보·케이프 슈미트·랑겔 앤 코텔니 섬에서는 노동자 1500명이 섬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신(新)해군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북극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빅토르 소코로프 해군준장은 함대가 카라해에 도착했을 때, 군용헬리콥터를 타고 가 스레드니에서 기지건설 상황을 점검했다. 냉전 시기 구소련은 이 지역에서 핵무기 실험을 한 바 있다. 러시아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군이 자국 국경에까지 영향권을 확대했기 때문에 북극 병력을 증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극해 빙하가 녹으면서 배가 접근하기 쉬워졌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 탐사가 이전보다 수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30_0010321290&cID=10101&pID=10100 (검색일: 2015.09.30).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한 마디]

이 기사에 언급하는 방공기지는 겉으로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미래동력 차원으로서 북극 공간을 이용하려는 러시아의 목적을 알아차릴수 있다. 더불어 기사 본문에 나오는 러시아의 신 해군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극이라는 공간을 열기 위해 준비하는 국가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2. 국제유가 대 상승 오나? 북극해 유전 개발 포기로 생산 차질 우려, 엑손모빌·임페리얼 오일·영국BP이러 로열더치셀도 철수

로열더치셀이 북극해 유전 개발을 전격 포기했다. 탐사에 착수한지 9년만이다. 거액을 들여 탐사를 하고도 경제성있는 원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로열더치셀의 북극해유전 개발 포기는 국제유가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럽의 최대 정유회사 로열더치셀은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북극해 유전개발의 공식포기를 선언했다. 로열더치셀은 북극해에서 지난 9년 동안 탐사에만 70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로열더치셀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알래스카 연안 추쿠치해

유전에 40억 배럴이 넘는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공언해왔다. 또 미국 정부에 개발 신청을 내 미국 정부로부터 24년 만에 처음 북극해 유전 개발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정을 정밀 시추한 결과 원유와 천연가스의 흔적은 발견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원유에 더이상 연연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로열더치셸의 이번 북극해 유전 개발포기에는 환경단체와 주주들의 압력도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다. 환경단체들은 북극해 유전 개발이 북극곰, 바다코끼리, 물개, 고래 등 현지 동물 생태계에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줄곧 개발 중단을 촉구해왔다. 도이체방크는 셸의 북극해 유전 개발 중단 결정에 따른 손실이 100억 달러 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이미 70억 달러는 투입된 상황이고 거기에다 철수 비용 40억 달러까지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로열더치셸의 한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회복돼도 당분간은 북극해 유전 개발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9291452065473323_1/article.html (검색일: 2015.09.30).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한 마디]

이 기사는 미래동력 차원으로서 북극이라는 공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해 준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한정치를 늘려줄 마지막 장소가 모두들 북극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현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로열더치셸은 북극해 유전 개발을 전격적으로 포기하였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나오는 자원이 투자대비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실상이다. 개발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그와 반대로 유가 급락이 그중 가장 큰 원인이다. 이 기사는 미래시장으로서 북극공간이 아직은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3.CJ대한통운, 북극항로 국내 첫 상업운항 성공... 본보, 항해일지 입수

올해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 UAE의 뭇사파 항에서는 김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8명과 미얀마 선원 11명이 탑승한 CJ대한통운의 배가 출발했다. 김 선장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길이 100m에 무게가 4800t에 이르는 초대형 중장비를 신고서 난생처음으로 가 보는 북극항로를 통해 러시아의 야말 반도 인근 해상까지 가야 했기 때문이다. 김 선장은 본보와의 위성 통화에서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있지만 유빙(流氷)과의 충돌로 침몰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실시간으로 북극의 유빙과 날씨 정보를 파악해 운항해야 해서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번 운항은 한국 기업이 북극항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운항해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극항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아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게 된 바닷길. 이 항로가 주목받는 것은 기존보다 거리와 운항 일수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통상 한국 광양항에서 러시아 우스트루가 항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기존의 인도양을 경유할 때보다 거리는

7000km, 운항 기간은 10일이 단축된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야말 프로젝트의 중심지인 야말 반도의 에너지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CJ대한통운이 이번에 운송한 중장비의 화주는 엔지니어링 기업인 블루워터. 이 회사는 전 세계 최대 가스회사인 러시아 가스프롬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CJ대한통운 측은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육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 사업을 수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극지 수송으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평시보다 15% 가량 높은 물류운송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출처:<http://news.donga.com/3/all/20151005/74015497/1> (검색일: 2015.10.06).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한 마디]

이 기사는 지난번 본인이 선정한 기사의 두 번째 이야기이다. 그때는 출발을 하였지만 이 기사는 출발이 도착으로 이어져 성공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현대글로벌비스가 2013년도에 시험 운항을 한 뒤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실제 상업적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한 사례이다. 또한 야말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개발을 보며 한국기업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야 함을 알려준다. 특히 KARG의 한중만 단장은 “일본과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북극항로 및 에너지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한국 기업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루블화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에서 각광을 받는 지역이 바로 아말 지역임을 알려준다. 또한 그 아말 지역 개발을 더욱 용이롭게 하기에는 북극항로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4. 기획/ 청사진 밝은 유라시아, 현실은 ‘암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 경제대국과 카자흐스탄 등 자원 부국들이 몰려있는 유라시아. 세계 인구의 75%인 45억명이 살고 있는 이곳은 전세계의 40%를 차지하는 4492만km²의 면적을 자랑한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세계 에너지 자원의 4분의3이 묻혀 있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기도 하다.

북방물류시장은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 북한 나진선봉 등 두만강 하류지역과 함께 내륙국가로서 출해권 확보가 절실한 몽골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블라디보스토크와 모스크바를 잇는 9297km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련윈강과 우루무치, 알라산커우를 잇는 4018km의 중국횡단철도(TCR), 만저우리과 자바이칼을 잇는 7700km의 만주횡단철도(TMR), 텐진과 울란데를 잇는 1110km의 몽골횡단철도(TMGR)가 연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 세계 3차물류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8.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북방물류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물류 시장은 약 2.8조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아시아 중산층 소비 증가, 제조업 부가가치 상위 15개국 중 아시아 5개국을 포함한 세계 10대 항만이 모두 아시아에 소재하는 등 기본적으로 아시아 물류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유라시아 거대시장을 두고 중국, 러시아, EU 등 많은 나라들이 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해 각축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극동러시아개발과 TSR현대화를 추진 중이고, 중국은 신실크로드 경제권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펴고 있다. EU도 동유럽국가회원국을 확대해 유럽통합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상해 추진 중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와 러시아 중국, 유럽을 철도로 연결해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구축, 거대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북방의 초입인 극동지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거점이자 유럽과 아·태지역간 교통·물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닦는다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2013년 발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진 못했다. 유라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상황과 관련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진-하산 간 석탄 시범운송사업이 진행됐을 뿐이다.

지난해 11월 현대상선이 중국선박을 이용해 러시아 석탄 4만t을 적재하고 북한 나진항으로부터 포항까지 시범운송을 완료했으며 올해 4월에는 현대상선과 유니코해운이 참여해 러시아 석탄 13만t을 나진항에서 광양항까지 수송 한 바 있다.

출처:http://www.ksg.co.kr/news/news_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search&pNum=105044 (검색일: 2015.10.16).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한 마디]

이 기사에서 나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본인이 입학할 때부터 강의때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도 나오듯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물류를 우리나라가 선점 할 수만 있게 된다면, 단 기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만강 하구가 북극물류의 허브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북극시장을 위해 북한과의 정치 경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하락은 북극공간 개발을 침체기에 집어넣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침체기임을 감안하여 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시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북극공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얼어붙는 콜드러시(Cold rush·북극 유전개발)...유가 하락에 유전개발 중단 잇따라

과거 석유가격의 폭등은 북극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개발에도 불을 붙였다. 미국에서 오일샌드 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개발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유가는 계속해서 떨어졌고 북극해 유전의 경제성도 하락 중이다.

셸, BP 등 석유 메이저 회사들은 배럴당 70달러 선이 유지돼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

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도 알래스카 유전에서 1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비용을 35~40달러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유전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분석했다.

물론 북극을 향한 석유 기업의 욕망은 끝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석유 기업 ENI는 쉘의 북극 유전개발 철수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까지 5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노르웨이 지역 북극해에 대한 유전 시추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도 엑손모빌 등과 함께 내년까지 카라해와 바렌츠해의 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른 석유 기업들도 유가가 100달러선까지 회복되면 다시 북극을 포함한 새로운 원유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52871 (검색일: 2015.10.18).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한 마디]

이 기사는 현재 유가가 북극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철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환경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가 투자 후 이익을 가장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은 중국을 들겠지만, 지속적인 이익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이어나가는 등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투자 지역은 북극이다. 북극개발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업하여 그들과 원만한 정치·경제적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만한 관계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서도 말하듯, 잠시 멈춘 것일 뿐 그만둔 것이 아니다. 북극은 버릴 공간이 아니라 개발을 해야 할 공간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

6. "2030년 북극항로 완전 개통되면 두만강 하구는 골든 트라이앵글"

중국 연변대 안국산 경제연구소장은 이날 "2030년 북극 항로가 완전 개통하면 중국 훈춘, 북한 나선, 러시아 자루비노가 인접한 두만강 하구는 동북아의 '골든 트라이앵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신실크로드)' 전략 가운데 해상 실크로드는 남중국해를 반드시 지나야 하지만 현재 영유권 문제를 놓고 필리핀·베트남 등과 마찰이 있다"며 "앞으로 북극 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북·중·러 점점인 두만강 하구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일대일로가 본격화하면 남중국해는 해상 실크로드의 남방 출입구, 동해는 북방 출입구가 된다는 설명이다. 안 소장은 "두만강 하구는 중국의 동북 진흥 전략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개발'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 절묘하게 만나는 곳"이라고 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북극 항로를 처음 왕복 운항했으며, 한국도 북극 항로의 상업 운항을 시작한 상태다. 미하일 콜로사 러시아 극동 해양연구소 물류실장은 이날 "이 지역은 해상 물류망은 물론 철도를 이용한 육상 물류망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9/2015102900208.html (검색일: 2015.10.29.)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한 마디]

이 기사는 두만강 하구를 잘만 이용하면, 수에즈 항로보다 소요시간이 42%나 단축하는 북극 항로의 출입구 역할로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북한 문제였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는 통일이 가져다 주는 기회비용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 있다. 본인은 그 책을 읽으며 통일이 되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 창출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요새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잇따른 정유회사의 개발 철수 등 북극항로 뿐만 아니라 북극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진 대한민국은 바다를 이용해서 무역을 해야 한다. 바다가 안되면 하늘을 이용해서라도 무역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바다시장을 찾아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북극이다. 우리에게 북극은 개발을 하려는 곳이 아니라, 개발을 해야 하는 곳이다.

7. 중국 '황금운하' 북극항로 개척 나서...한국 '대양강국' 헛구호

중국의 북극항로 개척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방위적 신(新)밀월 관계를 구축한 러시아 및 새로운 경제파트너로 떠오른 유럽과의 교류확대속에서 중국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북극항로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북극항로 개척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지만, 정부지원을 등에 업은 막대한 자금력과 인프라, 거대한 원자재 물동량 등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다.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인 중국이 자력으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 정부 또한 '대양 강국'이라는 구호하에 북극항로 개발을 강조하며 기업을 독려하고 있으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현실적 한계에 직면한 기업 입장에서 북극항로 개척은 아직까지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무모한 도전'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출처:<http://www.ajunews.com/view/20151028154308652> (검색일: 2015.10.29.)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한 마디]

이 기사는 북극 개발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이 기사를 이렇게 보고 있다. '금고 속 다이아몬드'. 정부와 기업은 북극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크게 될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그 이득을 취하기에는 지금 현 상황이 그 금고를 열거나 부수기에는 아직 득보다는 실을 감내하면서 버텨야한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힘들음을 견디지 못하고 성공을 이룩하지 못할수는 없다. 가만히 자리에서 구경을 하는 사이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이에 본인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펴서라도 기업들이 활발히 북극개발을 진행시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북극연구 1호 목차

발간사

- 북극연구단 단장 인사말
- 축사 배재대학교 총장 김영호
- 축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김영호
- 축사 외교협회 회장 정태익
- 축사 주 노르웨이/주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대사 이병화

논설

- 연구단의 연구방향: 한국연구재단 제안서 중심(한종만/김정훈)
- 북극지역의 지정학, 지경학, 지문화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한종만)
- 북극공간의 개념 정의(한종만)
- 북극 거버넌스(배규성)
- 북극권 분쟁 및 신냉전(양정훈)
- 북극의 교통(박종관)
- 지경학적 관점에서의 북극지역 연구방향성(예병환)
- 알래스카, 왜 ‘루스까야 아메리카’라 하는가(김정훈)
- 북극권 서부 소수 민족의 언어적 특징 비교: 네네츠, 코미, 만시, 이누이트를 중심으로(서승현)
- 북극의 생태환경과 환경변화(이재혁)
- 북극 소수민족 에벤키족의 풍속과 언어(계용택)
- 북극 연구기관 소개: ①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이재혁)

부록

- 북극권 관련 러시아 뉴스(계용택)
- 국내 북극권 연구자료 스크랩(권세빈)

북극연구단 소개

북극연구 2호 목차

북극연구단 단장 인사말

논설

- 북극이사회의 회원국/단체명과 조직 현황(한종만)
- 거버넌스 대 양자주의: 북극해 해양분쟁과 러시아-노르웨이 바렌츠해 조약(배규성)
- 북극의 지정학적 갈등(양정훈)
- 러시아 교통물류 발전전략의 중심 -《북극》(박종관)
- 북극항로의 개발현황과 향후 전망(예병환)
- 제정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양도된 북극의 땅, 알래스카의 소개(김정훈)
- 러시아 북극 지역 연방주체의 문장(서승현)
- 북극해의 수산자원과 어업(이재혁)
- 에벤키족의 전통문화와 놀이(계용택)

북극 연구기관 소개: ②러시아 극지연구소: 러시아 북극과 남극 연구소(박종관)

부록

- 2011-2014년 주요 북극 소식(한종만)
- 북극권 관련 뉴스: 2015.03.01 -2015.06.09. 최신 뉴스 순 정리(계용택)
- 뉴스자료 원문번역 1-2(박종관)
- 연구단과 북극 관련 주요 보도자료 요약(권세빈)

북극연구단 소개

북극연구 3호 목차

논설

- 러시아의 교통정책과 베링해협터널 프로젝트(한종만)
- 북극 공간의 개념 정의: 자연구분과 인문구분을 중심으로(한종만)
- 자료: 2011-2014년 북동항로 경유 통과 선박 내역(한종만)
- 북극 또는 북극권 : 연구대상 및 접근법의 셋팅(배규성)
- 2050 북극해(양정훈)
- 북극 이사회(北極理事會, Arctic Council)의 구성과 최근 활동(서승현)
- 북극권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김정훈)
- 북극의 관문: 러시아 아르한겔스크(Архангельск) 기행(박종관)
- 북극권 지역으로서의 러시아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관광자원(이재혁)
-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전통 놀이들(계용택)

북극권 개발전략 2020 원문번역(백영준)

북극 연구기관 소개: ②극지연구소(진동민: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북극 연구기관 소개: ③노르웨이 FNI연구소(권세빈)

부록


- 북극권 관련 뉴스: 2015.06.01 -2015.09.22. 최신 뉴스 순 정리(계용택)
- 연구단과 북극 관련 주요 보도자료 요약(권세빈)

북극연구단 소개

연구단 소개

 <p style="text-align: right;">연구책임자</p> <p>한종만(韓種萬, Han, Jong-Man) 독일 뮌헨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북극연구단 단장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mhan@pcu.ac.kr 논저: “러시아 극동바이칼지역의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과 한러 경제협력의 시사점(2014)”, “러시아 북극권 지역에서의 자원/물류 전쟁(2014)”, “러시아 현대화전략의 가능성 및 시사점(2012)”,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 (2014), 『TKR 건설, 북한을 열고 세계를 뚫다』 (2013),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 (2010) 등</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연구원</p> <p>계용택(桂鏞澤, Ke, Yong-Tek)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러시아리서치 센터 대표 e-mail: dovri@hanmail.net 논저: 『러-한 경제용어』(2013) 『러-한 의학용어』(2013) 『러-한 화학용어』(2013) 등</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연구원</p> <p>김정훈(金正勳, Kim, Jeong-Hun)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 박사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e-mail: jhkrm@pcu.ac.kr 논저: “‘한·러 수교’ 이후의 한국 내 시베리아 지역 연구현황(2010)”, “러시아 극동 지역의 조직범죄와 마약범죄에 관한 현황적 분석(2010)”, “러시아 극동지역 범죄증가 현상의 사회·역사적 요인(2014)” 등</p>	 <p style="text-align: right;">박사급연구원</p> <p>박종관(朴鍾寬, Park Jong-Kwan)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현) 한국교통대학교 e-mail: parkjk7377@naver.com 논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2009)”, “중앙아시아 - 세계 지정학 전쟁의 투기장(2011)”,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살펴본 러시아의 유라시아 커뮤니티 시스템: 중요성과 제한(2014)” 등</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연구원</p> <p>배규성(裴奎星, Bae Kyu Sung)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국제정치학박사 현) 한국-카자흐스탄 기술협력센터 센터장 e-mail: baeks777@pcu.ac.kr 논저: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과 부패현상 - 국유기업을 중심으로(2013)”, “악의 삼각축: 조직범죄`부패`테러리즘 - 러시아 마피아를 중심으로(2011)”, 『러시아 북극권의 이해』(2010) 등</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연구원</p> <p>서승현(徐承顯, Seo, Seunghyun) 미국 Indiana University 슬라브언어학 박사 현) 경기대학교 강사 e-mail: seoseung5@hanmail.net 논저: “사할린 인구 감소 현상과 그 원인(2014)”, “Consonantal Devoicing and Assimilations/Dissimilations Phenomena in Chukchee(2011)”,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German, and Polish Diasporas in the Russian Far East & Central Asia and the Results of Repatriation to Their Homelands(2010)" 등</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연구원</p> <p>양정훈(梁庭熏, Yang, Junghun) 러시아외교아카데미 국제정치학 박사 e-mail: jhyang@suwon.ac.kr 현) 수원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논저: “극동연해주 지역 한국과 러시아의 농업협력(2013)”, “한국의 대외정책 및 러시아와의 관계(2013)”, “한국의 대외정책 및 러시아와의 관계(2013)” 등</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연구원</p> <p>예병환(芮秉煥, YAE Byung-Hwan) 독일 Bamberg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대구대학교 강사 e-mail: yaebh@pcu.ac.kr 논저: “Die handelsbeziehungen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nach dem Zweiten Weltkrieg, Franz Steiner Verlag, Stuttgart,(1997)”. “푸틴시기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2010)”,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과 부패현상-국유기업을 중심으로(2013)” 등</p>

 <p style="text-align: right;">공동연구원</p> <p>이재혁(李在赫, Yi, Jae-Hyuk) 독일 키일대학교/경희대학교 지리학박사 현)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e-mail: yijh@hallym.ac.kr 논저: “Koreanische Migration nach Russland(2002)”, 『러시아 사할린 한인 인 구의 형성과 발달』 (2010), 『북극, 한국의 성장공간(공저)』 (2014) 등</p>	<p>[공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3월 창간한 본 전자저널 ‘북극 연구(The Journal of Arctic)’는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2014년 12월-2016년 11월)의 일환으로 창간한 ‘북극연구단(KARC)’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호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잡지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p style="text-align: right;">보조연구원</p> <p>백영준(白榮準, Baek, YoungJun) 배재대학교 대학원 동북아경제통상학과 석 사과정 졸업 e-mail: kiseling@daum.net</p>	 <p style="text-align: right;">연구보조원</p> <p>권세빈 (權世賓, Kwon, Se-Bin) 현) 배재대학교 러시아학, 경영학 전공 e-mail: soqo12@naver.com</p>
---	---

자문위원

이병화	주 노르웨이/주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대사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홍성조	극지연구소 자문위원